

WEEDS AMONG THE WHEAT : Discernment-Where Prayer and Action Meet

밀밭의
가라지 : 기도과 행함이 만나는 곳



이 책, 토마스 그린(Thomas Green)의 <밀밭의 가라지>는
<Weeds among the Wheat>를 번역한 것으로서,
번역 어휘들이 윤양석 신부님의 <영신수련> (구)번역본을 따른 것
이기 때문에
정체천 신부님의 <영신수련> (신)번역본에서 사용한 어휘와 차이가
나는데,
특별히 유의해야 할 어휘들은 아래와 같다.

1. (영적) 위안 - 윤양석의 영신수련 옛 번역본과 밀밭의 가라지
(이 책)에서 사용한 어휘
= (영적) 위로 - 정체천의 영신수련 새 번역본
= (spiritual) consolation - 영신수련 책의 영문 공통 어휘;
Weeds among the Wheat(이 책)에서 사용한 어휘

2. (영적) 고독 - 윤양석의 영신수련 옛 번역본과 밀밭의 가라지
(이 책)에서 사용한 어휘
= (영적) 실망 - 정체천의 영신수련 새 번역본
= (spiritual) desolation - 영신수련 책의 영문 공통 어휘; Weeds
among the Wheat(이 책)에서 사용한 어휘

차례

머리말 · 5

제1부 발걸음

1. 성서적 토대 : 선하고 악한 예언자들 · 17
2. 식별하고 또 식별되는 예수 · 37
3. 우리네 식별의 분위기 · 65

제2부 좋은 씨앗 뿌리기

4. 훌륭한 선택에 알맞은 좋은 시기 · 97
5. 하느님의 전술과 적의 전술 · 116
6. 초심자와 고독 · 137

제3부 뒤섞인 추수

7. 투신과 위안 · 165
8. 가라지의 가치 · 191
9. 밀이 익어가면 : 식별력 있는 사랑 · 215

맺음말 · 239

부록-실습문제 · 255

머리말

기도와 활동이 만나는 곳

오늘의 우리들은 교회 역사상 어느 때보다 식별(識別)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말하자면 식별은 이 시대 신앙계에서 보편화된 용어인 것이다. 수도자 및 수도 공동체는 각자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환경 속에서 자신에 대한 주님의 뜻을 식별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은사 공동체는 기도 모임에서 나타나는 예언적인 말씀의 출처와 의미를 식별한다. 젊은이는 자기 소명을 식별하고, 나이 든 사람은 이미 선택한 소명을 생활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도전과 기회의 의미를 식별한다. 공동 식별자인 영적 지도자는 비교적 단순했던 과거 시대와는 달리, 지도받는 사람에게 하느님의 뜻을 알려주는 단순한 소명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끌어 그 안에 일고 있는 성령의 부르심을 성숙하게 이해하도록 인도하는 해석자가 되기를 요구받고 있다.

우리가 이처럼 온갖 다양한 전후관계와 연결해 식별을 이야기하다 보면 식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감지 못 할 수도 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교회 안에서 보완성과 협동성이 새롭게 강조되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생활화하

고 선포하는 일에 책임감 있는 예언자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구받아 왔다. 우리가 알기로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되 덜 권위주의적인 자세를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우리 각자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성령과 직접 관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저 지도자를 따르면서 하느님의 뜻이 위로부터 자동적으로 내려오기만 기다려서는 안 된다.

하느님의 설계 속에서 권위가 여전히 정당한 제 위치를 갖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3장에서 지적했듯이, 권위가 우리네 삶을 위한 주님의 계획과 관련해서 완벽하게 규명될 수는 없는 것이다.(이제까지 실제로 그래본 적도 없었다.) 권위가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네 삶에 필요한 보편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총체적인 골격 속에서 우리 각자는 생활화해야 할 독특한 개별적 소명을 갖게 된다. 주님한테서 완전히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도 동일한 삶을 살지 않는 것이다. 이 점은 매우 분명하다. 이는 유쾌한 도전이요, 20세기 그리스도교의 생활에서 가장 흥분되고 희망적인 측면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도 없지 않다. 실질적으로 하느님의 뜻이 교회 웃어른들의 명령을 통해 선명하고 정확하게 표출되던(아니면 표출되는 것처럼 보이던) 이전 시대에는 비교적 살기가 편했다. 해묵은 교회법전이나 사목자들과 주교들의 낡고 전제적인 통치양식의 족쇄들 때문에 안달하기도 했지만, 적어도 금요일에 고기를 먹으면 대죄가 되고 주일미사에 빠지면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중대한 과오가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 영원한 사춘기에 머물러 있기로 걱정하면 우리의 안전은 보장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느님께 성숙하고, 책

임 있는 순종을 하도록 부르심받고 있다.

성숙의 대가—불확실성,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개별적인 책임, 혼자 힘으로 하느님을 ‘알고’ 그분의 길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은 흔히 불안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필경 ‘영적인 사람’은 ‘무엇이나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자신은 아무에게서도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자로 묘사한 직후에 이어지는 바오로의 말이 진실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안다. “형제 여러분, 나 역시 여러분에게 영적 인간들이 아니라 육적 인간들을 대하듯,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직 어린아이를 (같은 사람들)을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여주었지 단단한 음식을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지금도 아직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1고린 3,1-2)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입장이 되어 있는 것일까? 필경 아직도 주님 안에서 어린아이에 불과한 사람들도 많고 개중에는 현실 세계에서 너무 큰 위협을 느낀 나머지 다시 태 속으로 들어가버린 이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었던 몇몇 사람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할 준비와 의지를 갖추고 있다고 확신한다. 그들의 문제는 초대 제자들의 경우처럼 이끌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그들은 ‘식별하는’ 법과 자기네 삶을 책임지는 법, 그리고 하느님의 표정을 읽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이 선택하신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오늘날에는 식별방법(識別方法)에 관해 저술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며 이들 가운데는 아주 탁월한 책들도 많다.¹

그러나 문제는 이 논술들의 대부분이 지나치게 특수하고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통 ‘평범한’ (즉 신학이나 영성 면에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구도자에게는 그 저서들이 너무 벅찰 우려도 없지 않다. 이 책은 그리스도교적 식별방법의 기본 의미와 원칙들을 교양 있고, 스스로를 투신한 일반인들(사제는 수도자든 평신도든 간에)의 언어로 알아듣기 쉽게 쓰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내가 이 책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로올라 신학교에서 사목신학의 식별 강좌를 담당하면서부터였다.

이 책은 바로 그 강의를 골간으로 하고 있다. 나는 각 단원이 끝날 때마다 ‘실습문제’ 몇 개씩을 제시했다. 강의 내용과 식별의 기본 원칙들을 학생들 자신의 생활체험에 적용시킬 목적으로 제시한 이 질문들을 학생들은 전 과정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학습의 하나로 인식하였다. 강의와 강의 사이의 한 주간 동안 학생들은 제시된 질문들에 그 나름대로 답을 했다. 그러고 나서 다음 수업 첫시간에 7, 8명이 한 그룹이 되어 답을 주고받으면서 모호한 점들에 관한 토의를 벌인 다음 답안지를 모아서 다음 한 주간 동안 답안지를 읽어주고 그에 대해 평을 했다. 아울러 학기초에 제시한 질문들에 대한 내 나름의 ‘답’을 말해주고, 이어서 그 답에 관해 소그룹 토의를 가졌다. 따라서 이 책을 그룹 단위로 공부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며,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혼자 읽는 사람도 각 장 끝부분에 실린 실습문제들(이에 대한 나의 답은 부

-
1. 이 자료들 가운데 가장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 몇 가지를 1장 각주 1, 5장 각주 2, 맺음말 각주 2에 각각 언급해두었다. 저자들은 그대로 광범위한 참고 목록들을 제시해두고 있다.

록으로 실었다.)을 활용하면 기왕에 읽은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고 이해도를 측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식별은 기도처럼 하나의 기술이다. 식별은 읽어서만은 터득할 수 없고 실천함으로써 터득할 수 있다.

이 책을 통하여 식별을 ‘가르치’려면 ‘무엇’과 ‘어떻게’라는 두 가지 물음에 답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식별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가? 내 체험으로 볼 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물음은 ‘무엇’이라고 본다. 다시 말해서 식별의 ‘의미(그리고 필요조건들)’를 명확히 알면 식별 ‘기술’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습득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책 1부(“발걸음”)에서는 식별이 실제로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신앙의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식별 역시 성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1장과 2장은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서 식별이 갖는 위치를 탐사하되 완벽한 전문적 주석(이는 이미 기예(J. Guillet, S.J.)가 시도한 바 있다.)보다는 식별의 성서적 의미에 대한 일종의 느낌이나 감각을 제공한다는 시각에서 살펴보도록 하였다.

구약시대에는 식별이란 낱말이 나오지도 않거니와 보편화된 하느님 개념과 인간 본성 개념에 비추어 식별 개념이 심지어 부적절한 것이 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요한과 바오로 시대에 오면 식별이 사도적 메시지의 핵심 주제가 된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 전체가 이중적 식별—예수에 의한 그리고 예수에 관한—로 충분히 조망될 수가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케 한 이해와 체험의 진화를 간파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적 생활 속에서 식별의 위치를 훨씬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될 것이다. 3장은 진지한 식별 자서의 특성들과 필요조건들을 탐구함으로써 그 실상을 명확히 하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뜻을 드러내 보이시는 주님의 지속적인 계시를 능숙하게 식별하자면 우리는 ‘오늘날’ 어떤 인격체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예수와 마찬가지로 식별력을 갖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식별의 ‘무엇’에 관한 이러한 바탕을 가지고 우리는 2부(“좋은 씨앗 뿌리기”)에서 ‘어떻게’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걸맞은 고전적 자료는 성이나시오 로올라의 「영신수련」에 실려 있는 ‘일반성찰규칙’ 편이다. 450년 전에 쓴 이 규칙은 오늘날에도 식별에 관한 교회의 규범적 ‘기준’이 되고 있다. 성아우구스티노가 악의 문제를 규명하고 아빌라의 성데레사와 십자가의 성요한이 기도의 현상학을 정립시켰다면 성이나시오는 계시하시는 똑같은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식별술(識別術)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5장부터 7장까지는 영적 생활 초심자들(5장과 6장) 및 성숙하고 투신한 자들(7장)을 위한 그의 고전적 규범들을 상세하게 논하고 아울러 우리네 삶에 적용시키게 된다. 2부에서 ‘좋은 씨앗을 뿌리는’ 초심자들을 위한 규칙들을 논하기에 앞서 4장에서 식별을 위한 이나시오 식 기초 작업을 하게 된다. 이 기초의 밑바탕이 되는 것은 「영신수련」 둘째주간 끝부분에 있는 익히 알려진 한 대목(173항 이하)인데, 여기에서 이나시오는 식별과 선택의 관계를 설명하고 아울러 훌륭하게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정확히 식별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 뿐이다.

“뒤섞인 추수”라는 제목의 3부는 (앞서 지적한 대로) 투신한 영혼들을 위한 규칙으로 시작된다. 하느님과 관계에서 우리가 안정과 성장을 구가하게 되는 이 시기에 악령은 새롭고 미묘한 전략을 채택하여 하느님의 뜻이 우리네 삶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도록 꾀할 수밖

에 없게 된다. 우리가 악령의 사악한 음성을 보다 잘 감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악령은 주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는가 하면 선의 가면을 쓰고 우리를 유혹하는 등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고 든다. 하지만 우리는 성숙해감에 따라 ‘악령’이 수많은 얼굴을 지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 그런 관계로 8장에서는 추수때까지 뒤섞여 자라는 가라지와 밀의 비유(마태 13,24-30)를 토대로 우리네 삶이라는 들판에서 선한 밀들 사이에 파고들어 함께 자라는 다양한 가라지(성서적 용어로는 세상, 육신 그리고 악마)의 종류들을 살펴보게 된다. 그리스도교적 식별 및 결단과의 관계 속에서 가라지와 밀은 진실로 투신하고 성숙한 사람들마저도 식별의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다양한 영감(靈感)들과 집착들의 뒤엉킴—예를 들어 지극히 관대하고 열성적인 사도들에게서도 드러나는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이기심 및 자기 추구와 뒤엉킨 상태—을 표상한다.

바로 이 예수의 비유를 토대로 하여 이 책 제목을 「밀밭의 가라지」로 붙였다. 사도적 생활에 있어서 식별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이며 또한 우리네 삶이라는 선한 밀밭에 가라지들이 끼여들어 있기—예수의 말씀에 따르면 가라지들은 추수때까지도 반드시 있게 된다—때문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샘이 마를 때」 2장에서 다룬 기도자의 역설적 모순이라는 사도적 측면을 목격하게 된다. 기도라는 물이 순수하고 깨끗함에도 착한 영혼의 정원에서 자라는 꽃들 중에는 만발해야 할 만큼 만발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니 말이다. 기도자가 뿌리 뽑고 싶어 애를 태우는 가라지들 중에는 당사자의 온갖 노력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버티다 싶은 것들도 있다. 행동하는 관상가(觀想家)에게 이러한 상태는 서글픔을 배가시킨다. 성테레사가 말한 것처럼 가라지 없는 마음의 정

원을 마련해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목—우리네 관상이 갖는 사도적 측면—또한 추수밭에 무성히 자라 추수하는 사람을 애먹이는 가라지들 때문에 불투명해지고 효험이 줄어들게 된다. 8장은 이들 가라지를 들추어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것들을 뽑아내보도록 하고 아울러 추수때 주님께서 뽑기 적당하다고 여기실 때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갖는 신적 가치를 이해하도록 할 것이다.

8장에서 지적하겠지만 「샘이 마를 때」에서 거론한 내적 성숙과 행동하는 관상가의 사도적 성숙 사이에는 밀접한 연계가 있다. 9장이 탐구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샘이 마를 때」 6장의 “뜨내기”가 어떤 경위를 거쳐 사도적 생명력에 충만한 식별력 있는 사랑을 습관화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탐구하는 것이다. 내가 「장터의 어둠」에서 언급했던 도전과 신비가 여기에서 해답을 얻게 되리라 믿는다. 이 책은 내가 앞서 저술한 기도에 관한 책들을 사전에 읽지 않더라도 읽고 이해할 수 있지만, 「장터의 어둠」은 실질적인 의미에서 식별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식별을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실천적으로 다루었으며 어둠을 식별하고 우리네 사도적 생활 면을 정화하는 데 그 초점을 두고 있는바, 그 이유는 당시에는 그 부분이 내 체험 중에서 최우위를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장터의 어둠」은 기도자로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각별히 명시해둘 필요가 있는 내용이었다는 것 같다.

하지만 어둠은 결코 궁극적이거나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있는 실재(實在)가 아니다. 어두운 밤은 새벽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그리고 샘이 마르면 우리는 감추어진 생명수의 근원을 찾는다.(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그렇듯이 사도인 우리네 생활에서도 식별의 실천을 장

기간에 걸쳐 끈질기게 연마하노라면 우리가 ‘식별력 있는 사랑의 습관’이라 칭할 수 있는 새로운 감성에 도달하게 된다. 이 성숙의 선물 이 바로 9장의 주제이다. 내가 믿기로는 이것이 곧 이나시오가 말한 “행동하는 관상가”라는 아름다운 표현의 참된 의미인 것이다.

이 책은 전체적으로 ‘개별적인’ 식별에다 초점을 맞추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인정하고 넘어가야 할 점은 공동체들(일례로 수도회든 교구든 은사 공동체든 간에)이 집단으로서의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양식인 ‘공동체적’ 식별이 최근 많은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나는 ‘맺음말’에서 공동체적 식별을 그다지 깊이 다루지 않은 이유와 여기서 다룬 개별적인 식별을, 합동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공동체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기술하였다. 만일 개개의 구성원들이 식별력 있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그 공동체가 공동체적 식별을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겠지만 공동체 구성원들이 기도하지 않고 식별력 있는 사람이 못 될 경우 그같은 공동체적 식별은 불가능하리라는 것이 내 소신이다. 우리가 다룬 공동체적 식별에 대한 짙막한 내용은 존 퓨트럴(S. J.) 신부가 현대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논문에서 제시한, 공동체 상황에 필요한 특수 선행조건들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식별이 개별적인 것이든 공동체적인 것이든 간에 진정한 목표는 참된 영적 자유로 이끌어주는 ‘식별력 있는 사랑의 습관’, 그것이다. 그래서 ‘맺음말’에서는 주께서 이 식별력 있는 사랑의 습관을 익힌 이들에게 가장 큰 선물로 내리시는 정신의 해방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사랑하는 이들만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사랑하는 이에게 양도할 때에만 진실로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이같은 양도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완전히 한 바퀴를 돈 것 같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오늘날 식별을 그토록 중요하게 만드는 성숙되고 책임감 있는 자유에 도달하도록 부르심받고 있다는 말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우리를 진실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식별력 있는 사랑뿐이라는 인식으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우리는 끝에서 시작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자!

제1부

..... 밭갈이

1. 성서적 토대 : 선하고 악한 예언자들

식별 : 문제점과 그 중요성

얼마 전에 나는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및 스코틀랜드 지방의 수녀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식별”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는 수녀들 스스로가 선정한 것으로서, 이 며칠 동안에 대한 반응은 하나같이 대단했다. 나에게 이 세미나는 식별술이 오늘의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또한 투신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내 소신을 철저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야기해달라고 가장 많이 주문받은 두 가지 주제는 기도의 성장과 식별법이다. 전자가 오늘날 광범위하게 다루어지고 또 논의되고 있는 반면에 후자는 대다수의 기도인들에게 불확실하고 불가해한 것으로 남아 있다. 식별이 내 소신 그대로 기도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맺어주는 본질적인 끈이자, 기도와 사도적 활동의 접점(接點)이라는 엄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식별을 다룬 현대의 탁월한 논문들과 책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이것은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언급하게 될 것이다.) 기도에 관한 책들은 물 한 방울에 불과하다. 더욱이 가장 우수한 작품들 가운데 일부는 상당히 특수하고 전문적인 것이어서 현대 세계에서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고자 노력하며 투신한 보통 그리스도인들로서는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식별 기술이 '평범한' 독자, 비전문가나 봉헌된 사제와 수녀 또는 평신도에게 정확하고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제시될 수는 없는 것일까? 물론 만만찮은 장애물들이 있지만 나는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우선 식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하느님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하느님의 개입을 순수한 관심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몇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것과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식별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이성에 의지하는 것 사이의 구분들인데 이들은 내 경험으로 볼 때 경험론적으로 쉽사리 간파하거나 수용하기가 어렵다.

「아메리카 대학 사전」(1966년판)은 '식별하다'라는 동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1. 시각이나 다른 감각 또는 지성으로 감지하다. ... 2. 마음속으로 구별하다; 다르거나 별개의 것으로 인지하다; 판별하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식별하다'에는 인지와 구분 또는 판단의 의미가 담겨 있다. 영적 식별, 또는 전통적으로 지칭되고 있듯이, '영의 식별'의 경우도 인식과 판단은 둘 다 모두 중요하다. 이 식별의 종교적 의미만이 갖는 특이하고 색다른 면은 우리가 인지하고 판단하는 그 '대상'에 있다. 놀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 식별을 통해 구별하고 평가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느낌'이다. 그러므로 영적 식별에서 필수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의 느낌과 맞닿아 있

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 중에 정말로 자기의 느낌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인가? 식별의 원자재에 해당하는 우리 내심의 느낌들을 ‘이름짓고 공언하며 길들이고 겨냥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느님은 사람을 대하듯 보고 듣고 만질 수 없다는 이유로 알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물론 이 말은 맞다. 하지만 나는 진정한 식별(및 기도 안에서의 거짓 없는 성장)의 가장 큰 장애물은 만져지지 않는 하느님의 본성이 아니라,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자각(自覺)의 결여—자기를 있는 그대로 진실되이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비자발성’—라고 확신하고 있다. 우리들 대다수가 가면을 쓰고 있는데, 이 점은 비단 다른 사람들을 대면할 때만이 아니라 거울을 들여다볼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바로 이런 것들이 식별을 아주 희귀한 것으로 만들고 식별 개념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순수한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열쇠도 된다. 그렇다고 이 난점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결코 극복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식별은 본질상 하나의 기술이지 학문이 아니다. 이것은 수행함, 그리고 시련과 시행착오를 통해 터득된다. 또 이것은 선물이다. 원래 개인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결실이 아니고 하느님이 사랑하고 또 당신에게 사랑받는 이들에게 내리시는 선물인 것이다.

특별한 기술이자 선물인 이 식별은 가르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 선물의 면모를 설명하는 일은 가능하다. 이 장과 다음 장에 걸쳐 시도하고 있듯이 식별이 성서상의 계시 속에서 갖는 의미와 핵심적 위치를 지적할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이나시오 로올라와 그가 창립한 예수회의 일차적 은사에서 ‘영들의 식별’이 드러나고 있다. 「영신수련」의 핵심에 해당되는 식별을 위한

잘막한 두 가지 규식(規式)을 통해 이나시오는(아니 주께서 이나시오를 도구 삼아) 참된 식별의 기본 지침들을 교회에 제공하였다. 4장 이하에서 살펴게 되겠지만 이 규식들은 대단히 실천적이며 현실성 있는 것들이다. 이것들이 너무 간략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설명과 사례 제시를 통해 뼈에다 어느 정도 살을 붙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나시오 자신이 명시하고 있는 바를 훼손하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며,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다. 우리가 식별에 관해 무엇을 이야기하든 간에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행동이라는 장터를 확고한 터전으로 삼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조기 이스라엘의 하느님

그러면 훌륭한 그리스도교적 가르침 모두가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자리, 즉 성서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한다. 구약성서는 ‘식별’이라는 낱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후기에 올 때까지 식별의 개념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렇게 된 이유를 이해하자면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인간에게 하느님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내가 살펴본 바로는 세 가지 서로 다른 하느님관이 있는데, 이것들은 ‘시계 제조인’, ‘꼭두각시 조종자’, ‘다 큰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명칭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느님을 시계 제조인으로 보면 참된 식별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느님은 시계 제조인이 시계를 만들듯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일이 마

무리되면서 창조와 더불어 그분의 개입도 끝나게 된 셈이다. 내게 1963년 서품식 때 받은 시계 하나가 있다. 생김새가 수수하고 아름다울 뿐 아니라 20년이 넘는 지금도 거의 정확하게 맞는 시계이다. 그 동안 고치거나 분해조제를 한 것은 겨우 두세 번밖에 안 된다. 만일 누가 나에게 이 시계 제조인에 관해 묻는다면 나는 필경 그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대단한 예술인임이 분명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그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또 그가 탁월한 기술을 가졌던 것도 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누구였는지 알 길이 없으며 더군다나 지금 살아 있는지 어쩐지도 모른다. 그는 내가 찬 시계에다 자신의 능력을 쏟아넣었지만 시계가 그의 손을 떠난 뒤, 그는 이 시계에 아무런 간여도 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시계 제조인’이라는 하느님관이다.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흔적으로 남겨두시고 저 위에 존재하실 뿐 더 이상 당신의 조물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으신다는 시각이다. 우리는 이 창조계에서 그분에 관해 어느 정도 알아낼 수가 있다.(이 점은 내 시계에 나타나 있는 예술적 솜씨와 정밀한 손재주를 보면서 만든 사람에 관해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이나 같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며, 그분과 인격적 관계를 직접 갖지도 못하게 된다.

이것이 곧 현대 이신론자(理神論者)들이 말하는 하느님이다. 실재하지만 알 수가 없는 창조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하느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묻는다는 것—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제시된 그분의 뜻을 ‘식별하려고’ 하는 것—은 시계 제조인이 오늘 내가 내 시계로 무슨 일을 해주기 바라는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무의미한 것이다. 물론 내 시계를 제조한 사람이 내게 시계를 잘 간수하고 제대로 소제하면서 사용하기 바랄 것이라고 추정

할 수는 있을 테지만 그것도 결코 확신할 수 없는 노릇이다. 어쩌면 그가 스스로 만든 작품을 몹시 불쾌하게 여기고 그것들 모두가 부쉬진 줄 알면 기뻐할 수도 있다. 도무지 그럴 것 같지 않다 하겠지만,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내가 그에게 사실을 물어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곁에 없고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를 시계 제조인이 나에게 시계를 어떻게 해 주기 바랄까를 생각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 역시 별로 바람직스럽게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좋은 싫든 간에 시계는 현재 내 책임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미 말한 바대로 시계 제조인-하느님을 놓고서는 식별은 무의미하며 가능하지도 않다. 반면에 하느님을 꼭두각시 조종자로 볼 경우 식별은 불필요하게 된다. 만일 하느님이 인형극 연출가가 자기 인형들을 조종하듯이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줄로 엮어 조종하는 형태로 창조계에 직접적으로 철저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자유도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할 필요조차 없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실현시켜 나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달리 비유하자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장기판 위에서 하느님이라는 장기 명인이 두는 대로 움직이는 졸(卒)들에 불과한 것이다. 장기 졸이나 꼭두각시는 자기에겐 기대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덤빌 필요가 조금도 없다.

이미 주지한 대로 자연신교(自然神敎)의 시계 제조인-하느님은 현대의 한 현상으로서 최근 몇 세기에 걸쳐 과학기술이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또 관리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하면서 얻어진 합리주의의 산물이다. 원시사회에서는 '시계 제조인' 식의 하느님관을 주창하는 이신론적 작가들은, 내가 아는 한 하나도 없었다.

구약시대 성조들과 예언자들은 하느님을 시계 제조인으로 보지 않

은 것이 확실하다. 태초부터 하느님은 당신 조물들의 점진적인 발전과 운명에 개입하고 계신다(창세 3장). 하지만 꼭두각시 조종자-하느님은 아주 해묵은 개념, 어쩌면 가장 오래된 하느님관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관점은 극단으로 흐를 경우 인간의 자유와 책임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극단론에는 고도로 세련된 신학적 고찰이 따라야 할 것이다. 일반인들에게나 원시사회에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인간의 책임과 하느님의 절대적 지배가 불안정한 긴장 상태로 공존한다는 것이다. 초기 이스라엘인들의 경우가 바로 그랬던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사울 왕은 재임기간 중 중차대한 순간순간에 때로는 선한 영들에, 때로는 악한 영들에 이끌렸던—사로잡혔던—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찬사받고 비난당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없을지는 모르나 오늘날에도 그같은 자세가 매우 보편화되고 있다. 사람들은 곧잘 이렇게 말한다. “내가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느님은 내게 화를 내고 계신다. 허나 나더러 어쩌란 말이나? 나는 하느님한테 결혼한 애인과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청을 드렸다구.” “어쩌서 하느님은 내 아들이 못된 길로 빠져들게 방치하시는지 몰라. 내가 도대체 얼마나 그분 속을 썩여드렸으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걸까?” 설령 실제로 그런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자식들을 선하게(혹은 못되게) 만들고, 만나지 말아야 할 연인을 만나게 만드는 하느님이라면 그 하느님은 꼭두각시 조종자요 장기 명인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네 목표상 중요한 점은 자유와 숙명론이 모순으로 뒤엉켜 있는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는 결코 식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이 그러했듯이 숙명론적 분위기가 지배적일 경우에는 특히 그렇다. 자크 기예는 식별의 역사에 관한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가장 오래된 옛 문헌들 속에서는 두 가지 이유로 식별이 이야기되지 않고 있다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선 이 (선하거나 악한) 영들의 행위가 너무도 위압적이고 막강해서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거기에 저항할 엄두를 못 내는 것 같다. 물론 그가 자신의 인간성을 상실하는 것은 분명 아니다. 동일한 사울이 선한 영에 의해 훌륭한 족장이 되는가 하면(1사무 11,6), 악령에 의해 잔인하고 의심 많은 폭군이 되기도 한다(16,14-23). 그런 가운데서도 사울은 여전히 자신의 용맹에 찬사를 받고 정당하지 못한 시기심 때문에 단죄를 받는 인간으로 존속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어느 쪽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보다 더 강한 어떤 존재에 지배된다.¹

기예가 구약성서 속에 식별의 개념이 부재하게 된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선한 영들과 악령들 모두의 근원이 동일하다.’는 이스라엘인들의 입장, 그것이다. ‘비록 전자가 야훼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전개시키고 후자가 그분의 것들을 파멸로 몰아넣기는 하나, 이들 모두는 야훼 하느님께로부터 나오고 있다’(판관 9,23; 1사무 16,14-23; 18,10; 19,9; 2열왕 19,7; 이사 19,14; 29,10). 이러한 맥락에서의 ‘영들’의 의미 및 선한 영들과 악령들 간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하게 될 것이다. 지금 당장 중요한 사실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충동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리고 인간을 압도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는 실상 하느님이 꼭두각시 조종자인 것이며 그분에 대한 인간의 식별력 있는 응답이란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1. 「영들의 식별」(Collegeville, Minnesota : The Liturgical Press, 1970). 19쪽. 이노첸시아 리치즈 수녀가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Ascétique et Mystique : "Discernement des Esprits"」(Jacques Guillet 외 다수 공저)를 영역.

예언자들의 하느님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교적 인물들은 야훼와 자신들과의 관계를 새로운 빛으로 조망하기 시작했다. 숙명론이 인격적 책임의식으로 대체되고 하느님은 친구이자 아버지—말하자면 다 큰 아이들의 아버지—로 간주되기에 이른 것이다.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아버지라는 심상(心像)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나 성인(成人)들이나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네 부모와 사랑으로 맺어지고 또 그들 나름의 심성을 지니고 있는만큼 꼭두각시 수준을 뛰어넘는다. 그런가 하면 그들에게는 가족에게 영향을 주거나 심지어 자기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단들을 내리는 데 참여할 수 있을 만한 체험이나 성숙도가 결여되어 있다. 그런 그들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통상 서투르고 애잔하게 자신의 이 참여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이행하는 작업은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 때로는 이 일이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럴 경우 어린아이는 언제까지나 엄마의 치맛자락에 매달려 성숙된 어른으로 변화되지 못한다. 그런가 하면 평생을 갈 수도 있는 소외나 쓴맛을 보고서야 비로소 이행이 실현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관념상으로는 이같은 이행이 비록 품위 있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아들 혹은 딸과 부모와의 관계는 변화를 겪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어른으로서, 친구로서,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동등한 존재로서 만나게 된다. 친구 관계란 평등이 전제되어야 하는만큼, 어쩌면 이제서야 부모와 자녀는 진정한 친구로서 만남을 갖게 된다. 자녀는 부모로부터 본성과

양육이라는 고마운 선물을 받고 아울러 나이와 체험에서 오는 부모의 지혜를 숭앙하게 되지만 한편으로는 자주적으로 성숙된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자기 삶의 향방에 대해 책임질 능력도 갖게 된다. 성숙한 부모는 자녀가 나이 차서 책임감 있는 독립을 성취할 때 거기에서 실현과 성공을 발견하게 된다.

이제까지 진술해온 과정이야말로 가장 도전적이고 또 가장 뿌듯한 부모됨의 면모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정을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다 유추 적용할 수 있는 것일까? 만약 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이상스럽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어찌 됐든 하느님은 우리네 생의 절대적 주님이시다. 그런 마당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자율성을 갖는다거나 어른 대 어른으로 그분과 만난다는 말이 과연 통할 수가 있겠는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런 어휘로 생각하려 드는 것은 분명 이상해 보인다.² 내 생각에 실제로 우리와 하느님 사이의 성숙된 관계와 우리와 부모 사이의 성숙된 관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런데도 예수는 우리더러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로서의 하느님과의 이 관계가 전진적이고 성숙되어가는 관계임을 명백히 하셨다.(그리고 성바오로도 1고린 3,1-3에서 확연하게 진술하였다.³)

2. 「샘이 마를 때」와 「장터의 어둠」을 읽고 이해한 이들은 이러한 개념이 마른 샘이나 어두운 밤이 소기(所期)하는, 우리 자신의 집착을 버리고 통제력을 제거하여 하느님이 진실로 우리 삶의 주님이 되시게 한다는 목표에 어긋난다는 반론을 금방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3. “형제 여러분, 나 역시 여러분에게 영적 인간이 아니라 육적 인간들을 대하듯,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직 어린아이들(같은 사람들)을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여주었지 단단한 음식을 먹여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은 지금도 아직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은 육적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1테살 2,7; 1베드 2,2 참조)

예수는 부성(父性)을 우리와 하느님의 성숙된 관계를 유추하는 데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모든 유추가 그러하듯이 상이성과 유사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물론 상이점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 때문에 유사점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상, 성숙되어가는 어린아이의 유추 속에 내재하는 이 유사성은 식별도 수반하게 된다. 성바오로는 방금 인용한 편지에서(1고린 2.15) “영적인(성숙된)” 인간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자신은 아무한테도 판단받지 않는” 인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저자는 아름다운 글귀로 이렇게 적고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듣는 데에 둔해졌기 때문에 말로써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실상 여러분은 시간으로 보아서는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할 터이지만 하느님의 말씀 가운데서 초보적인 요소들을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필요로 하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우유를 마시는 사람은 모두 아기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을 통해서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훈련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히브 5.11-14).

이처럼 성숙된 그리스도인은 식별할 수 있는 사람, 모든 상황에 필요한 명백한 가르침들을 떠먹여주거나 ‘아빠’가 일일이 세부적인 지침을 주어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다 큰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우리네 유추 속에는 이같이 근거가 확실한 어떤 요지가 존재한다. 우리가 앞서 지적했듯이 구약시대에는 하느님 면전에서 성숙을 실현해야 하는 이 소명이 이스라엘의 의식 속에서 겨우 느린 속도로

움티오고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을 때—야웨 앞에서의 인격적 책임이 중시되기 시작했을 때—식별(비록 이 경우에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의 개념이 예언서들 속에서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기예가 지적하듯이 하느님의 음성, 하느님의 뜻이 불분명하고 불가사의하게 인식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모든 ‘영’ 이다 하느님의 영은 아니다. 그분의 음성과 맞서는 다른 음성들도 있는 것이다.

하느님의 음성과 병행하여 또 다른 음성, 적의 음성(창세 4,7), 하느님의 적수인 사탄의 음성이 존재한다. 이 음성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불가해하다. 이제 이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는 듯싶으나(창세 6,5; 11,4; 출애 32,9; 신명 32,5.20; 시편 95,10)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 음성이 그 사람 자신이 아니라 불안을 유발하는 어떤 근원지—그 사람보다 더 합리적이고 더 강하면서 그의 계획을 그보다 잘 알고 그보다 더 완고하며 그의 마음이 쏠리는 성향들을 그보다 더 환히 꿰어보고 하느님이 추구하시는 목표들을 감지할 줄 아는 것이 명백한(창세 3장) 어떤 근원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⁴

우리가 성숙되어감에 따라 삶은 한결 복잡해진다. 확연한 명령들에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맹목적으로 따르는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하느님의 존재와 계시가 우리의 신앙이 어린이의 신앙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불가사의하게 된다. 진리의 샘이 마르거나 적어도 그 물이 훨씬 더 혼탁해진다. 우리가 자기를 보호해주던 집을 나와서 장터의 어둠 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주님의 음성에 대한 우리의

4. 기예, 같은 책, 17-18쪽.

주의력을 흐트러놓는 (그리고 흔히 주님의 음성을 흉내내는) 보다 큰 수많은 음성들을 듣게 된다. 기예는 이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18쪽).

사람은 세 겹의 어둠 속에 빠져든다. 하느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채로 명령하신다. 그리고 사탄은 스스로를 감춘 채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제시하고 그분이 명하시는 것보다 더 많이 제안한다. ... 끝으로 그 사람 자신 안에 어둠이 있으니, 그는 자신의 마음을 확연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 행동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결과의 중대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출애 32,21 ; 2사무 12,7).

이같은 ‘세 겹의 어둠’ 속에서 사람은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도전 받는다.

이 사람에게 선택은 비단 이런 혹은 저런 행동 유형을 선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그에게 들려오는 목소리를 구별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므로 그는 식별력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그리고 바로 이것이 ‘식별’인 것이다.

참된 예언의 식별

구약시대에 식별이 가장 비중 있게 적용되었던 자리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를 감지해내는 일이었을 것이다. 왕국이 강성했던 몇 세기 동안 이스라엘에서는 수많은 예언자들이 출현하였다. 그들은 흔히 서로 정반대 입장을 갖고 상충되는 예언을 했으며 상반되는 행

위를 촉구했다. 그렇다면 유대 백성과 그 지도자들은 어떤 예언자가 그들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전달하고 있다는 판단을 어떠한 방법으로 내릴 수 있었던가? 여러 세기가 흐르면서 특정한 기준들이 정착되었으니, 기예는 참된 예언을 판별하는 그러한 규범을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누가 하느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식별하는 여섯 가지 기준인 셈이다.⁵ 우리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불행에 대한 예언이 행운에 대한 예언보다 진실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원칙은 호의적인 예언의 경우 인기에 영합하고 듣는 자들의 욕망에 편승하는 작태가 될 공산이 보다 크다는 데서 나온 것이다. 그와 반대로 불운에 대한 예언은 본능적으로 별로 호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오늘날에도 정치 지도자가 우리더러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라든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할 경우 그는 선출될 가망이 적으며 인기를 얻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신실한 확신에서 이야기할 가능성이 보다 높게 된다.

2. 참된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징표들’에 대한 언질로 뒷받침된다.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점은 예언한다는 말이 일차적으로는 ‘예언한다’는 뜻이라기보다 다른 이를 대신하여 이야기한다는 뜻이라는 점이다. 예언자는 야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오늘날 예언을 예보의 의미로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언 소명의 우연적 측면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결과이다.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다. 예언자는 비록 자기의 신적 소명의 신빙성을 확인시키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히 예보를

5. 기예, 같은 책, 21-23쪽. 기예는 이 기준들 하나하나가 응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예증하기 위하여 다수의 성서구절을 인용한다.

했다. 예수께서 “나를 믿지는 않더라도 그 일만은 믿으시오.”(요한 10,38)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의 ‘징표들’을 당신 사명과 교회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세례자 요한이 예수의 메시아 신분을 의심할 때에도 주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제시하면서 요한이 비록 당신의 행동과 설교 양식에 곤혹감을 느끼더라도 그 일들을 통해서 새롭게 확신하게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리시오.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나병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됩니다.”(마태 11,4-6)

3. 위의 기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의 기초 신앙에 대한 충실성 시험이다. 사실 훌륭하게 수행된 표징들과 놀라운 일들만으로는 예언자의 신빙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못 된다. 기적은 악마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이 책 3부에서 보게 될 테지만 고무적인 사건들과 체험들이 불행히도 하느님의 현존과 영향력을 입증하는 명확한 표지가 못 된다. 그것은 예수께서도 당신이 모세의 율법(계시)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이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기 때문이다(마태 5,17). 심지어 이스라엘인들까지도 식별의 교의가 발전되던 초기단계에 이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예언자라는 사람이나 꿈으로 점친다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나타나 표

적과 기적을 해보인다고 장담하고 그 장담한 표적과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일찍이 알지도 못하고 섬겨본 일도 없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자 하거든, 그 예언자나 꿈으로 점치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라.⁶

하느님은 충실하시며 자기 모순이 있을 수 없는 분이시다. 계시에 관한 교의—그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진화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진화한다. 그렇다고 진화가 모순을 의미할 수는 없다. 예언자가 이스라엘이나 교회의 기본 신앙에 상처된다면 그는 결코 하느님의 영에게 감도받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창조적인 종교 사상가들(이사야, 욥기 저자, 예수 같은)이 진실로 계시에 어긋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그 계시와 관련해서 기왕에 인정받았지만 분명 왜곡되어 있는 이해에 도전하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입증해주고 있는 현대의 증인들로는 테야르 드 샤르댕과 마틴 루터 킹이 있다.

4. 이같은 이유로 해서 예언자의 생활 증거는 교의의 건전성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된다. 기예는 이러한 실천적 기준이 적어도 부정적 입장에서나마 타당성을 갖는다는 흥미로운 관찰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흠잡을 데 없는 예언자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는 없을지 모르나, 거짓 예언자는 항상 사악한 생활상을 드러내게 마련이다.”⁷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싶다. 우리는 때때로 그들을 악당들로 보려는 경향이 있지만 그들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생

6. 신명 13,2-4. 기예, 같은 책, 21쪽.

7. 기예, 같은 책, 22쪽.

활상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필경 흠잡을 데 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들은 경건한 신심, ‘탁월한’ 신앙적 열정의 표본이었지만 그 신심이나 열정은 빚나간 것이었기에 우리는 ‘위선적’이라 부르는 것이다. 사악한 생활은 결코 참된 예언자의 표지가 될 수 없다. 극악 무도했던 아돌프 히틀러도 그렇지만 광신적인 짐 존스도, 가이아나에서의 사건이나 그 국민들에게 얼마만한 힘을 미쳤든지 간에 결코 참된 예언자는 될 수 없었다.

5. 이상의 기준들—불행, 표징들, 교의, 행실—은 모두가 가시적이며 외적인 것들이다. 그에 비해 다섯째 기준은 예언자의 의도가 되고 있다. 남녀 예언자가 호감을 사고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 회심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것인가? 기예는 이 기준을 ‘보다 미묘한’ 것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내적인 것으로 앞서 기술한 가시적 현상들을 토대로 해야만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인 것 같다.

6. 기예가 여섯째 기준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 또한 내적인 것이다. 예언 소명에 대한 예언자 자신의 체험이 곧 그것이다. 이것은 예언자 자신에게는 ‘결정적이며’ 명확한 것이다. 예언자들 모두가 부르심받았을 때의 환시 장면을 반드시 기술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예 : 이사 6장 ; 예레 1,4-10 ; 출애 3장 모세의 경우 ; 호세 1-3 장). 그들은 이 체험으로 선별되고 입술이 깨끗해져 하느님의 대변인이 된다. 이 체험은 예언자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에게 직접적으로 설득되고 감지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예언자 자신에게는 더없이 중대한 것이 된다. 이것은 예언자가 살아 계시는 하느님께 사로잡히게 되는 순간이다. 이후에 그의 삶 속에서 어떤 선익이 유출되는 것은 바로 이 최초의 변화 체험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적

인 결과는 살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느님과 그 자신의 최초의 만남에서 얻어지는 결실이자 그 만남을 추인하는 것이다.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예언자의 소명의 신빙성 또는 순수성을 식별하는 구약시대의 규범 여섯 가지를 살펴보았다. 이 규범들은 유대 백성이 자기들을 야훼의 이름으로 가르치고 명령한다고 확인하는 사람들의 예언자적 주장들의 진의를 시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비록 ‘식별’이라는 낱말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또 식별의 시야도 (우리가 곧 살펴볼 신약시대 개념에 비해서) 비교적 협소하지만, 이스라엘에서의 식별의 실재를 간략하게나마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통찰력을 얻게 되었다.

우선 우리는 하느님이 당신의 창조계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분은 세상을 만드신 다음 그 자체의 내적 활력으로 움직이든 말든 내버려두신 시계 제조인이 아니시다. 그분은 또한 창조계를 결정론적 방식으로 당신의 목적에 맞추어 조종하는 꼭두각시 주인이 되고자 하지도 않으신다. 그분은 ‘현재’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이시지만 그렇다고 당신 자녀들이 언제까지나 미성숙한 상태에서 유치하고 비자주적인 자세로 당신을 의존하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는다. 그분이 이스라엘이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숙, 곧 당신과의 성숙되고 책임감 있는 관계이다. 다 큰 아이들이 자기네 아버지와 아버지이자 친구로서 맺는 관계 그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나오듯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친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네 역사 속에 하느님의 개입은 해석하기 미묘하고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점은 우리가 유년기에서 어른으로 성숙되어감에 따라 특히 두드러진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느님의 뜻은, 비록 그 이유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분명 단순하고 명쾌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야훼는 에덴동산에서처럼 당신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인간들을 통하여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기로 하셨다. 그 과정에서 그분은 당신의 말씀이 왜곡되고 전적으로 인간적일 수밖에 없는 당신의 대변인들 쪽에서 불충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기로 작정하셨는데, 내 생각으로는 이는 인간들이 구원과 구속 작업에서 성숙된 반려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그분의 염원 때문에 나온 결정이라 믿는다. 주님은 일정한 간격으로 직접 그리고 '기적적으로' 개입하심으로써 역사를 한결 효과적으로 경영하실 수 있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대처를 좋아할 사람들이 참으로 많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 믿음이 훨씬 부족해도 되고 또 갈등을 훨씬 적게 겪어도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성숙으로 이끄는 길은 못 될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의 귀결로서 성숙한 사람은 참되고 거짓된 '음성들'이나 야훼의 대변인들을 판별하고 구분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네 삶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네 역사 속에 개입하신다. 하지만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잘못 해석할 소지가 있는 인간 대행자들을 통해 일하기로 작정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식별은 참된 예언 문제로 집중되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예수께서 오심으로써 예언의 소명은 완

성되고 변형된다. 그 결과 위의 세 가지 핵심들—하느님께서 인간 역사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과 그분의 개입이 흔히 불가사의하고 불투명하다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식별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도 하나하나 발전되고 명확해진다. 유대-그리스도교적 전승의 하느님이 시계 제조인이나 꼭두각시 조종자가 아닌, 다 큰 아이들의 아버지이시며 또 그렇게 되고자 하신다는 사실은 이미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형태로 우리와 관계를 맺기로 하셨다는 것이 바로 모든 그리스도교적 식별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 실습문제 ■

(유의점 : 식별은 기술이요 실천을 통해 습득되는만큼, 나는 식별에 관한 연수과정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질문으로 각 단원을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함을 깨닫게 되었다. 독자도 필경 이 책을 읽으면서 똑같이 하는 것이 유익함을 알게 될 것이다. 제시된 질문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설은 부록에 실어두기로 한다.)

1 장에서는 다음 사실을 음미해보자. 항상 그렇지만 오늘날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시대의 예언자들을 ‘식별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을 참된 하느님의 대변인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판단 내릴 사명을 띠고 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진실된 예언을 판별하는 구약시대의 여섯 가지 기준들 중에서 오늘날 참된 예언자를 식별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이 질문은 일반론적으로 답변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간디나 마틴 루터 킹 또는 교황 요한 23세 같은 예언자다운 특정한 인물 몇 명을 고찰해볼 수도 있겠다.)

2. 식별하고 또 식별되는 예수

우리는 구약성서의 저자들이 식별에 필적할 만한 하느님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지향하여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을 이미 파악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느님은 당신 창조계의 역사 속에 개입하고 계셨다. 그분은 사람과 사물을 빚어놓고 그들 자신의 의지와 존재의 자연법칙에 내맡겨버린 시계 제조인-하느님이 아니셨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격적 개입은 불가사의하고 불확실해서 인간의 자유가 작용할 여지를 남겼고 또 전달과정에서 그분의 메시지를 왜곡시키고 어지럽힐 가능성을 지닌 인간 대행자들을 통하여 밝혀 보여지도록 배려되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영적’ 목소리들이 존재하여 야훼의 목소리와 경쟁하면서 그분 음성을 흉내내어 사람들을 그릇되이 인도하는 것 같기도 했다. 바로 이 불확실성 때문에 인간들은 명확한 전망이 아닌 신앙에 입각해서 살아야 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으로 부터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영감들과 예언 음성들 가운데서 선별하여 그들에 대한 야훼의 뜻이 무엇인지 판단해야 했다. 간단히 말해서(이런 낱말은 아직까지 사용되지 않고 있었지만) 그들은 ‘식별해야’ 했던 것이다.

다 큰 아이들의 아버지

식별에 대한 이같은 소명은 실재하고 있었지만 일반 이스라엘인들의 하느님에 대한 이해가 식별 교의가 온전히 개발될 수 있을 만큼 (신약성서 관점에서 볼 때)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못하고 있었다. 하느님의 마음을 읽는 구약시대 사람들의 자세에는 여전히 기계적인 면이 있었다. 다시 말해서 외적인 표징들과 권위가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내적 영감들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처럼 직면해 있던 문제점을 가장 아름답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욥기 일 것이다. 욥이 고통당한다는 것은 분명히 죄를 범한 것이며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당시 유대교 정통신학을 대변하는 욥의 친구들에 따르면 욥의 외적 불행은 야훼께서 그를 싫어하신다는 명확한 표지인 것이다. 욥이 자신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항의하자—욕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죄를 회개할 수 없다고 했다.—이 친구들은 이를 완고한 고집과 오만의 표지로 받아들였다. 욥이 고통당하는 것은 죄를 지은 탓이며, 그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야훼를 노하게 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참회하고 보속하는 길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욥의 양심이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정신력이 하느님의 판단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욥기의 저자는 이같은 논쟁을 통해서 인간들에 대한 하느님의 대처방식을 보는 통상적인 시각에 명백히 이의를 제기한다. 그는 욥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것처럼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하느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밝힌다. 욥이 행복하든 아니면 계속 고집을 부리든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그의 친구

들이 말하는 하느님은 필경 꼭두각시 조종자는 아니다. 하지만 묘사되고 있는 모습은 절대군주이거나 어린아이들의 아버지가 분명하다. 인간들에 대한 하느님의 대처방식은 그분이 지혜와 권능 면에서 인간들을 훨씬 초월하고 계신 까닭에 결코 의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마당에 우리가 할 일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뿐이다.

독자는 옅과 그를 창조해낸 작가가 거부하고 있는 이 하느님상이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하느님관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서 충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사실 이 하느님관은 칼뱅이나 존 녹스처럼 하느님이 인간들을 대상으로 당신의 뜻을 냉엄하고 숙명적으로 구현하신다고 보는 운명예정론적 전통들 속에서 법제화되었다. 그리고 루터 전통의 한 가지로서 인간들에게 지극히 비합리적인 것이 하느님의 뜻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상으로 발전되기도 했다. “하느님이 어리석다 치더라도 사람들보다 지혜로우시며 하느님이 악하다 치더라도 사람들보다 강하시기 때문입니다.”(1 고린 1,25)라고 하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옅의 친구들이 지녔던 하느님관은 인간의 자유와 인격적 책임을 강조하는 그리스도교 전통 속에서도 암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어찌 됐든 위의 말씀은 성바오로 서간에서 인용한 것으로 성서적 계시에 포함되어 있다. 이에 앞서 22절에서 바오로는 인간의 철학과 십자가의 지혜를 예리하게 대비시킨다.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제자라면 하느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하느님의 길이 인간적 이해와 대립된다는 뜻으로 보느냐, 아니면 우리의 인간적 이해를 훨씬 초월한다는 뜻으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 것은 사실이다.

과연 하느님은 정사각형 원을 만들 수 있으실까? 성토마스 데 아퀴노와 것처럼 인간의 지성(知性)을 신적 지혜에 참여하도록 창조된 것으로 보는 사람들 모두는 이 질문에 ‘아니다.’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 창조된 우리네 이지(理智)에 모순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 지혜에 참여토록 하고 계시는 지성에 의해 진리화될 수는 없다. 물론 우리가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있다. 우리의 이성을 그릇되이 사용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지성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한 우리는 하느님의 인식과 모순되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철학’은 전체 진리에 아주 못미칠 수 있으며 실제로 그럴 것이 확실하다. 하느님의 지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을 필연적으로 초월한다.—그러니까 훨씬 능가한다. 십자가의 지혜에 깊숙이 몰입한 사람은 해골산이 유일한 길이었음을 궁극적으로 깨닫는다.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십자가의 길을 결코 발견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일단 그 길이 계시되고 또 그 계시가 우리네 인격에 녹아들면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지평선을 엄청나게 넓혀주고 우리네 철학이 상상해낼 수 있었던 것 모두를 초월하기는 할망정 결코 우리의 철학과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우리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요점이 매우 ‘무거운’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독자는 끈기를 가지고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소화시켜주었으면 한다. 왜냐하면 숙명론적 의미들을 자닌 또 다른 견해, 즉 하느님은 정사각형 원을 그려낼 수 있고 우리에게는 모순되어 보이는 일까지 포함하여 어떤 일도 그분에게는 가능하며 따라서 우리는 그분이 하실 만한 일들에 이성적인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 견해가 맞다고 할 경우

우려컨대 우리는 절대군주 또는 어린아이들의 아버지상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 그리고 결국 순수한 식별은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만다. 자기 자신의 기본 가정(假定)을 한 번도 깊이 숙고해보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세계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개중에는 자기네 삶 속에서 하느님—사르트르가 느꼈듯이 자신의 충만한 인간성에 위협이 되는 하느님—을 축출할 때만 비로소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진실로 인간적이 될 수 있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다. 그런가 하면 진실로 신앙적이고 하느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그 목표가 자기 자신을 벗어날 때라야 실현 가능해진다고 느끼는 이들도 많다.

이 두 가지 대응—배척과 굴종적 복종—은 모두가 하느님을 지극히 고압적이고도 반인간적으로 보는 하느님관에서 비롯되고 있다. 사르트르식 실존주의는 인간이 진실로 인간적이 되자면 ‘신’이 역사 속에서 사멸되어야 한다는—사람은 자기를 질식시키고 무력한 어린아이로 퇴락시키는 신을 축출할 때라야 비로소 진실로 자유로워지고 신뢰성을 갖게 된다는—관념을 유포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은 종교인들의 하느님이 당신께 귀의한 자들에게 실제로 그 같은 요구들을 하신다고 보일 때라야 비로소 폭넓게 수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실상 이러한 경우가 너무도 자주 있어왔다. 일례로 공동생활과 순명이라는 수도회들의 이념이 인격의 말살을 법제화하는 방식으로 왜곡한 사례들이 아주 많았다.

성베네딕도는 일부 은수생활 영성에서 나타난 개인주의를 시정하는 수단으로 공동생활을 도입했다. 그는 다년간 은수생활을 하고 난 연후에 성덕이란 완전히 홀로하는 극단적인 기도와 보속의 생활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위대한 사랑으로 실천해감으로써 성취되는 것이라고 느꼈다. 이처럼 공동생활

이란 평범한 사람들을 성화하는 생활이었다.¹ 하지만 수세기가 흘러 우리 시대에까지 내려오는 동안 이같은 공동생활의 이상이 왜곡되어 버렸으니, 모든 자매가 다른 누구와도 구분되지 않는 것이 이상적이고, 훌륭한 사제라면 미사를 집전하고 제단을 떠나면 회중이 미사 집전자가 누구였던가를 몰라야 되는 (내 자신이 불과 20년 전에 그렇게 가르침받았다.) 일종의 얼굴 없는 ‘긴 검은 행렬’의 의미로 변해버린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이 독자적인 인격 및 각 사람의 심리적-정서적 요구들과 모든 전례 예식을 진실로 인간적이고 친교적인 체험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오늘날에는 기괴하고 과장된 것들로 여겨질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들은 과상하기는 할망정 결코 과장된 것은 아니며 거기에서 비롯된 영향들이 지금도 비인격화되는 기계적인 일상생활의 전통 속에서 형성되거나 아니면 변형된 우리들 안에 스며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마찬가지로 예수의 삶 속에서 당신 아버지와 그분의 뜻을 위해 스스로를 산화하던 열정에 해당했던 순명도, 권위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생각 없이 심지어 기계적으로 따르는 맹목적인 추종으로 규정되어 버렸다. 성이나시오 로올라는 순명에 관한 그의 유명한 편지에서 ‘맹목적인 순종’을 웃어본과 아랫사람이 대화하고 식별하는 상당 기간의 과정으로서만 규범화하였다. 그리고 아빌라의 테레사는 「영혼의 성(城)」(다섯째 궁방, 3장)에서 ‘의지들의 결집’을 성화에 필수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테레

1. 조지 레인(George Lane, S.J.)의 「그리스도교 영성」(로올라 대학 출판사, 1984년 간행. 재판)은 그리스도교 영성의 발전 단계를 아주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다. 조르단 오만(Jordan Aumann, O.P)이 「영성의 역사」에서 보다 충분하게 다루고 있는 대목도 탁월하다.

사는 여인들 중에서 가장 힘있고 분별 있는 여인이었다. 그녀가 성화의 핵심에 올려놓은 의지들의 결집은 하느님의 의지와, 역동적이고 열렬하며 더없이 생명력이 넘치는 인간 의지와와의 합일을 말한다. 이것이 바로 키에르케고르가 말하는 “내적인 열정”이다. 그들—이나시오와 데레사와 키에르케고르—은 성인이란 로봇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성에 깃든 충만한 잠재력에 재갈을 물려 은유적으로 약하게 표현하자면, 그것을 하느님에 대한 사랑과 봉사라는 전력투구할 목표 쪽으로 흐르도록 만듦으로써 성인이 된다고 보았다.

불가피해서 그랬으리라 생각되지만 어쨌든 불행하게도 순명의 이상(理想)은 여러 세기를 내려오면서 공동생활의 이상이 못 되고 심하게 왜곡되어 버렸다. 맹목적인 순명이 일종의 실패의 방책—어떤 의문이나 개별적 창의성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곧잘 사용되었고 또 그런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리고 성이나시오가 순명의 식별과정에 있어 필수 부분으로 본 의문 제기와 제안들은 수덕(修德)의 실패로 간주되었다. 그가 한 기간의 과정으로—하느님의 뜻이 내가 이해하는 것과는 정반대일 때 이상적인 것으로—추천했던 ‘맹목’이 오히려 순명과정의 시발점이 되고 말았다. 예수께서 게세마니 동산에서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당신이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가장 좋은 것을 자유로이 표명하셨다. 그분은 기도중에 아버지께 ‘보다 나은’ 길을 찾아보시도록 세 차례 간청하였고 또 해골산이 아버지께서 택하신 길임이 아주 명백해 보였을 때에 비로소 그분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에 ‘맹목적으로’ 승복하셨다.

게세마니 사례에서 지적되듯이 공동생활과 순명에 대한 기계화된 이상들은 신약이 보는 하느님관 및 인간관과 동떨어져 있다고 믿는

다. 종교를 대하는 사르트르식의 '신의 죽음' 반응은 제도화된 종교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하지만 예수는 바리사이들과 몇 차례 대결하는 과정에서(예: 요한 5, 7, 8) 제도화된 종교가, 당신이 알고 또 오셔서 드러내 보여주신 실재와는 아주 거리가 멀다고 선언하셨다. 그분 보시기에 순종의 제도화나 바리사이파 규율상의 자동기계 개념은 구약의 계시에 대한 왜곡이었다(마태 15,1-20). 그분에게 종교는 내면적인 것이고(마태 6,1-18) 하느님은 "아버지"(마태 6,1.9.14.15 등), 즉 당신이 관계를 맺으시면서 우리에게도 다 자란 아들딸로서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아버지이다(참조: 요한 17장에 나오는 예수의 사제적 기도와 마태 11장 2-19 절의 세례자 요한에 대한 그분의 칭찬).

생활화되고 평가되는 식별

우리가 구약의 계시 속에서 출현한 것으로 지적인 세 가지 핵심들—우리네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느님과 책임감 있고 성숙한 인간 및 하느님 앞에서 진실되이 살기 위해 필연적으로 해야 하는 식별의 중요성—은 예수의 삶과 가르침 속에서 보다 심원하고 보다 완전한 의미로 실현되고 있다. 이 사실은 복음서들과 서간들에 아름답게 계시되고 있는데, 특히 요한과 바오로의 서간들에 식별의 이론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있다. 복음서들에는 이론이 아닌 실천으로 제시되고 있고 '식별'이란 낱말이 사용되지 않는다. 기예는 이같은 대조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영들의 식별’이라는 표현은 서간들 속에서 나타나며(1고린 12,10 ; 1요한 4,1), 복음사가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망정 복음서들 속에는 나오지 않는다. 복음서들은 예수의 말씀과 행적들을 기술하는 데 열중한 나머지 어떤 교의를 정교하게 다듬지는 않았다. 반면에 서간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들에서 야기된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영들의 식별 이론과 원리원칙들 양쪽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된다. 광의적으로 말해서 영들의 식별은 복음서들 속에서 ‘생활화되고’ 서간들 속에서 ‘교육되고’ 있다고 하겠다.²

복음서들에 나타난 생생한 식별체험이 무엇보다도 놀라운 까닭은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중적’ 식별, 곧 당신 자신의 신원과 사명에 대한 예수 자신의 식별 및 제자들의 부르심과 그들의 삶에 와 닿는 예수의 신원과 사명에 대한 제자들 자신의 식별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예는 전자를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이라 부르고 후자는 ‘탐색하는’ 것이라 부르고 있다.

예수는 당신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점과 당신을 감도하는 영, 그리고 당신이 임의대로 하시는 그 권능에 대해 질문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신다. 공관복음서(마태오, 마르코, 루가)는 그분의 출현을 두 길의 접합으로 제시하는데, 이 두 길은 아마 두 가지 식별이라 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하나는 당신의 정체가 무엇이며 당신이 무엇을 하려고 오셨는가에 대한 예수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식별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오셔서 활성화하고 명백히 하고 뒷받침해 주고…결국 믿음을 통하여 당신의 위격과 당신 사명의 신비를 탐지해내는 바로 그 인식력을 일깨워주시는 대상들 쪽에서 탐색하는 식별이다.³

2. 기예, 같은 책, 30쪽. 강조표시 ‘’’는 인용자 삽입.

식별하시는 예수

이 두 가지 식별—예수의 식별과 첫 제자들의 식별—은 저마다 우리네 삶 속에서 갖는 식별의 의미와 위치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예수께서는 친히 ‘오류가 있을 수 없게’ 식별하신다. ‘오류가 있을 수 없음’과 ‘식별’을 예수 자신과 관련시켜 접합하는 기예의 연결은 지극히 신비로운 것이다. 우리가 식별이란 하느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바에 관한 불투명성과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던 점을 상기해보자. 에드워드 말라테스타(S.J.) 신부는 식별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영들’의 식별이란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들 안에서 체험하는 영적 상태의 본질을 사랑의 고유성과 신앙에 비추어 성찰하는 그 과정을 뜻한다. 이러한 성찰의 목적은 우리가 체험하는 움직임들 가운데 어느 것이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주며 그분과 우리 형제들에게 보다 완전하게 봉사하도록 해주고 또 어느 것이 이 목표에서 멀어지게 만드는가를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판단해내는 데 있다.⁴

‘영들’의 의미는 제2부에 가서 보다 철저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으로 생각되는 영감들에 대적하는 ‘잡다한’ 영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3. 같은 책, 32쪽.

4. 기예 외 다수 공저, 「영들의 식별」, 9쪽, 서언 편에서 인용. “사랑의 고유성”이라는 문구는 신학의 학문적 전통에서 나온 아름다운 유산이다. 이것은 사추와 분석이 아닌 우리가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는 오랜 세월의 삶의 체험에서 나오는 지식을 말한다. 아내가 “난 내 남편을 알아요. 그이는 결코 천박하지 않아요.”라고 할 때 그 근거가 되는 지식이 바로 이것이다.

사실이다. 식별이 불확실성이나 불명료성을 전제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하느님의 음성과 하느님의 뜻이 투명하고 명확하다면 식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께로 되돌아가서, 그분이 오류가 있을 수 없도록 분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기란 매우 당혹스럽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정하듯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명확했다고 할 경우—그분이 마리아의 모태에서부터 당신이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고 어떤 고난을 당해야 할지 당신의 인간 의식(意識)으로 온전하고 분명하게 아셨다고 할 경우—예수를 두고서는 식별을 이야기할 방도를 모색하기가 매우 어렵게 된다. 그분에게 하느님의 뜻이 시종일관 명확했다면 그분이 식별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과연 그분에게도 어떤 불확실이나 애매한 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물론 우리는 예수께서 식별하셨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해버릴 수도 있다. 어쩌면 기예가 ‘식별’이라는 낱말을 예수에게 막연하고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통상적이고 ‘전통적인’ 인상이 이것—인성을 지니신 예수는 모든 것을 아셨고 우리가 품는 의혹도 품지 않으시고 우리가 겪는 갈등도 겪지 않으셨다는 것—이지만 내가 믿기로 그것은 성서가 그분의 인간적 체험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부정확한 것이다.

마태오(4,1-11)와 루가(4,1-13)는 예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당하셨던 세 가지 유혹을 기술하고 있다. 이 대목이 충격적인 것은 그분을 새 모세 또는 새 이스라엘로 계시하고 있다는 데 있다. 예수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마다 모세가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들이 광야 시절에 저질렀던 중차대한 오류들을 일깨우고 장차 악마의 유혹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신명기의 말씀들을 인

용하신다. 예수는 새 이스라엘이시다. 이스라엘이 야훼를 저버렸던 그 자리에서 그분은 사탄을 쳐 이기신다. 그리고 그분의 승리를 통하여 이스라엘은 구속받는다. 이 대목은 이처럼 대단히 상징적이며,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유혹’을 지나치게 자구적으로 예수의 체험에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저자는 다음에서 아주 명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관, 하느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대한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관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죄 외에는 모든 일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옥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발견하도록 합시다(히브 4,14-16. 강조표시 ‘ ’ 는 인용자 삽입).

히브리서 저자의 입장은 대사제이신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네 확신과 희망의 토대가 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서 예수를 자비로운 분으로 묘사하면서 그분이 모든 대사제처럼 “자기도 연약함을 지녔기에 무지하거나 그르치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5,2)라고 말한다. 저자가 이 점을 어떻게 해서 무죄하신 예수에게 적용시켰는지는 정확하게 꼬집어 말하기 어렵지만 바로 다음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이는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겪음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후에 당신께 복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원천이 되셨습니다.”(5,8-9) 이러한 말씀들이 위에서 예수께

서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에 관해 논하게 된 이유를 뒷받침해준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자명하다면 유혹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무 유혹도 없을 터인데, 그것은 악마가 하느님과 대면하고 있는 이들을 유혹해보아야 아무런 소용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가 무엇으로 그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시각으로 직시하는 그들을 어떻게 혼란에 빠뜨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사람이 유혹을 받으면, 아니 사람이 유혹받을 수 있더라도 하려면 히브리서 5장 2절에서 말하는 무지와 불확실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방금 복음서와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말씀들이 전제된다고 하더라도 이 점을 예수에게 적용하는 것은 실로 놀랍게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성서에 나오는 많은 말씀들이 이처럼 ‘인간적인’ 예수를 조명해주고 있는 듯하다. 루가는 그의 복음 2장 52절에서 소년 예수가 성전에서 부모에게 발견되어 그들과 함께 나자렛으로 돌아간 후에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해갔다.”고 말하고 있다. 애초부터 모든 것을 다 알던 사람이 지혜가 자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인상적인 대목 한둘을 인용하자면 마태오 26장(36-46절)은 예수의 계셰마니 체험을 불확실과 의구심에서 기인된 실질적인 고뇌로 묘사하고 있다. 예수는 세 차례나 이렇게 기도하신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저를 비껴가게 하소서.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 또 요한복음 12장 27절(이 대목은 요한이 빈민 사건을 순서를 바꾸어 기술하고 있는 듯하다.)에서 예수는 말씀하신다.

“지금 제 영혼이 몹시 산란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아버지,

이 시간을 면하게 저를 구원해주소서.’ 할까요? 아니, 저는 바로 이 시간을 위해서 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모든 복음서들 중에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가 가장 ‘신적’ 이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서조차 우리는 그분이 당신의 신원과 사명을 점차 깊이 깨달아가는 징후들을 발견하게 된다.

오늘날의 젊은이들한테는 우리네 인간적 체험과 가까이 계시는 이 같은 예수상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중에 비교적 일찍 태어난 이들에게 이것은 상당한 충격이 될 수 있다. 교회 문헌들이 예수의 인간적 의식문제를 놀라우리만큼 거의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 대부분은 그분을 우리와는 매우 다르고 우리를 초월하신 분으로 생각하고 또 믿는 데 습관이 들었다. 그분도 우리가 배우듯이 배웠고 우리가 유혹당하듯이 유혹당하셨으며 어떤 면에서 우리와 다름없이 불투명한 신앙 속에서 사셨다고 말하는 것—이 모두는 그분의 신성(神性)에 대한 우리네 신앙에 부합되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가 만약 히브리서 4장을 자구대로 받아들인다면 예수께서 당신 인생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성을 지니게 되셨다고 말하는 셈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설상가상격으로 그분은 결코 신성을 지닌 적이 없고 아주 위대한 인간이었을 뿐이라는 말도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가 교회의 신앙에 명백히 위배된다. 우리는 예수가 ‘한낱’ 인간이었다고도, 점진적으로 신성을 부여받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그분이 불투명한 신앙 속에서 사시고 또 우리나라 다름없이 유혹을 받으셨으면서도 당신의 신성에 아무런 훼손도 입지 않으셨다는 주장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가? 내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추가 도움이 된다고 본다. 영국의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기는 자기 부친에 이어 영국 왕위를 계승할 서열 두 번째 계승자가 되었다. 사실 엘리자베스 여왕과 찰스 왕세자가 내일이라도 죽는다면 어린 윌리엄이 왕위에 오르게 된다. 그가 비록 오늘은 자신의 왕족 신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왕위 계승자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그는 자라서 성숙해짐에 따라 점차 자신의 신분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자기가 놀이친구들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이내 감지할 것이고 후에 가서는 자기가 왕의 ‘법정추정 상속인’임을 알게 될 것이다. 20세가 되면 그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훨씬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며, 30세가 되면 그 이해가 보다 확연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신분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 자신의 이해나 자각이 달라지는 것뿐이다. 그는 태어난 그날부터 왕족이자 법정추정 상속인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야만 그는 이같은 자신의 특수한 신분을 온전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예수의 입장도 윌리엄 왕자의 그것과 유사했다고 믿는다. 그분은 육화의 순간부터, 우리네 신앙이 명백히 확인하고 있듯이 마리아의 아들인 동시에 참된 하느님의 아들이셨다. 그런데도 성서는 그분이 우리와 다름없이 유혹을 받으셨으며 지혜가 날로 자라고 더 많은 충애를 받았으며 고통을 통하여 복종하기를 배우셨다고 말한다. 윌리엄과는 달리 예수는 신적 의식과 인간적 의식을 동시에 지니고 계셨고 당신의 신적 의식을 통해서 영원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온전히 파악하고 계셨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 면에서는 우리나라 윌리엄 왕자가 그래야 하듯이 자라면서 깨달을 필요가 있으셨다. 물론 예수

가 신적 본성과 완전한 인간 본성을 동시에 지니셨다는 것은 심오한 신비에 해당한다. 그런 접합이 어떻게 가능한지는 우리네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시된 진리들 가운데 하나를 부정하면서 이 신비를 해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예수는 참된 신이요 참된 인간이기에 그분의 인성이 신성에 매몰되지 않으며 또 매몰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인성 안에서 그분은 성장하고 배우고 유혹을 당하셨다. 윌리엄 왕자에 대한 비유가 유효할진대 그분은 바로 이러한 인간적인 과정에 입각하여 당신의 신성을 점진적으로, 온전히 그리고 의식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또 당신이 누구였으며 시종일관 어떤 분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진실로 식별하셨다는 기예의 말을 수긍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은 복음의 예수에게는 또 다른 무엇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분이 당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독특하고 아주 확실한 감각을 지니셨다는 것이 특히 바리사이들과의 대결 대목(요한 5장, 7장, 8장), 사도들에게 하신 고별 강론 대목(요한 13,31-16,33) 및 아버지께 바치는 예수의 사제적 기도 대목(요한 17장) 등에서 드러나고 있다. 요한복음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공관복음(예: 마르 7장; 마태 11장; 루가 9장)에서도 이 독특한 힘과 확신의 요소가 발견되고 있다. 내가 생각기로는 바로 여기에 예수의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식별과 우리네 '탐색하는' 식별을 대비시키는 기예의 논지가 있다. 당신의 신분과 사명에 대한 예수의 식별은 진정 하나의 식별—불투명하고 점진적이며 성장하는—이었지만 확실성 면에서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무류성(無謬性)이란 아주 미묘한 개념이다.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예수에게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 토의해

보도록 했을 때 그들은 거의 어김없이 무류성을 명확성과 동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 하느님이 원하시는 바와 그것을 원하시는 이유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만약 그렇다면 무류성과 명확성이 어떻게 해서 식별의 불명확성과 양립할 수 있는가를 파악하기란 매우 힘들어진다.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이 완벽히 분명하면서 동시에 불분명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러기에 나는 무류성이 이해의 명확성을 의미하지도, 의미할 수도 없다고 믿는다. 존 코트니 머레이(John Courtney Murray, S.J.)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논할 때면 으레 교회가 어떤 공의회에서 정의하거나 선언한 것을 완전히 파악하는 데는 대략 50년이 걸린다고 말하곤 했다. 그의 말로는 공의회 교부들 자신도 스스로 이룩한 업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류가 있을 수 없게,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성령이 그들의 협의과정을 인도하시고 또 그들이 그 당시에 깨달은 것 이상의 것을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이라는 말이었다. 교황이 특정한 상황에서는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확인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가 반드시 문제의 일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기보다 교회생활에 필수적인 문제들에 있어 '오류를 저지르지 못한다'는 말이 된다. 그들의 직분상 어떤 한정된 분야에서 교황과 공의회에 적용되는 그것은 하느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 계시고 또 생의 매순간에 하느님의 성령께 당신을 완전히 개방하고 계시는 인간 예수의 삶 전체에 똑같이 적용되게 된다. 그분은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듯이(4,15) 그분은 우리와는 달리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우리처럼 성장하셨지만

결코 성장을 거부하거나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느님께 한 번도 “아니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식별되시는 예수

그렇다면 우리 역시 오류가 없는 식별이 가능한 것인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를, 비록 그 ‘이유’는 불분명하고 점진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오류 없이 감지해낼 수 있는 것인가?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역시 예수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성령께 자기를 온전히 개방하고 있기만 하다면 가능하다. 필경 성인(聖人)들은 성숙되어감에 따라 주님과 이 수준의 의지합일(意志合一)에 접근하게 된다. 하지만 복음서들이 명시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심지어 사도들마저도 예수 공생활 기간중에 그만큼의 자기 개방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들은 이기심으로 밀폐되고 봉쇄되어 있었다. 야심에 찬 제베대오의 아들들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경우가 그러했고(마르 10,35-40), 부자청년의 응답이 그러했으며(마태 19,16-22), 베드로가 대사제 저택 안뜰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경우가 그러했다(루카 22,54-62). 간단히 말해서 제자들은 자기 개방에 실패했다. 그리고 그들의 집착—영예, 부, 안전, 삶 자체에 대한⁵—은 예수의 신분과 그 사명에 대한 식별을 어렵게 하고 헛갈리게 만들었다.

그들은 식별했지만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틀림없는 식별은

5.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5장과 「샘이 마를 때」 3장 및 4장, 「장터의 어둠」 1장과 3장 중 관련된 부분 참조.

아니었다. 예수의 식별은 성령께 당신을 온전히 열어두신 까닭에 틀림이 없었다. 아버지의 뜻이 불분명하고 불확실할 때조차도 그분이 죄 없고 왜곡된 집착이 없었기에 성령은 아버지의 뜻에 맞도록 그분을 인도하실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 대다수는 베드로와 비슷하게 산다. 베드로는 예수를 사랑했고 하느님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과 …’ 를 사랑했지 ‘하느님만을’ 사랑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진실로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였다. 하지만 그는 그 밖에 다른 것들도 바랐다. 우리가 하느님의 바다 위를 자유로이 떠다니는 것을 방해하는, 성인들이 소위 왜곡된 집착이라 부르는 이 또 다른 바람들은 베드로의 예수 식별을 훼방하였다. 이를 아주 자명하게 보여주는 사건 하나가 마태오복음(16,13-23)과 마르코복음(8,27-33)에 동시에 기술되어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신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는 이스라엘이 학수고대하던 메시아라고 선언한다. “선생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의 답변은 예수에 대한 위대한 신앙고백으로, 마태오복음에서는 이 답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교회의 초석으로 삼으시는 예수의 선언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에 베드로가 흔들리자 예수는 그를 ‘사탄’이라 부른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께서 곧 이어 당신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죽음을 당하는 고통받는 메시아가 되실 것임을 밝히신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 오랜 세기 동안 유대 백성은 영광스런 메시아가 오셔서 백성을 식민 압제에서 해방해주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통받는 메시아는 상상도 못 하고 있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것처럼 생소한 사상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예수를 사랑했

고 그분을 그리스도로 굳게 믿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의 생각과 기대와 집착에 부합되는 그리스도였을 뿐이었다. 사실 거의 같은 순간에 칭찬받고 꾸지람을 들은 것이 베드로에게는 무척 이상했을 — 당혹스러웠을 — 것이다. 그는 하느님의 성령에게 인도받은 까닭에 칭찬을 받았고 사탄한테 현혹당함으로써 꾸중을 들었다.

우리들 대부분은 복음에 나오는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베드로와도 일체감을 갖는다고 믿는다. 그의 솔직성, 사랑, 성급함, 지극히 인간적인 낙약성 등이 그렇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 보면 즐겁다. 사도행전에서 유월절에 성령에게 감도된 그를 보면 교회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하느님의 뜻을 비교적 '오류가 있을 수 없을' 만큼 감지하기에 이른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이방인들의 개종에 관한 쟁론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이다. 베드로가 유대 율법과 상반되게 부정한 짐승을 먹도록 명령받는 영상은 그더러 이교도 고르넬리오의 가솔에게 세례를 베풀기 바라시는 하느님의 원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사도 10,1-11,18). 베드로는 당황하고 곤혹스러웠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느님이 이 이방인 가정을 신앙 안에 받아들이기 바라신다는 것은 그에게 '분명하게' 드러난다. 성령께서 성신강림일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효과를 내면서 그들 위에 쏟아져 내릴 때 특히 그러하다. 하지만 베드로의 당황과 망설임은 그 후에도 계속된다. 적어도 말다툼에 대한 성바오로의 진술에는 그렇게 나온다(갈라 2,11-14). 그러나 예루살렘 공의회 석상에 가면 그는 하느님의 이름으로 결정적인 발언을 함으로써(사도 15,7-11) 교회 발전의 흐름은 명확하게 달라져 이후부터 교회나 여타 사람들이 다시는 그리스도교를 유대교의 개혁운동으로 보지 않게 된다.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제자들의 식별이 단순히 예수의 교의가 아닌 예수의 신원과 사명에 관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 예수 자신도 당신의 ‘말씀’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여겨질 때마다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당신에 대한 믿음의 기반으로 곧잘 제시하셨다(참조: 요한 5,36; 10,25; 10,38). 예수는 저들의 랍비요 저들의 선생이셨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그 속에 담긴 고유한 윤리적 가치나 논리상의 힘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그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받아들여져야 하게 되어 있었다. 기예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참된 행복들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이 점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

그분이 당신의 첫 제자들을 선택하신 후로 그분의 메시지는 달라진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이제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었으니... 요한(세례자)이 고대하던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의 구분이 시작된다. 한편에는 가난한 이들, 불쌍한 이들, 온유한 이들, 억압받는 이들이 자리하고 다른 한편에는 부유한 자들, 행복한 자들이 자리한다. 하늘나라와 그 기쁨은 전자를 위한 것이고 후자를 위해서는 불행이 있다.⁶

하지만 인간들이 복된 사람과 저주받은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이 같은 구분은 ‘일종의 품목별 분류’, 그러니까 ‘거의 완전히 외적 자료에 기초한’ 사람들의 분류와는 다르다. 참된 행복은 단순히 부유해지고 가난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부자는 모두 불행하고 가난한 이들은 모두 행복해지는 식의 기계적인 분류가 아니다. 가난한 이들과

6. 기예, 「영들의 식별」, 34쪽.

부자들의 행·불행은 예수 자신과 그들의 관계에 의해서 좌우된다.

참된 행복은 예수가 선포했기에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지며 예수가 거기 계시면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 기쁨을 창출하실 때에만 참된 것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참된 행복은) 고통에 대한 일종의 모독이 될 뿐이다. 예수의 현존은 불쌍한 이들의 기쁨과 가난한 이들의 부를 창출해내며 바로 이 현존이 부자와 가난한 이들, 행복한 이들과 박해받는 이들을 구분하게 되는 것이다.⁷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우리가 식별하는 것은 예수이지 그분의 교의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난한 이들이 그분의 현존 안에서 산다면, 그리고 그분이 그들에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행복한 것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대면했을 ‘경우에만’ 자기네 부가 짐이요 후회거리임을 발견할 것이고, 이 짐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참된 행복과 양화 모두가 어리석고 몽상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말 것이다. 나는 베드로와 유다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믿는다. 베드로가 유다보다 예수의 가르침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납득한 것은 결코 아니다. 사실 요한복음 6장 68-69절에서 생명의 빵에 대한 예수의 가르침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것이어서 그분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물론 그분의 제자들까지도 그분 곁을 떠나갔을 때, 예수께서 열두 사도에게 너희도 떠나가려느냐고 물으시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열두 사도를 대표하여 이렇게 답변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물러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7. 같은 책.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느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있으며 또 (익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예수의 교의가 아닌 예수 자신이다. 그가 한 말은 이런 말이나 같다. “주님,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이해 못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인 까닭에 저는 받아들이는 바입니다.” 불행히도 유다는 베드로가 예수에게서 발견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가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도 그의 마음속에서 깃들 자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식별의 깊이

물론 우리 역시 이러한 도전을 받고 있다. 슬기로운 윤리적 규범이 소중한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서에 접근하는 일차적 목적은 슬기로운 윤리적 규범을 발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뵙기 위해서이다.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는 복음서들 속에서 인류의 역사상 가장 고귀한 윤리적, 도덕적 교훈을 발견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에 대한 ‘신앙’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따라서 간디의 이상 및 방법론의 사실성과 실용성에 관한 전진적인 논쟁은 인간의 이성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베드로처럼 자기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과 대면하는 사람의 경우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식별이 명확한 토의 주제가 되고 있는 서간들, 특히 바오로와 요한의 편지들에서 그 점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예수의 사도적 체험을 초대 교회의 제반

필요와 문제점들에다 적용시키는 일이다. 성령의 인도하에서 예수님의 변형력 있는 체험을 명상적이고 관상적으로 ‘소화하는’ 기도는 이제 마땅히 사도적 공동체들이 직면한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행동을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이 기도와 행동의 접점(接點)이 이미 지적했다시피 식별에 담긴 의미 바로 그것이다.

성바오로와 성요한은 그리스도교 공동체 내의 식별 기준들을 몇 가지 열거하고 있다. 이것들은 성이나시오의 고전적인 식별 법칙들에다 성서적 토대를 제공하는 것들만큼 뒤에 가서 거론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2장은 지금까지 줄곧 다루어온 참된 예언과 관련하여 바오로 및 요한의 기준들이 구약의 기준들과 어떻게 대비되는가를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강조점의 변화를 추적할 경우 우리가 복음서들 속의 이중적 식별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살펴왔던 바가 제대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서에 나타난 참된 예언의 기준들—불행, 놀라운 징표, 계시된 교의에 대한 충실성, 예언자의 윤리적 행실, 예언자의 의도 및 야훼께서 선택하여 파견하심을 계시하는 최초의 영상이라는 내적 기준들—을 전제로 할 때 요한과 바오로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강조점은 형제적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의 본인의 자세’⁸⁾이다. 불행이라는 상식적인 기준—어떤 예언자가 달갑지 못한 재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사기가 될 가능성이 훨씬 적다—은 바오로나 요한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제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실 뿐만 아니

8. 기예, 같은 책, 48쪽. 그는 성바오로에 있어서 식별의 기준이 되는 것들 여덟 가지를 열거하고(44-48쪽) 요한의 중요한 첫째 편지에서 일곱 가지 ‘법칙들’을 뽑아냈다(51-53쪽).

라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불행’이 되는 까닭이리라. 바오로는 자기가 드러내 보여온 권능의 표징들에 호소하는가 하면(예: 2고린 12,12) 두 사람 모두 내적 체험에 호소하고 있다. 바오로의 경우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도중에 체험한 회심이 그것이고 요한의 경우는 그 체험이 그의 메시지의 토대로 정립되고 있다.

생명의 말씀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으며, 우리가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던 것입니다(1요한 1,1).

육체의 눈은 인간 예수를 보게 된다. 그리고 내면적인 사랑의 눈은 주님에 대한 이 육체적 체험 속에서 “하느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1,5)을 감지하게 된다. 기예가 지적하고 있듯이 참다운 제자는 설령 육신을 가진 예수와 안 적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인간적 영향력과도 무관한 확실성과 빛”을 제공하시는 그분의 성령을 내적으로 체험하게 되며(1요한 3,24; 4,13), 또 확실성과 빛은 신뢰로, 두려움을 몰아내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결실을 맺게 된다.⁹

신약성서가 형제적 사랑을 강조하면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러한 하느님 성령의 내적 표지들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표지들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

9. 기예, 같은 책, 52쪽.

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이다(1요한 4,20 ; 참조 : 2,9 ; 3,10). 성바오로는 갈라디아인들에게 써보낸 그 유명한 글귀를 통해 이러한 형제적 사랑의 기준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들을 열거하고 있는바, 이 대목(5,19-23)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가 속하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다르고 갈등관계에 있는 ‘영들’이 작용하고 있음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

육의 행실들이란 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음행, 부정, 방탕, 우상 숭배, 마술, 원한, 싸움, 시새움, 분노, 모략, 불목, 분열, 질투, 술주정, 폭음 폭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

끝으로 기예가 식별에 관한 요한의 교의를 논하는 과정에서 지적 하듯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나 선택 속에서 하느님의 성령이 식별될 수 있게 하려면 이 기준들 ‘모두’가 실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요한의 관점의 핵심은 그리스도교적 삶이라는 틀 속에 내재하는 모든 요소들에 완전한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다. 신앙고백, 교회의 권위, 사랑에 대한 실제적 성실성, 내적 생활의 필요성, 성삼위와의 친교—이 모든 근본 원칙들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이들 모두는 솔직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판 속셈 없이 발전되어야 한다. 이들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을 경우 우리는 다른 것들도 결여되어 있다고 믿어도 된다.¹⁰

10. 기예, 같은 책, 53쪽.

성바오로의 말마따나 악마가 빛의 천사로 위장하고 끼여들기 때문에 이 기준들 가운데 몇 가지만 입증되어서는 충분치 못하다(2고린 11.14). 악마는 하느님의 음성도 흉내낼 수 있고 또 선한 천사의 가면을 쓰고 발현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표지들이 선한 것이라면 행동하거나 결정하도록 하는 그 영감이 하느님의 성령에게서 나온 것으로 믿어도 된다. 3부에서 살펴보게 되겠지만 분명히 선한 결실들이 과시되는 때라도 ‘뱀의 꼬리’는 항상 악령의 행위를 폭로하게 마련이다. 식별력 있는, 사랑이 성숙한 사람들의 경우는 적어도 그렇다.

결론

이렇게 하여 우리는 이 장에서 신약성서가 식별의 확고하고 포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식별은 다 자란 아들딸들의 아버지라는 하느님관을 토대로 하고 있고 또 손수 식별력 있는 사랑의 삶을 영위하시고 우리네 식별 대상이 되어주신 인간 예수를 그 전형이자 초점으로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비단 기도 속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교 공동체로서의 우리네 구체적 상황 속에서 ‘예수를 식별’ 한다. 끝으로 우리는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담긴 식별의 개념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식별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며 우리가 오늘의 우리 삶 속에서 예수와 그분 아버지의 뜻을 식별하자면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제 우리는 이나시오의 고전적인 식별 법칙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서에서 발견한 식별력 있는 사랑의 전제

조건들을 요약하고 구체화하기로 하자.

■ 실습문제 ■

1. 예수께서 진실로 당신 자신의 신원과 사명을 식별하셨던가의 여부, 그리고 만일 식별하셨으면 ‘오류가 있을 수 없도록’ 식별하셨던가의 여부와 그대 자신의 식별 생활과 어떤 ‘실제적인’ 연관이 있는가?

2. 세례자 요한은 옛 계약에서 새계약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산 위대한 과도기적 인물들 중 한 사람이다. 이 인물은, 말하자면 구약시대 전체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예수한테서 식별해내고자 하고 있다. 만약 그대가 이 요한을 만날 수 있게 된다면 예수에 대한,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사명과 신원에 대한 요한의 식별과 관련하여 무엇을 물어보겠는가? (편의상 세례자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복음의 주요 부분들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요한 1,6,15,19-36; 3,25-30; 5,33-36; 10,41; 마태오—마르코와 루가에서 그에 해당하는 부분들—3,1-17; 4,12; 9,14 이하; 11,2-19; 14,1-12; 16,14; 17,13; 21,25-27)

3. 우리네 식별의 분위기

신약의 계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드러났듯이 식별의 기술은 교회생활에 필수적인 선물이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보편화되지 못한 기술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기술에 관한 글들이 많이 집필되었고 식별이라는 낱말이 종교계 내부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순수한 식별은 여전히 아주 드문 편이다. 사람들이 설령 영적 식별과 결단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경우라도(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수가 많다.) 진실되고 효율적인 식별방법을 아는 데는 극도의 어려움을 느끼게 마련이다. 문제는 식별의 원칙들 자체가 어렵거나 애매모호하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식별의 분위기—식별에 들어가기 전부터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가 주님께 완전히 투신하는 분위기여야 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이는 곧 우리 생활 속에서 그분의 뜻을 수용하는 ‘백지수표 같은’ 자세, 예수께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견지하셨던 바로 그런 자세를 의미한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참된 예언의 기준들이나 바오로와 요한이 제시한 신약의 식별 규범들을 실제에 적용시키는 일은 항상 쉽지만

은 않다. 하지만 이것들은 특히 초대 교회의 생활 및 예수 자신의 생활 속에서 실증되고 있는 사례들을 볼 때 비교적 선명하게 드러난다. 사실 보다 문제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들의 사용에 전제되는 영혼의 기본자세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넥타이를 고를 때 중요한 것은 넥타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와 모양을 아는 데 있지 않고 사랑에서 비롯된 지식으로 ‘그 사람 자신’을 아는 데 있는 것이다. 과연 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내가 그를 알고 그의 취향과 원의를 알자면 내 자신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 즉 우리들 사이에는 과연 어떠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내가 식별의 ‘분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번째 문제이다.

우리는 예수의 삶 속에서 엮어지는 이 분위기를 이미 살펴왔고 정도는 그만 못해도 베드로를 비롯한 여타 제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들의 집착 때문에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우리가 성서공부를 하는 일차적 가치는 그것이 식별의 그리스도교적 가치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데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이 성서적 시각을 20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다 적용시키는 일이다. 이장에서 우리가 고찰하는 것은 오늘 우리네 삶 안에서 엮어지고 있는 식별의 분위기이다.

식별은 구체적인 결정들 및 적극적인 응답을 요구하는 특수한 상황들과 연관되는만큼 우리는 먼저 전형적인 식별 상황 세 가지—즉 빈민하는 영혼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확정하도록 도와줄 영적 지도자를 찾을 수도 있는 상황들—을 가상해보도록 하자.

식별이 필요한 세 가지 경우

조는 교구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신학생이자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대가족의 장남이다. 레티시아는 활동 수도 공동체에서 갓 서원한 수녀인데, 그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서약생활에 합당한 사회·정치적 참여의 강도와 종류를 놓고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마리아와 에드는 혼인생활에 금이 가고 있는 상태이다. 그들은 도저히 함께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들에게는 관심을 가져야 할 어린 자녀들 넷이 딸려 있다. 이들—조, 레티시아, 마리아와 에드—모두는 인간으로서 너무도 일상적이지만 한편으로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사실 인간으로서는 이러한 위기의 순간들을 대면할 수밖에 없다. 정확한 행동방향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다. 조는 신학교에 머무르면서 강렬히 느껴져 오는 그 소명을 계속 추구해나가야 할 것인가? 혹시 가족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갖가지 기회와 혜택들이 주어지는 안전한 생활을 구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레티시아의 경우 사회적, 정치적 정의를 향한 현실의 투쟁에 참여할 그녀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소속 공동체는 이 문제를 놓고 심하게 분열되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투신이 수도자의 복음적 생활양식과 거리가 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복음이 오늘날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에게 그같은 투신을 명하고 있다고 똑같은 강도로 주장하고 있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양쪽 모두가 교황과 교회의 선언들을 인용하면서 자기네 반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때 레티시아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마리아와 에드는 수도자나 신학생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조와 레티시아의 경우에 암시되고 있듯이) 자기네 딜레마를 복음적으로 성실히 해결하려는 투신된 그리스도인들로 가정하기로 하자. 그리고 최소한 훌륭한 사제 한 사람이 (혼인 당시 두 사람의 심적 상태를 이유로 하여) 교회가 그들의 혼인이 무효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시사했다고 하자. 그럴 경우 그들은 쉽게 이혼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자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싫든 자녀들이 태어났고 또 그들의 책임하에 있다. 그렇다면 그 책임을 가장 훌륭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헤어져야 하는가? (그래야 자녀들이 적어도 평온한 분위기에서 자라게 될 테니까.) 아니면 그냥 함께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자녀들이 감수성 예민한 시기에 아버지의 존재와 영향력에 접할 수 있을 테니까.) 어느 쪽이 더 나을까? 마리아와 에드는 가족과 친구들한테서 충고를 원 없이 들었고 심지어 압력까지도 받았다. 하지만 하느님은 어떻게 하는 것을 바라실까?

통상적이지 않은 일을 '식별하기'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러한 딜레마는 불행히도 우리네 현재 생활에서 통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위기가 때로는 대단히 클 수도 있고 상대적으로 작을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간단하고 아주 정확한 해답을 어느 것 하나 찾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문제들과 대면하게 된다. 비신자에게 있어—아니면 신앙이 자신의 생활 속에서 별다른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신자'에게 있어—선택은 이성(양쪽이 저마다 낳는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는)에 좌우되거나

아니면 직관(이것은 감정이나 본능적인 집착을 점잖게 부르는 명칭일 따름인 경우가 많다.)에 의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가정한 조와 레티시아, 마리아, 에드처럼 투신한 신자의 경우 “내가 어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곧 “이 위기 상황에 하느님이 내게 바라시는 바는 무엇인가? 주님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가 된다. 애태우는 우리네 친구들이 이 낱말을 들은 적이 없을지 몰라도 이것은 정말 ‘식별’의 문제인 것이다.

임시로 우리는 우리가 직면하는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해내는 기술을 곧 식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 주께서 마리아와 에드에게 진실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인가? 조에게 바라시는 것은? 레티시아에게 바라시는 것은? 때로는 그분의 뜻이 너무 자명하여 — 예를 들면 어머니가 어린 자녀들의 아침을 준비해주어야 한다는 사실 — ‘식별’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며 따라서 전혀 신경 쓸 필요조차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식별은 무엇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가를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감수성을 의미하게 된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 낱말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해온 상황들,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상황,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진실로 무엇을 바라시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들에 적용되는 것이다.

식별의 전제조건들

이처럼 모호한 상황들 속에서는 주님이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알자면 식별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식별자가 특정한 자질이나 소양을 갖추는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세 가지를 열거한다면 이렇다.

1)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욕. 식별은 가장 먼저 주님에 대한 투신된 신앙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식별력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투신의 '종류'를 보다 자세하게 살펴볼 때가 되었다. '투신된 신자'란 진실로 하느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욕, 기존의 이 구체적인 세계 속에서 그분의 사업을 실현하려는 의욕을 가진 사람을 뜻한다는 말은 이미 한 바 있다. 하느님이 무엇을 바라시든지 실제로 내게 달라질 것이 없다고 한다면—그분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바라거나 하 다 못해 바라려는 의욕이라도 갖지 않는다면—식별은 불가능하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진실한 식별에 필요한 첫번째 전제조건이요, 결코 결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기에게 하느님이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해도 약간밖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식별을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러기에 앞에서 우리는 조와 레티시아, 마리아, 에드가 자기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진실로 소중히 하는 사람들이라고 강력히 전제했던 것이다.

우리가 식별에 관한 고전적 자료로 삼고 있는 것은 30일 피정에 임하는 피정인과 피정 지도자의 지침서인 성이나시오 로올라의 「영신수련」이다. 「영신수련」은 16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그때 이후로 교회를 풍요롭게 만든 다양한 피정 전통들의 귀감이 되어왔다. 그리고 그 때문에 성이나시오는 피정인들과 피정 지도자들의 수호성인이 된 것이다. 이나시오는 우리가 거론한 이 첫번째 전제조건에 대해 길게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자세는 피정에 임하는

사람들 모두가 마땅히 갖추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피정인이 이같은 자세를 당연히 갖추고 있다고 보며,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에게는 그가 자기 죄를 고명할 때까지 위에서 말한 쉬운 묵상 두 세 가지만을 가르쳐주는 것이 더 알맞을 것이다. 그리고 성찰하는 규칙들을 설명하고 또 그가 얻은 신익을 보존하기 위하여 과거보다 더 자주 고백하기를 권고하는 것이 꼭 좋은 일이다. 그러나 첫째주간의 묵상제목 이외에 선택문제나 혹은 다른 어떠한 묵상에도 들어가지 말 것이다.¹

이는 이냐시오의 식별이라는 주제의 길잡이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이다. 사람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성실하고도 적극적인 의욕이 없을 경우 장래 언젠가는 진실로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피정을 가질 수 있으리라는 희망 속에 현재는 그에 필요한 자세를 가다듬는 토대를 마련하는 편이 낫다. 우리가 ‘투신된 신앙’이라 부르는 이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은 진정한 식별에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2) 하느님께 열린 마음. 식별하는 사람은 ‘경건하거나’ 열심히 한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하느님이 어떤 사람의 삶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는 하나 그에게 하느님의 뜻을 수행하려는 순수한 욕구가 없는 수도 있다. 실제로 사람은—하느님에게, 하느님의 영광에 사로잡힌—종교적 광신자가 되고 그저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에 대한 제 나름의 관념에 빠져버리는 수도 없지 않다. 이것

1. 성이냐시오의 「영신수련」(윤양석 옮김,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67년), 18 항.

은 물론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갈구하는 상태가 아니다. 아니, 이것은 아주 위험스럽고 사기성 높은 협잡으로 종교의 역사와 개개인들의 삶에 대단한 고통을 유발시켜온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진실로 갈구하려면 사람은 하느님께, 키에르케고르가 그토록 열렬하게 주장했듯이, 항상 신비롭고 놀라게 만들고 혼돈에 빠지게 하는 하느님께 진정으로 자기를 '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들 모두는—심지어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까지도—하느님이 당신을 계시하실 때 진실로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 자신의 하느님관을 발견하곤 한다. 내가 보기에 바리사이들의 경우도 여기에 문제가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자신의 선입견, 자기들 자신의 집념으로 눈이 가리워진 까닭에 예수의 신원과 사명 및 그들에 대한 예수의 부르심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 그들은 종교적 열성파들이었지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느님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느님과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생각들을 추구하였다. 그런가 하면 사도들까지도 예수승천 날에 여전히 이렇게 묻는다. “주님, 이때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재건하시겠습니까?” (사도 1,6)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줄곧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귀담아듣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경이로워했으며서도 여전히 그분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은 유대식 메시아사상과 왕권사상에 사로잡혀 다른 것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할 마음의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의 삶에서나 우리네 삶에서나 진정한 열림은 성신강림절의 선물 그것이다. 우리는 이 선물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성령께서 이것을 주셔야 한다. 우리가 주님께 진실로 열려 있지 못하면 식별할 수가 없다. 그러기에 성숙된 기도자가 악령 들린 소년의 아버지가 바쳤던 기도를 갈수록 입에 많이 올리게 되는 것

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믿습니다. 제 믿음이 부족하오니 도와주십시오.”(마르 9,24)

성이나시오는 이 하느님을 향한 열림을 ‘생명의 길의 선택을 위한 길잡이’(169항)에서 다룬다. 이 대목은 「영신수련」 둘째주간 마지막에 해당된다. 피정인은 첫째주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솔직한 자기 발견—하느님이 보시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 발견—에 도달한다. 그리고 둘째주간에는 이 자기 발견에서 눈을 떼고 공생활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관상한다. 첫째주간에 주님 면전에서 ‘발가벗은’ 피정인이 이제는 주 예수를 입으려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항상 행동하고 봉사하는 사람이었던 성이나시오에게 있어 이러한 작업은 곧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1항). “영신 면에서 모든 사욕편정을 깨끗이 없애고 구령을 위하여 자기의 생활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날카로운 양심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기 위하여 영혼을 준비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든 방법을 영신적 수련이라 한다.”

이나시오는 생명의 길의 선택을 위한 길잡이(169항)에서 영혼이 지난 두 주간에 걸쳐 거처온 이탈의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피정인 풍요로운 결실을 맺는 것이었다면 이때쯤 피정인은 다음 구절이 자신의 현재 상태를 확인해주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선택을 잘하기 위하여는, 마음의 눈이 맑고 밝아야 한다. 즉 한결같이 내가 창조된 목적인 우리 주 하느님의 영광과 내 영혼의 구원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진정한 열림이라 부르는 것으로,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터득하기는 어렵다.

이나시오는 이 문제를 수단과 목적에다 결부시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목적은 수단에 맞추거나 끌어당길 것이 아니라, 수단을 목적에 맞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먼저 수단인, 결혼생활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결혼한 신분으로 우리 주 하느님께 봉사하기를 택하는 것은, 목적인 하느님께 대한 봉사를 둘째로 선택하는 것이다.”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나시오의 말이 400년 전에 한 말이지만 오늘날에도 맞는 말임을 알게 되었다. 착한 영혼들은 하느님을 자기네 목적으로 삼으며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분을 나의 ‘유일한’ 분으로 삼는 일은 한결 더 어렵다. 사실 우리들 대다수는 스스로가 수단을 목적으로 삼게 되었다는 것, 스스로가 ‘하느님만’ 보다 ‘하느님과 그리고’를 선택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오래 전에 결혼한 (아니면 서품받은) 다음이 된다. 다행히도 주님은 참을성과 인내심이 많으시며 우리네 구부러진 선으로 똑바른 글을 쓰시는 분이시다. 그렇기는 해도 우리의 식별 능력이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열림이나 우리네 의향의 단순성과 완전히 비례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남는다.

3) 하느님에 대한 지식. 진정한 식별에 필요한 전제조건이 또 하나 있다. 사람은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서도 어떻게 그 뜻을 발견해야 할지 감을 못 잡을 때가 있다. 선한 의욕은 지녔으면서 하느님과 그분의 길에 대한 확고한 지식은 없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경우 역시 식별이 불가능해진다. 투신적 신앙은 계몽된 신앙, 내가 스스로를 투신한 대상에 대한 확고한 체험적 지식을 토대로 하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 내가 그대를 모르면 그대를 즐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내가 전에 했던 이야기가² 이 점을 명확히 해줄 것이다. 휴가를 맞아 가족과 함께 지내던 어느 날 나는 어머니와 함께 물건을 사러 간 적이 있었다.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넥타이를 선물하고 싶어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넥타이들이 잔뜩 널린 진열대를 살살이 둘러본 다음에 아버지가 좋아하겠단 싶은 것 네댓 개를 열른 추려내더니 그것들을 좀더 찬찬히 뜯어본 연후에 아버지가 제일 좋아할 것 한두 개를 골랐다. 어머니의 예상은 맞았다. 아버지는 그 넥타이를 꽤나 맘에 들어 하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실제로 무엇을 좋아할지 ‘알고’ 계셨던 것이 분명했다. 어떻게 안 것일까? 그것은 어머니가 아버지와 40년이라는 인생을 함께 했기 때문이요, 2장에서 말한 대로 사랑에서 비롯된 ‘타고난 지식’이 어머니한테 있었기 때문인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 역시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나는 아버지가 정말 좋아할 물건을 그토록 정확하게 골라본 적이 없었다. 나는 집을 떠나 여러 해를 신학교와 필리핀에서 보냈다. 따라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체험—아버지에 대한 내 체험적 지식—은 어머니보다 훨씬 적을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뜻에 대한 식별도 그분에 대한 우리의 생활화된 체험, 그분에 대한 우리의 체험적 지식에 의해 좌우된다. 넥타이에 대한 예는 중요한 점 또 하나를 제시해준다. 내가 주님에 대해 갖는 개별적인 체험이 적다면, 이런 생활화된 체험을 갖고서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가르쳐줄 사람한테 그만큼 더 많이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리스도교적 전통에서 ‘영적 지도’가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상적으로 볼 때 영적 지도

2.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3장 참조.

자는 주님에 대한 체험이 나보다 더 깊고 더 오랜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사람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일 내가 아버지한테 넥타이 하나를 사드리고 싶다면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물건을 고르는 데 조언을 받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적어도 내 생각에 아버지가 좋아할 것이라고 보는 넥타이가 아닌, 정말 아버지가 좋아할 넥타이를 고르고 싶다면 말이다. 하느님에 대해서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영적 지도자가 내 대신으로 선택해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가 주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사실이며 따라서 선택은 마땅히 내가 해야 한다. 하지만 영적 지도자는 내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내가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분을 정말로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훌륭한 판단자—내가 즐겨 쓰는 명칭을 쓴다면 공동 식별자—역할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조와 레티시아, 마리아, 에드가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에서 지도를 구하게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그들은 하느님의 뜻을 준행하고 싶어한다. 그들은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들은 그분이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입장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길에 비교적 체험이 많다고 믿는 사람, 현재의 구체적이면서도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식별하도록 도와줄 만한 어떤 사람을 찾게 된다. 이런 이유로 나는 영적 지도가 영적 생활의 초심자들에게는 특히 식별과 (필수적이지는 않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말하곤 한다. 사실 나의 경우 식별에 관한 연수과정을 으레 영적 지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여 그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방금 지적인 대로 영적 지도, 즉 공동 식별은 우리 자신이

주님의 길을 그만큼 많이 체험하게 되면 그 필요성은 자연히 줄어들게 된다. 내가 영적 지도를 공동 식별로 보기 좋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차적 식별자는 지도받는 사람이다. 지도자의 역할은 피지도자를 항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피지도자가 주님을 개별적으로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직접 식별하여 판단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감지하는 감수성을 키워 나가려면 사는 동안 내내 영적 지도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뒤에 가서 좀더 자세히 설명할 테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님을 향한 의지의 투신이 아버지한테 드릴 벡타이를 고르는 일과는 달리 내 전 존재의 양도를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상과 육신과 악마’는 내가 숨을 넘길 때까지 이러한 양도를 방해하고 내 선택을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애쓸 것이다. 영적 지도가 일평생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영적 지도자의 일차적 역할은 사람의 정신이 성숙해지도록 돕는 것, 그 영혼이 하느님의 성령을 보다 깊이 알고 보다 절실하게 감지하도록 뒷받침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벡타이 고르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이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진정한 식별에 필요한 세 가지 전제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이 세 가지를 요약해두는 것이 유익하리라 본다.

1) 식별은 인생의 구체적이면서도 흥미한 상황 속에서 진실로 하

그님의 사업을 실현시키고 싶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바라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다.

2) 식별은 또한 사람이 진실로 마음을 열고 주님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 점은 1) 항에 암시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중요한 까닭은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하느님의 일을 하는 데' 자기를 열기(그분이 원하시는 베타이를 그분에게 골라드리기)보다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쪽(우리가 좋아하면서 그분이 좋아하기를 바라는 베타이를 그분에게 골라드리는 쪽)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할 뿐—그분은 분명 우리에게 중요한 존재이다—그분이 대장이 되시도록 할 줄은 모르는 것이다.

3) 끝으로 이상의 두 가지 전제조건들이 결실을 거두게 하려면 식별자는 사랑에서 비롯되는 체험적 지식이라는 성서적 의미에서 주님을 '알아야' 한다.³ 만일 이러한 개별적인 하느님 체험이 없을 경우 그는 주님을 아는 공동 식별자, 즉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있다. 당면한 위기에 대해서 이 지도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해석해줄 수도 있지만, 그의 일차적인 역할은 어디까지나 나를 그러한 개별적인 지식으로 이끌어서 스스로 식별력 있는 인간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3. 존 매켄지(John L. McKenzie)의 「성서 사전」(Milwaukee, Bruce, 1965)에 나온 낱말 '알다' 항 참조. "이스라엘인들은 마음으로 알았다. 히브리어에는 '정신' 또는 '지성'에 정확히 부합되는 낱말이 없다. 그러므로 지성과 욕구 차이는 분명치가 못하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히브리어로는 안다는 것은 곧 체험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체험은 수용 또는 소유로 발전한다." (485쪽) 매켄지는 이어서 '알다'의 이같은 성서적 의미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그 의미는 우리 가 앞서 '사랑의 고유성'이라 불렀던 것에 상당한다.

조와 레티시아는 젊다. 따라서 그들은 필경 하느님에 대한 체험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며 그런만큼 영적 지도자의 식별력 있는 도움에 의존할 필요가 절실할 것이다. 조가 사제가 되어 금경축을 맞이할 때쯤이면 스스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주님의 길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지식을 터득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식별하는 능력도 한결 커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다 체험 많은 지도자에게 깊이 의존하든지 아니면 내 자신이 점진적으로 식별력 있는 연인이 되어가든지 간에 식별의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 식별은 기도가 그 영혼과 하느님 간의 사랑 관계로 이해되는, 기도와 행동의 점점 그것이다. 성이나시오는 이것을 *Discreta Caritas*(식별력 있는 사랑)라 부르고 있는데, 그 속에는 식별이 주님과과의 사랑에 찬 인격적 관계 기능이라는 본질적인 진리가 아름답게 표현되고 있다. 식별은 통상적으로 바로 그 관계만큼 깊이 있고 그 관계만큼 견실하게 된다. 그러니까 참된 식별자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식별력 있는 사랑과 넥타이 고르는 일은 비슷하다. 어떤 넥타이가 아버지의 취향에 맞는가를 알아맞히는 어머니의 감각이 42년을 함께 살아온 깊은 삶의 나눔에서 비롯되었듯이 식별은 주님과 오래도록 '함께 사는 삶'에서 결실되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사랑하는 이와 사랑 어린 지속적인 접촉에서 비로소 그러한 감수성이 나오게 된다. 오랫동안 사랑하며 함께 살아온 사람끼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까지도 감지해낸다. 그들은 사랑하는 상대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미세한 기미에도 반응을 보이곤 한다. 그들은 말로 표현되지 않은 것을 눈 속에서 읽어낸다.

하지만 넥타이의 비유를 하느님에게 적용할 때 통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우리는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듯이 하느님을 바라보지 못한

다...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혹은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할 경우라도 그것이 진실로 그분의 음성인지를 아내가 자기 남편의 음성을 들을 때 알듯이 그렇게 확실하게 알 도리가 없다.

하느님은 신령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지닌 시력이나 목소리를 갖지 않았다고 간단히 치워버릴 문제가 아니다. 물론 하느님이 예언자와 사제, 교황, 성서저자들의 음성을 통하여 성사적이며 유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성서가 우리에게 직접 이야기해주고 또 우리가 앞장에서 설명했듯이, 하느님의 음성과 경쟁하는 가짜 목소리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예수 친히 거짓 예언자들이 출현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며(마태 7,15) 요한도 우리가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미묘한 적수들로 세상과 육신과 악마를 언급하고 있다(1요한 2,15-17과 5,18-19 참조). 이 뒤엀킨 목소리들은 저마다 하느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만큼 심지어 선한 이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게 된다.

여러분은 악마의 계교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하시오. 실상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의 악신)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천공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악한 날에 (그것들을) 대적하여 모두 눌러 이긴 다음에 (의연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를 잡으시오(에페 6,11-13).

바오로는 고린토 교회 내의 자기 적들을 공박하면서 말한다.

이들은 가짜 사도들이요 속여먹는 일꾼들이며, 다만 그리스도의 사

도로 가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사탄조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사탄)의 봉사자들이 의로움의 봉사자들로 가장한다고 해서 별로 큰일 이랄 것도 없습니다(2고린 11,13-15).

악마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식별이 결코 쉽지 않은 두번째 이유(주님에 대한 성숙되고 사랑에 찬 지식이 요구된다는 점에 덧붙는)이다. 악마는 성가대원들을 마지막 날 자기 왕국으로 끌어가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성가대에 끼여서 하느님 찬미가를 함께 부를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느님 나라를 건설하지 않고 오히려 파괴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사회정의를 추진하고 교계의 신성한 권위를 수호하며 은사기도 단체들을 후원할 것이다. 이 점은 하느님께 깊이 투신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주님에 대한 우리네 사랑 어린 지식이 제아무리 깊다 하더라도 현재에서 우리는 줄곧 어두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교회의 탁월한 식별 교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성이나시오가 ‘식별의 규범들’ 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라 하겠다. “이것은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어느 정도’ 깨닫고 또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기 위한 규범이다.”⁴ 우리네 식별은 언제나 ‘어느 정도’로 한정될 뿐이다. 식별은 신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4. 성이나시오의 「영신수련」, 313항. 강조표시 “ ”는 인용자 삽입. 이는 「영신수련」 첫째주년을 위한 규범들에 붙여진 서언이다. 둘째주년을 위한 규범들은 ‘더 알맞은 식별’을 제공한다(328항). 왜냐하면 이것들은 하느님에 대한 보다 깊은 체험적 지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규범들이 분명해짐에 따라 우리가 성숙되면서 ‘악령’ 또한 전술 면에서 그만큼 교묘해진다. 실제로 십자가의 성요한은 악

증거가 상충되거나 상호 모순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결단과 연관되기 때문에 임시적인 것이요, 개선될 수 있는 것이다. 식별은 신앙을 단순화하는 길이 아니라 신앙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길인 것이다.

식별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심성들

식별하는 상황의 양면성과 개방성을 감안할 때, 그리고 식별을 좌우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연인’에 대한 체험적 지식을 감안할 때 사람이 진실로 식별력 있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자질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자애롭고 용감해야 한다. 그가 ‘겸손해야’ 하는 것은 신앙 형제들이 불분명하기 때문이요, 우리의 식별이 어느 정도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방해받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내적 성장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표지 중 하나는 자신의 죄 많음을 더 깊이 절감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사실을 사도적 결단 국면에다 이입시킬 경우, 진실로 식별력 있는 사람은 건전한 자기 회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받도록 자기를 열어두는 자세가 항상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 된다. 중세의 식별 토의에서 순명이 그토록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피지도자의 인격적 성숙과 책임을 보다 크게 강조할 때 겸손에서 비롯된 양순함이 여전히 진정한 식별의 결정적

마가 비교적 투신도가 낮은 수많은 영혼들에게 해악을 끼치기보다 투신되고 깊이 있는 영혼—특히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혼—을 속이기 위해 훨씬 많은 수고를 들인다고 말하고 있다(『살아 있는 사랑의 불꽃』, Stanza III, 64 항).

인 표지가 된다. 참된 식별자는 또한 ‘자애로워야’ 한다. 그는 성숙한 기도자로서 자신의 연약함과 죄 많음과 자기 기만에 빠질 가능성을 익히 아는 까닭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사물을 색다르게 볼 수도 있으므로 그들을 가혹하게 판단하는 일을 매우 신중하게 한다. 설령 내 식별이 참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식별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이다. (‘우리에 대한’ 주님의 뜻일 경우는 식별하는 집단의 일치를 요구하는 공동 식별의 경우로 훨씬 복잡하게 된다.) 주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는 예언자나 공동 식별자로 만들어주지 않으신 한 나는 다른 어떤 사람을 대신해서 식별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주께서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신 베드로까지도 예수께서 요한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해서는 안 되었다. 그는 그 일을 시도했다가 예수께 질책을 받았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남아 있기를 내가 원한들,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따르시오.” (요한 21,22) 초대 교황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구상을 알 수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그들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현명한 식별자는 겸손과 자애를 갖추며 아울러 ‘용감’ 하기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식별자의 마음에 태동하는 건전한 자기 회의가 비겁함이나 무력함으로 이어지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로 이어져야 한다. 실제로 식별자는 자신에 관한 주님의 뜻에 대해 어떤 ‘확신’을 갖는다. 이것은 신앙의 확신이지 이성의 확신은 아니다. 이것은 이론적인 확신이라기보다 실제적인 확신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 목표로 기도하고 자기 개방을 하고 난 연후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방법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느끼며 또 그러한 행동이 내가 해야 할 유일하게 정직한 사랑의 일이라고 확신한

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수는 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 내가 실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맙게도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옳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는 않으신다.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얻어 낸 그분의 뜻에 대한 최대한의 이해에 항상 정직하고 항상 진실한 것이다. 키에르케고르는 옳다는 것과 정직하다는 것 사이의 엄청난 차이를 파악했기에 종교적 진리를 “가장 열정적인 영성의 활용과정에서 단단히 확인되는 객관적인 불확실성”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식별하고 나면 이 행동진로가 진정으로 나에 대한 주님의 뜻이라는 주관적인(‘열정적’이기까지 한) 확신이 생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님이 왜 이것을 바라시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는 ‘객관적인 불확실성’도 동시에 존재한다.⁵ 신앙 안에서의 식별이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네 이해에 횡포를 가하는 경우들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로 키에르케고르가 자주 거론하는 것이 바로, ‘큰 민족’의 선조가 되리라던 야훼의 약속(창세 18,18)에도 불구하고 자기 외아들 이사악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소명이다. 일단 식별된 그같은 소명을 열정적인 영성으로 수용하자면 분명히 커다란 용기가 필요하게 된다.

5. 이 ‘객관적 불확실성’은 우리네 기도생활이 성숙됨에 따라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오히려 확대된다. 우리가 신앙의 어두운 밤(또는 마른 샘이나 무지의 구름) 속에서 보다 철저하게 사는 쪽으로 기울어질수록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오히려 점차 넓어진다(십자가의 성요한, 「가르멜의 산길」, II, 6, 2항 참조). 필자의 저서 「장터의 어둠」의 핵심은 이 어둠이 우리네 기도생활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네 활동하는 삶(장터)에서도 발생하리라는 것이다.

레티시아의 난처한 처지

우리는 조와 레티시아, 마리아 그리고 에드의 식별의 전후관계를 이미 거론한 바 있다. 그들이 지닌 구체적인 문제들은 식별의 본질과 전후관계를 다룰 수 있게 한다. 그들은 저마다 개별적인 위기에 봉착하고 있었는데, 이 위기를 비단 인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만 본 것이 아니고 자기네 삶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여 따르라는 도전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각기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 자기네 난처한 처지에 대한 주님의 뜻을 식별하는 데 도움을 구하기도 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피고 이야기해온 모든 것들을 분명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뜻에서 다시 그들—그 중에서도 특히 레티시아—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의 문제를 식별의 정신으로 다룬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레티시아의 난처한 처지를 생각해보자. 그녀는 사도직 수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갓 서원을 했다. 그녀가 소속된 공동체는 오늘날의 다른 많은 공동체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정신과 근자의 교황들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신앙을 증거하고 ‘아울러’ 사회정의를 촉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해 있다. 활동 수도자가 오로지 신앙을 증거하는 것만을 수도생활로 보고 사회정의를 촉진 문제는 평신도에게 일임한다는 식으로 성스러운 직무와 세속적인 직무를 명확히 구분한 채 편안히 안주할 수 있던 시절은 지났다. 소수의 권리와 핵전쟁이 주요 쟁점이 되는 제1세계 상황에서도 해방과 개발이 중시되는 제3세계 상황에서도 신앙과 정의를 불가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수도자와 ‘속세’ 사람들, 그리스도교 신앙의 종말론적 측면과 육화(肉化) 측면 모두가 단일한

복음 선포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고 있다.

이론상으로 이 필수불가결한 소명은 명확하다. 하지만 실제상으로 그것은 우리 시대 사도들에게 심각한 긴장을 야기시켰다. 한 수도회가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어떻게 단일한 사목으로 통합시켜야 하는가? 개개인이 신앙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사회정의를 촉진하는 이 이중적 소명을 어떻게 자신의 소박한 삶 속에서 실현할 것인가? 하루는 24시간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그리고 우리 네 단일 집단으로도—일 전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러기에 우리가 전체적인 그리스도교적 사명 가운데 어느 부분이 정말로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일임되고 있는지 식별하려고 노력할 때 그같은 긴장들이 야기되게 된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레티시아가 소속된 공동체는 이 문제로 분열되고 있다. 한쪽은 수도자란 규정상 일차적으로 신앙의 증거자이며 사회정의를 촉진하는 일, 특히 ‘행동주의’나 정치적 개입이 요구될 경우 일차적으로 평신도 그리스도인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평신도의 기능과 수도자의 기능에 대한 이같은 구별은 현상향에서는 착각이요 비현실적이라고 느낀다. 그들은 사회정의 문제와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인간적인 압제에서 ‘해방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복음 선포는 작게 보아도 부당하며 크게 보면 비겁한 처사라고 본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양쪽 모두가 성서와 최근의 교회 문헌들을 인용하면서 자기네 반론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그리고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레티시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이야기해주어야 할 첫번째 사실은 우리네 신앙생활에

서는 의견의 엇갈림과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교회가 출범하던 당시에 베드로와 바오로와 야고보가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유대 관습을 강요하는 문제로 충돌할 때부터 시작되었다. 모든 문제들이 아주 명백하게 합리적으로 해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신앙이 필요치 않을 테고 식별도 필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레티시아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풀이 죽는 일 없이 그것을 주님에 대한 보다 깊은 신앙과 신뢰를 촉구하는 정상적인 부르심이자 동시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방식을 감지하는 감수성을 키워나가라는 부르심으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레티시아가 주님의 음성을 보다 민감하게 감지하자면 주님께서 항상 ‘평화중에’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소란과 근심과 불안은 비참의 형태들로서 그녀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의 표지가 못 된다. 이는 적절한 식별에 필요한 규범들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진정으로 식별력 있는 사람의 필수적인 자질에 해당하는 겸손과 자애를 이야기하는 말 속에 이미 암시된 것이고 앞으로도 여러 장에 걸쳐 논의될 것이다. 진실로 주님께 열린 영혼의 용기는 결코 분노에 찬 독선이나 불안에 찬 안달로 표출되지는 않는다.

레티시아의 공동체에서 양쪽 집단이 서로를 몰아내려고 분주할 경우—그들의 의견충돌이 충정과 사랑과 상대방의 신앙적 안목에 대해 열린 마음을 보여주지 못할 경우—레티시아는 실로 지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된다. 하느님의 성령은 전쟁을 일삼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이 거의 없다. 하지만 레티시아의 공동체는 비록 하느님이 오늘날 수도자인 그들에게 진실로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의견을 놓고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랑하며 겸손하고 용기 있는 공동체라는 가정하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기로

한다.⁶

이 경우 우리는 레티시아와 그녀의 개별적인 딜레마로 눈을 돌릴 수가 있다. 그리고 우선 하느님의 뜻을 향한 그녀의 열린 마음과 그분의 길에 대한 그녀의 지식부터 탐문할 수가 있다. 레티시아가 아직 젊고 기도생활에 초심자인 까닭에 필경 하느님의 길에 대한 지식은 약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기술했던 자질들인 그녀의 겸손과 자애와 용기는 어떠한가? 그녀는 배우고 또 성장하기 위해서 진실로 자기를 열고 있는가? 그녀가 지도를 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녀의 양순함을 보장하는 표지가 된다. 그렇다면 그녀는 분열을 목격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수도회에 충실하며 가능한 한 치유자와 통합자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가? 이것은 이제 막 수련기를 끝마친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있는 역할이다. 그리고 하느님 덕분에 오늘날 젊은 수도자들 가운데는 그같은 충실성을 가진 이들이 결코 드물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굳건하고 항구적인 소명과 아울러 현재의 위기 속에서 진실되이 식별해내는 능력 면에서 희망적일 수 있다. 레티시아가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면 그녀의 자애와 겸손과 용기는 확고한 셈이다.

우리가 묘사하고 있는 레티시아라면 이 장 첫머리에서 다룬 식별의 일차적 전제조건 두 가지, 즉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의욕과 단순히 ‘하느님을 위해 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성실하게 열린 마음도 가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해

6. 우리는 물론 레티시아가 갈등이 있는 공동생활에서라도 그녀의 소명을 식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식별을 위한 지침은 본질적으로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히나 레티시아와 같이 갓 서원한 수녀에게는 훨씬 더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직 하느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성숙되지 않았고 따라서 공동체의 현실적 시각과 가치기준에 좀더 의존한다.

도 후자의 핵심을 그녀에게 설명해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흔히 하느님의 일(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행하는 것과 하느님을 위해 일하는 것(내가 그분을 대신하여 바라는 것)⁷ 사이의 차이는 성숙된 수도자에게조차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영적 지도자요 수도자로서의 내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이 차이를 온전히 간파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서 있고 썩 보기 드문 영성에 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레티시아가 하느님의 일을 행한다는 진정한 의미를 아직 깨우치지 못했다면—그리고 혹시 위에서 언급한 여타의 전제조건 한 가지 이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그녀에게 식별력 있는 마음을 습득하는 점진적인 과정에서 보조 역할을 해줄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은 시간과 끈기를 요한다. 그러기에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녀에게 안겨주는 편이 오히려 더 쉽게 된다. 행동-복음화 문제에 관한 ‘나의’ 의견과 그녀가 내 의견을 따라야 한다고 느끼는 내 나름의 이유들을 그녀에게 제시하는 쪽이 훨씬 빠르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속한 길이요 따라서 일상적으로 취하는 길이지만 결코 식별력 있는 방도는 못 된다. 그러한 ‘지시’가 있는 후에도 레티시아는 우리가 말하는 ‘식별력 있는 사랑(Discreta Caritas)’을 소유하는 데 조금도 접근하지 못한다. 레티시아 수녀가 연로해져 많은 세월과 체험을 겪었다고 해도 식별체험이 없을 경우 여전히 자기가 사랑하는 주님이 좋아할 벵타이 종류를 어떻게 판별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레티시아는—주님의 길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어리기 때문에 조와 마리아 및 에드 역시—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

7. 이 구별을 좀더 자세히 알려면 「장터의 어둠」 2.3장 참조.

하는 데 필경 훌륭한 지도자에게 크게 의존해야 할 것이다. 식별의 세번째 전제조건인 주님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깊은 경험적 지식은 통상적으로 오랜 햇수를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서서히 터득될 뿐이다. 하지만 레티시아의 인생의 이 초기 단계에서도 지도자는 결코 지시자가 아닌 공동 식별자가 되어야 한다. 그는 레티시아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의 표지들을 ‘그녀 자신의 체험’ 속에서 발견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는 레티시아가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을 주시해야 할지 알게 도와줌으로써 뒤섞여 있는 여러 목소리들 가운데서 하느님의 음성을 식별하도록 가르쳐야 한다. 만일 지도자가 자신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한다면, 그리고 레티시아가 인도와 성장에 진실로 자기를 연다면, 그녀에게 방향을 찾게 만드는 특정한 딜레마는 주님 안에서 훨씬 폭넓게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녀는 정말로 이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 밖에도 많은 것들을 발견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자기 공동체의 생활 속에서 ‘시대의 징표들’을 읽을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장구한 세월 속에서 대면하는 온갖 십자로를 만날 때마다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터득할 것이다. 그녀는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진실로 식별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시대의 표징들

훌륭한 지도자가 레티시아에게 식별하도록 가르칠 수 있는 하느님의 때의 ‘표징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이나시오 로올라의 「영신

수련」에서 공식화된 식별의 규범들 그것이다.⁸ 이 장에서 관심을 가져온 것은 식별의 실제적 과정 그 자체가 아닌 영적 지도에 있어 식별의 전후관계 또는 ‘분위기’였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진정한 식별의 요건과 선행조건들에 관심을 가져온 것이다. 식별의 실제 과정은 2부와 3부에서 다룰 주제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모든 식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들은 갈라 5장 22-23절(“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입니다.”)과 1요한 4장 2절(“여러분은 하느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화하여 오셨다고 고백하는 모든 영은 하느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요한 13장 35절(“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및 14장 27절(“나는 평화를 여러분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내 평화를 여러분에게 줍니다.”)과 같은 성서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하느님의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몇 가지로, 우리는 이들을 통해 우리 안의 그분의 현존과 활동을 판단하게 된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네 삶 속에서 활약하고 있는 악령의 열매들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선한 영의 열매들과 정반대되는 것(평화 대신 소란)도 있지만 선한 영의 열매들을 위조하는 것(겉보기에는 선하지만 실상은 왜곡되어 있어 결국 사랑도 무엇도 아닌 가족이나 국가에 대한 사랑)도 있다. 악마는 곧잘 광명의 천사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드러나는 열매가 진짜로 선한 영의 표징인지 아닌지 구별

8. 성이나시오의 「영신수련」, 313-336 항. 초심자들을 위한 식별의 전후맥락으로서 영적 지도를 파악하려면 윌리엄 코놀리(William J. Connolly, S.J.)의 탁월한 논문 「현대의 영적 지도 : 전망과 원칙들」을 참조하라. 이는 「예수회 영성 연구」, 제 7권 3부(1975)에 실려 있다.

하기가 항상 쉽지는 않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거나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며 모인 공동체들이 실상은 이기심에 이끌려가고 아량과 거룩한 열정으로 쉽사리 둔갑하는 편협으로 뭉쳐져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래도 레티시아가 꾸준히 노력하여 식별력 있는 사람이 될 경우 그녀는 자신의 생활과 기도 속에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감지하고 구분하는 법을 점차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를 시작할 당시의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은 무엇인가? 레티시아는 행동 쪽을 택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개입 쪽을 택해야 하는가? 우리가 이 장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이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에 이 문제에 답변할 수 있는 것도 주님뿐이다. 때로는 수도회의 은사인 순명이나 여타의 정황적인 요건들이 그분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 모든 요건들을 고려해보아도 여전히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레티시아 수녀—신학생 조,⁹ 그리고 마리아와 에드—는 내면으로 눈을 돌리고 기도하면서 자기네 삶 속에서 활약하는 잡다한 영들의 표징들을 읽어내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식별력 있는 사랑의 직분을 도와줄 안내자, 공동 식별자가 필요한 게 보통이다. 그는 자기보다 주님의 길에 체험이 많고 기도가 행동과 만나는 식별 지점까지 흔쾌하게 자기와 동행해줄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시한 것은 레티시아와 그녀의 지도자가 여정에서 결실을 거두자면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였다고 믿는다. 그러나 레티시아가 식별력 있는 사랑으로 향하는 길을 제대로 들어섰을 경우 그녀가 어떤 특수한 일을 하

9.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에서 논의된 경우, 51-52쪽.

느냐 하는 것은 그것이 하느님의 일이기만 하다면 그녀에게 일차적인 중요성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

■ 실습문제 ■

그대 자신의 생활체험 속에서 있었던 중요한 식별 상황 하나를 제시해보라.(이 장에서 기술한 조와 레티시아, 마리아 및 에드의 입장들을 참조하라.) 그 상황에서 그대가 식별해야 했던 점은 정확히 무엇이었는가? 이 장에서 언급된 세 가지 선행조건들과 반드시 갖추어야 할 서로 연관된 세 가지 심성들을 감안할 때 그대는 진실되고 풍요로운 식별에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갖추고 있다고 보는가?

제2부

..... 좋은 씨앗 뿌리기

4. 훌륭한 선택에 알맞은 좋은 시기

우리는 이 책 앞 장들에서, 식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한 ‘발같이’ —이는 1부의 제목이었다—를 이야기하였다. 동시에 우리는 원래 이 준비과정의 두 가지 필수적인 국면들 즉 신약과 구약성서의 도움을 빌려 ‘식별’이란 낱말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일과 진실로 식별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영혼의 자세들—우리는 이를 ‘선행조건들’ 및 ‘필수적인 심성들’이라 명명했다—을 논하는 일 두 가지를 살펴왔다. 첫번째 국면, 즉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인 우리와 관계하시는 방식들을 확고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식별이 무엇인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다 자란 자녀들을 대하시는 사랑에 찬 아버지로서 우리와 관계하기로 작정하고 계신다. 그분은 우리가 성숙되고 책임감 있는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창조와 구속 사업에 동참하기를 바라신다. 그런데 그분은 인간들이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음성’이 아니다. 우리의 주의력을 헛갈리게 하는 음성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책 뒤에 가서 이 음성들의 본질과 출처를 고찰할 것이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여러 성숙 단계에서 다르

게 나타난다는 사실 — 아니면 어감을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사실 — 도 살필 것이다.

우리네 발걸이의 두번째 필수 국면은 건전한 식별을 위한 선행조건들 및 식별력 있는 사랑에 필수불가결한 심적 자질들을 논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세번째 전제조건은 하느님의 길들에 대한 지식인데, 이 지식은 특히 초심자들 사이에는 보편화되지 못한 자질임을 이미 지적하였다. 훌륭한 지도자 또는 ‘공동 식별자’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훌륭한 지도와 훌륭한 지도자가 드물다는 데 있다. 더욱이 훌륭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역할은 사람들을 자기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성숙하고 식별력 있는 기도자들이 되도록 돕는 데 있는 것이다. 이같은 두 가지 이유로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투신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장 구실을 해서 그들이 이 연장으로 식별력 있는 사랑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지도한 식별 연수과정은 초만원에 이루었는데, 연수생들의 구성은 사제들(또는 신학생들)과 수녀들 및 평신도들의 비율이 대략 같았다. 평신도들이 연수과정에 참여하여 대단한 유익을 얻어 갔다는 것은 내게 각별한 즐거움을 주었다. 처음에 그들은 수녀들과 신학생들 및 사제들과 자리를 같이하는 것을 부담스럽게 느꼈지만 이내 자기들도 배울 수 있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 실상 그들은 식별에 독특한 체험의 부를 제공했는데 이는 수도자와 사제들의 체험을 보완해주는 값진 것이었다. 그들이 연수에 참여하는 이유는 다양했다. 개중에는 성령운동 그룹에 속해 있는 이들도 있었고 본당 차원의 사도직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도 있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중대한 국면을 식별하고자 하는 이들도 상당수 있었다.

그들이 연수과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간에 그 속에서 얻어낸 유익한 결과들을 보면서 나는 이 식별의 기술이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 훨씬 폭넓게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출애굽기에는 내가 발견해낸 것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아름다운 대목이 한 군데(18.13-27) 있다. 사순절 둘째주간 목요일의 성무일도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판관으로 일하는 모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직분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행하는 것을 본 그의 장인이 그에게 무슨 일을 무슨 이유로 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러자 모세가 대답한다. “백성은 하느님께서 판가름해주셔야 할 일이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무슨 일이든지 생기면 저에게로 옵니다. 이웃끼리의 문제를 제가 재판해주고 하느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규칙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의 장인은 모세가 걸머지고 있는 부담이 한 사람에게는 너무 무거운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말한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네뿐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이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겠네.” 그러면서 그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재판의 직무를 분담하도록 하라고 충고한다.

자네는 백성의 대변인이 되어 그들이 제시하는 소송들을 하느님 앞에 내어놓게.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알려주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게. 하느님을 두려워하여 참되게 살며 욕심이 없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내어 백성을 다스리게 세워주는 것이 좋겠네. …언제나 그들을 시켜 백성을 다스리게 하고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게.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에게 맡겨두게. 그들과 짐을 나누어 자네 짐을 덜도록 하게.

이 장인은 실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모세가 온 백성을 자기 혼자 걸머질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선물들을 하느님의 백성을 위해서 활용하고자 할진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 그의 은사를 함께 나누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한 것이다.

기도와 식별에 관해 이야기할 때면 나는 항상 내적 성장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적 지도자를 가져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한결같은 대꾸는—아일랜드건 필리핀이건 미국이건 간에—훌륭한 지도자가 드물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원인은 우리 가운데서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모세의 장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데 있다. 이것이 내 자신의 가르침과 사목을 이끌어주었고 이 책을 쓰도록 계기를 만들어주었다. 모세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첫째로 사람들이 자기네 삶의 구체적인 환경 속에 지침이 될 야훼의 ‘말씀’과 명확한 규칙을 제공해야 하고, 둘째로 하느님 백성의 문제점들을 ‘판결하는’ 직무를 함께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남녀들을 선발하여 훈련해야 한다. 모세의 장인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의미심장한 희망적인 약속으로 자신의 충고를 마무리 짓는다. “자네가 이와 같이 일을 처리한다면, 이것이 곧 하느님의 뜻에도 부합되고 자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어 이 백성이 모두 만족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네.”

언제 그리고 무엇을

다행히도 교회는 성이나시오 로올라라는 또 하나의 모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가 받은 특은은 그리스도교 공동체를 위해서 식별력

있는 사랑의 기본 원칙들을 글로 기록해주는 것이었다. 3장에서 우리는 「영신수련」에 나오는 이나시오의 식별론의 전후관계를 설명하였고 ‘의향의 단순성(우리가 하느님께 열린 마음이라 부른 것)’이라는 기본 자세가 그의 출발점이 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이어서 ‘무엇에 대하여 선택을 할 것인가’를 논하고(170-174항) 아울러 우리가 이미 정당하게 내린 ‘변경할 수 없는’ 선택들(예: 혼인, 사제직)에 의문을 제기하지 말도록 지적한다. 그리고 또한 변경할 수 있는 결정들이라도 ‘올바르게 또 질서 있게 선택을 하였으면’ 재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다. 이러한 견해들은 너무도 자명해서 구태여 다시 말할 필요조차 없을 듯하지만, 나는 악마가 선한 사람들에게 기왕에 한 선택들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도록 만듦으로써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미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지닌 하느님상이 꼭두각시 조종자요 기껏해야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로서, 하늘에 앉아 당신의 뜻을 확고하게 고수하고 훌륭한 신앙을 가졌더라도 당신의 생각을 똑바로 읽어내지 못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의 모습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네 인간들이라면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 하지만 우리가 1장에서 살폈듯이 우리네 하느님은 자비롭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그같은 경우에 있어 이나시오의 권고는 지극히 분별 있고 해방력을 갖는 것이 된다. 이나시오에 따르면 선택이 훌륭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졌을 때는—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반드시 객관적으로 ‘정확한’ 최선의 선택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결단들에 대해 그런 식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3장 참조)—‘그것을 변경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미 선택한 것을 더욱 완전히 실천할 따름이다.’ 부

당하게 이루어졌으나 변경이 불가능한 결정의 경우(이나시오는 그 예로 혼인과 사제직을 들고 있다.)에 대해서도 이나시오는 그것이 “해소될 수 없는 까닭에 다시 선택할 것이 없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제의 독신생활 면제나 혼인 해소(심지어는 이혼까지도)가 훨씬 더 통례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현재의 관습과 모순된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모순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교회역사 속에서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현실적이고 가변적인 사회학적, 심리학적 환경 속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극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비극이 된다.¹ 이나시오의 요지는 변경할 수 없는 결정들을 가려 뽑으려는 데 있지 않고 진실로 변경할 수 없는 결정이 내려졌을 때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려는 데 있다. 그런 경우를 두고 그는 이렇게 말한다. “혹시 누가 정당하고 올바르고 사욕의 지배도 받지 않은 (변경할 수 없는) 선택을 못 한 것이 후회가 되면, 이미 선택한 직위에서 착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네 하느님의 선택하심이 더없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은 필경 우리네 휘어진 획을

-
1. 이나시오가 우리 시대의 사목적, 교회법적 관습들을 논하거나 시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상은 놀랍게도 대단히 현대적이다. 그는 오늘날 교회의 비교적 ‘관대한’ 접근 자세에 필요한 토대를 마련해주는 듯하며 실제로 마련해주고 있다. 그는 말한다. : “이러한 (변경할 수 없는) 선택은 하느님의 성소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의향이 올바르게 못했고 감정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고 그릇된 선택을 하고서도 그것을 하느님의 성소인 줄로 여기는 것은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모든 하느님의 성소는 언제나 순수하고 깨끗한 것이며, 또 혈육적인 것이나 다른 어떠한 부정함 감정도 섞이지 아니한 것이기 때문이다.” (173항) 이나시오의 하느님은 한없이 거룩하실 뿐 아니라 당신 자녀들에게 내리시는 잘못을 저지를 자유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성숙되어’ 있는 분으로 보인다.

가지고 똑바로 글을 쓰려 하시는 그 혼연함에서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죄를 신성시하거나 하느님의 자비를 더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어리석고 ‘휘어진’ 선택을 해야 한다는 뜻은 추호도 없다. 우리는 구태여 노력하지 않아도 수많은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 그리고 바오로가 로마서 6장에서 역설하고 있듯이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진실로 체험한 사람은 스스로 자유로운 선택을 함에 있어 되도록 이 사랑에 온전히 부합하려고 갈망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이 나시오에게 있어서도 핵심적인 관심사에 해당한다. 그러기에 그의 논지는 하느님의 사랑에 뿌리박고 있는 영혼에게 아직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둘째주간의 끝)에 이르는 「영신수련」의 총체적 흐름은 주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시든 간에 거기에 자신을 철저히 열도록 만드는 것이다. 만일 변경할 수 있는 선택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다시 말해서 “깨끗한 마음과 올바른 정신에서 된 것이 아니었다면, 당사자가 우리 주 하느님 눈에 가치 있고 가장 기쁨이 되는 열매를 맺기 염원할 경우 그때는 선택을 다시 잘 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174항) 그리고 만일 그 선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예를 들어 그 영혼이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에 이처럼 순수하게 자기를 열게 되었을 당시에 혼인생활이든 평신도로서의 독신생활이든 수도생활이든 아직 자유로이 택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그는 이중으로 축복을 받고 있는 셈이다. 그는 후회하거나 개선해야 할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훌륭한 선택을 하기에 이상적인 여건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그같은 선택들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와 관련해서 성이 나시오가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점 하나가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선택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거나 적어도 나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자모이신 성교회의 정신과 반대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170항) 식별이 양자택일적 행동진로들 가운데서의 선택을 내포한다는 것, 그리고 어느 쪽 진로가 진실로 하느님의 뜻인지 분명치 않은 불확실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하느님은 결코 악을 바라실 수 없는만큼 선택하려고 하는 것은 양쪽 모두 좋은 것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이냐시오의 말이다. 오늘날의 윤리신학자들 대부분은 구체적인 선택 상황에서 정말 ‘아무래도 상관없는’(즉 윤리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도적인) 양자택일이 존재한다는 데 회의를 보인다. 예를 들어 얼음과자를 먹는 것은 이론상 윤리적으로 ‘아무래도 상관없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관념으로 얼음과자를 먹는 일은 결코 없다. 우리는 대체로 친구와 함께 얼음과자를 먹으며 체중이 지나치게 붙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를 어기는 것임을 알면서 먹게 된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얼음과자를 먹는 일이다 어떤 윤리적 색채를 부여하는 구체적인 주변환경 속에서 그것을 먹는 것이다. 새벽 봉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의 경우 그 봉헌은 실로 그날의 모든 행위를—심지어 얼음과자를 먹는 행위까지도—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냐시오는 이같은 생각에 아무런 의구심도 갖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그의 취지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이 사악한 것을 결코 의도하실 수 없는만큼 우리네 식별은 악한 일들에 관한 심사숙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낙태시킬 것인지 여부, 혹은 남을 중상모

략할 것인지 여부, 간음할 것인지 여부, 또는 거짓말할 것인지 여부에 관해 결코 식별할 수 없다. 그렇게 하려 드는 것은 우리 하느님이 그 자체로 사악한 것을 원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에 대한 모독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하거나 악하다는 것을 항상 명확히 인식하게 된다는 말은 아니다. 비록 잘못일망정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낙태가 특수한 환경에서는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가 된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다. 우리가 낙태나 간통이 윤리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안다 하더라도 특정한 행위를 진실로 낙태나 간통으로 규정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강간을 당하게 된 여인의 경우 저항하지 말고 요구에 응하고 목숨을 건져야 할 것인가, 아니면 반드시 항거하다 죽음을 당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렇게 몸을 내맡기는 것은 과연 간음이 되는 것일까? 윤리신학자들은 이런 상황에 처한 여자의 의무와 권리를 놓고 수세기에 걸쳐 논쟁을 벌여왔다. 아니면 그다지 극적이 아닌 예를 들어보자. 비그리스도교적 험담과 정당한 비평을 구분하는 경계선은 어떻게 그어야 하는가? 다른 사람에 대한 내 평가를 제삼자에게 들려줄 때 그것이 나나 제삼자 쪽에서 그 친구를 돕는 계기가 될 때도 있는 반면, 그의 훌륭한 명성을 깨뜨리거나 훼손시키는 것이 고작일 때도 없지 않다. 그 구분이 경우에 따라서는 분명할 수도 있지만 금을 긋기 매우 어려운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특정한 행동진로가 윤리적으로 선익한 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지극히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별 대상이 되는 합당한 일들에 관한 이나시오의 원칙에 의구심을 품게 되지 않는다. 택일한 양자 중에서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윤리적으로 사악할 때 양자택일적 선택 사이를 우리는 식별할 길이 없다. 이제까지 살핀 바

대로 택일할 것들이 정말 윤리적으로 선하고 따라서 식별이 필요한 합당한 선택사항들이 되는지 여부를 판정하기란 항상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그럴 경우 우리는 우리에게 진실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일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식별해야 할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문스러운 택일사항을 주님께 우리가 아는 그대로 제시하고 이것이 심지어 가능한 선택사항인지조차 확신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밝혀 보이시리라 믿노라고 말씀드려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미심쩍은 택일사항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찾아낼 필요도 있다. 일례로 우리는 강간이나 간접 낙태 같은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정통한 사제들이나 윤리학자들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을 때도 생긴다. 이같은 자료수집 자체가 온전한 식별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적어도 식별에 필요한 준비작업이 된다. 주님께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저울질할 수 있는 지성을 충분히 부여받은 사람들, 관련된 원칙들과 연관이 있는 정보 출처들과 제대로 줄이 닿는 사람들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뜻은 그분의 계시나 근본적인 윤리법칙들에 상충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자료수집과 적절한 식별 사이의 차이점을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세 가지 경우에 관한 성이나시오의 그 유명한 논고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나는 이 세 가지 경우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사추(思推)와 식별 사이의 차이점에 때때로 혼란이 있어왔다고 믿는다.

식별의 경우

성이나시오는 훌륭한 식별에 필요한 올바른 자세와 합당한 일들을 논한 다음, “삶의 길을 정확하고 훌륭하게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시기 또는 세 가지 경우”에 영신수련에 임하고 있는 피정인의 모습을 제시한다. 특히 삶의 형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결정들을 함에 있어서는 피정이 이 세 가지 ‘시기’와 접할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이기는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 셋 중 어느 것이든 마주칠 수 있다. 우리가 ‘계시의 때’라 부름직한 첫째시기는 이상적이면서 매우 드문 것인 데 비해, 셋째시기는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철두철미한 식별은 못 되면서 우리가 방금 자료수집이나 사후라 불렀던 것과 매우 흡사하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셋째시기를 ‘추론의 때’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훌륭한 선택을 하게 되는 첫번째 ‘계시의 때’는 “열심한 영혼이면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만큼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끌어당기는 때”(175항)이다. 이 경우 하느님의 뜻은 너무도 자명해서 그분이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게 된다. 성이나시오는 이에 대한 예증으로 “성바오로 사도나 성마태오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즉시 따랐다.”고 말하고 있다. 바오로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도중에 겪은 체험을 생각하면 이나시오가 성바오로를 언급한 취지는 명확해 보인다. 그는 타고 있던 말에서 떨어져 눈이 멀게 된 순간에 어떤 분으로부터 직접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고을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할 일을 내게 일러줄 것이다.”(사도 9,5)는 말씀을 듣는다. 바오로는 그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느님의 권능을 너무도 선명하게 실감하고 또 예수의 말씀

이 너무나도 분명해서 주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나시오가 마태오를 거론한 대목은 한결 이해가 어려운 것으로, 최소한 나의 경우 여러 해 동안 그러했었다. 하지만 핵심은 공관 복음에서 드러나듯이 마태오의 부르심이 아주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마태오 또한 아무런 의심이나 주저 없이 예수를 따른다는 데 있지 않았나 싶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떠나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마태오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 예수를 따랐다.”(마태 9,9) 그러니까 이나시오는 성마태오의 하느님 체험 역시 너무도 분명하고 직접적인 것이어서 누가 자기에게 말씀하셨고 그분이 무엇을 바라시는지 의심할 수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계시’의 경우에는 하느님의 뜻에 불분명한 점이나 애매모호한 면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식별할 것도 전혀 없게 된다. 관찰하고 질문하고 ‘와서 본’ 다음에야 비로소 그때부터 그분과 함께 머무르겠다는 식별력 있는 결단을 한 요한과 안드레아와는 달리(요한 1,35-37), 마태오는 누가 자기를 부르고 또 무슨 일을 시키려고 부르는지 그 순간에 감지했던 것 같다.

좋은 선택에 필요한 이 계시의 때는 엄격한 의미에서 식별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없고 따라서 식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이때는 하느님의 뜻이 절대적으로 분명하다는 의미에서 이상적인 상황이 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통상적인 길은 아니다. 충실하게 기도하는 이들이 때때로 자기들에 대한 하느님의 의향을 그처럼 명확하고 확실하게 체험하는—그 체험이 바오로의 경우처럼 극적이든 아니

면 마태오의 경우처럼 사실적이든 간에 —순간들을 갖게 된다고 믿지만, 심지어 성인들에게 있어서까지도 신앙의 불확실성이 아주 짙게 작용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상황이라 하겠다. 이나시오가 첫째 시기를 보는 명확한 계시의 ‘결정적’ 순간들과는 대조적으로 좋은 선택을 하는 세 번째 ‘추론’의 때는 하느님의 뜻과 관련해서 질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때이다. 이 둘은 모두 식별할 것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하지만 셋째시기의 경우 이 전무(全無)는 일종의 좌절감을 주는 전무이다. 다시 말해서 계시의 때에 병행되는 명확성과 확실성과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하느님이 진지하게 당신의 뜻을 찾는 영혼에게 ‘아무것도’ 말씀해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성이나시오는 이때를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셋째 때는 평온한 때이다. …평온한 때라고 함은 영혼이 침착해 있어 각종 신들의 책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자유롭게, 또 침착하게 자기 본성의 기능을 사용하는 때를 말함이다.”(177항) 여기에서 ‘평온’이란 말은 교묘한 색채를 띤다. 왜냐하면 ‘평온’이란 좋은 징조로 들리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사실 평온이나 평화는 하느님의 성령의 현존을 나타내는 핵심 표지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말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닌다.

여러 해 동안 나는 이 세 번째 추론의 때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고 혼란에 빠졌었다. 영적 지도자들과 주해가들이 이것을 이상적인 식별 상황으로 제시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더더욱 그랬다. 이나시오는 그같은 ‘평온’을 체험하는 사람은 천부적인 추리력과 상상력을 사용하여 상황의 찬반 양쪽을 저울질하고 그리하여 하느님의 뜻에 대해 임시적인 결정에 도달한다고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기까지 하다. 내가 여기에

서 발견한 문제점은 이들 방법이 이나시오가 「영신수련」에서 제시하는 식별을 위한 규범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이 규범들은 느낌을 이야기하고 위안과 비애를 이야기하며 움직이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추론의 때에 우리는 마치 느낌의 세계가 아닌 침착한 이성적 분석의 세계에 와 있는 듯 생각된다. 이 추론의 때에 적용되고 있는 방법 하나는 먼저 결정해야 할 일을 상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창조된 목적을 생각하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나는 냉정하고 집착 없이 빛과 용기를 구하고 나서, “나의 지혜로써 올바르게 또 충실하게 검토하여 하느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다 나은 것을 선택하도록 빌어야 한다.”(180항)는 것이다. 본래 실제적인 사람이었던 이나시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느 한쪽(예 : 수도생활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혼인하거나 어느 한쪽)을 선택할 경우에 오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열거해보도록 당부한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을 모든 각도에서 검토한 다음에 이치가 어느 편으로 더 기울어지는지 보아서 감정이나 편정을 따르지 않고, 이치가 더 기울어지는 편을 따라 선택을 결정할 것이다(182항).

이는 사람이 자신의 행동방향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대단히 논리적인 방법으로서, 하느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서 순전히 현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도 손쉽게 활용할 수가 있다. 추론의 때에 우리의 본능적인 능력들을 사용해서 좋은 선택을 해내는 두번째 방법은 덜 논리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덜 본능적이지는 않다. 여기에 수반되는 것은 상상인데—지금 내가 깨닫는 바이지만—이 방법은,

관상이 묵상과 대조를 이루듯, 위의 첫번째 ‘추론’ 방법과 대조를 이룬다.² 이나시오는 가상해볼 것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내가 현재 당면한 선택문제와 동일한 선택문제에 봉착한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면 나는 그에게 어떤 충고를 해줄 것인지 생각해보고, 둘째로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누워 있다고 가정하고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자문해보며, 끝으로 “심판 날에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을지를 상상하고, 그때에 내가 지금 이 선택에 대하여 어떠한 결정을 하고 어떠한 규칙을 따랐더라면 좋았겠다고 생각될 것인지 생각하라.”(187항)는 것 세 가지가 그것이다. 이때 나는 매번 내 자신을 현재 처한 혼란에서 멀찍이 떼어놓고 생각해봄으로써 나의 현재 혼란에 필요한 빛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의 딜레마와 유사한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해줄 충고가 어떤 것인지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충고를 내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 경우 사람들은 내가 충고를 해주면 “참 이상합니다.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해주었는데, 어째서 그 충고가 내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라고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그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자신을 우리의 문제에서 멀찍이 떼어놓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일이 어렵다는 데 있다.

이나시오가 제시한 ‘추론의 때’ 방법 두 가지—찬반 양쪽을 보다 적절하게 이성적으로 저울질하는 것과 방금 설명한 보다 상상력 풍부한 투영 방법—은 모두가 하느님이 우리의 본능적인 능력에다 우

2.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6장 참조. 이나시오의 관상과 묵상은 둘 다 초심자들이 하느님을 ‘이’는 길이지만 이나시오식 의미로 볼 때 관상은 상상력을 활용하는데 비해서 묵상은 이해력을 활용한다.

리를 맡기시는 것처럼 보이는 이 ‘평온’ 시기에 결정에 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이 방법들은 엄격한 의미의 식별은 못 된다. 이것은 하느님의 음성보다, 우리 자신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 자신의 비교적 나은 판단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는 쪽이다. 물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하느님은 우리 자신의 비교적 훌륭한 판단을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통로로 삼고 계시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느님이 당신의 조물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조물들과의 협력하에서 일하신다고 강조해오고 있지 않겠는가? 즉 은총은 자연을 토대 삼아 그 위에 건설한다고 강조해오지 않았는가? 만일 우리가 불가사의한 음성들과 영상들을 찾아 나서지 않는 한 이러한 추론과 상상의 기능들이야말로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는 정상적인 길이라 생각되지 않겠는가?

엄격한 의미의 식별 : 이냐시오의 ‘둘째시기’

대다수의 착한 사람들이 방금 묘사한 두 가지 본능적인 ‘추론의 때’ 방법으로 신앙적 결단을 내린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네가 식별하고 있다고 믿는다. 더욱이 그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불가사의한 영상들과 음성들을 그리스도교적 결단의 길잡이로 삼으려고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맞는 생각이다. 그같은 신비로운 표지들은 진실한 것일 경우 우리네 삶 속에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명백한 개입으로, 하느님의 뜻에 대한 의심을 불가능하게 한다. 바꾸어 말해서 그런 표지들은 성이냐시오가 제시한 좋은 선택을 위한 ‘첫째시기’ 즉, 아주 드물면서 아무런 식별

도 필요치 않은 명백한 계시의 때를 실증하는 사례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명명백백한 계시의 때와 우리가 천부적인 능력들을 자유로이 그리고 침착하게 활용하는 추론의 때 중간에 소홀히 취급 되는 또 하나의 때가 있다는 것이다. 이나시오는 이 ‘둘째 때’에 관해 이렇게 말한다. “둘째 때는, 영혼의 위안이나 고독의 경험이나 여러 가지 신들을 식별하는 경험 등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날 때이다.”(176항) 좋은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시기 또는 경우들 가운데서 이나시오가 ‘식별’을 지칭하는 유일한 때가 바로 둘째 때이다. 더욱이 그는 앞서 우리에게 평온 속에 추론과 상상이라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들을 활용하도록 천거한 두 가지 논리적이고 사색적인 선택 방안 끝부분에다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덧붙이고 있다. “이러한 선택을 결정한 후에는 하느님의 대전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 선택이 하느님께 보다 큰 봉사와 영광이 되겠으면 그것을 받으시고 또 인정하시도록 선택한 바를 하느님께 아뢰 바칠 것이다.”³ 그러니까 이나시오가 기술하고 있는 타고난 이성적 또는 사색적 방법들을 통해 시험적 선택을 한 영혼은 그 선택을 주님 앞에 제시하고 그분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하실 것인가? 둘째시기의 ‘위안과 고독’으로, 엄격한 의미의 식별로 그렇게 하신다. 바로로나 마태오처럼 썩 드문 ‘계시의 때’ 체험을 맛보는 축복을 부여받지 못하는 한 그렇다.

이는 곧 대다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중차대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하는 일이—그러니까 하느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3. 183항. 이 대목은 찬반 양쪽을 저울질하는 보다 묵상적인(논리적인) 방식을 마무리 짓고 있다. 보다 관상적이고 상상력 풍부한 방법의 마무리 부분(188항)에서도 이나시오는 이 방법을 183항에 의거해서 매듭 짓도록 하라고 말한다.

를 ‘해득하려고’ 노력하는 일이—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우리는 주께로부터 오는 영감에 감도되어 특정한 결정이나 행동진로를 선택한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머리를 써서 최선의 것을 확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험적인 결론을 주님께 제출하여 그분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도 저도 아니면 우리는 작동하는 상충된 영감들을 분간하고 식별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간에 그 ‘영감’ 또는 ‘확인’은 우리 자신의 추론과 상상과는 아주 다른 것이다. 그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과 친구에게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로’ 듣는 것 사이의 차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떤 방법으로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바를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듣듯이 그분한테서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그리고 친구들 눈을 들여다보듯이 그분의 눈을 들여다볼 수도 없다. 우리가 3장에서 이미 파악했던 대로 식별상의 중대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이나시오는 「영신수련」의 한 부분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질 나는 해답의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위안이나 고독의 경험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뜻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다.”는 말이 곧 그것이다. 이 위안과 고독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식별의 원료에 해당한다. 이나시오는 ‘좋은 선택의 세시기’를 논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영신수련」 끝부분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영들을 식별하는 규범들’ 편에 가서 이 주제를 재차 거론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이 규범들로 눈을 돌려 엄격한 의미의 식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자.

■ 실습문제 ■

레티시아 수녀와 그녀가 소속된 수녀회 내부의 복음화 및 정의 문제로 야기된 난처한 입장을 생각해보라(3장). 우리가 4장에서 살펴본 바에 비추어볼 때 그대라면 그녀와 함께 하는 공동 식별과정을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그녀에게 수녀원을 떠나라고 충고하겠는가? 아니면 캐묻기를 중단하고 그저 웃어른들께 순명하라고 충고하겠는가? 둘 다 아니라면 이나시오가 제시하는 '셋째시기'의 두 가지 방법(찬반 양쪽을 저울질하거나 아니면 상상 속에서, 예를 들어 같은 수녀원 내의 어떤 친구에게 충고해보는 것) 가운데 하나를 제안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5. 하느님의 전술과 적의 전술

성이나시오가 제시한 좋은 선택의 세 시기 가운데 둘째시기만이 엄격한 의미에서의 식별이 된다는 사실은 이미 이야기하였다. 첫째 시기는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 어떤 식별도 필요치가 않다. 그리고 셋째시기에는 ‘위안과 고독’, 식별할 ‘여러 가지 영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시기의 경우 우리는 타고난 추론력과 상상력에다 우리를 맡기게 된다. 성령의 빛과 안내를 바라는 기도를 바치기는 하지만 결단을 내리는 데는 우리의 자력(資力)에 의존하게 되는 것 같다. 물론 우리는 성령의 현존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무대 배후에 계시면서 우리네 결정과정을 인도해주시기 바라며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는다. 그런데 성이나시오는 이 간접적이고 기대적인 하느님의 인도는 결코 충분한 것이 못 된다고 말한다. 하느님이 우리네 질문에 무관심하며 침묵을 지키시는 듯이 보일 경우 특히,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자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테지만, 그래도 이나시오는 거기에서 중단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 ‘본성적인’ 방식에 의해 시험의 결정에 도달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정을 주님께 제출하고 그분께 “그 선택이 당신께 보다 큰 봉사와 영광이 되겠으면 그것을

받으시고 또 인정하시도록”(183항) 간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4장에서 살폈던 대로 ‘둘째시기’로, 엄격한 의미의 식별로 환원하는 것을 뜻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직접 식별에 들어가는 수도 있는가 하면 실제적인 식별에 앞서 먼저 일종의 가래질—자료수집, 성찰, 찬반 양쪽의 저울질—부터 해야 할 경우들도 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엄격한 의미의 식별은 ‘둘째시기’(176항)에서 지적되고 있듯이 “고독과 위안의 체험 및 여러 가지 영들의 식별”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식별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곧 ‘고독과 위안’의 의미와 이 ‘여러 가지 영들’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성이나시오는 그 유명한 ‘선신과 악신을 분별하는 규범들’ 편(313-336항)에서 이나시오 특유의 간결하고 질서정연한 문체로 이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부분은 그가 「영신수련」에 덧붙여놓은, 생활을 위한 일련의 실천적 지침들 중에서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그 밖에도 ‘애궁 시사에 관한 규범들’(337-344항), ‘세심중에 대한 주의들’(345-351항), ‘교회의 정신과 일치하는 사고방식’(352-370항)이 있다.

우리가 엄격한 의미의 식별 규범들에 들어가기에 앞서 성이나시오가 그리스도교적 생활과 결정을 위한, 오늘날 고전이 되고 있는 이 지침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를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나시오는 사색적인 사상가가 아니라 대단히 실천적인 행동인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다. 역사상 위대한 건설적 ‘실행가’들이 거의 그랬듯이 그는 심사숙고하였다. 그러나 그가 생각한 것은 추상적인 도식들이나 궁극적인 해석들이 아닌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구체적인 체험에 담긴 그 의미였다. 그

는 이러한 체험의 유형들에 관심을 보였고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그분에게 보다 온전하게 응답하고 보다 훌륭하게 협력한다는 관점에서 주목하였다. 유럽 대륙의 사색 전통에 따르는 위대한 사상가들은 “생각하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 비해 앵글로-색슨 전통의 위대한 인물들은 “살기 위해 생각한다.”고 한다. 후자에게 사고란 훌륭한 삶에 보탬이 되는 실용주의적인 것이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성이나시오 로올라는 정녕코 앵글로-색슨 전통에 속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강력한 실용주의적, 경험론적 성향 때문에 그의 글은 자신의 생활체험에 확고한 토대를 두게 되는데, 그 점에서 가장 두드러진 작품이 다름 아닌 그의 식별 지침서이다. 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인 1555년에 성이나시오는 초대 예수회 회원의 한 사람인 곤잘레스 데 카마라 신부에게 젊은 날의 자기 식별체험들을 털어놓았다. 그가 성스러운 생활로 귀의를 시작한 것은 1521년 팜플로나 전투가 끝나고 병석에 누워 있을 때부터였다. 군대의 영광에 대한 꿈이 다리 부상과 더불어 산산조각이 나고 좌절감에 싸여 장기간 투병생활로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의 이종누이가 읽을 거리로 몇 권의 신심서를 가져다 주었다. 그 책들 중 하나가 도미니코와 프란치스코와 오스프리노(험프리)를 포함한 위대한 중세 성인들의 생애를 담은 책자로, 가히 그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했던 위대한 일들을—이제는 지상의 왕이 아닌 하늘나라의 왕을 위해서—해내는 백일몽을 꾸기 시작하였다. 모든 것이 장엄하고 영광스럽지만은 않았다. 의기충천한 때가 있는가 하면 풀이 죽고 낙담하던 때도 있었다. 그것은 여느 인간이나 겪는 지극히 정상적인 체험이었다. 하지만 이나시오의 경우 ‘위안과 고독’이 교차되는 이 기간은

교회에 기념비적 성과를 맺어주는 시기가 되었다.

조셉 피건(Joseph Pegon, S.J.) 신부는 곤잘레스 데 카마라에게 들려준 이냐시오의 추억담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¹

1555년에 이냐시오는 곤잘레스 데 카마라에게 자신의 회심이 열광적 기쁨과 낙담이 교차되는 시기와 더불어 시작된 경위를 들려주었다. 그것은 경건한 독서의 결과로 죄인 병사가 맛보게 된 새로운 체험이었다. 이냐시오는 사적 감정의 이같은 변화들을 계속 음미하던 중에 어느 날 드디어 눈이 열렸다. ... 그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은 그를 슬프게 만들고 다른 생각들은 그를 기쁘게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를 움직이는 영들의 차이점, 악령과 하느님의 성령 사이의 차이점을 조금씩 깨달아갔다. ... 바로 그것이 이냐시오가 하느님의 일들에 관해 생각한 최초의 사색이었다.

자기 자신의 체험과 감정 속에서 작용하는 여러 가지 '영들'에 대한 이같은 발견은 후에 「영신수련」의 핵심이 된다. 영신수련은 무엇보다도 우선 '식별력 있는 사랑'의 실습이다. 이냐시오는 식별력 있는 사랑의 규범들, 식별의 규범들을 맨 먼저 자신의 종교적 체험에다 적용시키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그것에다 적용시키는 방법을 어린 학생 가르치듯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것은 다름 아닌 하느님이었다고 굳게 믿었다. 줄리스 토너(Jules J. Toner, S.J.) 신부는 식별

1. 「영들의 식별」, 기예 외 다수 공저, 80쪽. 피건은 식별에 관한 그의 고전적 저서 「Dictionnaire de Spiritualité」 4장에서 「현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기예 신부의 「성서」 편을 폭넓게 활용한 바 있다. 이것이 활용한 원전은 피건도 언급하고 있는 「Fontés Narrativi de S. Ignacio de Loyola」이다. 유고 라너(S.J.)의 「성이냐시오 로욀라의 영성」(Loyola U. Press, 1953, 22-35쪽)도 참조하라.

의 규범들에 대한 훌륭한 새 주해서에서 이나시오의 자서전(27항)을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제삼자에 대해 곤잘레스 데 카마라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 무렵 하느님은 그를 가르치실 때 학교 선생이 어린 소년을 다루듯이 그를 다루셨습니다. 이는 필경 그의 거칠고 교화되지 못한 이해력 때문이었거나 그에게 가르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하느님이 그에게 봉사하도록 부여하신 군센 의지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분명히 보았고 항상 보아온 바로는 하느님이 그를 이런 식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에 의구심을 품는 것은 무엇이든 자기의 '거룩하신 군주'께 범하는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²

이나시오는 분명히 하느님의 가르침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며, 그 확신은 그가 좋은 선택의 '첫째시기'에서 성바오로와 성마태오가 지냈던 것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확신이었다.

그러나 하느님이 이나시오에게 내리신 이 선물은 큰 대가가 치러진 선물이었다. 피건은 성인이 회심한 후에 겪은 체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후 만레사에 있을 때 교차되는 이 내적 움직임은 더욱 강렬해져서 그는 양심의 가책들에 시달려 자살하고 싶은 유혹도

2. 줄리스 토너, 「영들의 식별을 위한 성이나시오의 규범들 해설서(A Commentary on St. Ignatius' Rules for the Discernment of Spirits: A Guide to the Principles and Practice)」, 8쪽(St. Louis, Mo.: Institute of Jesuit Sources, 1982). 토너의 작품은 이 책자보다 학구적이고 전문적인 것이다.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내려가기는 어려울 테지만 규범들 안에 깃든 특수한 주제들을 가장 훌륭하게 추적한 고전적이며 동시에 현대적인 탐구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지도자들에게는 특히 탁월한 참고문헌이 된다. 토너 자신이 17쪽에서 기술하고 있는 '의향' 설명도 참조하라.

받았다. 이런 변화들 속에서 그는 ‘이 영이 어떻게 자기 안으로 침투했는지’ 주목하는 기회를 얻었다.” 빛이 어둠과 교차되는 시기가 여전히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마침내,

카르도네르 (강) 언덕에서 결정적인 빛을 조명받은 그 유명한 영상을 보았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고 ‘선한 영과 악한 영을 구분하고 체험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성인은 “목상과 영신수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하였는데, 그에게는 그런 일들과 관련하여 특별한 은총과 효험과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부여되어 있었다.”³

이나시오의 회심 이야기는 그 후 몇 세기를 내려오는 동안 구술되고 또 구술되어서 이제는 아시시의 성프란치스코 이야기나 성바오로의 이야기 못지않게 알려지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 이야기를 재차 언급한 것은 식별의 규범들이 갖는 경험적 성격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규범들은 이나시오가 로올라와 만레사에서, 카르도네르 강가에서 그리고 마침내는 살라망카와 파리에서 당신의 순회하는 ‘어린 학생’에게 베푸시는 하느님의 꾸준한 가르침을 받아 스스로 터득했던 것들을 글로 적어 다른 사람들에게 길잡이로 삼게 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불과 몇 가지 안 되면서도(첫째주만을 위한 규범 14개와 둘째주만을 위한 규범 8개) 지극히 기념비적인 이 규범들은 이나시오 자신의 피와 땀으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3. 피건. 같은 책, 80쪽. 카르도네르 강둑 영상은 영성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의 하나로 피건이 여기에서 인용하는 제임스 레이너즈를 포함한 이나시오의 초기 동료들 여럿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가 이 규범의 보따리를 ‘풀고’ 그 속에 글로 기록된 경험의 부(富)를 다시 회수해낼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로 하자.

제목 속에 담긴 것은?

이나시오는 두 별의 식별 규범들을 마련해두고 있는데, 하나는 영혼이 주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열고 ‘발가벗도록’ 도전받는 영신수련 ‘첫째주간에 더욱 알맞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 지식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느님 지식으로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는 “둘째주간에 더욱 알맞은” 것이다. 이나시오는 첫째주간용 규범들에 다음과 같은 길다란 제목을 붙이고 있다.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어느 정도 깨닫고 또 분별해서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버리기 위한 규범. 이 규범은 첫째주간 피정에 더욱 알맞은 것이다.” (313항)

우리가 이미 지적한 대로 「영신수련」 첫째주간은 영신생활 초심자들의 상황에 부합된다. 보편적으로 말해서 첫째주간 피정인은 30일 피정을 갈망할 정도로 하느님을 진지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훌륭한 사람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성장을 갈망하기는 할망정 그런 사람은 깊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회심 피정 때의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처럼 그는 진실로 삶의 표면 밑으로 파고들어가 하느님이 진정 누구이시며 나는 진정 누구인가를 직접 대면하지는 못한다. 첫째주간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느님께 자기를 여는 시기이다. 이때 종의 수준이 친구의 수준으로 이행되며 이 이행의 첫번째 결실은 역설적으로 하느님께서 이제까지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담당하신 역할

이 얼마나 미소했던가를 뼈아프게 의식하는 깨달음 그것이다. 예수와 경건한 니고데모와의 대면(요한 3장)은 피정인의 첫째주간 체험에 대한 훌륭한 유추가 될 수 있다. 니고데모는 진리를 찾는 진지한 자세로 왔으나 자신의 세계 전체가 뒤엎어짐을 깨닫는다. 예수의 시선은 그를 온통 발가벗겨 놓고 그가 그 동안 얼마나 잘난 체해왔으며 또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 얼마나 자만했던가를 그대로 보여준다.

첫째주간은 그러기에 값비싼, 고통스러운 시기이다. 그 고통이 진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이에게는 감미로운 고통이라 하더라도 그렇다. 그런 까닭에 이 규범들이—첫째주간에 더욱 알맞은—거의 대부분 영신적 고독을 다루고 있음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니다. 안정된 편안한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체험하는 초심자들에게 악마는 그들을 낙담시키려고 노력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악마는 가능한 온갖 논거들을 제시해서 초심자에게 자아 지식(자각)의 요구들이 불합리하고 심리적으로 불건전하며 보통 사람이 견디어내기에는 너무 벅찬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려 한다.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악마는 규범들이 참된 위안과 거짓된 위안에다 초점을 맞추는 둘째주간에 임하고 있는 투신된 영혼에게는 자신의 전술을 바꾸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주목해야 할 점은 이나시오가 초심자에게 보다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영신적 고독에 대한 명확한 안내라는 점이다.

첫째주간의 규범에 들어가기에 앞서 시작 부분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어느 정도 깨닫기 위한 규범…”부터 음미해 보자. 여기에서 ‘어느 정도’라는 말이 중요하다. 나는 「영신수련」과 식별을 위한 이 규범들을 여러 해 동안 생활화해오면서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다. 언젠서 ‘어느 정도’인가? 그것은 식별이 항상 점

진적이며 개선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계시하신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뜻을 장기간의 총체적인 청사진으로 제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당신의 뜻에 대한 틀림없는 전진적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가 3장에서 훌륭한 식별자에게 요구되는 용기를 언급하면서 지적했듯이, 우리네 식별의 궁극적인 시금석은 우리의 체험 그것이다. 하느님과 그분의 길을 보다 깊이 알게 되는 보다 성숙된 단계인 둘째주간에도 규범들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더욱 알맞은(엄밀한) 식별' (328항)이다. —내가 이나시오의 글을 똑바로 해독한 것인지 몰라도 그것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식별이 아니고 초심자에게 가능했던 것보다 더 정밀한 식별이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면에서 계속 전진하고 지시된 다음 발걸음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게 될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발걸음을 내딛기 바라고 계시는 것 같다. 흔히 자신의 성소를 식별하려는 젊은이는 최종 결과를 알고 싶어한다. 내가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하려고 하면 받아들일까? 혹시 받아주어도 도중하차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장차 훌륭한 수도자요 사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은 필리핀에서는 '시구리스타(Sigurista)' 심리 — 뛰기 전에 착지부터 확인하려는 욕구 — 라고 부른다. 인간이 위기에 처할 때 나타나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하지만 우리네 하느님은 그런 식으로 역사하고자 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단계적으로 계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당신한테 일임하도록 요구하신다. 나는 프란치스코회에 입회할지 여부를 식별한다. 그리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 경우라도 그것이 훌륭하게 수행된 나의 입회 식별이 실수였다는 의미가 되지 않는다. 유일한 실수라면 필경 다음 단계까지 내다보는 내 시

각, 하느님의 장기적인 뜻에 대한 내 자신의 추리이다. 하느님은 내가 프란치스코회 회원으로 죽음을 맞게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다. 지원해보라고 말씀하셨을 뿐이다. 만일 내가 식별하는 기도 정신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을 했다면 주님은 당신의 부르심에 대한 내 응답을 기쁘게 여기신다. 나는 신앙으로 살면서 그분의 뜻을 ‘어느 정도’ 읽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실 일이다.

영신적 고독과 영신적 위안

첫째주간 규범들의 제목에 나와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어구, “어느 정도”와 “첫째주간에 더욱 알맞은”은 살핀 셈이다. 그런데 끝으로 설명이 필요한 어구, 우리를 엄밀한 의미에서의 식별 핵심부로 안내하는 그 어구는 바로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다. 우리가 식별하는 것은 바로 이 “움직임들”이다. 우리가 이 움직임들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점이 식별을 다른 보통 결정과 다르게 만들고 이나시오가 식별할 영혼의 움직임들이 전혀 없는 ‘평온한 때’를 위해 추천한 본성적인 방법들과도 다르게 만든다.

그렇다면 “영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라는 이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나시오는 첫째주간 셋째 규범과 넷째 규범에서 그에 관해 이야기한다(316-317 항). 그는 이 움직임들을 “영신적 위안”과 “영신적 고독”이라 명명하고 있다. 셋째 규범에서 그는 영신적 위안을 이렇게 정의한다.

여기서 영신적 위안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일종의 내적 감동이

일어나서 영혼이 자기와 창조주의 사랑으로 불타기 시작하고, 따라서 영혼이, 지상의 아무 물건도, 그 물건 자체를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 안에서만 사랑하게 되는 때를 말한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죄에 대한 통회에서나, 우리 주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아픔에서나 또는 직접 하느님의 봉사와 영광에 관한 것에 대하여 하느님의 사랑으로 불타게 하는 눈물이 쏟아지는 경우를 말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영신적 위안이란 신덕, 망덕, 애덕을 더하는 모든 것과 사람을 천상의 일들과 자기 구령의 사정으로 부르고 이끄는 모든 마음의 기쁨을 말함이니, 그 결과로는 영혼이 자기 창조주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

이처럼 영신적 위안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그것은 강렬한 감정—사랑으로 불타오르거나 사랑의 눈물을 흘리거나 찬양하는—을 수반하기도 하고 또한 차분하고 깊을 수도 있다. 여기에서 공통분모가 있다면 그것은 주 안에서의 ‘평화’라고 하겠다. 사랑하는 두 연인이 오랜 별리 끝에 걱정적으로 재결합할 때처럼 영혼이 깊고 강렬한 감동에 휩싸이든, 아니면 아기의 잠든 모습을 지켜 보면서 자기 몸에서 창조된 생명의 경이에 더없는 경탄을 자아내는 어머니의 체험처럼 고요한 위로에 젖든 간에, 그러니까 강렬한 감정에 싸이거나 고요하게 찾아들거나 어느 쪽이든 그것을 위안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소인은 곧 평화인 것이다. 그리고 영신적 위안의 경우 그것은 주 안에서의 평화, 즉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증폭되고 나를 주께로 끌어가는 내적 기쁨이 커짐을 느끼는 느낌이 된다.⁴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이나시오가 위안을 묘사하면

4. 모든 ‘영신적’ 위로의 ‘핵심’으로서의 평화에 관하여는 Toner, op. cit., 87쪽 이하 참조.

서 사용하는 낱말들이 하나같이 ‘느낌’의 낱말들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식별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느낌이다. 그러니까 특히 느낌을 거의 무가치하거나 의심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수도 전승이나 문화권의 경우 식별을 이런 형태로 인식하거나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식별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나시오가 말하는 좋은 선택 셋째시기의 그 “평온” 속에는 내재하지 않는 느낌들이요 하느님에 대한 감각적 깨달음이다. 그때는 식별할 느낌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추론에 의존하면서 찬반 양쪽을 저울질하거나 가능한 선택의 결과들을 추리력으로 투시하려 들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4장에서 고찰했듯이 식별이 아니며, 이런 것들을 방편 삼아 시험적인 결정에 도달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보이고 그분께 확인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게 된다. 그럴 때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확인해주시는가? 그분이 영혼을 감화시키는 그 위안을 느끼게 함으로써, 즉 체험을 통해서 해주시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자연발생적이고 논리적인 반박이 있다면 이런 것이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 우리의 느낌들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느낌이란 속임수와 기만으로 유명하지 않은가? 그런 이유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들을 ‘초월하고’ 냉정한 머리로 합리적으로 선택에 임하도록 가르침받아온 것은 아닌가? 사실 그렇다. 우리의 느낌은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느낌은 결정적 중요성을 갖는 것이기도 하다. 느낌들을 초월하거나 무시하려고 노력하거나 강압하는 것은 아기를 목욕물과 함께 내버리는 것이나 같다. 슬프게도 완고한 의무 위주의 수도 전승 속에서 커온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질병보다 더 몹쓸 것이 치료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느낌들이

우리네 영적 생활에,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 다음으로 느낌이란 ‘실체로’ 믿을 수 없는 것이기에 맹목적으로 신뢰하거나 뒤쫓아서서는 안 된다는 점도 아울러 알아야 한다. 지난 15년 내지 20년 동안 우리는 무미건조한 의무 추구에서 ‘일체를 내맡기기’로 추처럼 왔다갔다했던 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영신생활에 있어서나 세속생활에 있어서나 최근의 몇 년간처럼 느낌들을 숭상하는 것은 적어도 이전에 느낌을 억제하던 경우나 마찬가지로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해야 한다. 성이나시오가 400년 전에 깨달았듯이 우리네 수도적 느낌들의 ‘식별’이야말로 적절한 균형이 된다. 느낌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은 우리네 하느님 체험에 필요한 원료이다. 하지만 느낌을 판별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밑알과 가라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네 감정의 복잡성은 이나시오가 비단 위안뿐 아니라 고독도 함께 언급하는 것을 지적함으로써 가장 선명해질 수 있다고 본다. 넷째 규범은 고독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규범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영신적 고독이라 한다. 즉, 영혼의 어두움과 어지러움과 비열하고 세속적인 것으로 기울어짐과 또 희망도 사랑도 없이 영혼을 실망으로 밀어넣는 여러 가지 흔들림과 유감에서 오는 마음의 불안 따위를 말함인데, 결국은 영혼이 게으르고 냉담하고 비통해서, 마치 조물주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경우를 말함이니, 그 이유는 마치 위안이 고독에 반대됨과 같이 위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도 고독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과는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독은 위안의 정반대에 해당한다. 고독은 위안처럼 정신의 감성적 혼란에서 무감각한 냉담과 비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온갖 형태의 고독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평화의 상실’이라고 믿는다. 감정이 격정적이든 아니면 단순히 ‘어쭙잖은’ 것이든 간에 평화의 체험이 위안의 특징이 되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평화의 부재는 고독의 특징이 된다. 위안과 고독은 따라서 양쪽 모두 느낌 상태로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영감이나 생각으로 연결되게 마련이다. 앞서 강조했듯이 식별은 기도가 행동과 만나는 자리이다. 우리네 하느님 체험은 그것이 진정한 것일 경우 반드시 행동으로, 사랑의 되돌림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행동’은 좀더 장시간 기도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선교에 뛰어드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지극히 평범한 일이 될 수 있는 반면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야고보서(2,14-26)에 명기되어 있듯이 신앙(또는 사랑이나 희망)은 선행이 수반되지 않으면 죽은 신앙에 불과하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기도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⁵이며 사랑은 아름다운 감정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강력하면서 실질적인 의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따라서 식별은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망라한 전인간(全人間)과 관계된다고 말할 수 있다. 느낌은 우리가 식별하는 원료에 해당한다. 지성은 이들 느낌의 근원과 타당성을 판단한다. 그리고 그 판단을 토대로 하여 행동으로 움직여나가는 것이 바로 의지이다. 그러니까 느낌이 없으면 식별의 전 과정에 알맹이가 없게 된다.

5. 「영혼의 성」, 넷째 궁방, 1장.

우리네 근본 선택

충실한 기도자는 자신의 감정과 맞닿을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들 느낌이 어떤 경위로 나오게 되었는지 판단하고 아울러 그 속에 성령의 감도를 받는 행동에 필요한 건실한 토대가 내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몇 가지 기반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식별 규범들은 아주 간단한 성이나시오의 규범으로, (그에 앞선 성바오로와 성요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판단을 수행하게 해준다. 이 규범들 대부분이 세부적이고 특수한 것들인데, 이나시오는 이 규범들을 다루기에 앞서 명확히 구별되고 상호 대립된 두 가지 영혼 상태—우리가 오늘날 ‘근본 선택’이라 부르는 두 가지 기본 향방—부터 논한다.

첫번째 상태는 “대죄에 대죄를 거듭하는”(314항) 영혼의 상태로, 그에게 있어 근본적인 삶의 선택은 하느님과 대립하고 자기를 편드는 선택이 된다. 그런 사람들의 경우 “원수인 마귀는 그들로 하여금 악덕과 죄 중에 잠겨서, 더욱 죄를 더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능적인 오락과 쾌락을 상상케 하여서, 그들에게 표면적인 향락을 제시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런가 하면 하시는 행동이 ‘원수’의 그것과 항상 정반대되는 착한 신 하느님은 그 반대의 일들을 하신다. 즉 “이성의 판단력을 써서 양심을 자극하고(뚜렷한 고독으로) 가책을 일으키는” 등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대적하는 근본 선택을 한 자는 악령한테 ‘위로받고’ 하느님한테 저지를 받게 된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가? 그 까닭은 악령 쪽에서는 영혼의 현 진로와 흐름을 존속시키고 싶어하는 데 반해서 선하신 주님은 그같은 사악한 자기 만족에서 영혼을 흔들어 깨우려 하시기 때문이다.

“자기의 죄를 정화하고 우리 주 천주께 봉사함에 있어서, 더욱 완덕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는”(315항) 영혼들에게는 그와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영혼들은 하느님과 하느님에 대한 봉사를 자기네 삶의 근본 향방으로 선택한 자들이다. 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의인은 날마다 일곱 번 죄를 범한다—그들의 근본 선택은 하느님 쪽이다. 그리고 이 경우 궤방이나 고독은 악마한테서 나오고 평화는 하느님한테서 나오게 된다.

이런 때는 영혼이 선행에 있어서 진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포와 슬픔을 일으키고 장애물을 마련하고 거짓 이유로써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악신들의 상투적 수단 방법이며, 착한 신은 언제나 영혼에게 용기와 힘과 위안을 주고 눈물과 좋은 느낌과 평화를 주어서 모든 것을 쉽게 해주고 모든 장애물을 치워줌으로써, 영혼을 선행에 있어서 더욱 향상케 한다.

착한 신과 악신들이 일을 하는 정반대되는 방법들은 영혼의 근본적인 삶의 투신에 따라 좌우되는 것들로서, 이에 대한 이냐시오의 통찰력은 실제에 있어 지극히 중요한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사악한 생활에 몸을 던진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마음 편한 듯이 보이는 까닭을 설명해준다. 그들이 아주 단호하게 은총을 거부할 경우 착한 신은 그들에 대해 손을 들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능히 ‘자기 양심을 압살할’ 수 있는 것이다. 악령은 영혼이라는 배가 흔들림을 피하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한다. 악령은 그들을 어르고 달래서 거짓된 안정감에 젖게 만든다. 그리고 권력에 따르는 특혜와 육체의 쾌락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믿게 한다. 루이스(C. S. Lewis)

가 식별에 관한 그의 걸작 「스크루테이프 편지(Screwtape Letters)」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악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들을 설득시키려고까지 한다. 간단히 말해서 악령은 ‘대죄에 대죄를 거듭하는’ 영혼에게 계속 자기 만족을 느끼게 하고 가짜 위로를 안겨주려고 꾀한다.

그와는 반대로 하느님께 진실로 투신한 영혼은 자신의 투신을 뒤흔들려고 거듭 안간힘을 쓰는 악령과 마주치게 된다. 주님은 이 영혼을 격려하여 스스로 정한 근본 방향을 꾸준히 고수할 수 있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경주하신다. 일례로 수도 공동체에서 하느님을 섬기고자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단점과 결함들을 지니고 있는 수가 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이런 것들을 바로잡고 그 사람의 투신을 순수하게 하려고 하신다. 하지만 그분은 하느님을 향한 그의 근원적인 투신에 의문을 제기하는 식으로 행동하지는 않으신다. 그에 비해 악마는 분명히 그런 일을 한다. 그는 영혼에게 좌절감을 주고 영혼이 실패작이며 하느님께서 불쾌하게 여기고 계시고 기업 전체가 잘못된의 연속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믿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둘째주간 일곱째 규범(335항)에서 성이나시오는 근본 선택이라는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한다. 여기에서 그는 여러 다양한 ‘영들’의 행위를 스펀지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과 돌 위에 떨어지는 물방울에 비유한다. “선신이나 악신이나 자기와 반대되는 상태의 영혼과 접촉할 때는 그가 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만치 소리를 내면서 요란스럽게 들어오는” 것이 마치 바윗돌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이나 같다. 그에 반해서 “자기와 비슷한 상태의 영혼에 들어갈 때에는 조용히 자기 집에 들어가듯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마치 스펀지에 빨려드는 물방울이나 같다. 이로써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영혼들—대죄에 대죄를 거듭하는 영혼들과 성실하게 사

량을 추구하고 하느님을 섬기려 하는 영혼들—사이의 본질적인 차이야말로 여러 가지 영들이 영혼들의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느냐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명확히 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차이가 위안과 고독의 구체적인 체험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근원적 선택의 두 가지 유형을 구분 지은 성이나시오가 두번째 유형, 즉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투신한 영혼의 상황에만 적용될 수 있는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죄에 대죄를 거듭하는 영혼들을 위해서는—우리가 방금 고찰한 바 있는 보편적인 원칙 이외에—아무런 지도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제외시켜버린 이유는 명백하다고 본다. 이런 영혼은 결코 30일 피정을 할 리가 없으며 자신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길잡이를 성실히 추구할 리도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설령 우연한 경우에 엄숙한 피정에 임하거나 지도를 구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그러한 지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자기 대면 과정을 참을성 있게 장기간 견디어내지 못한다. 투신한 영혼도 여러 가지 결함들을 지닐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함들 가운데는 염려될 만큼 뿌리가 깊고 끈질긴 것들도 있을 수 있다.⁶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혼의 투신, 그 영혼의 근원적 선택은 순수하고 성실한 것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일진대—이 성실한 하느님 선택을 구체적으로 생활화하는 가운데 어떠한 결함들이 나타나더라도—착한 신은 항상 온유하고 감미롭고 밝게 행동할 것이고 악신은 혼란과 소란을 야기하는 형태로 행동하게 된다.

6. 「샘이 마를 때」 2장에서 이 문제를 이미 다룬 바 있다.

선신과 악신

6장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활약과 악마의 활약이 갖는 구체적인 표지들을 중요하게 다루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가기 앞서 한 가지 덧붙여야 할 점은 전문용어를 명시해두는 것이다. 성이 나시오는 ‘신들’의 식별을 거론하면서 이 신들을 ‘선신’과 ‘악신’으로 호칭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신들이 정확히 누구이며 또는 무엇인가?

선신에 관해서는 문제될 것이 별로 없다. 한 부분(329-331항)에서 이나시오가 하느님 자신과 착한 천사 사이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7장에서 살피게 되겠지만 이나시오는 ‘미리 있을 원인도 없이’ 위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며 까닭 있는 위안은 ‘착한 천사’나 악령 모두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십자가의 성요한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듯이 하느님의 사업과 착한 천사의 행위 사이의 구분이 중세 신학에서는 보편화되고 있었던 것 같다. 체험이 감각을 통해서 감지될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느님이 당신 천사들을 통해서 실현하시는 체험이 된다. 하지만 영혼이 감각이라는 매개체가 없이 직접적으로 어루만짐을 감지할 때 그것은 하느님 친히 중재하는, 천사 없이 직접적으로 일하시는 결과라는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오늘날에는 보편화되고 있지 않으며 또 그다지 실제적 중요성도 갖지 못하는 것처럼 보인다. 신학자들에게는 하느님이 육신과 영에게 상호작용을 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도자와 지도자에게는 ‘착한 영’을 하느님과 똑같이 보는 것으로 충분할 뿐 천사들이 그분의 선물을 전하는 사자(使者)로서 할 수 있는 역할에까지 관심을 갖지 않

아도 된다고 본다. 적어도 내가 사목하는 과정에서는 하느님이 영혼에 작용하시는가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가 되었다. 나로서는 하느님이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작용하시는가 아니면 천사의 중재 없이 작용하시는가 여부를 판정하는 일이 중요했던 적은 결코 없었다.

그런만큼 우리는 ‘착한 영(선신)’을 하느님 자신을 뜻하는 성령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하지만 ‘악신’의 정체는 근래에 와서 훨씬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나시오는 이것을 ‘마귀’(329항)와 동일시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원수’ 또는 ‘우리의 원수’(314, 320, 325-327, 329항)로 지칭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 333항에서 그는 “우리의 영신적 진보와 구령의 원수인 악마”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334항에서는 “인류의 원수”를 거론한다. 이나시오가 이로써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악령이 거의 확실한데, 실제로 이나시오 시대에는 예수 시대와 마찬가지로 악령의 존재와 그 악의적인 활동은 당연시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사려 깊은 사람들 상당수가 악마의 존재에 의구심을 갖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제까지 악마에게서 기인하는 것으로 믿어왔던 혼란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악마의 행위겠느냐 하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심리학과 정신신체학이 꽤 발달된 지금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이나 각자의 정신과 육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미묘한 상호작용으로 보아야 더 옳았을 것들 상당수가 악령의 업적으로 돌려졌던 것이 아닌가 보여지기도 한다.

나는 그 동안 사목을 수행해오는 과정에서 악령의 실재를 확신하게 되었지만(사람이 세상의 그 엄청난 혼란을 순전히 자연적으로 부여받은 힘만으로 조장해낼 수 있었다고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다.), 또한 우리 자신이 미묘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기만하고 혼란에 빠뜨린다는 주장도 근거가 있는 것이라 본다. 만일 그렇다면 악령의 활

동에 관한 이냐시오의 진술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마는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가 체험하는 고독이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에서 오느냐, 우리가 현재 호흡하고 있는 문화와 주변환경에서 오느냐, 아니면 실재 악령에게서 오느냐 여부는 기도자와 영적 지도자의 실제적인 목표에 그다지 중요한 것이 못 된다. 식별의 관점에서 보면 ‘악령’이나 ‘악마’는 ‘자연적인’ 것이든 정확히 악마적인 것이든 간에 하느님을 대적해서 작용하는 세력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충동들 가운데 어느 것이 자연발생적인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느 것이 정확히 초자연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신학자에게는 정당한 일이라 하겠다. 하지만 기도자는 뱀꼬리를 보게 되면 뱀의 종류 판별은 뱀 전문가들한테 맡기고 아예 자리를 피하는 것이 현명한 법이다.

■ 실습문제 ■

이 장에서 우리는 순수한 식별에는 자신의 느낌과 맞닿는 일과 ‘근원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그대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면서 그대 자신의 근원적 선택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고 믿는가? 그대는 얼마나 수월하게 그대의 느낌들을 감지하고 거기에 ‘이름 붙일’ 수 있는가? 그대가 살아오면서 실제로 무엇을 느꼈는지 알기 어려웠던 중요한 체험 하나를 되새겨보라.

6. 초심자와 고독

식별 규범들의 가장 놀라운 면모 중 하나는, 고독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섬기려 하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음성을 알리는 표지가 아니라 고 하더라도 결코 불길한 표지는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고독은 주님이 우리를 불쾌하게 여기시는 표지나 우리가 주님에 대한 투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표지로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실 고독은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정화하고 강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고독이 결코 하느님께로부터 오지 않으면서 동시에 아주 효과적인 성장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역설이다. 이 양쪽이 어떻게 동시에 진실이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욕기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요, 투신한 모든 기도자와 사도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핵심이 되는 문제인 것이다. 어두운 밤이나 마른 샘 또는 무지의 구름은 모두가 기도생활에 충실한 자들이 체험하는 동일한 정화과정을 지칭하는 것들로,¹ 사실상 기도생활 초

1. 이것은 이미 「샘이 마를 때」와 「장터의 어둠」에서 설명한 바 있다.

기 단계들에서는 적어도 고독 체험을 의미하게 된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비교적 진보된 형태의 고독에 권위를 지닌 탁월한 교사임에 비해서 성이나시오는 초심자들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그런 고독을 주로 다루고 있다. 물론 고독이 영적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이 그들 두 사람 모두의 입장이기는 하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나시오가 두 벌의 식별 규범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 벌은 영신수련 ‘첫째주간’ 용이고 또 한 벌은 ‘둘째주간’ 용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첫째주간은 출발 시기—세속적인 또는 미지근한 생활로부터의 회심 시기, 하느님 면전에서 솔직한 자기 대면의 시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둘째주간은 투신 시기, 그리스도를 입는 시기, 우리의 공허를 예수의 충만으로 채우는 시기이다. 예수의 가치관과 자세가 둘째주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 것으로 화한다. 초기와 보다 성숙된 투신 사이의 이러한 현격한 차이를 감안할 때 이나시오의 둘째주간용 규범들이 주로 위안을 다루고 있는 데 비해서 첫째주간—출발 시기—용 규범들은 거의 대부분 고독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그러니까 이나시오는 고독이 초심자들의 정상적이면서도 필수불가결한 체험이요, 위안이 보다 투신된 영혼들의 그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나는 이 점을 사실로 믿고 있는데 그것을 선명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내 체험 사례 하나를 제시하면 이렇다. 내가 열일곱의 나이로 예수회 수련소에 입소했을 때 나는 녀 달 동안 향수병에 시달렸다. 장소도 낯설었거니와 예수회 회원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나와 회기가 같은 수련자 59명 중 로체스터 출신은 나밖에 없었다. 침묵이며 판에 박힌 딱딱한 일정—이전에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엄격한 학습 요건들, 날마다 개인기도에 할애되는 한 시간 반—이 삶을 더없이 힘들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것은 고독이 넘쳐흐르는 텅밭이었고, 악마는 이 기회를 십분 이용하였다. 불안, 슬픔, 낙담 등 사실상 이냐시오가 묘사한 고독의 징후들 전부가 눈만 뜨면 만나는 친구나 같았다. 되돌아보건대 그 당시 나는 그곳에 머물기로 인간힘을 쓰다가 떠나기로 작심했다가 하기를 되풀이하였던 듯싶다. 그리고 어느 쪽 선택에 대해서도 나는 결코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던 중에 수련기 첫째 성탄절 무렵에 하루는 잠에서 깨어나 불현듯이 내가 정말로 머무르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수도 없이 어려움들이 있었고 수많은 제도수정을 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진실로 목표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느낌이 확연해진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서는 전혀 색다르게 다가왔다. 그것들은 도중하차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요 맞서야 할 도전이 된 것이다.

행수가 거듭되면서 나는 스스로 선택한 생활에 더욱 깊이 뿌리를 내렸다. 예수회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바치는 기도과 수도적 봉사가 내 삶의 핵심적인 가치들로 굳어져 갔다. 이 시점에 이르면서 고독은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거니와 내 기도 체험의 주요 부분이 되지도 못했다. 물론 비참한 순간들과 비참한 나날들도 없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러한 날들이 오래 계속되지 않았고 태양은 항상 새로 떠오른다는 사실을 터득한 까닭에 결코 깊은 상처를 받지 않게 되었다. 그 옛날 아일랜드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 “가서 자라.”에는 실로 나무랄 데 없는 지혜가 담겨 있음을 깨달았다. 하룻밤을 폭 자고 나면 우리네 문제들 십중팔구는 훨씬 다루기가 쉬워져 보이게 마련이다. 내 인생을 이처럼 새로운 안목으로 보

게 됨에 따라 나는 고독에 빠지는 일이 한결 적어졌다. 하지만 불행히도 악마는 약삭빠른 존재이다. 우리가 성장하면 그 역시 전략을 바꾼다. 3부에서 보게 될 테지만 그는 투신한 영혼들에게는 고독보다도 오히려 거짓된 위안을 내세우고 나타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악령이 초심자들을 시험하고 현혹하는 통상적인 방편이 고독—낙담, 근심, 불안, 두려움, 미지근함 등, 즉 간단히 말해서 평화의 상실—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출발’이 우리네 기도와 투신생활의 최초 단계로 국한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도 주목해야 한다. 전환점은 이외에도 몇 가지 있다. 예를 들어 선교를 위해 떠날 때, 인생의 주요한 전환점에서(결혼 등), 죽음을 맞을 때 등도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된다. 그리고 내 체험으로 보면 이러한 때들도 고독이 우리네 식별에 주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이다.²

고독에 대한 규범들

이제까지 우리는 고독이 악령의 작품이라는 것, 고독은 결코 하느님 음성의 표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놀라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낙담과 좌절이 엄습할 때 착한 사람들 대다수는 ‘하느님’이 자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고, 그러기에 자기가 하던 일을 포기하거나 소명의 길에

2. 십자가의 성요한이 말하는 “어두운 밤들”이란 영적 생활에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 시기에 우리네 기도생활은 급격하게 변화한다. 우리는 이상스러운 새 세계에 있게 되고 악마는 또다시 고독으로 술수를 부린다.

서 떠나야 한다고 곧잘 추론한다. 기도가 어렵고 메달라지면 주님이 자기를 버리셨으며 참아내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신혼부부가 최초의 역경에 봉착하여 싸움을 벌이면 그들은 곧잘 결혼을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려버린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라는 말이 결혼식 때에는 아름답지만 슬플 때가 오면 그것이 우리네 꿈과 기대 속에 전혀 계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처럼 신앙인들은 고독을 하느님이 자신을 불쾌하게 여기시거나 자기가 선택한 행로를 승인하지 않고 계신다는 표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버리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고독을 다루고 있는 성이나시오의 첫번째 규범은 놀라우면서 동시에 모질게 느껴진다. 그는 말한다. “영혼이 고독할 때에는 어떠한 변경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고독한 상태에 빠지기 전에 위안 상태에 있을 때에 가진 결심을 끝까지 고수할 것이다.”(318 항) 예수회에 입회하기로 한 내 결심이 경건하고 평화롭게 이루어졌을진대 내가 혼란에 빠지고 낙담하고 풀 죽어 있을 때에는 그 결심을 결코 변경해서는 안 되었다. 이 점은 자기 가정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면서 신학교 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는 조나, 양극화된 공동체 생활에서 긴장을 체험하는 레티시아, 그리고 경건하게 시작한 혼인생활이 폭풍우 속으로 빠져드는 에드와 마리아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한 결정을 무엇이나 결코 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고독에 빠진 상태’에서는 결정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말일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기에는 새로운 결심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 이유를 성이나시오는 “위안 상태에는 주로 선신이 우리를 지도하고 권고함과 같이 고독한 때에는 주로 악신이 책동하는데, 악신의 권고를 따라서는 결코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는 까닭”이라

고 말한다. 고독은 악령이 작용하고 있다는 표지이다. 따라서 악마를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모셔 들일 요량이 아니라면 우리는 ‘결코’ 고독 상태에서 결단을 내리거나 내린 결단을 변경하지 말아야 한다.³ 이 규범은 무척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식별에 관해 들은 온갖 이야기들은 모두 잊어버리더라도 이 대목은 잊지 말도록 당부하곤 한다. 사람들이 자기네 영성에 있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 규범을 염두에 두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삶 속에서 대면하는 불행의 심중팔구는 면할 수가 있다. 착한 사람들이 형편없는 결단들을 내리는 까닭은 고독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이요, 낙담과 메마름과 불안 그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으로 보기 때문이다. 악마는 그들이 당하는 시련을, 하느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시고 그들을 저버리신 표지라고 확신시킴으로써 그들의 신심과 그들의 미묘한 자기 연민을 악용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악령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날렵한 재치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고독 상태에 빠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가 결단을 내리거나 현재의 진로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첫째주간의 다음 세 가지 규범들(319-321항)에서 성이나시오는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본질상 악령이 제안하는 것과 정반대로 행동함으로써

3. 나는 이 책 전편을 통해 악령(evil sprit)을 악마(devil) 또는 ‘그’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염두에 둘 것은 이미 5장에서 말했듯이 ‘악령’은 하느님께 대적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 전체를 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독으로 일하는 ‘악마’는 우리네 구속받지 못한(그리고 어쩌면 잠재의식적인) 자아(自我)나 우리가 어머니의 젖에 섞여 그 가치관을 함께 들이키고 있는 ‘현세’ 또는 문자 그대로의 악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 모든 ‘가라지들’을 8장에서 보다 충분히 다룰 것이다.

고독을 타파하는 것과 우리를 저버리시는 것처럼 생각되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새롭게 하는 것, 둘로 요약된다.

319항에서 성이나시오는 말한다. “고독할 때는 전에 결정한 것을 바꾸어서는 안 되지만, 고독에 대한 자기의 태도를 바꾸는 것은 펴 좋은 일이다. 예를 들면, 더욱 기도하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또 고행 같은 것을 더욱 많이 행함으로써 고독함을 극복함이다.” 통상적으로 악령은 우리가 자각과 극기에 도달하는 이 모든 이나시오식 수단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 한다. 그는 우리를 자기 연민과 불안으로 채우려 든다. 그럴 때 규칙적인 기도생활을 하는 영혼들은 매일 30분씩 하던 기도와 묵상시간이 어찌면 길고 부담스럽게 보일 것이다. 그리고 양심성찰에 할애하는 시간이 완전한 낭비로 여겨질 것이다. 고독은 때로 하느님이 자기를 버리셨으며 하느님께 도달하고 하느님을 기쁘게 하려는 일체의 노력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낙담에 빠지게 한다. 그런가 하면 고독이 우리네 도움을 외쳐대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경건한 실천들이 너무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도 취적이라고 느껴지는 ‘성스러운 불안’으로 나타나는 수도 있다. 수도적 투신을 활동가적 자세로 접근하는 오늘날에는 어찌면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충실한 기도자가 로마는 불타고 있는데 바이올린이나 켜고 있던 네로처럼 느껴지는 이같은 성급한 느낌 역시 고독의 한 형태이다. 고독이 소리 없는 절망으로 체험되든, 불안한 안타까움으로 체험되든 간에 그 원인과 그에 대한 적절한 응답은 동일한 것이 된다. 고도로 숙련된 심리학자인 악령은 각 영혼의 특성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한다. 그는 독실한 이들은 낙담에 빠지게 하고 활동가는 불안에 쫓기게 한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고독은 그에게서밖에 올 수 없다.

이 두 가지 형태의 고독이 악령에게서 비롯되는만큼 우리는 결코 그에게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실 이나시오가 이 319 항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악령이 제안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대처방식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 시간을 줄이거나 고행의 강도를 낮추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은 아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바라시고 또 사도직이 그것을 명하는 때도 있을 수 있고 또 실제로 있을 테지만, 우리네 느낌이 이나시오가 ‘고독’이라 지칭하고 있는 그런 것들과 맞아떨어질 때에는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뜻일 뿐이다. 이런 때에는 우리가 받은 영감과 정반대로 행동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영감이 악령에게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도움이 될 만한 예 하나를 들어본다. 나는 내적 생활에 상당히 성숙한 투신된 기도자들에게 그들이 고독 상태에 있을 때야말로 기도하면서 실제로 ‘시계를 쳐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때라고 말하곤 한다. 초기에는 기도 시간과 정해진 기도 장소가 몸에 배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우가 어린 왕자한테 했던 현명한 말처럼 이것은 우리네 마음을 길들이는 수단이 된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길들여져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고 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면의 세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고독의 시간에는, 즉 기도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때에는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이 좋다. 보통 하루에 30분씩 기도를 바쳤다면 그 30분이 길고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때에는 31분을 기도에 할애하는 것이다. 만일 (아벨라의 성녀 테레사가 그랬듯이) 모래시계를 흔들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좋지만, 기도 시간을 엄수하고 약간 더 길게 잡으라는 것이다. 악마가 붙여넣는 영감과 정반대로 행한다. 만일 우리가 악마라

면 어떻게 하겠는가? 오늘 30분을 25분으로 줄이는 전략에 성공을 거두었다면 필경 내일은 20분을 목표로 공격을 감행할 테고 다음은 15분...12분...10분...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악마의 경우가 그렇듯이, 먹이대상이 되는 자가 평소보다 오히려 더 길게 기도를 바칠 때 우리는 이런 식의 공격을 재빨리 포기하게 된다. 이제껏 악마를 어리석은 자로 비난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으니까.

성이나시오는 첫째주간 여덟째 규범에서 악령의 영감에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이 사상을 거듭 개진하고 있다(321항). 그는 말한다. “고독중에 있는 자는 자기가 받고 있는 괴로움과는 반대되는 인내를 지속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는 또한 사람이 고독에 빠졌을 때 염두에 둘 만한 유익한 점들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 “고독과 싸우면서 오래지 아니하여 위안이 올 것을 생각할 것이다.” 그에 앞서 그는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320항). “고독한 상태에 있는 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하느님께서 가끔 우리를 시련하시기 위하여 우리 본성의 능력으로 원수의 여러 가지 선동과 유혹에 대항하도록 버려두신다는 것이다.”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우리를 시련하시기 위하여”라는 문구를 보다 철저하게 고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나시오가 아홉째 규범에서 악령이 고독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작용을 가하도록 하느님이 허용하시는 까닭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그러한 순간에는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은총과 도우심이 모든 영혼에게 항상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느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구령을 위한 충분한 은총”(320항)을 부여하고 계신다는 것이 신앙의 한 신조이다. 하지만 고독 속에서는 이러한 신조를 쉽사리 망각하고 만다. 그

것은 고독이 결코 영원토록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사리 망각하는 것이나 같다. 우리네 느낌들이 교란될 때 우리는 주님께 대한 우리네 희망을 토대로 하는 계시의 근본 진리들을 쉽사리 간과 하게 된다. 사실 악령은 우리네 절망적인 감정을 방편 삼아 우리의 이해 능력을 범람하게 하거나 마비시키려고 든다. 이럴 때도 우리는 악령에게 정반대로 대적해야 한다. 우리가 악령이 보내오는 영감들에 정반대로 ‘행동’해야 하듯이 악령이 유발하는 사악한 의혹과 절망의 사고들에 대립되는 신앙과 희망의 ‘사고’들을 확고하게 견지할 수 있어야 한다.⁴

주께서 고독을 허용하시는 까닭

우리가 고독한 상태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사고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성이나시오의 권고는 고독이 결코 하느님에게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고독은 결코 하느님의 ‘음

4. 성이나시오는 열 번째와 열한 번째 규범(323-324 항)에서 이 점을 다시 거론하면서 첫째주간 규범들에서 유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위안의 지침들을 제시한다. 그의 요지는 위안과 고독이 서로 상반되는만큼 영혼 쪽에서 정반대되는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밤과 낮이 교차되듯이 위안과 고독은 분명히 교차되는만큼 위안 중에 있는 사람은 “이 다음에 겪어야 할 고독한 처지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생각하고, 그때를 위하여 새로운 힘을 마련해야”(323 항) 한다. 우리가 고독중에 있을 때에는 우리네 희망을 새롭게 하고 신앙을 더욱 돈독하게 해야 한다면 위안 중에 있을 때에는 “고독할 때에, 즉 이러한 은총이나 위안이 없을 때에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어야”(324 항) 한다. 고독중에 있을 때든 위안중에 있을 때든 간에 우리가 할 일은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감정이 지나칠 가능성이 있는만큼 우리는 이성으로, 건전하고 냉철한 정신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독실한 영혼은 혼란과 슬픔 또는 좌절 같은 감정에 사로잡힐 때 으레 이렇게 자문한다. “하느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하느님은 내 삶을 싫어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느님께서 불쾌하게 여기시는 어떤 짓을 해온 걸까?” 만약 그 영혼이 순종형이라면 자신이 체험하는 그 불행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려고 애쓰게 된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해온 바에 따르면 고독을 그렇게 경건하게 수용하는 데는 의문이 따르게 된다. 고독이 하느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고 하느님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면 영혼이 고독을 하느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그렇다. 그리고 아니다.”가 된다. 통상적으로 그같은 반응은 우리네 삶 속에서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을 오해한 것으로, 원시 구약 신앙에서 발견되는 어린아이들의 아버지라는 하느님상 또는 꼭두각시 조종자라는 하느님상과 맥을 같이한다. 주님이 확보하신 몇 안 되는 친구들을 다루는 방식을 고려할 때 주님에게 친구가 그렇게 적다는 사실이 조금도 이상할 것 없다고 불평하는 성녀 데레사의 말 속에 그러한 반응이 적어도 암시는 되고 있다.

하지만 이 독실한 영혼의 반응 속에는 최소한의 진실도 깃들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 고독은 하느님께로부터 나와야 당연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섭리와 통제를 떠나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내가 착한 영혼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여기게 된 구분방식을 활용하자면 주님은 결코 고독을 ‘야기할’ 수 없는 반면에 고독은 그분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는 한 발생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죄의 경우에도 이 점은 마찬가지이다. 전선하신 하느님께서 죄나 유혹을 촉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악에

대한 암시마저도 그분의 절대적인 선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죄도 유혹도 그분의 허용 없이는 결코 발생할 수가 없다. 만일 죄나 유혹이 하느님의 통제 범주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결국 당신 피조물의 최고 주님이 못 되시는 셈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우리는 성아우구스티노가 회심하기 전에 빠져 있던 마니교의 이신론—한쪽은 선하고 다른 한쪽은 악한 두 신의 세력이 독립적으로 양존한다는—세계에 들어와 있는 것이 된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기 위해서 아우구스티노가 떨쳐버려야 했던 것이 바로 자주적인 주권을 가진 악신(惡神)의 개념이었다. 그가 보았듯이 악마는 정말 심술궂지만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조물주께 종속되는 피조물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하신 하느님이 악(고독도 하나의 악이다.)을 허용하실 수 있는 것일까? 하느님이 악을 유발시키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쩌서 그것을 차단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그분은 악인들과 악령들의 주님도 되시는데 그분의 선성(善性)이 그분으로 하여금 악인과 악령의 폐해를 사전에 개입하여 예방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바로 이것이 성이냐시오가 첫째주간의 중대한 아홉째 규범에서 고독의 해악을 각별히 언급하는 가운데서 다루어가는 문제이다. 그는 거기에서 하느님이 투신한 영혼들의 삶에 고독을 허용하시는 명확한 이유 세 가지를 제시한다. 우리는 이냐시오의 이 세 가지 이유들을 고찰하기에 앞서서 고독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책을 그리스도가 오시기 400년 전에 위대한 욕기의 저자가 이미 진술했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장 첫머리에서 우리는 욕과 그의 ‘벗들’이 벌인 논쟁에 나타난 상호 대립되는 하느님상 두 가지, 즉 꼭두각시 조종자 하느님과 다 자란 아들딸들의 아버지 하느

님을 두고 이야기한 바 있었다. 이 이야기를 기술한 익명의 저자는 그 논쟁에서 분명히 욱의 입장을 두둔하고 있다. 그는 욱기 앞 부분에서 욱이 어떤 경위로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이해—계시된 이해—를 이렇게 적고 있다.

하루는 하늘의 영들이 야훼 앞에 모여 왔다. 사탄이 그들 가운데 끼여 있는 것을 보시고 야훼께서 사탄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디 갔다 오느냐?” 사탄이 대답하였다. “땅 위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그래, 너는 내 종 욱을 눈여겨보았느냐? 그만큼 온전하고 진실하며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악한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은 땅 위에 다시 없다.” 하고 말씀하시자, 사탄이 야훼께 아뢰었다. “욕이 어찌 까닭 없이 하느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당신께서 친히 그와 그의 집과 그의 소유를 울타리로 감싸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해주셨고 그의 가족을 땅 위에 번성하게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모든 소유를 쳐보십시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욱을 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이제 내가 그의 소유를 모두 네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몸에만은 손을 대지 말아라.”(욱기 1,6-12)

야훼 하느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물리나와 욱의 가족들과 종들과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내려쳤다. 이 모든 참화들도 욱의 신뢰를 뒤흔들지 못하게 되자 사탄은 주님께 되돌아와서 그의 몸에도 손을 댈 수 있도록 허용해주시라고 청한다.

“가족으로 가족을 바꿉니다. 사람이란 제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법입니다. 이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시오. 제가 보장합니다. 그는 반드시 당신께 면전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셨다. “좋다! 이제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인다. 그러나 그의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아라.”(욥기 2,4-6)

사탄은 최선을—아니 최악을—다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굳건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직관은 ‘사탄’이 비록 하느님의 허락 없이는 행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욥의 고독 체험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어째서 사탄에게 욥을 그토록 혹독하게 들볶도록 허용하고 계시는가? 불가사의한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욥의 사랑과 충실을 시험하고 확인하기 위함인 것이다. 욥기의 저자는 이 점을 확신하고 있다. 물론 그는 하느님이 악을 허용하시는 그 신비를 우리에게 온전히 확인시켜주지는 못하고 있다. 욥기는 마지막에 이르러 단순한 신뢰를 촉구하게 된다. 즉, 하늘과 땅과 그 안의 온갖 것들을 창조하신 선하신 주님, “언제고 동이 틀 것을 명하고 새벽의 여신에게 ‘이것이 네 자리다.’ 하고 일러주시는”(욥기 38,12) 분은 결코 악의와 고독의 원인이 되실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일한 추론에 의거해서 이러한 사건들과 체험들이 그분의 통제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선하신 하느님은 이처럼 욥의 삶과 우리네 삶 속에 고독을 허용하실망정 그것을 유발하지는 않으신다. 그분이 고독을 허용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욥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애매모호하나마 그것이 욥의 사랑과 충실을 “확인시켜준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에 비해 성이나시오는 첫째주간 아홉째 규범에서 동일한 문제와 직면하게 될 때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투신된 영혼들의 삶 속에 실재하는 악의 문제를 예워싼 신비의 베일을 좀더 높이

들추어낸다. 그는 하느님이 악령으로 하여금 투신된 영혼들에게 고독을 체험시키도록 허용하시는 이유들 세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영혼이 고독하게 되는 데는 세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우리가 영신 수련에 염증을 내거나 게으르거나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탓으로 영신적 위안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련하시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하느님께 봉사와 찬미를 드리는 데 풍부한 위안이나 은총에 의지함이 없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진보를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시는 것이다. 셋째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신 사정에 대한 진실한 이해와 인식을 주시기 위함이니, 즉 큰 열심과 강한 사랑과 눈물 그리고 또 다른 어떠한 영신적 위안을 일으키거나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두가 다 하느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란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심이다(322항).

그러니까 있음직한 고독의 세 가지 원인은 우리 자신의 태만과 우리네 사랑을 ‘시험하시려는’ 하느님의 욕구, 그리고 진정한 위안은 순수한 선물이요 이 선물은 우리가 조종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하느님의 원의인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세 가지 원인들 가운데 우리 자신의 태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단 하나—첫째 항목—뿐이라는 점이다. 독실한 영혼 대다수는 고독을 체험하게 되면 즉시 자신이 어떤 형태로든 하느님께 불쾌한 짓을 저질렀다고, 주님이 멀리 떠나가신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 때문이라고 단정한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유일한 가능성만은 아닌 것이다.

영혼들이 고독에 잠긴 상태로 내게 찾아오면 나는 항상 이 점을 지적하곤 한다. 사람들은 자신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막중하게 보면 볼수록 자기가 체험하는 고독이 자신의 태만을 증명해주는 표지요, 어떤 이유로든 하느님이 자기를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징후라고 느낄 공산이 그만큼 커진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고독은 그들을 ‘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열정이 식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데 그 뜻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상기해야 할 점은 우리가 하느님을 막중하게 여기는 고결하고 투신된 이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 이 규범 속에 전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비록 무의식적으로나마 표류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표류한다. 일에 대한 압박감에서 기도를 소홀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관계가 주님을 향한 완전한 투신을 점차 희석시키는 생활로 이끌 수가 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현세적’ 가치들에 몰입되는 수도 있다. 이러한 제반 상황들과 그와 유사한 여타의 상황들 속에서 주님은 악마가 그 사람을 고독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악마가 사람을 파멸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데 비해서 주님은 그들을 일깨워 스스로의 태만을 자각하고 이전의 열정을 되찾도록 만드는 데 역점을 두신다.

그런데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다. “난 내가 어떤 식으로 태만했는지 도통 모르겠어. 내 생활을 성찰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전에는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느님은 바로 곁에 계시는 것 같았

데 말야.”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니 우리의 고독을 설명해줄 만한 고의적인 태만을 아무리 해도 발견할 길이 없다면 우리는 고독이 태만이나 나태 또는 미지근함에서 기인된 것이 아님을 확신해도 된다. 그들이 “하지만, 내가 모르는 어떤 형태로 주님께 불쾌감을 안겨 드렸던가 봐.” 하고 말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경우 나는 항상 그런 사람들에게 그같은 의구심이나 두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도록 주지시키곤 한다. 주님은 우리네 성화(聖化)를 우리 자신보다 더 중시하신다. 그분은 결코 수수께끼 놀음을 하시거나 우리가 풍우 속에서 서서히 비틀리도록 방치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신다. 그러한 신이라면 결코 신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해야 한다. “주여, 주는 내가 오로지 주님께 기쁨을 드리고자 하는 줄 아십니다. 주는 당신 원하시는 방식으로 나의 잘못을 아무렇게나 바로잡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진지하게 양심을 성찰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에서 나태하고 미지근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형태로든 주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점을 분명하게 가르쳐주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렇게 해주실 때까지는 이런 불투명한 의혹과 불안을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런 유의 기도는 하느님께 대단한 기쁨을 드린다. 이것은 결코 건방진 기도가 아니며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우리네 믿음을 강력하게 확인하는 기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이냐시오에 의하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독을 맛보도록 허용하시는 까닭은 우리 자신의 태만 이외에도 다른 두 가지가 더 있다. 따라서 고독의 원인이 되는 어떤 특별한 잘못을 꼭 집어낼 수 없을 경우 우리는 다른 원인들 쪽으

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리고 이 원인들은 투신된 열렬한 영혼들까지도 고독을 체험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나시오의 말에 따르면 우선 주님이 “어떠한 영신적 위안을 일으키거나 보존하는 것은 우리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모두 다 하느님의 선물이요 은총이란 것”⁵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고독을 경험하게 하실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모든 것들, 그 중에서도 특히 위안 속에서 맛보는 주님 체험이 곧 선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하신다. 하느님 체험을 산출해낼 수 있는 비법이란 없다.⁶ 그분은 만남의 주인이시기에 ‘당신’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실 때 오고 또 가신다. 이 점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 모두가 주님과 만남을 우리 쪽에서 조작해내려고 덤빈다. 우리는 최신판 기도 비법을 터득하려 애쓰고 탁월한 현대식 도사들의 지도를 받아 주님의 마음을 여는 마술의 열쇠를 발견해내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어떤 장소나 어떤 자세, 또는 (마력을 비는) 힌두교 기도에서 위안을 얻었다 싶으면 또다시 하느님 체험을 얻어내려는 기대를 안고 거듭거듭 그곳을 찾거나 같은 자세를 취해보곤 한다. 그럴 때 하느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고독이다. 하느님과 만남을 조절하려는 우리네 노력이 먹혀들지 않을 때 우리로서는 펍 다행한 결과가 된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처럼, 하느님은 ‘겁많고’ 당신을 사로잡으려거나 당신 곁으로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자한테서 재빨리 멀어지신다. 이 점을 깨닫는 것은 열심한 영혼에게는 고

5. 바로 이것이 이나시오가 322항에서 기술하고 있는 세번째 이유이다. 나는 뜻하는 바가 있어 일부를 이나시오가 제시하는 두번째 이유와 세번째 이유의 차례를 바꾸어 서술하였는데, 그 이유는 잠시 후면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6.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1장과 4장에서 이 문제를 강조한 바 있다.

통이 될 테지만 응답 그렇게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은 하느님이 아니실 것이다. 만일 우리가 임의대로 하느님을 등장시킬 수 있다면—그러니까 위안이 우리 자신의 기술과 책략으로 획득될 수 있다면—그분은 실제로 하느님이 아니고 우리네 상상력과 감성이 낳은 허상에 불과할 것이다. 그래서 이나시오는 계속해서 “하느님은 혹시 우리가 그러한 열심이나 영신적 위안이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같이 생각하고 오만이나 허영심을 일으켜서 구령길에서 탈선함이 없도록 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이나시오가 열심한 영혼들까지도 고독을 체험하게 되는 까닭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보다 신비로운 또 하나의 근거가 있다. 그는 그 이유를 “우리가 하느님께 봉사의 찬미를 드리는 데 풍부한 위안이나 은총에 의지함이 없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진보를 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시는 것”으로 결부시킨다. 이같은 이유는 여러 해 동안 나를 혼란에 빠뜨리고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자구적으로 보면 이것은 도무지 무의미해 보였다. 하느님은 모든 것들 다 아시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를 ‘시험해야’ 할 필요가 있단 말인가? 분명코 그분은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우리 자신의 자력에 맡겨둘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의 지혜를 벗어나서 은폐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내가 이 부분에 곤혹을 느끼고 있을 때 나에게 점진적으로 가능한 해답을 제시해준 것은 교사로서의 내 체험이었다. 때마침 내 강의를 이수하던 학생들 중 하나가 강의내용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학생들이 내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이수하고 있었던만큼 중도에서 그만두고 다른 과목을 이수해도 졸업에 지장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학생에게는 학적부에 과락 기록을 남기는 것보다는 시

간이 넉넉할 때 내 강의를 포기하도록 종용하곤 했다. 학생들 중에는 내 의중을 파악하고 충고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심성이 약한 학생들은 자신의 한계를 직시하지 못하고 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다음 시험에는 좋은 성적을 낼 것이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방식과 요구하는 사항들에 '적응해내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런 경우 나는 그 학생에게 다음 시험에 응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알았다. 그 이유는 그가 시험에 통과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로서 바라는 바는 내가 기왕에 알고 있는 것을 그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은 내 과목이 그에게 너무 벅차고 따라서 중도에서 그만두는 편이 더 유익할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가 또다시 실패할 경우 나는 놀라지도 새삼스럽지도 않을 테지만 그는 필경 그렇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결국 고독은 하느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풍부한 위안이나 은총에 의지함이 없을' 때 나타나는 우리네 한계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의미에서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동안 나는 성이나시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고독이 우리네 삶 속에서 이러한 목적을 갖는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하지만 내가 점차 깨닫게 된 바에 따르면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검토한 '앞서의' 이유라는 데 문제가 있었다. 하느님은 고독을 방편으로 하여 모든 것이 다 선물이며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위안을 공적을 세워 받아내거나 산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신다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이다. 그렇다면 이나시오는 동일한 요지를 두 가지 원인 형식으로 두 차례 되풀이해서 지적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게 여겨졌다. 성이나시오로 말하면 말수가 아주 적은 사람이며, 이 적은 말들은 다년간의 기도과 정선과정을 통해 나오고 있다. 그런 사람이 이같은 방식으로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시련’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악령이 우리를 고독으로 시험하도록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이유들과 관련해서 지적하고 있는 색다른 요지는 과연 무엇인가? 나는 필경 “불로 강철을 제련한다.”는 말에서 그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철은 탄소와 철의 합금으로, ‘제련’이란 합금이나 화합물을 정제하고 순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강철을 제련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고온의 불에 달궂으로써 탄소와 철이 융합되어 본래의 성분보다 더 순수하고 훨씬 단단한 새로운 물질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나시오가 하느님이 독실한 영혼들에게 고독을 체험하도록 허용하시는 두번째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 현상과 유사하다고 믿는다. 이 고독은 정제시키는 불로서, 우리네 사랑은 이 불을 통해서 강해지고 완벽해진다. 고독은 우리의 사랑을 ‘태워서’ 온갖 이기심과 소심증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 영혼을 예수의 성령과 ‘융합시킨다.’ 우리네 인생이 위안으로 일관된다면 필경 우리는 사랑 면에서 유약한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앞서 지적했듯이 혼인생활은 ‘좋은 곳든’ 한다. 젊은 한 쌍이 결혼할 때는 이 문구를 “혼인생활이 항상 ‘좋기’를 바라지만 혹시 ‘곳을’ 때라도 애써 참아내도록 한다.”는 뜻으로 생각한다—그리고 그들에게는 실제로 그런 의미를 갖기도 한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혼인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이 문구가 실제로 그런 의미가 아님을 깨닫는다. 감상적인 사랑에 젖을 나이의 사람들한테는 이상

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긋을’ 때가 ‘좋을’ 때 못지않게 필요한 것이다. 좋을 때에 우리는 사랑의 기쁨을 터득하며 긋을 때에는 사심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 긋은일은 우리네 사랑에서 우리들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이기적인 자기 추구를 모조리 씻어내는 불이 된다. 혼인생활에서 오해가 야기될 때, 한쪽이 다른 쪽에게 배신감이나 실망을 느낄 때 참된 사랑의 힘이 분출된다. 어떤 여인이 자기 남편과의 사이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게 꼬일 때라도 그에게 충실할 때, 그녀는 자기가 단순히 그 남자에게서 얻어내는 것만을 사랑하지 않고 ‘좋을 때나 긋을 때나’ 그 남자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느님과 우리와의 사랑 관계에서 ‘긋을’ 때가 바로 고독 상태이다. 이러한 고독은 우리네 사랑을 표출시키고 강화시킨다. 이것은 우리네 사랑을 정제하고 변화시키는 불로 ‘제련하는’ 것이다.⁷

여인, 연애 사기꾼, 전쟁의 두목같이

자기가 무슨 이유로 고독을 체험하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은 그 고독에 훨씬 적절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만일 그가 태만했었다면 그는 생활양식을 바꾸고 다시 충실해짐으로써 고독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체험하는 암울과 혼

7. 「영들의 식별을 위한 성이나시오의 제 규범 해설서」에서 줄리스 토너는 이나시오의 고독이 주어지는 세 가지 이유들을 탁월하게 개진하고 있다(182-191쪽).

나는 두번째 이유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둘째와 셋째의 순서를 바꾸어 기술했지만 토너는 성이나시오가 배열한 순서대로 다루고 있다. 토너는 주님이 고독을 허용하시는 있음직한 이유들을 별도로 몇 가지 제시하기도 한다(191쪽).

란을 설명해줄 만한 심각한 태만을 전혀 발견하지 못할 경우에 그는 고독이 열렬한 영혼들한테도 찾아든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사랑을 '제련하는' 정화의 불길에 설령 혼쾌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품위 있게 자기를 내맡길 수 있으며 아울러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는 교훈을 터득하고 그 모든 선물을 부여하시는 분께 겸손과 신뢰로 의존할 수 있게 된다. 적어도 내 경험으로 보면 주님의 충실한 벗의 삶 속에 고독이 찾아들 때는 이상의 '적극적인' 원인들 두 가지—'제련하려는' 것과 '풀어주려는' 것—가 통상적으로 모두 적용 가능하다. 여기에서 문제는 주님이 이 둘 중 어느 목적을 의중에 두고 계시는지 판정하는 데 있지 않고, 고독을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성취하는 데 필요한 도구로 보는 데 있다.

물론 주님께서 고독을 허용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하지만 고독을 유발하는 악마는 목적이 전혀 다르다. 악마는 영혼을 좌절에 빠뜨리고 파멸시키며 고결한 첫출발을 망치려 든다. 우리로서는 불행한 일이지만 악마는 교묘하고 위험한 원수로서 소기의 목표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거두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탄의 술수에 속아 거의 자살 직전까지 간 바 있었던 성이나시오는 첫째주간을 위한 규범들을 마무리 지으면서 저 유명한 세 가지 유추를 통해 악마의 특성과 전략을 밝혀내고자 한 것이다. "원수인 마귀가 행동할 때는 여인과 비슷한 점이 있다. …마귀는 또한 자기를 숨기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마치 연애 사기꾼 같기도 하다. …마귀는 또 적을 정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약탈하고자 하는 전쟁의 두목과도 비슷하다." (325-327 항) 이 세 가지 유추는 저마다 악령이 인간을 대하는 방식의 중요한 특징 하나를 밝혀주고 있다.

여인과 비슷하다. 이 비유는 오늘날 같은 여성해방 시대에는 적용

하기가 곤란하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나시오가 ‘모든’ 여인을 지칭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내 생각에 그는 또한 여인 ‘만’을 지칭하고 있지도 않다. 이나시오의 말에 따르면 악마는 여자처럼 ‘무서운 태도를 보이면 용기를 잃고 도망 가지만 상대가 용기를 잃고 도망 가면 극도로 사나워진다.’는 것이다. 내가 보기에 이 말의 핵심은 여자는 보편적으로 육체의 힘, 야수적인 힘에 의존해서 수단을 부리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못된 짓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은 곧잘 그렇게 하곤 한다. 하지만 여자들 또는 상대적으로 육체가 약한 남자들은 기지를 활용해서 — 심하게 잔소리하고, 비명을 지르고, 목놓아 호느끼는 등 보편적으로 심리전을 펴으로써 —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거나 공략하는 수밖에 없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대비를 받아들일진대 (나는 이 비유가 이나시오 당시에나 오늘날에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본다.) 결국 이나시오가 지적하고 있는 요지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이들을 동물적인 힘으로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이 된다. 그러기에 사탄은 협박이나 미묘한 압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몸은 허약하면서 입이 거친 사람마냥 우리가 겁먹을 때에는 잔인성을 유감 없이 발휘하되 우리가 확고한 태도를 보이면 비겁해져버린다는 것이다.

마귀는 영신수련을 하는 사람이 원수의 유혹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대하는 용감한 기색을 보이면 용기를 잃고 도망 간다. 그러나 반대로 수련하는 이가 겁을 내고 또 유혹에 대항하는 데 용기를 잃기 시작하면 인류의 원수는 세상에도 없을 맹수처럼 사나워진다(325항).

그렇다면 여자는 모두가 그와 비슷하다는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지만 내가 체험을 통해 보았을 때 그같은 여자들(그리고 남자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이나시오가 악마를 연애 사기꾼에 비유할 때 그가 모든 남자들을 다 연애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그런 남자들이 없지 않으며 이런 연애 사기꾼은 ‘자기를 숨기고 발각되지 않으려 한다.’ 그는 상대방을 꼬일 때 “자기 말이나 구슬림이 비밀에 붙여지기를 원한다.” (326항) 연애 사기꾼은 처녀가 자기 아버지나 오빠들을 설득할 때 그들이 구식이며 마음이 좁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악마 역시 영혼에게 고해사제나 영적 지도자나 웃어른에게 아무 말 말라고 촉구하면서 ‘그들이 너무 바쁘다, 너무 엄격하다, 너무 미지근하다, 너무 현대식이다, 너무 구식이다’는 등의 핑계를 댈다. ‘그 이유는 그의 흥계가 드러나게 되면 계획했던 나쁜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끝으로 적은 전쟁의 두목과 같다. 훌륭한 군지휘관은 답사하고 계획을 수립한다. 그는 상황 전체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군의 물리적, 심리적 약점을 주의 깊게 살펴 알아낸다. 그런 다음에 그는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한다. 전승하는 지휘관치고 적의 가장 강한 곳을 공격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의 영적 원수 또한 그러하다. 그는 우리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네 약점을 찾아낸다. 우리가 천성적으로 겁이 많으면 겁쟁이로 만들려고 덤빈다. 우리가 허영에 기우는 성향이 있으면 아첨으로 우리네 자부심을 부풀린다. 그리고 우리가 감상적이면 감성적인 신심에 젖도록 부추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자신의 약점들을 아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우리가 일단 그것을 알아내어 주님께 바치면서 치유를 간청할 때 악마는 유리한 이점을 잃게 되고 만다.

우리 인류의 적은 이렇하다. 그는 비밀을 좋아하고 어둠 속에서 꿈

지락거리는 사기성 짙은 캄패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영리한 숙달된 전략가이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는 우리하고만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의 진짜 적수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바로 이분께 귀속되어 있다. 우리는 주님을 저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께 매달려 있는 한은 악령의 기만행위들마저도 우리네 성화의 방편이 된다. 왜냐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곧 (하느님) 결정대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만사가 선하게 이루어져 가기”(로마 8,28) 때문이다. 고독조차도 말이다.

■ 실습문제 ■

1. 우리는 하느님이 우리에게 고독을 체험하도록 허용하시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몹시 고독을 체험한 이유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라고 보는가?
2. 그대가 살면서 겪은 심각한 고독 체험을 되새겨보라. 우리가 이장에서 논의한 것(규범들과 악마의 계략들)에 비추어 그대는 그 체험을 어떻게 해석했으며 또 어떻게 대처하였던가?

제3부

..... 뒤섞인 추수

7. 투신과 위안

인류의 원수인 악령은 우리의 파멸을 성사시키기로 작정한만큼 결코 쉽사리 포기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총생활의 초심자는 한번 고독의 시련을 대처하는 법을 터득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가 없다. 중요한 고비에서 실제로 승리를 거둔 터라 그 영혼은 이제부터 똑같은 작전에는 금방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악마는 결코 빈틈이 없다. 고독은 앞으로도 찾아든다. 사실 고독은 비오는 날이 그렇듯이 인간생활에 상시적인 부분이 된다. 그리고 악마는 이 고독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탐색전’을 벌이면서 영혼의 어느 부분이 허점인가를 꾸준히 시험한다. 이런 일은 특히 새로운 도전들이 발생할 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6장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가 주님께 하는 “예.”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때든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해야 하는데, 그분은 당신의 뜻을 점진적으로 드러내 보이시며 따라서 항상 새로운 ‘시작들’, 보다 깊은 차원의 투신을 촉구하는 부르심들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영혼은 심연을 향해 더 깊이 가라앉으라는 요구를 거듭거듭 받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영혼의 어두운 밤(어쩌면 내적 생활의 이같은 새

로운 시각들 가운데서도 가장 중차대한 경우)을 개진하면서 말하고 있듯이 밤—또는 밤이 여러 차례 오는 까닭에 밤들—으로 들어가는 영혼들은 많지만 여정이 끝날 때까지 참고 견디는 이들은 별로 없다. 어째서 그러한가? 그것은 그런 영혼들이 못됐기 때문은 결코 아니다. 사실 그들은 훌륭하고 성실한 기도자들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결코 어두운 밤으로 진입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새 시각들은 새로운 도전들을 제공하고, 그럴 때 악령은 또다시 공격을 재개한다. 자력(自力)에 대한 두려움, 자기 연민, 계속 여행하는 데 따르는 ‘비인간화’ 손실에 관련된 불안감 등—온갖 형태의 고독—이 선하고 투신된 기도자들로 하여금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 안이한 평범에 안주하도록 만든다. 그들은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지도에 용감히 마음을 열지 못할 경우 자기네가 사랑받는 만큼 사랑하겠다는 꿈을 포기하고 악마와 더불어 평화를 사들이고 만다. 물론 이와 동일한 일이 대부분의 인간관계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사랑의 대가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차 피곤해하면서 스스로 꿈꾸어 왔던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에서 안주하려 들게 된다. 과연 구애 기간에 했던 완전한 약속을 성숙하게 실현시키는 혼인(또는 수도자 성소)이 얼마나 되던가?¹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다. 그들 대부분은 선하다. 하지

-
1. 줄리스 토너 신부(op. cit., Appendix II, 271-282쪽)는 이나시오의 고독을 십자가의 성요한의 어두운 밤과 훌륭하게 대비시키고 있다. 그는 이 둘이 본질적으로 몇 가지 면에서 서로 다르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데, 그 일차적 이유는 이나시오의 고독은 악령에 의해서 유발되는 데 비해 ‘어두운 밤’은 실상 지극히 거룩하신 하느님이 아직 죄중에 있는 영혼에게 현존하심으로써 유발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여기에서 (그리고 「샘이 마를 때」의 4장과 5장에서) 다른 접근시각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요한의 어두운 밤이, ‘살아 있는 사랑의 불꽃’이 변형되지 않은 영혼에게 고통으로 현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스스로를 은근히

만 그들의 선과 포용력에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악마는 약기가 그지없다. 그는 고독을 방편 삼아 탐색하고 시험해서, 끝내는 그런 한계들을 찾아내고 그런 다음에 그것들을 완벽하게 이용한다. 하지만 악마의 악삭빠름은 고독을 통한 이같은 탐색 작업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또한 광명의 천사처럼 스스로를 가장할 수도 있으며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위안을 이용할 줄도 안다. 그가 고독을 이용하든 거짓 위안을 이용하든 투신된 영혼들에 대해 노리는 목적은 하나요 동일하다. 물론 이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영혼들을 자기 나라로 끌어들이고 자신의 전투부대에 편입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현실적으로는 투신된 남녀들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앞서 말한 대로 안이한 평범 속에 안주하도록 설득하려고 든다. 그러기에 현재 좋은 것이 보다 나은 성화에는 적이 되는 것이다.

위안의 불확실성

6장에서 고독을 다루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느님 쪽을 택한 영혼들에게 고독은 ‘결코’ 하느님의 목소리가 못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하느님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여러 이유들 때문에 고독을 허용

주입하고 허점을 유리하게 이용하는 악마와 연민 때문에 비롯되는 고독이라고 믿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의 불행은 이나시오의 고독을 실증하는 아주 탁월한 예라는 것이 내 견해이다. 이같은 사실은 내가 「샘이 마를 때」에서 영혼은 어둠 속에서 편안할 수 있고 고통과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그럴 때 어두운 밤은 더 이상 고독이 되지 않는다고 했던 이유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하시지만 결코 고독을 유발하지는 않으신다. 그러기에 기도자는 고독 기간 중에는 신앙상의 결정을 내리거나 바꾸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악마를 영적 지도자로 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위안이—고독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반드시 하느님의 음성이며 영혼이 위안 상태에 있을 때 받는 영감들은 안심하고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연상하게 된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영적 지도자라는 직분은 (식별 작업이나 마찬가지로) 아주 쉬울 것이다. 성이나시오가 첫째주간 규범들에서 말하고 있듯이 투신된 영혼이 “진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포와 슬픔을 일으키고 장애물을 마련하고 거짓 이유으로써 영혼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악신들의 상투적인 수단방법이며, 착한 신은 언제나 영혼에게 용기와 힘과 위안을 주고 눈물과 좋은 느낌과 평화를 주는”(315항)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양쪽 영들은 치열하게 싸우면서 영혼의 충성을 얻어내고자 할 때 바로 이 같은 ‘특수한’ 행동양식들을 취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은 선이요 진리이시며 당신의 본성에 배치되게 행동하실 수 없는만큼 고통스러운 고독은 상대적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다. 주님의 성실과 진실하심을 감안할 때 우리는 고독이 결코 그분에게서 나올 수 없음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악령이 거짓의 대부라는 데 있다. 그의 교활함은 파렴치하며 따라서 목적에 적합하다고 하면 하느님의 음성도 주저 없이 흉내낸다. 그는 고독이라는 수단으로 투신된 영혼을 속이거나 꾀방할 수 없을 때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양식을 모방하려고 덤빈다. 그러다 보면 착한 영의 병기고에 들어 있어야 함당할 위안이 그의 적인 악령의 주무기로 화한다. 성이나시오가 둘째주간

첫째 규범에서 위안과 고독의 보편적 규범을 재론하면서 서술에다 중요한 말 하나를 덧붙이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느님과 그의 천사들의 움직임에 있어서는, 마귀가 밀어넣는 모든 근심과 불안을 멀리함으로써, 참된 기쁨과 영신적 즐거움을 갖다 주는 것이 특징이고, 마귀는 표면적 이유와 꾀변, 그리고 끝없는 속임수를 씌으로써 이러한 기쁨과 영신적 위안을 방해하는 것이 특징이다(329항).

우리는 (5장 이후부터) 첫째주간 규범들에 나오는 이같은 보편적 기준과 낮익게 되었다. 그럼에도 덧붙여진 이 중대한 말쑥은 ‘진실’이다. 그러니까 ‘참된’ 위안은 곧 하느님에게서밖에 나오지 못한다는 것이다.

고독에는 이러한 제한요건이 붙지 않는다. 이나시오는 악령에게서 오는 참된 고독 같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릇된 양식이나마 모든 고독은 다 참된 고독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존재와 본성이 한결같이 진실하고 선택하신 하느님은 당신의 악마인 적수의 음성을 결코 흉내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안일 경우는 속임수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위안과 거짓 위안, 진실로 하느님계로부터 오는 위안과 하느님계로부터 오는 것처럼 보이는 위안을 구분해야 한다. 이 구별이야말로 둘째주간 규범들이 갖는 핵심적인 목표에 해당한다. 위안이 착한 영과 악령 양쪽에서 나올 수 있다면, 우리는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행동하도록 감도하는 영이 어느 쪽 영인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애매모호한 상황에 대한 성이나시오의 규범이 전제로 하고

확신하는 한 가지 위안되는 필수적인 진리가 있으니, 그것은 악령이 제아무리 교활하고 사기술에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위안을 완벽하게 모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악마는 환영과 무아경을 창출해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소기하는 바 목적을 위해서는 가장 고상한 인본주의적 기획들을 촉진하고 더없이 강렬한 사도적 열정을 불어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악마의 꼬리는 드러나게 마련이다.²

불 눈이 있고 나뭇대로의 체험을 겪은 이들에게 악령의 지문은 더없이 교묘한 자신의 위조품을 망치는 증거가 되게 마련이다. 성이나 시오의 둘째주간 규범들은 이러한 위조품들을 판별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지침이 된다.

미리 있을 원인도 없는 위안

악마가 그 형태를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위안이 있다. 성이나시오는 이것은 ‘미리 있을 원인도 없는’ 것이라 명명하고서 앞서 논의된 보편적 지침에 바로 뒤이어 둘째주간 두번째 규범(330항)에서 이를 다루고 있다. 규범들 맨 끝(336항 : 여덟째 규범)에서 아주 신중하고 비중 있게 지적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이나시오는 이 특수한 위안 체험을 그냥 언급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나시오가 여기에서 묘비명체로

2. 이 책에서 ‘악마’ 또는 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두고 5장에서 이미 논의했던 바를 상기하라. 전체적으로 악마를 ‘그’라고 지칭함으로써 표현이 더없이 간단명료해질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글자 그대로 악마를 비롯해서 우리 내성에 깊숙이 뿌리 내린 이기심(‘육신’)과 우리네 문화의 세속적이며 물질주의적인 제 가치 등, 우리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움직이는 ‘일체의’ 세력이다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

간결하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어쩌면 그러했기 때문에, 위대한 칼 라너는 이 독특하고 아주 확실한 위안 체험을 「영신수련」의 핵심으로 보았다. 그래서 최근 식별에 관한 글들에서는 이 규범과 그 해석이 크게 중시되고 있는 것이다.³ 그러나 칼 라너가 시작한 것과 유사한 토론이 이론적인 면에서 신학적 관심을 대단하게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나는 그것이 영적 지도와 식별의 ‘실제’에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는 믿지 않는다. 그러면 우선 성이나시오의 말을 직접 들어보기로 하자.

둘째 규범(330 항)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미리 있을 원인도 없이 영혼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홀로 우리 주 천주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영혼 안에 드나드는 것이나 영혼 전체를 지존하신 하느님의 사랑으로 끌어당기면서, 그 안에 감동을 일으키는 것은 조물주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원인 없이’ 라고 한 것은, 영혼이 지력과 의지의 활동만으로 이러한 위안을 마음에 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요소를 미리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것을 말한다.

이 위안 체험의 색다른 특징은 ‘미리 있을 원인이 없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이나시오가 셋째 규범에서 말하고 있듯이 ‘까닭이 있

3. 토너(앞의 책, Appendix IV, 291-313쪽 인용)에게는 이 유명한 논쟁을 탁월하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되는 면이 있다. 나는 기도자요 기도자들의 지도자로서의 내 체험을 토대로 그가 내린 결론들, 즉 a) ‘원인이 없는’ 이 위안은 기도자의 생활에 (아마 토너가 암시하고 있는 정도로는 드물지 않다 하더라도) 비교적 드물며, 따라서 b) 라너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이나시오는 이것을 식별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근본 문제’로 제시할 의사가 없었다는 결론에 동의한다. 두번째 결론은 이나시오가 ‘원인 없는’ 위안에는 이 대목 하나만 할애하는 데 비해서 ‘원인 있는’ 위안에는 네 개의 규범들을 할애하고 있다는 사실로도 확인된다 하겠다.

을' 경우 문제의 위안은 '착한 신'에게서 나올 수가 있고 악령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위안은 '까닭 없다'는 특징이야말로 그것이 분명히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표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안에 미리 있을 원인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나시오는 둘째 규범 끝부분에서 그것이 '지력과 의지의 활동만으로' 영혼이 위안을 체험하도록 이끌어주는 '어떠한 요소를 미리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그 위안이 '미리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어떤 것에서 기인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다. 일례로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조물주의 훌륭하심을 경탄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회상하고 (아니면 만나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느님께 우정의 선물을 감사하는 수도 있다. 이럴 때 경탄과 감사는 하느님이 그 대상이 되는만큼 위안—영적 위안—이 된다. 그리고 '원인'은 감지할 수 있는 석양의 체험 또는 감지할 수 있는 친구 추억이 된다. 마찬가지로 내가 애호하는 성서구절이나 아름다운 찬미가, 또 웃어른의 칭찬 등도 모두가 미리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오감에 와 닿아 나로 하여금 '지력과 의지의 활동만으로' 추적함으로써 (다시 말해서 감지할 수 있는 체험을 주목하고 음미하고 거기에 응답함으로써) 위안이 되는 하느님 체험에 도달하게 해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성이나시오가 뜻하는 미리 있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미리 있는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을 경우, 우리네 종교적 체험들 대부분은 감지할 수 있는 미리 있는 원인이 있다고 본다. 좀더 자세하게 말하면 우리가 성서구절을 묵상하거나 성서의 어떤 장면을 머리 속에 그리며 관상에 잠길 때 우리는 경건한 생각이나 상상이 발미가 되어 위안을 맛보게 되곤 한다. 이제 곧 살피게 되겠

지만 이러한 위안들은 나쁘거나 거짓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각들과 상상력을 개입시키는만큼 그 위안에는 세심한 식별이 따라야 한다. 성이나시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주님과 악령 양쪽 다 감각들을 통해서 작용을 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철학자들이 줄곧 가르쳐온 대로 우리의 지식 일체는 감각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따라서 설령 수도적 체험 영역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체험들을 배경할 경우 지성과 감성이 사멸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그렇다면 이나시오가 말하는 “미리 있을 원인도 없는” 위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위안인만큼 기쁨이요 평화며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증식이 된다. 그런데 그것이 감지할 수 있는 원인이 없이, 통상적으로 위안을 주는 평화 체험의 계기가 되는 생각이나 심상 없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런 일을 상상하기 힘든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감각적인 동물이지 천사가 아니다. 그런 이유로 볼 때 그같은 비감각적인 하느님 체험이 우리 인간들한테는 정상적이거나 심지어 이상적(理想的)인 체험이 되기 힘들다는 것이 명확해 보인다. 나는 이것이 성이나시오가 일차적으로 영적 생활 초심자들을 위하여 작성한 이 영신수련, 즉 명상적인 사색과 상상력 풍부한 관상이라는 미리 있는 원인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이 영신수련 과정에서 핵심적 체험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이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나시오는 ‘(감지할 수 있는) 원인 없는’ 위안들이 실제로 부여되고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있다. 그리고 이런 위안들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실상이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다는 것이다. ‘미리 있을 원인도 없이 영혼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홀로 우리 주 천주께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때에—그같은 위안을 받고 있는 동안에—행동하도록 하는 영감들은 오직 주님한테서밖에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사례로 제시할 수 있을 만큼 확고한 위안이 과연 있는 것인가? 이나시오는 아무런 실례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내가 보기에 미리 있을 원인이 없는 위안으로 규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묘사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로 독실하고 아량 큰 사람이 오해와 비난을 받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한 수녀가 의향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수도회 웃어른이나 동료 수녀들이 그의 의도를 오판하고 하는 일을 비난한다고 하자. 이런 일은 정상적인 사람 누구나 고통스럽게 느낀다. 그런만큼 문제된 영혼은 마음 상해하고 풀이 죽게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성실하고 독실한 까닭에 속임수에 빠졌거나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한다. 그래서 마침내는 불행하고 비통에 싸여—즉 고독 상태로—감실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는다. 그녀의 감정에는 감지할 수 있는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실제 그대로) 위안이 아닌 고통을 창출하는 원인들일 따름이다. 그렇게 거의 희망을 상실한 채 무력하게 주님 면전에 무릎 꿇고 있다가 돌연히 내면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한다. “네가 이 생활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이지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데 있을 따름이다.” 그러한 확신이 들게 되면 그는 고통중에서도 심원한 평화를 맛보게 된다. 그 수녀가 감실 앞에 온 것은 묵상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경건한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었다.(그럴 경우는 미리 있을 원인이 된다.) 깨달음과 평화는 마치 ‘불현듯이’ 일시에 찾아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느끼는 깊은 평화는 지속적인 고통과 공존할 가

능성이 매우 높다.

이상의 체험은 사실상 독실한 영혼들 모두의 삶 속에서 발생되고 있다. ‘장터의 어둠’이 우리의 내적 변화에 필수 부분이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러한 체험들이 존재하리라는 것을 보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에서 기술한 위안을 감지할 수 있는 원인도 존재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그런 사람의 오감과 재능에 작용하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가 위안이 아닌 고독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그런만큼 이 ‘불현듯한’ 위안 체험에는 미리 있을 원인이 없어 보인다.

미리 있을 원인이 없는 위안의 두번째 사례를 들면 이렇다. 어떤 충실한 기도자가 기도 중에 마른 샘의 체험을 일상적으로 겪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는 이같은 메마름을 정상적인 기도 양태로 볼 만큼 익숙해진 까닭에 혼란이나 불안을 느끼지 않는다. 하느님은 전적으로 입을 다무시는 것 같고 묵상과 상상력 풍부한 관상은 무의미하거나 불가능해 보이며 머리는 안팎으로 드나들면서 어디에도 이끌 어주지 못하는 무수한 분심뿐, 그저 텅 빈 상태이다. 그래도 기도자는 그런 상태에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서 그는 평화 속에 깊숙이 매몰된다. 그 평화가 주어지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그가 뚜렷하게 만져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암흑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실재하는 것이다. 나는 이것 역시 감지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위안의 사례라고 믿는다. 그리고 기도자가 성숙해감에 따라 그런 위안은 아주 일상적인 것이 된다. 즉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감지할 수 있는 고독으로 포장된 위안”보다 훨씬 더 일상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다.

독자는 아마 미리 있을 원인이 없는 이같은 위안의 사례들을 이 밖

에도 여러 가지 제시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어떤 경우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또 그런 것들은 ‘명확히’ 하나님한테서 연유된다고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듯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감각의 중재 없이 직접 영혼에 작용하실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체험들에 대해서도 성이나시오는 중요한 경고를 부연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오는 행동상의 영감들은 오직 하나님한테서만 나올 수 있으나 그는 이렇게 덧붙여 말한다. “하느님께로부터 그러한 위안을 받은 사람은 충분한 경계와 주의를 기울여서, 그러한 위안이 있는 바로 그 찰나와 뒤따라오는 시간, 즉 영혼이 아직 열심히 상태에서 지나간 위안의 혜택과 그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동안을 잘 구별해야 할 것이다.”(336항: 여덟째 규범) 우리는 이것을 ‘저녁 노을’ 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나가신 연후에도 여전히 남은 평화와 기쁨으로 묘사할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독실한 기도자들의 생활에 아주 일상적으로 찾아드는 체험이라고 믿는다.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아름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나시오의 말마따나 위험스런 것이기도 하다. 이때,

그러한 위안을 받는 이는 흔히 선신에 의하든 악신에 의하든 간에, 행습이나 개념 혹은 판단의 결론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추론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 천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여러 가지 결심과 계획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러한 것에 완전히 합의하거나 그것을 실천하기 전에 철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인 없는 위안을 이야기할 때 실제로 위안이 주어지는 때와 위안의 여운이 남아 있을 때를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

다. 그 위안 자체는 오로지 하느님한테서만 나올 수 있으며 위안이 주어지는 때에 제공되는 행동상의 영감들은 분명히 그분의 음성인 것이다. 하지만 그같은 체험과 그 여운을 구분하는 선이 대단히 미묘하다. 성이나시오가 말하는 요지를 분명히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비유가 도움이 된다. 제트기에 예인되는 글라이더를 생각해보자. 제트기와 글라이더가 연결을 가지면 글라이더는 비록 자체에 날 힘이 없더라도 아주 높이 날고 엄청난 속도를 내게 된다. 하지만 제트기와 연결되는 철선이나 밧줄이 훼손되면 글라이더는 어쩔 수 없이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글라이더가 급강하해서 거꾸로 땅에 박혀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하강하게 되고 또 조종사가 노련하기만 하면 제트기가 끌어줄 때 생긴 운동량으로도 상당 시간 비행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한동안 비행할 때, 경험이 없는 구경꾼이나 승객은 글라이더가 자체의 동력으로 난다고 믿거나 연결선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제트기가 어떤 식으로든 글라이더에 동력을 전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원인이 없는 위안의 경우도 상황이 유사하다. 하느님은 제트기이며 우리는 글라이더이다. 우리가 위안 속에서 하느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그분의 힘으로 아주 높이 떠오르고 또 엄청난 속도를 낼 수가 있다. 그러나 일단 위안이라는 줄이 끊기면 우리는 동력원을 잃게 된다. 위안이란 우리가 6장에서 살핀 대로 순수한 선물이지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산출하거나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글라이더나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땅으로 곤두박질하지는 않는다. 생성된 위안의 운동량 또는 여운이 한참을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된다. 이나시오는 바로 이때가 위험스러운 때라고 말하고 있다. 영혼은 더 이상 하느님의 품안에 머물지 않

지만 마치 계속 높이 날 것처럼 보인다. 아주 당연하지만 영혼은 이제 자신의 감각으로 되돌아와 자체의 자연적인 추리와 상상력에 의존해야 할 입장이고, 따라서 이제 곧 살펴보게 될 테지만 또다시 경건을 가장한 악령의 속임수에 말려들 여지를 안게 된다. 땅 위를 높이 날고 있는 글라이더가 제트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만큼 위험은 대단한 것이 된다. 그럴 때 영혼은 자신의 영감과 통찰력을 여전히 하느님의 제트기에서 직접 전달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감지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위안은 확실하고 소중한 하느님 체험과 그분의 뜻을 식별하는 귀한 길잡이가 될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의 일상적인 체험은 못 된다. 그리고 대단한 주의와 건전한 지도 없이는 추적도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훌륭한 영적 지도자라면 기도자의 그런 체험 이야기를 무조건 신뢰할 수도 없게 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문제의 위안이 그 본질상 지극히 내밀하고 감지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는 기도자의 영혼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체험의 가시적이고 만져 알 수 있는 결과로만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는 어떤 특수한 체험이 ‘원인 없는 위안’ 이었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내 경우 그런 적이 자주 있었다.) 하지만 그같은 결실들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건전한 판단에 필요한 토대는 아무것도 없는 셈이 된다.

까닭이 있는 위안

까닭이 없는 위안을 자칫하면 잘못 식별하게 하는 여운의 때는 추리와 상상이 아주 활발한 시기에 해당한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 매달리려 하고 그 체험을 연장시키려 한다. 우리는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그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을지 자문하기 시작한다. 이같은 고찰과 의욕은 우리의 열성을 연장시킬 수는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전혀 다른 것임을 주지해야 한다. 거기에는 감지할 수 있는 원인이, 즉 우리 자신의 사색과 상상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우리가 특히 초심자로서 체험하는 대부분의 위안과 비슷해진다. 우리가 이미 보았다시피 하느님과 대면하는 정상적인 길은 우리 자신의 추리와 상상을 통하는 길, 우리네 자연적인 기능들을 활용하는 길이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그것이 하느님께 이르는 정상적인 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하느님과 그분의 뜻을 찾는 길로 마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영신수련」인 것이다. 묵상한다는 것, 또는 (이나시오가 의미하는 바) 관상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하느님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 위안은 하느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저 내 자신의 상상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본다. 이것은 분명 그릇된 이분법이다. 만일 우리가 성이나시오(또는 이 문제에 있어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를 신뢰한다고 할 때 하느님은 통상적으로 그리고 우리네 삶에서 많은 경우에 바로 우리의 상상력과 이해력, 우리의 오감을 통해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물으려면 이렇게 물어야 한다. 어떤 초자연적

인 양식이나 우리네 자연적인 감각들을 통한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느님이나 아니냐 하는 물음이 그것이다. 과연 내 생각과 상상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위안들은 하느님한테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거짓된 영한테서 나오는 것인가? ‘까닭 있는’ 위안들의 경우는 어느 쪽도 될 수 있다. 성이나시오의 말대로 “까닭 있는 위안은 천사도 마귀도 줄 수 있으나 그 목적은 서로 반대된다.”(331항 : 셋째 규범)

하느님이 위안을 통해서 영혼을 사랑과 관용 면에서 성장하도록 이끌어주신다는 것은 아주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악령이 영혼에게 평화와 기쁨과 사랑을 제공하거나 최소한 이러한 선물들을 위조하려고 덤비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의 규범에서 성이나시오는 이렇게 말한다.

악령의 특성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하고서 영혼에 들어갈 때는 열심을 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다. 즉, 마귀는 흔히 착한 영혼의 심리에 맞추어서 처음에는 선하고 거룩한 생각을 선동하고 나서는, 차츰 그 영혼을 은밀한 계교와 흉악한 음모에 빠지게 하여, 결국 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332항).

우리가 고려하고 있는 것은 명백히 악한 것에 대한 유혹에 거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독실한 영혼임을 유의하라. 뿐만 아니라 문제의 영혼은 주님에 대한 투신 면에서 비교적 성숙되고 안정된 상태에 있다. 그 영혼은 이제 악령이 낙담과 두려움, 불안, 그 밖의 다른 고독 유형들을 가지고 그의 투신을 중단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해도 괜찮을, 영신수련 첫주간의 ‘초심자’가 아니다. 이제 이 영혼을 속이려

면 악령은 선의 모습을 가장하고 그에게 다가가야 한다. 악령은 이 영혼이 하느님과 그 성덕을 갈망하는 바로 그 욕구를 이용해서 그를 빗나가도록 획책해야 한다. 그래서 만일 영혼이 기도드리기를 매우 좋아하면 악령은 이것을 부채질해서(그리고 필요하다면 환상들과 계시 또는 여타의 비범한 체험들까지도 제공해서) 그를 자만에 빠지게 하고 사도적 책임들을 소홀히 하도록 만든다. 그리고 만일 영혼이 성령 기도 공동체에서 새 삶을 발견했을 경우 악령은 그를 이 공동체에 폭 빠지도록 부추기되 배타적이 되고 '외부인들'을 위선적으로 혐오 하도록 만든다. 그런가 하면 영혼이 정의와 사랑의 사업에 넓은 아량으로 투신할 경우 악령은 이 투신을 계속 부추겨 '미지근한' 교회 지도자들을 경멸하고 기도를 가당찮은 사치로까지 보도록 만들어버린다.

이상은 인류의 적이 하느님의 밀밭에다 가라지를 심는 방식들을 예시하는—아주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결코 유일한 경우들은 아닌—사례들에 불과하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내내 악령은 착한 영혼들의 성덕 수확을 망치려는 일손을 멈추지 않는다. 내가 발견한 바로는 사실 우리의 가장 훌륭한 동기(動機)들까지도 믿지 않는 건전한 불신이야말로 내적 성숙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표지 가운데 하나이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선을 행하는 잠재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악마는 추수를 망치기 위하여 그만큼 더 열심히 많은 일을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만약 그대가 악마라면 어디에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쏟겠는가? 세상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선을 행할 잠재력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쏟지 않겠는가? 그대라도 열의가 없거나 미온적인 영혼들한테 많은 정력을 쏟지는 않을 것이며, 이미 그

대의 것이 된 영혼들한테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우리네 역대 교황들과 주교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찬기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우리의 원수가 그토록 방심할 수 없는 존재이고 그 어떤 경건한 생각이나 행동도 그에게 침식당하지 않는 것이 없다면—심지어 ‘미리 있을 원인이 없는’ 위안까지도 여운기에는 취약한 것이 된다면—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활동과 악령의 활동을 식별할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이것은 물론 식별 기술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다루기 어려운 단면이다. 성이나시오는 이것을 둘째 주간 다섯째 규범과 여섯째 규범에서 다루고 있다. 다섯째 규범에서 그는 말한다.

우리들의 생각함의 진행에 대하여 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좋아서 온전히 좋은 것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선한 신의 표적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일을 생각하다가 도중에 악한 것, 탈선된 것 또는 전에 행하기로 결심한 것보다 덜 좋은 것으로 기울어지거나, 전에 영혼이 갖고 있던 평화와 안정과 안식을 빼앗음으로써, 영혼을 악하게 하고 요란스럽게 하고 당황하게 할 수도 있다(333 항).

통상적으로 우리는 악마가 항상 고독으로만 자신의 현존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다. 악마는 자신의 존재를 완전하게 은폐할 수 없으며 철저하게 순수한 위안도 창출해내지 못한다. 그가 위안의 기쁨과 평화 면에서 제아무리 하느님을 흉내낸다고 하더라도 볼 눈이 있고, 또 자신의 체험을 끈기 있게 음미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뱀꼬리가

반드시 환하게 드러나게 마련이다. 이나시오의 말대로 “이 모든 것 (요란한 것, 탈선된 것, 위에서 언급된, 보다 덜 좋은 것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분명히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영신적 진보와 구령의 원수인 악마로부터 오는 표시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위안 체험들 속에서 뱀꼬리를 찾아내자면 날카로운 시각, 순수한 식별이 필요하게 된다. 이나시오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위안들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이 셋 모두가 다 좋으면 ‘그것은 선한 신의 표적’이 된다. 하지만 이 셋 중 어디에서든—시작이든 중간이든 끝이든—뱀꼬리가 드러나면 우리는 그 체험 전체를 불신하고 그럴 때 오는 영감들을 길잡이로 삼지 말아야 한다. 이나시오의 기준들은 이처럼 단순하게 기술되고 있다. 하지만 나나 다른 무수한 영적 지도자들 및 기도자들이 깨달은 것처럼 이 규범을 실제에 적용하는 데는 다년간의 성찰과 체험이 요구된다. 그래도 성이나시오가 뜻하는 바를 명확히 하는 데는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시작’ : 우리의 위안 체험이 ‘온전히 좋은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그 ‘시작’을 점검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나의 경우 이 시작을, 기도로 이끌어가는 우리네 영감의 구체적인 전후사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연 나는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자리에 와 있는 것인가? 예를 들어 내가 소속된 수도 공동체가 함께 모여 회합을 갖거나 공동작업을 하고 있을 때 기도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느꼈다고 하자. 아니면 기혼자로서 가족을 뺑개치고 한 주일에 여러 날 밤을 본당 일이나 사목 사업으로 보낸다고 하자. 내가 학생으로서, 아니면 신학생으로서 최근 들어서야 비로소 하느님과 기도를 중시하게 되었는데 다음날 있을 중요한 시험에 대

비하여 공부하고 있을 때나 신학교 시간표가 공부를 명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느꼈다고 하자. 이 모든 경우에는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존재한다. 진실로 투신된 영혼에게 있어 기도는 대단히 선익하며 하느님의 뜻이 핵심적인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하느님이 내 현재 생활에 부여된 순명의 의무와 책임에서 나를 제외시키신다든가 나를 기도하도록 이끌어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담당해야 할 일의 몫을 걸머지도록 만든다는 것은 분명히 이상하다. 이러한 기도 체험은 시작부터 이미 뱀꼬리가 드러나고(아니면 적어도 암시되고)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위안은 무엇이든, 아니면 특정한 형태로 행동하도록 하는 영감이 무엇이든 의심해야 한다. 예수께서 마르타에게 마리아가 더 나은 몫을 택했다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라면 우리는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고 기도로 부르고 계시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수께서는 지극히 절실한 인간의 필요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저히 뭘 수 없는 짐을 지워주는 그런 종교적 엄정성과 열정적인 사실을 아주 혹평하신 적도 없지 않다.

그렇다면 그같은 상황 안에서도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이어서 특정한 행동과정에 스스로를 투신하게 하는 영감이 주님에게서 나올 수도 있는 것일까? 그렇다. 복음 속의 많은 사건들에서 나타나고 있듯이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영감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고 들어와서 주님의 목소리를 흉내내려고 하는 악령에게서 나올 수도 있다. 그렇다면 위안 체험의 시작이—기도로 이끄는 최초의 영감이—의심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판별해야 하는가? 내가 알기로 이럴 때는 주님께 (마땅히 공부하고 있어야 하는데 강렬한 기도 의욕에 사로잡히는 신학생의 경우를 예로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는데가 가장 좋다. “주님, 만일 진정으로 주님이 나를 끌어당기고 계시다면 기도에 합당한 시간에 다시 오십시오. 지금은 공부를 해야 할 때입니다. 필경 이 시간에 내가 공부하는 것이 당신의 뜻일 것입니다. 혹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다르시다면 주님이 그 점을 내게 아주 분명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말씀치고 유별나게 들릴지 모르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이런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 경우가 바로 의심 가는 어떠한 영감도 부드럽지만 확고하게 배경하고 신중 쪽을 택하는 편이 분명히 더 나은 경우이다. 상대가 악령이라면 그는 이내 유혹을 포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진실로 주님의 목소리였다면 그분은 우리의 점잖은 반항에도 불구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실 것이다.

‘중간’ : 이나시오가 우리네 사추과정의 “중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위안 체험 자체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을 의미한다고 본다. 내가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시간에 합당한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보자. 즉 지금은 기도하기 알맞은 시간이며 고결하고 열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위안을 체험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느끼는 신심이 공허하거나 비판적인 생각들로 이어지거나 그런 생각들을 동반하게 될 경우 그것은 위안 체험 ‘중간에’ 뱀꼬리가 발각되는 경우가 된다. 내가 성인품에 오를 것을 대비해서 좌우명을 짓거나, 경건한 자세와 열성이 나만 못한 사람들을 탓하거나 경멸할 때, 아니면 당장 완덕에 도달하겠다는 심산으로 하느님께 ‘열심히’ 매달릴 때 — 이같은 감정이나 생각들이 존재하고 있다면 그 위안은 제아무리 아름답게 (아니 환상적으로) 보일지라도 결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악령의 현존을 드러내는 아주 선명한 또 하나의 표지는 이것이다.

내가 기도하고 있고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면서 웅점실에 손님이 와서 기다린다고 말했다 하자. 아니면 전화벨 소리를 들었다거나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고 하자. 그럴 때 만일 내가 벌떡 화를 내고 심하게 짜증을 부린다면(‘도대체 20분 정도 나를 가만 놓아두지를 못해!’라는 식으로) 이는 위안을 주는 그 기도가, 그 위안 자체가 전적으로 주님한테서 나오는 것이 못된다는 표시이다. 만약 그것이 주님한테서 연유되었다면 나는 지금까지의 내 평온과 감미로움에서 퍼뜩 깨어 해사를 받아들일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같은 ‘가짜’ 위안들이 우리가 나쁘다거나 불성실하다는 표지는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이런 위안들은 내가 애써 기억하려 하는 횃수보다 더 많이 일어났으며, 내가 아는 가장 훌륭한 기도자들의 생활 속에도 통상적으로 있어왔음을 기억할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악마는 선한 이들을 탈선시키고 미혹시키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끊임 없이 책동을 벌인다. 그러므로 그런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에 실소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그런 일로 마음이 어수선해진다면 그것은 자만심에 상처를 받았다는 표시요, 아직 완벽하지 못하고 따라서 악마는 여전히 우리의 약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표시이다. 우리는 속임수를 간파해야 하되 그와 동시에 위안 체험 ‘중간에’ 뱀꼬리가 드러나면 어떤 위안이든 그 자체를 (그리고 거기에서 생성되는 행동이나 판단의 영감을) 불신하도록 해야 한다.

‘끝’ : 이상의 이야기들이 이나시오가 말하는 우리네 사색과정의 ‘끝’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해주었다고 본다. 위안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위안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행하도록, 말하도록, 혹은

생각하도록 감도받은 것은 무엇인가? 이냐시오가 다섯째 규범(333항)에서 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끝’이다. 위안이 “악한 것, 탈선된 것, 덜 좋은 것으로 기울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유도하고 있는가? “위안이 영혼을 약하게 하고 요란스럽게 하고 있는가?” 로널드 녹스가 그의 위대한 저서 「황홀」에서 지적했듯이 교회 안의 열정적인(대단히 신심적인) 운동들은 흔히 “죄 없는 완성” 관념으로, 다시 말해서 성령에 사로잡힌 이들은 무슨 짓을 해도 그때부터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으로 귀결되곤 했다. 그러니까 하느님한테 붙잡힌 이들에게는 엄청난 성적 탈선조차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이다. 이 경우 위안의 ‘끝’은 명백히 사악하며, 그러한 체험은 전체가 ‘우리 인류의 원수’의 표지를 띠고 있다.

하지만 사악성이 선명하지 않은 끝도 많다. 이냐시오가 지적하고 있듯이 끝이 주님을 향한 투신에서 탈선하거나 그보다 덜 좋은 것으로 기우는 정도에 머무는 경우들도 있다. 보다 덜 좋은 것도 여전히 좋은 것인 까닭에 이때의 악마의 책동은 훨씬 미묘하고 식별하기가 한결 어렵다. 기왕에 투신하여 자신의 사목을 훌륭하게 수행하던 중에 예쁜 아가씨를 만나 사랑에 빠진 사제는 그 아가씨를 만나기 전보다 훨씬 제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된만큼 둘 사이의 우정은 선악하다고 확신할 수 있다. 그 여자 덕분에 하느님은 그에게 무척 더 실재적인 존재가 된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가 마침내 사제직을 그만두고 그 아가씨와 결혼하기로 작정할 때도 자신의 소명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하는 까닭에 그를 독실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사목직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에게 사목을 집중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같은

투신이 좋은 것이며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열광적인 운동들에 비해 식별이 한층 난해하다. 우선 ‘끝’이 명백하게 나뉘지도 않다. 이유 또한 혼인성사의 근본 원칙들 가운데 하나로 매우 훌륭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한 분’에 착실히 투신하였고 또 투신 결과 사목을 훌륭하게 수행해오던 ‘이 사제에게’ 과연 좋은 것이 되는가? 이러한 변화는 교회와 이 사람 자신에게 덜 좋은 결과를 낳는만큼 뱀꼬리를 드러내는 표지가 아닐까? 이렇게 자문해보라. 만일 그대가 악마라면 독실하고 훌륭한 한 사제의 투신을 무산시키기 위해서 어떤 수를 쓰겠는가?⁴

물론 악령의 속임수가 하나같이 이토록 극적인 혹은 원대한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 성이나시오의 말대로 악령의 거짓 위안은 “영혼을 약하게 하거나 요란스럽게 하고 당황하게 하는” 데서 그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악령은 피정인의 열의와 신심을 돋우어서 미래에 대해 비현실적인 기대들을 갖게 하고 또 그의 힘에 닿지 않는 어떤 것을 주님께 약속하도록 만들 수 있다. 만일 우리가 열정을 느끼고 있을 때에 냉정한 한낮의 햇빛 아래서는 지킬 수도 없는 약속을 해버렸다면 그 결과로 우리는 낙담하며 능히 할 수 있는 좋은 일마저도 못 하게 된다. 은총의 기적이 없는 한 분명히 불가능한데도 육욕적인 생각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결국 우리는 정결을 지키고 자신의 사랑에 충실하려는 노력 전체를 가망성

4. 그대가 악마라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상상해보는 것은 악마의 가면을 벗기는 데 더없이 효과적이다. 이 기법은 루이스(C.S. Lewis)가 그의 걸작 「스크루테이프 편지」(N.Y. Doubleday Image, 1981)에서 활용하고 있는 바, 이 작품은 지옥에 거처하는 악마 나리가 지상에 나가 악마수업을 하는 그의 영적 제자인 조카한테 보내는 편지집 형식으로 되어 있다.

없는 일로 단정짓게 될 공산이 크다. 이처럼 악령은 사도직에 투신한 독실한 영혼들을 관상생활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부풀려서 결국에는 자신의 현재 위치와 부여된 의무들에 불만을 느낀 채 불안과 초조감에 시달리도록 만들기도 한다.

다행히 선한 신 또한 우리네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위안과 행동을 위한 영감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정말로 그에게서 나오고 있다. 우리는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철저한 선을 통해 감지할 수 있다. 성이나시오가 말하듯이, “우리들의 생각함의 진행에 대하여 극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좋아서 온전히 좋은 것으로 기울어진다면, 그것은 선한 신의 표적이다.” 하지만 그 이전의 이야기들 때문에 얼핏 생각하면 상당히 암담해할 수도 있다. 악령이 하느님의 발에 가라지를 뿌릴 수 있는 아주 복잡다단한 방식들을 감안할 때 마치 평범한 영혼이 지뢰밭을 안전하게 통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아예 희망이 없는 듯이 느껴질 수도 있다. 우리가 소박하게 추측하는 것보다는 일들이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식별은 하나의 기술이다. 처음 볼 때는 복잡해 보이는 것도 경험해감에 따라 한결 쉬워진다. 중요한 것은 성이나시오가 아직 검토되지 않은 어떤 규범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경험을 통해 배우는 일, 그것이다. 악마는 위험천만한 적일 수가 있다. 그러나 종국에는 이 불쌍한 친구 역시 제 뜻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가장 훌륭한 교사들 가운데 하나가 되기도 하고 우리네 성화의 실제적 도구가 되기도 한다.

■ 실습문제 ■

소경과 자캐오가 받은 위안(루가 18,35-19,10)은 원인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이 두 사건 속에서 그대라면 어떤 뱀꼬리의 흔적을 찾아낼 수 있는가? 요한복음 6,1-15(참조 25-27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한가? 그리고 요한복음 6,67-71에 나오는 베드로의 경우는?

8. 가라지의 가치

복음사가들 중에서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기술하고 있는 사람은 마태오뿐이다. 이 비유는 비유들을 통한 가르침의 일부로서, 일곱 개 단원으로 된 그의 복음 넷째 부분인 ‘하늘나라의 신비’¹편에 나온다. 예수께서 산상 설교에서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이어 예수로부터 파견된 전도자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초보적인 가르침을 설파하고 나면 교훈을 담고 있는 우화 속에서 예시되고 있듯이 하늘나라가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로까지 드러나지 않게 임하게 하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의도적 장애물들을² 마련하셨다는 것을 말해준다.

1. 「예루살렘 성서」(Doubleday, 1966), 12쪽 신약편 참조. 오늘날 마태오복음은 일곱 단원(일곱은 유대에서 완성 또는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이다.)으로 구분되는 것이 정설이다. 그러니까 마태오복음은 ‘하늘나라의 도래를 일곱 맥으로 그린 한 편의 극적인 기사’인 것이다. 각 단원은 첫째 것(하늘나라 도래의 서언 또는 도입부 구실을 하는 유아기 설화)과 마지막 것(파스카 신비를 통한 하늘나라의 실현)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야기 부분과 예수께서 이야기된 사건의 의미를 해설하시는 강론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2. Loc. cit.

신비로운 나라

그처럼 이 나라는 신비롭다. 이것은 이 세상 나라들과 같지 않고 인간의 기대들과 상반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또 이 나라의 도래를 감지하는 이들한테서 신비로운 반응을 유도해낸다. 예수는 독자들에게 당신 나라의 신비를 설명해주기 위해서 (마태오가 기술하고 있는) 일곱 개의 비유를 채택하신다. 씨 뿌리는 사람, 밀과 가라지, 겨자씨, 누룩, “밭에 묻혀 있는 보물”, 값진 진주, “바다에 친 그물” 등이 그것이다. 하늘나라 신비의 다양한 면모들을 드러내 보여주는 이 일곱 가지 가운데 아마 밀과 가라지 이야기보다 더 신비로운 것은 없다. 마태오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예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동안 그 원수가 와서 밀 가운데다 가라지를 덧뿌리고 물러갔습니다. 줄기가 돌아 열매가 열린 그때에 가라지도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종들이 와서 집주인에게 ‘주인님, 당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원수놈이 그렇게 했구나.’ 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종들이 그에게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그러모을까요?’ 하고 말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를 (뽑아) 그러모으다가 그것과 함께 밀까지 뽑아버릴까 (염려된다). 추수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두어라. 그러면 추수때에 추수꾼들에게 이르기를, 여러분은 먼저 가라지를 (뽑아) 그러모아서 단으로 묶어 태워버리시오. 그러나 밀은 내 곳간에 모아들이시오, 하겠다.’”(마태 13,24-30)

마태오의 기록에서 예수는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고 계신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와 이 밀과 가라지의 비유가 그것이다. 후자에 관해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이고 밭은 세상입니다. 또 좋은 씨는 나라의 아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그것을 뿌린 원수는 악마입니다. 추수는 세상의 종말이고 추수꾼들은 천사들입니다.”(마태 13,37b-39)

그러니까 일차적 의미로 보면 이 비유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즉 예수 친히 심은 자들과 악마가 심어둔 자들이 함께 사는 공존을 이야기하기 위해 제시되고 있다. 그렇다면 하느님은 무슨 이유로 악인들이 존재하여 우리네 세계인 밭을 망치도록 허용하시는 것인가? 그 어떤 정상적인 인간 기준으로 보아도 하늘나라가 번영하고 풍성한 결실을 맺자면 이 악마의 ‘제5열’은 마땅히 뿌리째 뽑아 제거해야 한다. 하지만 비유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 신비에 부합되지 않는다. 가라지는 그것을 뽑다가 ‘밀까지 뽑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수때까지 밀과 함께 공존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 가라지와 밀은 분명히 이 세상이라는 밭에서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쪽을 뽑으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피해를 입게 되어 있다.

이같은 비유의 일차적 의미가 암시하고 있는 바는 선한 이들과 악한 이들의 삶이 세상을 밭 삼아 뒤엉켜 있다는 것, 양쪽이 모두 동일한 토양에서 생명을 빨아올리며 일종의 공생(상호 의존하는) 관계에 있다고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비록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인데,³ 내가 보기에 우리는 예수의 본래 의중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이 비유를 보다 확대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성바오로가 로마서 7장에서 자신의 내면에 작용하고 있는 두 가지 '법'을 거론하면서 암시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법'을 각 신자의 영혼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여기에도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이 뿌려지게 되는데 전자는 사람의 아들이, 그리고 후자는 악마가 뿌린다. 이 개개인의 밭에서 밀과 가라지는 모두 싹이 트고 자란다. 그런데 신비로운 사실은 '가라지를 뽑다가 밀까지 뽑는' 일이 없도록 하려면 추수때까지 가라지가 자라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밭을 그리스도인의 영혼으로 볼 경우 우리의 본능적이고 본의 아닌 약점들 가운데 최소한 몇 가지는 죽음이라는 추수때까지 우리 안에 존속할 공산이 있음을 알게 된다. 주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안에 존속시키는 까닭은 우리가 항상 겸손하며 철저히 당신한테 예속되어 있음을 깨닫고 아울러 그분의 은총과 능력이 없이는 선행을 하기에도 너무도 무력함을 인식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밭이라는 우리의 덕목들—신뢰, 겸손, 감사하는 마음, 열정—은 가라지라는 본능적인 결점들이 없으면 완전한 성숙에 도달하지 못한다.⁴ 성바오로가 주님께 “육신에 가시가 주어진 것”을 삶에서 제거해주시도록 간청했다가 주님께로부터 “너는 내 은총을 넉넉히 받고 있다. 그 능력은 허약함 가운데서 완성되는 법이다.”라는 답변을 들으면서 터득한 교훈도 바로 이것이었다. 이 말은 주님의 은총이 바오로의 ‘육신에 주어진 가시’를 지금 여기에서 제거해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이 점은 바오로가 끌어내고 있는 결론에서

3. 「장터의 어둠」 5장의 내용 참조.

4. 「샘이 마를 때」 2장 참조.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 있도록 더욱더 기꺼이 내 약점들을 자랑하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이라면 약점도, 오만불손함도, 역경도, 박해도 그리고 곤경도 만족하렵니다.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2고린 12,9c-10).

그러니까 바오로는 가라지들이 자기 안에서 할 몫을 해내고 결정적으로 제거되는 추수때까지 자기 약점들—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되는 ‘변민들(고독들)’—을 안고 살아야 했다.

바오로가 여기에서 터득한 이 교훈을 우리 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을 통해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자신의 결점을 진실로 찬미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본의 아닌 약점을 자신의 약점 못지않게 존중함으로써 하느님의 끈기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약점들이 실제로 겸손과 신뢰 면에서의 우리네 성장을 위해 존재한다고 ‘머리로’ 인식하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내일 잠에서 깨면 그것들이 사라져 있기를 바란다. 적어도 내 자신의 체험으로는 그렇다. 그러기에 나는 성바오로가 약점을 받아들인다는 뜻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 똑같은 ‘느낌’을 가졌다고 해도 결코 놀라지 않을 것이다.

가라지의 교육적 가치

내가 (그리고 자기네 반응도 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이들 모두가) 예수의 밀과 가라지 비유를 자주 되새길 필요가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밀과 가라지가 우리 내면의 하느님 나라 추수밭에 신비롭게 뒤엉켜 있는 사실을 상기하곤 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깊은 탐구를 통해 이 신비의 의미와 목적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우리가 가라지를 성바오로의 신앙-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결점이 주는 교훈을 터득하지 못할 때—이들 가라지는 밀을 질식시키고 추수를 망쳐놓을 수 있다. 가라지가 존속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라지는 어떤 목적을 위해 존속해야 하고 어떤 선익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은 곧 가라지를 식별의 안목, 식별력 있는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할 때 가라지는 우리네 겸손과 신뢰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된다. 그리고 우리를 정화하며 주님의 바다에 진정한 부표가 되게 한다.

우리네 삶 속에서 정화하고 이화수정시키는 역할이 가라지의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이 가라지는 우리의 내적 생활에서 교육적 가치라 부를 수 있는 가치도 갖는다. 성이냐시오가 둘째주간 여섯째 식별 규범(우리가 아직 고찰하지 않은 유일한 규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교육적 가치이다. 이냐시오의 말은 이렇다.

인류의 원수가 나쁜 행각에서 꼬리를 잡히거나, 혹은 그가 지향하는 나쁜 목적으로 인하여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한테 시달린 영혼은 즉시 자기에게 권유된 좋은 생각들의 경로를 생각해보는 것이 꼭 유익할 것이다. 즉, 그러한 생각이 처음에 들어온 동기를 살피고, 그

다음에 마귀가 어떻게 나를 전에 누리던 착한 마음과 기쁜 영신적 분위기에서 차츰 식어지게 해서 마침내는 그놈의 흉측한 유혹에까지 빠지게 하였는지를 추궁하여보는 것이다. 이것은 그러한 체험에서 얻은 지식과 경험에 비추어서, 이 다음에는 마귀의 상투적 음모에 대하여 주의하기 위함이다(334항).

성이나시오가 여기에서 선언한 원칙은 영성 영역 외부에까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한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생각난다. 산타야나(Santayana)라고 믿어지는데, 그는 과거를 무시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누구나 잘못을 저지른다. 하지만 자신의 오류에서 배울 줄 아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의 특성이다. 우리가 오류에서 배울 줄 알면 그 오류는 재앙이 아닌 우리네 성장의 필수 부분이 된다. 나는 서품식을 준비하는 신학생들에게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한다. “여러분은 생활하고 사목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잘못을 저지를 것이다. 하지만 그 잘못이 곧 ‘새로운’ 잘못이 되도록 하라. 같은 잘못을 거듭 되풀이하여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만일 우리가 똑같은 잘못을 계속 되풀이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체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식별 분야에서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신앙의 체험들을 성찰하고 평가하며 그같은 체험의 전 과정을 재검토함으로써 어떤 영이 작용한 것이고 또 그 영이 어떤 전술을 구사했는지 확인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전술들 가운데 많은 것을 성이나시오는 우리가 지금껏 살피온 규범들을 통해서 밝혀주었다. 그러나 악령은 자신의 목표(우리 자신)를 연구하여 허약한 부분들을 찾아내는 교활

한 군사전략가와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전략들 가운데서 어느 것을 우리를 공략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지 간파해낼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 우리의 강점과 약점에 관해 많은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자기 분석을 지나치게 ‘내성적(內省的)’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이런 자기 분석이 자발성을 파괴한다고 느끼면서 끊임없이 어깨 너머를 주시하고 자신을 관찰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살려고—사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려고—한다. 우리가 자연스러움과 사색적 평가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이러한 이의는 일리가 있다.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검열한다는 것은 분명 유익하지 않다. 만일 우리가 발걸음을 떼어놓으면서 한 발짝 한 발짝을 줄곧 분석한다면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질지도 모른다. 나는 영적 지도를 받으려고 찾아와서는 다섯 번, 열 번 수정하고 재구성하는 착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점을 느끼는 때가 없지 않다. 그런 사람은 자아검열벽(어쩌면 결벽증)에 사로잡혀 있고 그 결과 그도, 나도 그가 실제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기가 아주 힘들어진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자기 체험을 한 번도 성찰해보지 않고 그래서 동일한 실망과 좌절을 거듭거듭 맛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한치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쳇바퀴와도 같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게 되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는 지나치게 분석적인가, 아니면 너무 무비판적이고 순박하기만 한가? 이 면에 있어서도 악령은 교활한 전술가가 된다. 만일 내가 조마조마하는 완벽주의자 형이라면 악령은 이런 지나친 분석을 독

려하면서 그것을 덕이라 지칭할 것이다. 반대로 내가 피상적이고 무분별할 경우 악령은 그것을 자연스럽다, 순리적이라고 하면서 내 약점을 키우려 들 것이다. 어느 쪽이든 결국 그는 악을 덕으로 가장함으로써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하도록 훼방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다. 그런 그와 효과적으로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신의 기질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다.

체험과 반성적 평가의 균형을 맞추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실천적 지침은 양쪽에 적합한 제때와 시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영신수련」에서 성이나시오는 피정인에게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얼마간의 시간을 갖고 기도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성찰해 보도록 당부한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일을 기도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이 작업은 기도중이 아닌 기도 후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나는 기도일지의 지대한 가치는 기도 중에 어깨 너머로 뒤돌아보면서 체험을 분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주는 데 있다는 말을 피정인들에게 항상 들려주곤 한다. 일어나고 있는 일을 분석하느라고 계속해서 하느님한테서 눈을 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짓은 어떠한 인간적인 만남에도 피해를 준다. 설령 우리가 ‘잘못된 궤도에 들어서 있다’ 하더라도 단 한 시간의 기도 시간 동안에는 그다지 멀리까지 가지는 못한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를 끝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평가하는 쪽이 훨씬 더 낫다고 믿는다.⁵ 이러한 원칙

5. 9장에서 살피게 되겠지만 특히 우리가 성숙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작용하는 선한 영과 악령의 통상적인 활동들을 보다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게 되면 기도 때 어떤 자발적이고 ‘직감적인’ 식별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이것은 무의식적이고 자발생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네 체험의 자연스런 흐름을 차단하는 일이 없다.

은 피정 때가 아닌 일상적인 기도생활이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양심성찰—하느님께서 어제 내게 어떻게 말씀하셨고 내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했었가를 재검토하는 경건한 성찰—이 모든 순수한 그리스도교 영성에 그토록 귀중한 부분이 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양심성찰은 우리네 생활 속의 온갖 사건들 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영들의 활동양상을 즉석에서 습관적으로 감지하는 감수성을 키워준다.

만남과 여운(餘韻)

7장에서 우리는 성이나시오가 구분한 원인 있는 위안과 사전 원인이 없는 위안 사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미 설명한 대로 문제의 원인은 종교적 위안 체험을 야기시킨 어떤 감지할 수 있는 체험이나 사고(思考)—아름다운 석양이나 성서구절 묵상, 또는 친구나 웃어른으로부터 받은 칭찬 등—가 된다. 그같은 원인이 아무 것도 없는데 위안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성이나시오의 말대로 그 체험이 하느님계로부터 온 것으로 확신해도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위험한 것은 이미 설명한 대로 우리가 참된 위안을 실제로 받고 있는 때와 이제는 영혼이 주님과 직접 접촉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위안 상태에 있는 여운기(餘韻期)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럴 때 “위안이 있는 바로 그 찰나와 뒤따라 오는 시간, 즉 영혼이 아직 열심한 상태에서 지나간 위안의 혜택과 그 자취를 느낄 수 있는 동안을 잘 구별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위안을 받는 이가 흔히 뒤에 따라오는 둘째 시간에 직접으로 우리 주 천

주께로부터 오지 않는 여러 가지 결심과 계획을 하게 되기”(336항 : 여덟째 규범) 때문이다.

이것은 이냐시오의 충고를 따르는 것이 체험 전체를 추후에 재검토하고 그 결과 악령이 어떤 식으로 은밀하게 자기를 주입시켰는가를 간파해내는 데 더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사례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움이 될 만한 내 체험 하나를 예로 든다면 이렇다. 몇 년 전 내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인근 신학교에서 신학생 하나가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에 나를 찾아왔다. 그는 우리가 산 호세(San Jose)에서 ‘영성-사목 형성의 해’ — 신학 2년을 수련한 교구 신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수련기 —라 부르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밟고 아울러 수료 직전에 30일 피정도 했던 사람이었다. 피정이 끝나고 곧바로 그와 다른 사람들은 성소 결정을 위해 교구로 돌아갔다. 그런 그가 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보니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나는 인사를 나누고 무슨 일로 마음 산란해하느냐고 물었다. 그의 대답은 이랬다. “난 내가 실패작처럼 느껴집니다. 불과 석 달 전에 한 30일 피정은 아름다운 체험이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참으로 주님과 만났다고 느끼며 내 성소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동안 내가 그분께 한 약속을 ‘전부’ 깨버린 듯싶습니다.” 그는 낙담한 채 부끄러워했고 피정 전체가 아무 소득이 없다고 느끼는 빛이 역력했다.

동정이 갔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그런데 다행히도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내 입에서 적절한 말이 흘러나올 수 있었다. “피정때 자네가 주님께 그런 약속들을 하던 당시의 상황을 기억할 수 있겠는가? 그런 영감이 자네한테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주님한테서 나온 것인가? 다시 말하면 그대가 약속한 것들이 ‘그분’께서

요구하신 것이었느냐 말일세.” 그런 다음 나는 어째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 설명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신부님의 질문을 받는 순간 나는 그 약속들이 ‘나’ 한테서 나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그분께 어떤 약속을 할지 결정하던 때가 기억 나는데, 그 당시 나는 그분이 내게 ‘너는 정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느냐?’ 고 물으시는 것 같은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미심쩍어하시는 것 같았지요. 하지만 열정에 충만된 나는 할 수 있노라고 그분께 확인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무대에 ‘악령’이 살짝 몸을 들이밀었던 것이다. 이 신학생은 진실로 주님을 대면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는데,⁶ 다만 위안의 여운 속에서 자신의 현재 능력에 부치는 약속들을 하도록—주님에게서 나오지 않은—영감을 받았던 것이다. 내가 그와 함께 그 체험을 검토해나가는 과정에서 둘 모두에게 미래에 필요한 소중한 교훈들을 얻게 되었다. 그는 산꼭대기에서 주님이 지나가신 다음 그 여운에 싸여 있을 때는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아침 안개가 태양을 가린 골짜기에서는 비현실적인, 그런 계획과 설계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나는 나대로 피정때 곤잘 그러듯이 피정인들한테 생활 계획을 짜도록 촉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터득하였다. 그런 계획이 가치 있고 선익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께 제시하고 그분의 확인과 인준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그분이 소망하신다면 우리가 분명히 성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정말로 그것을

6. 이 만남이 원인이 있든 없든 그것은 여기서 지적하는 요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만남은 어느 쪽도 될 수 있다.

바라시는지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노력은 그분의 은총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때 결과는 쉽사리 낙담으로 연결되고 그리하여 주님을 향한 투신 전부를 폐기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바로 악령이 간절히 바라는 바로서, 그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악령은 그레고리안 성가라도 기꺼이 부를 것이다.

강화된 감수성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성찰을 충실히 하면, 그리고 우리네 체험들을 재검토하라는 성이나시오의 충고를 충실하게 따름으로써 '다음에는 마귀의 상투적 음모에 대하여 주의하도록' 하면 우리는 이내 흠 없는 하느님 체험과 위험스러운 그 '여운'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느님과 악령 모두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다양한 양식들에 대한 감수성도 한결 더 높아진다. 이 감수성은 두 가지 의미에서 영적 지도 기술의 핵심이 된다. 훌륭한 영적 지도자는 추수밭인 영혼 안에서 통상적으로 발견되는 다양한 종류의 가라지와 밀을 감지해내는 경험론적 토대를 가진 날카로운 감수성을 지닌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도받는 사람에게 이와 똑같은 감수성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영적 지도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우리가 3장에서 강조했듯이 훌륭한 지도는 의존이 아닌 성숙된 책임감을 키워준다. 탁월한 지도자는 탁월한 교사나 마찬가지로 체험으로 설 수 있는 영혼, 시대의 표징들과 자기 삶 속에 작용하는 서로 다른 영들의 표지를 읽어낼 줄 아는 영혼을 길러낸다.

적극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것은 우리 하느님이 어떤 모습이며 우리네 삶 속에서 어떻게 활동하시는지를 발견해내는 일을 의미한다.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는 계시이시다. 다른 무엇보다도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이 어떤 위격체 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지만 이 계시가 얼마나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며 얼마나 편협하고 질식할 것만 같은 맹목적 정통과 해석이나 율법주의적 해석까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복음서들은 예수의 아버지 하느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이들에게만 생명력을 갖는다. 초심자들의 묵상기도가 개별적 체험과 성서적 계시의 부단한 상호작용과 삼투작용이 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⁷ 이 둘은 서로를 조명해주며 이러한 상호작용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자신의 개별적 체험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느님 신비의 단면들은 그 수가 정말로 무진장하다. 하지만 온갖 훌륭한 기도생활을 특징 짓는 것은 일정한 기초적 발견들인 것 같다. 하느님이 아주 서서히 일하신다는 사실이 그 일례이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무한히 인내로우시며, 따라서 우리도 것처럼 인내를 가지고 그분과 우리 자신을 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밀과 가라지의 비유는 실제로 하느님의 작물재배 방식을 묘사하고 있는 듯싶다. 하느님은 또한 불평불만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훨씬 달갑게 받아들이는 것 같기도 하다. 내 자신의 체험이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적어도 감사와 신뢰는 하느님

7.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6장 참조.

을 ‘등치고’ 그분의 심장에 도달하는 최상의 길이 된다. 내가 추측
 전대 하느님은 이런 방식으로 갈취당하시기를, 당신에게 자연스럽
 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못지않게
 그리고 당신 면전에서 아무런 가면도 쓰지 않고 ‘발가벗을’ 수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못지않게 좋아하신다. 이 모두와 우리가 식
 별력 있는 사랑의 삶 속에서 주님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여타의 모
 든 것이 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다. 그런데도
 심지어 성서를 길다랗게 인용할 줄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매우 다른
 하느님상을 지닌 이들이 아주 많은 것 같다.

가라지의 몇 가지 품종들

이처럼 성서가 아주 다르게 해석되고, 상충되며 정반대되기까지
 한 하느님상들이 생기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는 우리
 가 듣고 싶어하거나 듣기를 기대하는 것만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편견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활짝 열리지 못하여 예
 수께서 보여주시는 당신 아버지에 대한 계시를 전체적으로 직시하
 지 못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내 생각에는 그렇다. 하지만 내 말은 우
 리 마음 안에 밀인 신앙과 함께 수많은 가라지들이 자라고 있다는
 의미이다. 더없이 마음 넓은 기도자들과 사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소심함과 망설임이라는 가라지들이 착한
 목자의 온유함과 끈기를 체험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감과 정력적인 활동이라는 가라지들이 성 금요일
 전례의 ‘거룩하신 하느님! 강하신 하느님! 불멸의 하느님!’ 께 대

한 의탁을 받아들이고 체험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네 개개인의 밀밭에 어떤 가라지가 있든 간에 그것들은 주님이 심어놓으신 밀인 신앙과 선한 일들을 어지간히 질식시키려 든다.

이처럼 수많은 가라지가 추수때까지 존속하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희망은 있다. 충실하게 기도하고 식별력 있는 사랑을 키워가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경험론적 지식은 비단 하느님에 대한 지식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가 3장에서 ‘세상, 육신, 악마’라고 부른 다양한 품종의 가라지들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이런 가라지들 가운데 많은 것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우리네 삶에서 완전히 제거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으로 알고 적어도 그 없이 우리네 사랑에 보탬이 된다면 그것들이 추수를 망칠 위험도는 그만큼 낮아진다. 그리고 실제로 사탄이 (자기 의도와는 정반대로) 옴을 위대한 성덕으로 이끌어올렸고 또 자연계 안에서 수많은 기생식물들과 해충들이 그렇듯이 이 가라지들 역시 밭의 성장과 숙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이들 가라지가 우리네 목적에 기여하게 하고 우리가 그것들의 목적에 기여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면 우리는 이들 가라지에 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과연 우리는 성서에서⁸ 그리고 우리네 체험을 성서의 빛으로 식별함으로써 세가지 품종—세상, 육신, 악마—에 관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는가? 내가 볼 때 무엇보다도 우선 ‘세상’은 우리가 어머니의 젖과 함께 빨아들이고 있는 여러 가치들과 자세들의 복합체—문화—를 의미

8. 「예루살렘 성서」 ‘성서 주제 색인’ 편 498쪽(“세상”), 487쪽(“육체”), 485쪽(“악마”)을 보면 이 성서적 교의가 아주 훌륭하게 요약되어 있다. 참조표시들(예: 요한 1장, 각주 g)은 본문에 대한 훌륭한 각주들(요한 1장 각주 g)에 해당한다. 존 매켄지의 「성서 사전」도 참고하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위환경이 다소 그리스도교적일 수는 있지만 결코 복음적 의미에 부합되도록 전적으로 그리고 진실로 그리스도교적일 수는 없다. 「예루살렘 성서」는 요한복음 1장에 붙인 각주에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우주나 이 지상, 인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증오하며 하느님에게 적대적인 자들’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면서 ‘세상’을 경멸적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대목들 여럿을 열거하고 있다. 성바오로도 때때로 세상을 이런 의미로 쓰고 있으며(예: 갈라 1,4: “이 악한 세상”), 아울러 특별히 사악하지는 않다 해도 구속받을 필요가 있는 물질세계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한다(로마 8,19-22 참조. 「예루살렘 성서」 각주 k 항).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은 우직스럽게 몽상적인 세계관을 가질 수가 없다. 세상은 사악하지는 않지만 무조건 선하지도 않다. —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력(救贖力)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까지는 그러하며 그러기에 현재 세상은 “탄식하고”(로마 8,22) 있는 것이다.

죄 많고 구속받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 세상의 진면목을 1요한 2장 16절은 “육의 욕정과 눈의 욕정, 재산 자랑” 등으로 열거한다. 이러한 가치들은 그렇게까지 유해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온전히 그리스도적인 것도 결코 아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숨쉬고 사는 대기 — 우리네 문화, 우리네 가정 풍토 — 라는 점이다. 낙태가 무엇이 나쁜가? 한 쌍의 남녀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당에 혼인하지 않았다고 함께 사는 것이 왜 안 좋은가? 나라고 다른 사람에 앞서 ‘제일’이 되려고 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인가? 아무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준단 말인가? 이상의 질문들과 그와 유사한 수많은 질문들을 오늘날의 우리 ‘세상’이 우리한테 던지고 있다. 다른 세상에서, 다른 가치관 속에서 성

장해온 사람들이라면 오늘날의 세상이 제기하는 많은 도전들 안에서 명확한 궤변을 꿰뚫어볼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다른 세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한 것인가? 아무튼 우리 ‘구시대인들’은 오늘날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인종차별과 불평등한 사회구조 속에서 편안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 가라지들에 대해 염려되는 점은 우리가 흔히 그것을 가라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

나는 간혹 이 점이 지미 카터 대통령 재임시에 나타난 불가사의한 면과도 중요한 연관이 있지 않나 생각하곤 한다. 오늘날에 와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시피 그는 투신된 그리스도인이었고 고결한 윤리 원칙을 고수하던 사람이지만 힘의 사용 문제를 제대로 이해 못 한 무능한 정치인이었다. 그렇다면 ‘유능한 정치인’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힘의 사용을 제대로 한 본보기를 든다면 무엇이 있을 수 있는가? 사람이 투신되고 타협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서 동시에 정치권력을 성공적으로 휘두르는 정치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인가? 우리로서는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말하고 싶은 입장이다. 하지만 미국에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원리원칙적이고 이상적인 대통령이 여럿 있어 왔지만 결단을 내리고 행동함에 있어 하느님의 뜻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만 핵심적 관심을 둔 그런 대통령은 거의 없었다.

그런데 지미 카터는 그 일을 주창하고 나섰다. 우리로서는 식별력 있는 사랑을 정치적 지도력과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 필경 카터의 개인적인 실패요 한계였다고—정치적 수완과 순수한 종교적 투신을 겸비한 의인이었다면 그 둘을 훌륭하게 배합시켰을 것이라고—말하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과연 그럴까 싶다. 모르긴 해도 에

이브러햄 링컨은 종교적 유대관계가 공식적으로는 없었지만 하느님의 사람이자 동시에 유능한 정치적 지도자로서 그 누구보다도 성공한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 대통령이다. 하지만 과연 링컨이 동시대인들의 눈에도 ‘성공적인’ 인물로 비쳤을까? 그는 대통령에 재선되었지만 그때는 중요한 전쟁 때문에 유능한 지도자들이 거의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다. 링컨 자신도 대통령직에 대해 여러 차례 좌절과 실패감을 깊이 통감했던 것 같다. 영감 있는 정치적 지도력과 고상한 윤리원칙은 그 당시에 결코 쉽사리 융합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그를 ‘성인시하는’ 것도 종교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 살아 있을 때보다 죽어 우리 곁을 멀리 떠나 있을 때 훨씬 쉽게 공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일 뿐이다. 예수도 오늘날의 우리가 훨씬 쉽게 받아들이고 공경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의 세계—예수께서 당신 자신의 문화 속에서 단죄하셨던 현세적 가치들—가 결코 우리네 세계는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예수께서 우리와 직접 충돌하시면서 우리가 오늘날 수용하고 있는 속세의 가치들에 도전하신다면 우리의 반응은 필경 아주 달라질지도 모른다.

이상에서 우리가 고찰해온 요점은 우리네 생활 속에서 하느님의 성령의 역사에 반동적으로 작용하는 이 ‘세상’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리가 호호하는 문화적 공간이요 선한 영이 우리 삶 속에 뛰어들어 의문을 갖도록 강제하기 전에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결코 정말로 신성하지 못한 여러 가치들과 자세들의 복합체이다. 그러한 가치들은 추수때까지 존속할 가라지의 일부이다. 개중에는 우리한테서는 뿔뿔히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그것들은 비록 우리 자신의 식별을 방해하지 못한다 하더라

도 우리가 살고 있는 ‘회개하지 않은’ 주변에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 그 가치들은, 혹은 그 가치들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투신에 부단히 도전하면서 그 투신을 정화시키는 세력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모든 것이 것처럼 간단하지만은 않다. 이 현세란 단순히 우리의 바깥만이 아니다. 선과 악의 투쟁 또한 카우보이와 인디언 전쟁처럼 ‘좋은 편과 나쁜 편’이 흑과 백처럼 대치하는 그런 투쟁도 아니다. 구속받지 못한 “세상”과 비그리스도적인 가치들은 우리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들 ‘내부에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세상의 가라지들 중에는 하느님의 작물을 아주 잘 수용하는 땅에서도 끈질기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 어쩌서 그런 것일까? 내 생각에 성서가 제시한 두 번째 가라지—육신—가 이미 깊숙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우리 안에서 죄의 뿌리를 완전하게 근절시킬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어두운 밤과 온전히 하느님께 바쳐진 영혼들의 가장 깊고 철저한 정화(淨化)뿐이라고 말한다. 감각들이 잠잠해지는 밤 정도는 가라지의 땅 위에 솟아난 부분만 자를 따름이다. 나는 성바오로가 로마서 7장에서 자신과 여타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가지 법, 즉 죄의 법이요 육체의 법이며 “내 지체 안에 있는”(7, 23) 법과 ‘마음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개진하고 있는 것도 똑같은 체험이라고 믿는다.

이 육체의 법이란 곧 성이냐시오의 「영신수련」(원문 1항 참조)이 우리를 해방시키고자 의도하는 ‘모든 사욕편정’을 말한다. 그것은 십자가의 성요한이 「어둔 밤」과 「가르멜의 산길」에서 말하는 ‘육정들’이요,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변형되지 못하도록 투쟁하고 있고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네 삶 속에서 완전히 제거해주실 수 있는 그런

육정이다. 이 성서적 “육신”은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저급한 인자(因子)로서 “마음(pneuma)”과 대별되며 흔히 그것에 상충된다. 육체는 단순히 인간의 신체적 요소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흔히, 그리고 특별하게 죄와 인육이 작용하는 우리 내면의 영역을 지칭하기도 한다.⁹ 이 후자 쪽 의미의 육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에 따라 점차적으로 정화되고 변형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승에서는 우리의 내적 허영과 육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는 못한다. 가장 훌륭하고 더없이 마음 넓은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무질서한 이기심이라는 가라지의 흔적, 밀밭에 나타난 여러 품종의 가라지들의 밀뿌리를 지닌 채 살아야 한다. 예로 들면 기도의 물결이 풍요하게 흘러가는데도 우리 안에 꾸준히 존속되는 본의 아닌 결점들이 있다.¹⁰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기도생활이 불성실하다거나 아무런 결실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표지는 결코 아니다. 이 본능적이고 본의 아닌 약점 부분에 아무런 진전도 없다고 한다면 그 영적 생활이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진전이 있긴 하나 놀랍도록 더딘 경우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겸손을 가르치자면 이들 가라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데서 비롯된다. 이 장 앞쪽에서 이미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만일 이런 결점들을 완전하게 정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은총에 얼마나 철저히 종속되고 있는가를 쉽게 잊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본능적인 가라지들, 우리 내면의 육체는 좋은 밀인 겸손과 신뢰의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다른

9. ‘로마서’에 붙은 「예루살렘 성서」 각주 1g 7d를 보면 바오로가 말하는 “육체”의 의미와 이 단어가 ‘악한’ 뜻으로 사용된 구절들이 잘 요약되어 있다.

10. 이것은 우리가 「새이 마를 때」 제2장에서 다룬 바 있다.

사람들 안의 육체—예를 들어 우리에게 대한 그들의 질시와 불신—또한 우리네 성화에 중요한 몫을 한다. 그같은 장애물 덕분에 우리는 오로지 주님의 선하심만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또 완벽하게 이해할 줄 알게 된다. 그 어떤 인간도 우리를 완전하게 알고 우리 존재의 깊은 심연을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육신의 가라지들이 세상의 가라지들처럼 우리 삶에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가라지의 세 번째 품종인 “악마”는 어떤 것인가? 성서에 나타난 그는 세상과 육체의 분쟁을 야기시키는 근원이자 우리네 추수밭에 이들 가라지를 심고 기르는 데 없이 사악한 배후 존재이다. 바오로는 에페소서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여러분은 악마의 계교에 맞설 수 있도록 하느님의 무기로 무장하십시오. 실상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권세(의 악신)들,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천공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6,11-12).

바오로는 또 2고린 4장 4절에서 악령을,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참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같은 편지 뒤에 가면(12,7) 바오로의 몸을 가시로 찌르는 그 유명한 병을 “사탄의 심부름꾼”과 동일시하고 있다. 신약의 계시에 의하면 세상과 육체의 악들은 분명히 우리네 삶 속에 작용하는 악마의 활동과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악마는 마귀 들린 현상을 유발하여(마태 8,29 이하; 12,43-45) 예수의 메시아적 비밀을 제때가 오기 전에 누설하려 들기도 한다(마르 1,34).

그는 유다를 유혹하여 예수를 배반하게 하고(요한 13,2) 그리스도와 성령을 흉내내어 기적들을 행함으로써 신자들을 현혹시킨다(묵시 13,15).¹¹ 간단히 말해서 악마는 예수께서 요한 8장 4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짓말의 아비”이다. 그는 비단 세상과 육체라는 자연적인 수단으로 일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성요한의 말대로 오로지 오감을 통해야만 가능하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과 정신에 직접 작용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감지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위안은 우리가 7장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 무조건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악령은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기적과 영상, 하느님의 비밀 등 모든 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

악마가 경건한 이들을 ‘경건한’ 수단으로 유혹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곤혹스럽다. 하지만 악마의 유혹마저도 진실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선하게 작용한다. 이 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위대한 욕기이다. 이미 이야기한 대로 욕을 파멸시키려는 사탄의 노력이 결국에 가서는 욕을 성화시키고 만다. 그가 통과하는 어두운 밤이 그의 사랑을 정화하고 그의 신뢰를 심화시킨다. 시련이 끝나고 야훼께서 다시 찾아와 욕의 혹독했던 체험에 당신의 빛을 쏟아 비추실 때 욕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머리로 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지켰었습니다. …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42,3.5)

11. 매켄지의 「성서 사전」, “악마”편과 “사탄”편 및 「예루살렘 성서」의 각주인 마태 8j, 마르 11i, 요한 13e, 1베드 5h, 묵시 13g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사탄의 역할에 대한 신약성서의 이해를 충분히 다루고 있다.

결론

이처럼 우리가 악마라고 부르는 가라지마저도 주님의 밑발에서 어떤 가치를 갖는다. 자신의 본래 의도와는 정반대로 악마는—그의 하수인인 세상과 육체나 마찬가지로—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의 성화를 더욱 빛나게 하는 연장 구실을 할 수도 있다. 하느님의 목적에 맞추어 부르심받고 있는 이들에게는 “만사가 선하게 이루어져 간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주천사들도, 현재 일이나 장래 일도…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로마 8,28.38-39) 물론 이런 선익을 낳는 일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세상과 육체와 악마는 완전히 상반되는 다른 목표를 겨냥하고 있다. 가라지는 밀을 질식시키고 풍성한 수확을 망칠 수가 있다. 하지만 식별력 있는 사랑으로 사는 이들, 이 가라지들의 위험과 진가를 민감하게 감지할 줄 아는 분별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들의 존재와 도전이 보다 풍성한 수확을 보장해주게 된다.

■ 실습문제 ■

우리는 이 장 첫머리에서 악마는 교활한 군사전략가처럼 우리네 방어벽을 자세히 정탐하고 가장 약한 곳을 공략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지금껏 다루어온 여러 가지 가라지들—세상, 육체 그리고 악마—가운데서 그가 오늘날의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보는 가라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가 그대를 개별적으로 공격한다고 하면 무엇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9. 밀이 익어가면 : 식별력 있는 사랑

얼마 전에 나는 어떤 아름다운 부인과 우연히 알게 되어 여러 달 동안 편지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다. 이름이 조안 세리인 그녀는 현재 화이트 섬에서 살고 있다. —영국의 이 매혹적인 전진기지에서는 사는 사람으로 내가 알게 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녀이다. 그녀가 필리핀에 있는 나에게 처음 편지를 보내면서 내게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10월 초순경 나는 로마에서 멋진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내 대녀로서 그곳 본부에 기거하는 엘살바도르인 수녀와 함께 말입니다. 그곳을 떠나던 날 아침에 나는 마지막으로 성베드로 성전을 둘러보고서 끝으로 근처의 안코라 서점에 들렀습니다. 문예물 몇 권을 살 요량이었지요. 로마의 안코라 서점은 실로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서점에 들어선 나는 발길 닿는 대로 ‘영어부’로 갔는데 웬지 나도 모르게 벽을 따라 쪽 늘어선 서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은 채 곧장 중앙 진열대로 가서 큰 책 두 권을 들추고 「샘이 마를 때」 한 권을 집어 들고 바로 계산대로 가서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집에 돌아와서(아침 기도 후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문을 읽고 거기에 기록된 ‘1979년 3월 19일, 산 호

세 축일’이라는 날짜를 대하는 순간 나는 문득 그 서점에서 분명히 어떤 이가 내 팔꿈치를 슬쩍 끌어당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979년 3월 19일은 우연히도 내가 「샘이 마를 때」의 서문을 쓰고 그 밑에 기재해두었던 바로 그날이었다. 성요셉은 내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몫을 차지한 분이다. 나는 그분의 축일에 태어났고 성요셉 수녀회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지난 14년—이 세월은 내가 한 장소에 머무른 가장 긴 세월이었다—동안 마닐라에 있는 산 호세 신학교에서 근무를 해왔다. 뿐만 아니라 나는 그분을 참 아버지이자 벗으로 보아왔다. 그분은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인간상 일체를 구현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현세의 아버지로서의 요셉을 익히 아셨던 예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알리러 오셨던 하느님에 대한 완벽한 칭호로 ‘아버지’를 택하신 까닭을 나는 이해한다.

조안 세리는 1979년 3월 19일이 자신에게 갖는 중대한 의미를 첫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피터와 나는 1951년 3월 19일에 결혼했고 그래서 당연히 성요셉을 우리 혼인과 가정의 수호성인이요 보호자로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1979년 3월 19일 밤에 나한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나는 동봉하는 이 작은 책자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재미있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 ‘동봉한 작은 책자’를 읽어보니 그것은 명쾌하고 훌륭하게 쓰여진 정말 감동적인 작품이었다. 제목은 「그대의 영클 샘을 위한 춤」이었는데, 이것은 미국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자신의 다섯 아들과 네 딸 가운데 막내 둘에게 춤과 곡예를 가르쳤던 피터 세리의 부친(그의 자녀들은 모두가 그를 따라서 ‘연극공연’과 가벼운 희가극〈喜歌劇〉무대를 쫓아다녔다.)을 지칭하는 제목이었다. 피터와 샘에게 친척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재주자랑을 하도록 부추길 때면 그

들의 아버지 댄은 곧잘 “너희 아저씨 잉클 샘을 위해서 춤을 추면 아마 그분은 너희한테 일천 파운드를 내놓으실 게다.”¹라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잉클 샘은 그 일천 파운드를 내놓은 적이 없다.

아무튼 피터 세리는 결국 영국 극단에 몸담고 살면서 젊은 가수 겸 코미디언이었던 조안을 1947년에 만나 1951년 3월 19일에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 그런데 ‘연극’이 텔레비전 여파에 밀려나 쇠퇴하면서 불운을 겪게 된 그들은 1956년에 은퇴하고 화이트 섬으로 가서 여관과 ‘카라반’ 공원을 경영했다. 거기에서 그들은 거의 목가적이라 할 만큼 행복한 생활을 하던 중 1967년에 피터가 대뇌혈전증에 걸려 반폐인이 되어버렸다. 그 후 세월이 힘들어지면서 두 사람 모두를 정화시키는 진정한 장터의 어둠에 휩싸인다. 그리고 그 어둠은 하느님의 은총 덕분에 피터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두 사람 상호간의 사랑을 강화하고 심화시킨다. 1979년, 그들이 카나리아 군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을 당시에 피터는 폐색전증으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그날은 3월 5일로 조안 세리가 내게 편지를 보내게 만든 「샘이 마를 때」가 봉헌되기 직전이었다.

체험, 여진(餘震) 그리고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

시신을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운구하는 데 필요한 제반 절차를 거쳐야 했던 까닭에 피터 세리는 3월 15일에야 비로소 화이트 섬에 안

1. 조안 세리 「그대의 잉클 샘을 위한 춤」, 4쪽. 이 책은 영국 화이트 섬 샌다운 윌키스 로드 4가 콘로이 서점(Conroy Books, 4 Wilkes Road, Sandown, Isle of Wight, PO 36 8EZ, England)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장될 수 있었다. 그리고 3일이 지난 결혼 28주년 기념일인 성요셉 축일 저녁을 조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72쪽). “나는 평소처럼 잠자리에 들었고, 물론 대단한 슬픔을 느끼면서 자주 눈물을 쏟곤 했지만 그래도 잠을 설치는 일은 없었다. …나는 꿈을 많이 꾸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거의 꿈을 꾸지 않는데, 대체로 저녁 늦게 음식을 잔뜩 먹었을 때만 꿈을 꾸곤 했다.” 그런데 이날 밤에 그녀는 아주 특이한 체험을 했다. “나는 이것을 꿈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것 같다. 내가 알기에 이것은 이제껏 꾸어본 꿈들과는 모든 면에서 성격이 전혀 달랐다. 꿈의 세세한 부분들까지 머리 속에 선명하고 예리하게 남아 있으니 말이다.”

이 색다른 체험이 계기가 되어 조안은 1979년 3월 19일 새벽부터 「그대의 영클 샘을 위한 춤」을 쓰기 시작했고 그 인연으로 결국 나한테 편지까지 보내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둘은 더블린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때 나는 그 사건을 이 책에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도 받았다. 이 사건은 우리가 그 동안 다루어온 위안의 식별 가운데 많은 부분을 선명하고 아름답게 조명하고 있으며, 또 그런 종류의 체험들을 총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그리고 식별력 있는 사랑의 습관화된 양상이라는 맥락에서 위상 지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나는 믿는다.

조안은 자신의 그 체험을 이렇게 진술하고 있다(73쪽).

나는 일단의 거대한 나무들 쪽으로 몸을 향하고 있었는데—나무 꼭대기나 잎사귀들을 볼 수 없었던 까닭에 그것들이 어떤 종류의 나무였는지 알 길은 없다.—마치 너도밤나무처럼 매끈하고 굵은 밑둥을 가진 이 나무들 사이로 저 멀리 넓은 초원이 눈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한 무

리의 사람들이 나무들 저편에서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다 함께 움직이면서 내 눈앞을 지나갔다. 얼마쯤 지나자 무리가 적어지면서 작은 군상들로 나누어졌다가 이윽고 두세 사람씩 짝짓더니 마침내는 피터 혼자만 남았다.

나는 억누를 길 없는 엄청난 흥분을 느꼈는데, 지금 내가 음미하고 있는 이 흥분은 당시의 여건 속에서는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를 다시 보게 된 사실부터 내게 더없이 강렬한 기분을 느끼게 만들었다. 하지만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느낀 흥분이 평생토록 겪었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뿐이다.

나는 맹렬히 앞으로 돌진하였는데 그 순간은 마치 전류가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닥친 것만 같다고 하는 수밖에 말로는 도저히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다. 어쨌든 나는 달려가면서 큰소리로 그의 이름을 부르며 “당신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고 물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는 몸을 돌려 나와 직접 얼굴을 마주 대하고 내 두 손을 똑바로 들여다보면서 두 손을 내밀어 내 두 손을 잡는 것이었다.

이때의 피터는 죽기 직전의 그였는지 아니면 더 젊은 시절의 그였는지 모르겠고, 나중에 생각해내려고 무던히 애썼지만 그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조차 기억 나지 않았다. 바꾸어 말해서 그때의 인식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과는 종류가 달랐다. 말하자면 나는 그의 인격을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존재의 작은 부분부분이 아닌 전 존재를 인식하였던 것이다.

내가 그에게 당신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그는 진지한 눈으로 나를 주시하면서 다섯마디로 “나는 ‘빛’ 속에 들어와 있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이것은 피터를 향한 조안 세리의 사랑을 최종적으로 확인해준 체험으로서,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그녀의 인생 방향을 바꾸어놓았다.

그것이 참된 위안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다음 말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다음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내 마음은 그 체험으로 충만되어 있었고 또 그 밤에 느낀 감정—기쁨과 놀라움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으로 아주 깊이 감동되어 있었다. 내게 부여된 축복이 실로 대단한 것이었음을 당장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 잠에서 깨어난 그날, 3월 19일에 피터를 위해 미사를 봉헌할 때도 위안 상태는 계속되었고 영성체 때에도 “우리 모두를 위해 봉헌되는 희생 제사에 더할 수 없이 깊은 참여감을 느꼈다.” 그 체험으로 그녀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은 확실히 심화되었다. 그녀가 특히 깊이 감지했던 것은 죽음의 휘장을 걷어올리고 사랑하는 피터가 ‘빛 가운데’ 있음을 확인시켜주신 주님께 대한 감사였던 것 같다.

그렇다면 조안의 위안은 사전에 감지될 수 있는 원인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그런 원인이 없었던 것인가? 묘하지만 내 자신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가 없다. 그녀의 ‘꿈’이 이 인식의 사전 원인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녀가 제시한 세부사항들, 특히 넷째 단락에서 “인격을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그의 존재의 작은 부분부분이 아닌 전 존재를 인식하였다.”는 지적은 이것이 통상적인 의식이나 꿈 또는 체험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같은 불확실성이 있기는 해도 그 체험이 하느님께로부터 온 순수한 위안이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원인이 있었든 없었던 체험의 즉각적인 결실은 작용하는 주체가 선택한 영이었음을 명시해주는 확고하고 훌륭한 표지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네 삶 속에 나타나는 뜻 깊은 종교적 체험들 여러 가지가 그러하듯이 조안 세리의 이 체험은 비단 즉각적인 효험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효과도 낳은 것이었다. 이 체험 자체는 내가 맨 처음

민었듯이 유일무이한 체험은 분명 아니다. 「그대의 영클 샘을 위한 춤」을 읽고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은 후 비슷한 꿈을 꾸 이야기를 해 온 여인이 최소한 두 사람은 된다. 조안의 경우 특이한 것은 그녀가 이 체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고 느끼고 또 그것을 그토록 감명 깊게 기술할 수 있는 글재주를 가졌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기록하겠다는 영감이 떠오른 것은 ‘꿈’을 꿀 때도, 위안의 시간이 지속되던 다음날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체험의 의미와 주님께서 자신에게 그런 체험을 맛보게 하신 이유들을 놓고 많은 성찰을 한 결과의 소산이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이 사건의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회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내 자신도 그 체험에 깃들어 있을지 모를 의미를 참으로 많이 생각했었다.”(75쪽) 그녀는 이처럼 의미를 음미하는 과정에서 사별하면서 가져야 하는 확고한 희망과 하느님의 사랑을 실감케 해준 이 체험이 결코 자기 혼자만을 위한 것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체험을 글로 기록하여 비슷한 사별을 겪은 이들에게 희망과 힘을 불어넣는 것이 곧 주님의 의향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 자신의 삶 속에서 메아리치고 있는 시편작가의 질문 “야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시편 116.12)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이었다.

내가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바는 조안 세리가 글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은 위안 체험 그 자체에 속하는 한 부분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조안은 ‘꿈’ 속에서 주님이(또는 피터가) “그대는 이 일을 글로 남겨서 사별을 겪은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하라.”고 말했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느낄 수도 있었지만 그런 느낌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책을 쓰겠다고 하는 영감은 그녀의 정

신력과 오감이 일어난 일에 담긴 의미를 추적하느라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던 체험의 ‘여진기(餘震期)’에 떠올랐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7장에서 고찰한 대로 책을 쓰라는 부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그리고 위안 체험 자체가 순수하고 선한 영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추론마저도 불가능하다. 그런만큼 나중의 영감은 우리가 이미 기술한 대로 체험의 “시작과 중간과 끝”이 모두 좋은지 살피고 또 조안 세리가 했던 것처럼 자신의 체험을 글로 남겨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기도중에 주님께 되돌림으로써 반드시 검토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위안과 평화에 대한 검토를 할 때—그리고 자신의 구상을 훌륭한 지도자에게 털어놓고 그의 판단을 들을 때—책을 쓰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필요한 확인을 받게 된다.

하지만 조안 세리의 이야기 속에는 그보다 더 충격적인 면이 있다. 우리는 이 부분의 제목을 ‘체험, 여진(餘震) 그리고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라고 붙인 바 있다. 그리고 조안의 사례에서 우리는 체험과 여진 부분을 검토하였다. 그렇다면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 부분은 어떠한가? 우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3장에서 벡타이 고르기를 실례로 삼아 사랑 관계가 심화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육감으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검토하였다. 조와 레티와 에드 그리고 마리아는 젊고 경험이 적어서 이같은 주님에 대한 성서적 ‘지식’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런 지식을 지닌 ‘공동 식별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미 말했 다시피 훌륭한 영적 지도는 피지도자에게 이러한 감수성을—비단 식별해야 할 목적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만이 아닌 미구의 식별 상황들 속에서 하느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감지하

는 ‘느낌’을 — 키워주게 된다. 이 느낌, 이 ‘본능적인’ 감수성은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조안 세리는 1951년 결혼한 직후에 가톨릭 교회로 들어왔고 스스로 추적하여 이같은 체질을(무의식적으로) 강화시켜나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주님에 대한 그녀의 본능적인 감수성 발달은 남편인 피터에 대한 감수성 발달과 병행해서 이루어지며 그 발달에 아주 깊이 의존되고 있었다. 조안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녀는 좋은일 궂은일을 겪으면서 점차 피터와 한마음 한뜻이 되어갔다. 그녀는 피터가 병 때문에 ‘참된 자기’를 상실하곤 했던 만년의 어려운 시기에도 그의 감정과 진정한 원의들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 일이 항상 수월하거나 항상 ‘직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확실했다. 피터한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실제로 무엇인지 알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때가 종종 있었고, 그런 때면 갖가지로 불투명한 그런 종류의 ‘공식적인 식별’이 필요하기도 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오랜 세월 동안 사랑하며 살아온 까닭에 체질적이고 직관적이며 ‘본능적인’ 식별이 가능했다.

조안 세리의 이야기에서 아름다운 점은 그것이 이 체질화된 감수성, 주님을 향한 이 식별력 있는 사랑에 꾸준한 성장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가 자신의 과거 전체를 조명해주는 꿈—체험을 검토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는 마지막 몇 페이지를 보면 그녀가 주님을 아는 일에 상당한 진척을 이루고 있음을 분명히 알게 된다. 물론 이 여행은 끝이 없으며 영원한 세상에 가더라도 주님을 아는 일에 있어선 언제나 갓 ‘시작하는’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클래스고에서 어떤 사제한테 처음으로 교리교육을 받았던 1950년 극단 시절 이후로 먼길을 걸어왔

다. 그리하여 1981년의 조안 세리에게 있어서는 피터와의 사랑마저도 그녀가 자기 하느님과 함께 나누는 식별력 있는 사랑의 삶을 위한 수단—그녀한테는 가장 소중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아주 명백해 보였다.

더블린에서의 만남은 조안이 세상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그리고 하느님에 대해 평온한 상태에 있다는 내 인상을 재확인시켜주었다. 우리는 그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만 클뤼니 수녀회가 장만해준 훌륭한 저녁식사 덕분에 금방 오랜 친구처럼 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녀의 책에 관해 그리고 피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께서 장래 그녀를 위해 무엇을 예비해두셨는지에 대해 논의했으며, 늦은 저녁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그녀를 공항으로 태워다줄 때에는 수녀들과 나를 위해 노래를 부르도록 조르기까지 하였다. 그때 조안이 불렀던 노래 “한 폭의 그림이 수천 마디 말을 담을 수 있다면 내가 그대를 그리지 못할 이유는 없잖아요?”는 피터의 최후 순간들에 대한 그녀의 이야기에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것이었다.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녀가 과거를 행복하게 간직하고 사는 여인임을 금방 알 수가 있었다. 그녀의 삶은 하나의 단일체였다. 그녀에게 슬픔과 기쁨, 좋은 것과 꺾은 것이 모두 제자리를 잡고 있었다. 이같은 완전한 평화감은 우리가 말하는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에 중요한 또 하나의 단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적 의미에서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비단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무엇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감지하는 직관적인 감수성을 발달시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거기에 덧붙여 보편적인 편안함, 인생의 전체 흐름에 대한 평화로움도 존재하게 된다. 명암은 그림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우리 인생은 ‘긴장과 한가함’이

무관하게 뒤섞인 것이 아니고 동일체인 것이다.

나는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와 만나 함께 방문을 다니면서 그녀에게도 똑같이 소박하고 기쁨과 평화로 충만된 침착성이 깃들어 있음을 보고 기쁨과 놀라움을 동시에 맛보았던 기억이 있다. —내가 놀란 이유는 살아 있는 사람을 성인시(聖人視)하는 것을 나는 항상 극도로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행이면서도 대단히 불가사의한 것은 마더 테레사가 신문에서 자신에 대해 뭐라고 떠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사실이다.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다만 이미 자신의 ‘중심축’을 발견했고 그리하여 변덕스러운 세상의 아침이 실제로 얼마나 별 볼일 없는 것인가를 깨닫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는 융합을 뜻하며 융합은 또한 단순화를 뜻한다. 성이나시오의 말대로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구원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은 이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일 따름이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의 말마따나 “모든 것은 사라진다.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은 하느님뿐”이다.

평화와 감정

우리는 지금까지 식별 생활의 가장 큰 결실인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가 갖는 두 가지 단면, 즉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무엇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지 감지하는 ‘본능적인’ 감수성과 우리네 삶을 ‘단 하나 필요한 것’에다 초점을 맞추는 단일화, 단순화 내지는 구심화를 고찰하였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조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그

렇다고 해서 문제점이나 의혹, 어둠의 순간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또 은총으로 확인받지 못하는 한 악령은 언제고 탐색하고 시험하고 우리네 삶의 구심축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려 든다. 성녀 테레사와 성이냐시오가 자신의 구심축을 주님께 대한 신뢰라고 확인하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만사가 선하게 이루어져 간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느님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로마 8,28.39)라는 성바오로의 말을 반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바오로의 이 승리감 어린 확언도 로마서 7장에서 자기 내부에서 싸우고 있는 두 가지 ‘법들’에 관한 고뇌 서린 고찰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는 선익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진실로 갈구하지만 또 다른 ‘법’이 여전히 자기 육체 속에서 작용하고 있어 때때로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일을 행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에서 바오로가 ‘위험 속이지만 침착한 체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그는 모든 문제점과 의혹과 유혹이 삶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는 결코 평화 가운데 있지 못하다. 그렇지만 그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두 법들 간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한 그런 의미에서 그가 진실로 집중되고 통합되어 있다고 믿는다. 물론 그는 장차 언젠가 자기 안에 한 가지 법만 남게 될 때처럼 집중되고 통합되어 있지는 못하다. 그러나 지금도 이 ‘죽을 몸’ 안에서 바오로의 의지는 한 가지뿐이다. 그의 본능적인 자아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지가 갈망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니, 오직 하느님의 사랑만이 그가 진실로 바

라는 바이다. 그 외에도 합일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의 본능적인 자아를 치유하고 지체들 속에서 작용하는 다른 법을 없앨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은총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보기에 로마서 8장 전체의 핵심은(그리고 2고린 12,7-10의 “내 육신에 가시가 주어졌습니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승리는 주님의 것이요, 바오로의 확신은 자기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이 아닌 자신이 시작한 선한 일을 주님께서 분명히 완성시켜주실 것이라는 집중화된 희망에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는 가운데 바오로는 신비롭고 역설적인 평화를, 그가 ‘현재의 것과 미래의 것’ 속에서 살고 있다는 표지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내적(및 외적) 투쟁 가운데서 생겨나는 이 평화는 우리들 대부분이 파악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내 육욕이나 허영 또는 질시가 내 안에서 움직이며 나를 반대편으로 잡아끌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거짓 없이 집중하고 성숙되며 단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인가? 바로 이 또 다른 ‘법’이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일에 성실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하고 싶은 유혹은 내가 바오로의 말따나 “내가 하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은 행하는”(로마 7,15) 때에 특히 강렬하게 다가든다. 이처럼 모순된 형태는 하느님과 선을 지향하는 내 의욕이 진실로 진지하지 못하다는 것—그리고 정녕 내가 인생의 목표인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에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우리 자신의 체험으로는 바오로가 로마서 8장에서 그토록 진지하게 신념에 찬 확언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바오로의 요지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구체적인

사례 하나가 있다. 이 사례는 직접 체험한 사람이 고맙게도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내게 활용하도록 해준 것이다. 몇 해 전에 내게 영적 지도를 부탁해온 친구 하나가 있었다. 그녀는 독신 생활을 했고 또 그 생활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러나 “육신에 주어진 가시” 때문에 그녀는 괴로워하였다. 경건한 기도생활과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헌신적 투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기 생활 속에서 간헐적으로 엄습하는 불결한 생각들과 어찌면 혼자서 자행하는 행위들까지를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²

이같은 낙약함이 그녀의 삶 전체에 그리고 주님에 대한 그녀의 사랑 자체에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듯싶어서 매우 심한 좌절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찾아가 그녀의 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이며 ‘잘못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하느님 덕택인지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그런 말들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자기 전 부를, 자기 전 존재를 그분께 바치도록 요구한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자신이 바치고자 갈망하는 것을 바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욕욕을 다스리는 일조차도 못하고 있는 듯싶었다. 자신이 다스리지조차 못하는 것을 어떻게 주님께 바칠 수 있다는 말인가?

이 친구의 처지는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두 가지 법들’에 대한 고전적인 사례처럼 보였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이었을까? 그녀는

2. 「어둔 밤」(제1권, 14장)에서 십자가의 성요한은 감각의 밤을 이미 통과한 영혼들이 “간음의 영”인 “사탄의 사자”에게 희롱당하는 일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2고린 12,7에 기술된 바오로의 체험 참조).

바로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전체가—그리고 그녀의 사랑이—거짓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녀의 체험을 함께 나누면서 나는 다음과 같은 유추를 시도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하고 물었고 그녀는 선량한 필리핀 사람답게 “닭튀김이에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내가 “만약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닭튀김에 대한 입맛이 싹 가셔 있다면—닭튀김이 이제 아무런 흥미도 없게 된다면—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녀는 닭튀김 맛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왜 그토록 좋아하던 음식이 갑자기 싫어지게 됐는지 그 까닭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깨어났을 때 이제까지의 불결한 유혹들이 자취를 감추고 육육의 건인력이 당신한테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내가 물었다. 그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꾸했다. “대단히 기쁠 거예요. 내 생애에서 가장 행복된 날이 될 거예요. 내가 수년 동안 기도로 간청해온 것이 바로 그것이니깐요.” 나는 그녀가 성실하고 마음 탁 트인 사람임을 아는 까닭에 주님을 향한 그녀의 사랑이 순수하다는 사실은 그 대답으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았다. 그녀의 본능 속에서 두 번째 법이 제아무리 세력을 떨친다고 하더라도 그녀의 마음속, 그녀의 의지 속에는 성령의 법이 진실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를 잡아 끄는 육육의 힘은 자의적이며 닭튀김을 좋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를 여기에 기술하게 된 이유는 식별력 있는 사랑의 완전한 체질화는 우리 생활 속에서의 총체적인 평화, 주님을 주축으로 삼는 우리 생활의 구심화, 우리네 욕망들의 단순화를 한 단면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지적했듯이 우리 영혼의 핵심으로 응결되는 이 구심화는 감각적 본능의 표면적인 산만이

나 혼란과 공존하는 수도 있다. 로마서 7장의 바오로는 육체의 법이 반대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에도 불구하고 진실로 주님을 주축으로 구심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위에서 이야기한 내 친구의 생활의 전체적 양상을 어느 정도 아는 까닭에 나는 그녀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가 있다. 그녀의 정원에는 육욕적인 가라지들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어 그녀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밀은 성장하고 있고, 또 우리가 8장에서 말한 대로 이런 가라지들을 주님께서 뽑아내야 한다고 판단하실 때까지 그대로 두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영혼 내부에 식별력 있는 성숙된 사랑의 특징인 내면적이고 항구하며 체질화된 평화가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우리네 삶의 표면에 나타나는 감각들의 동요와 공존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바로 이 내적 평화는 마른 샘 속에서나 어두운 밤에 거기 계시는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표지로서, 우리가 일단 감지할 수 있는 느낌의 표피를 뚫고 그 이면을 들여다볼 줄 알 때 나타난다. 우리가 맨 처음 어둔 밤인 하느님의 정화하시는 사랑에 발을 들여놓을 때는 느낌만 있을 뿐 어떤 평화도 감지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감각 속에서 일어나는 것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직 분별할 줄 모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바오로가 로마서 7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체험들이 마른 샘의 내적 어둠과 합쳐질 때 우리는 우리 존재의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차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험론적 인식으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첫 선물인 ‘평화’ (루가 24,36 ; 요한 20,21 참조)를, 고난이 자취를 감춘 데서 오는 평화가 아닌, 혼란 속에서조차도 주님께서도 진실로 부활하셨다는 것과 “만사가 선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더

육더 굳게 믿는 데서 오는 그 평화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통합과 장터

이로써 우리는 위안도 ‘수준들’, 즉 감각의 수준과 보다 심원한 영혼의 수준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전자는 우리 모두가 초심자 단계에서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서 덧없고 신뢰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는 ‘미리 있을 원인’이 항상 수반되며 따라서 그것이 진실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지 여부가 신중하게 식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설령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무를 것으로 여길 만한 것은 못 된다. 그에 반해서 보다 깊은 영혼의 위안은 ‘미리 있을 원인이 없는 위안’으로 하느님이 당신 사랑에 성숙된 이들에게 내리시는 가장 훌륭하고 가장 확실한 선물이다. 이 위안이 때때로 의식 위로 떠오르기도 한다. — 우리 존재의 이 표피 수준에서 갈등과 혼란이 일고 있을 때 특히 그러하다. 예를 들면 우리 안에서 ‘육체의 법’이 하느님에 대한 우리네 사랑의 실재와 우리에게 대한 하느님의 사랑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때가 바로 그렇다. 하지만 대부분 이 위안은 잠재의식 속에, 의식의 지평선 너머에 존재하면서 우리 생활의 온갖 구체적인 행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동시에 그 행동들로 체현된다. 나는 이냐시오가 말하는 ‘행동하는 관상가’의 깊은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는 모든 것 속에서 하느님을 보는 사람이라고 해도 맞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보는 사람인 것이다.³

식별이 기도와 행동이 만나는 교차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첫머

리에서부터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식별력 있는 사랑의 완전한 체질화를 이야기할 때에도 그대로, 아니 특별히 더 적용된다. 이같은 사실은 한나 허나드(Hannah Hurnard)의 삶 속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 아름답게 예증되고 있다. 그녀는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우화체로 그리고 있는 작품 「높은 데서 사슴처럼」과 「항나무 우거진 이 산으로」로 유명하다. ‘두려움’이 ‘은총과 영광’으로 변모되어가는 이들 이야기를 읽고 마음에 들어했던 사람은 ‘두려움’이 바로 한나 허나드 자신임을(혹은 이었음을) 깨닫고도 결코 놀라지 않는다. 그녀는 또 다른 저서 「땅을 걷는 여행자」에서⁴ 그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작품은 한나가 1930년대에 팔레스티나에서 선교생활을 하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녀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리스도교 선교단의 일원으로 팔레스티나에 갔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눈에 성지에서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사람들로 비친 외딴 마을 사람들과 팔레스티나에 거주하는 아랍인들을 위하는 것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임을 확신하게 된다. 이 책에서 그녀는 웃어른들을 설득하여 아랍인들 속에 뛰어들어 일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겪은 고초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마침내 웃어른들의 허락이 떨어졌을 때, 그녀와 원의가 같고 그래서 이

3. 성이냐시오는 “In omnibus quaerant Deum”, 즉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찾도록 할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추구, 우리의 적극적인 하느님 탐구를 표현하고 있는 좌우명이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는 하느님의 가장 위대한 관상적 선물들 중 하나가 하느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죄 지은 모습까지 포함한 모든 것들을 직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영혼의 성」, 여섯째 궁방, 10장). 이것은 순수한 선물인 까닭에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더없이 신비로운 것이다. 하지만 이미 하느님의 바다에서 떠다니는 자가 된 수영자에 대한 이냐시오의 이상(理想)이 여기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4. Tyndale House, 1975, 176쪽 이하(originally published by Olive Press, 1951).

새로운 사업에 짝이 될 사람은 그녀와 전혀 성격이 다른 여자였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라고는 가난한 아랍인들을 위한 신성한 사명의 식말고는 전혀 없어보였다. 인간적으로 말해서 도무지 가망성 없는 짝이었다. 한나 허나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의견이나 성격의 차이는 실로 엄청났다. 게다가 우리 둘은 서로가 주도권을 갖고 싶어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일하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 친구들이 의심스런 눈초리로 바라본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었다.

그렇지만 둘은 이 사명을 함께 수행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느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한 주간마다 하루 오전을 온통 할애해서 기도를 바치면서 주님의 인도와 힘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방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찾아가기로 마음먹은 자리마다 문이 활짝 열려 승리를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 우리는 토요일 오전을 특별한 기도회 준비 시간으로 잡았다. ...침묵 속에 주님을 기다리는 데서 일을 시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다는 사실은 우리 둘 다 금방 깨닫게 되었다. 우리 둘은 침묵 속에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치고 그분의 현존 안에 온전히 침몰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끔히 정화되고 우리가 진정으로 한마음이 되어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 침묵 속에서의 주님과 친교는 통상적으로 한 시간 반 동안 이루어졌다. 주님의 현존에 너무 깊숙이 몰입된 나머지 말 한마디도 없이 완전한 침묵으로 시간을 다 보낸 경우들도

있었다. 이런 침묵의 시간에 마음을 비우고 좋은 생각들이 ‘불현듯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보다도 이런 종류의 친교는 마음과 의지의 부분부분 전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주님께 넘겨드려 그분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도록 청하게 마련이다. 이 일에는 수동적인 자세란 있을 수 없고 가장 역동적인 협력이 가능하며, 처음에는 더없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끼고 절대적인 친교와 기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성령은 변함 없이 오셔서 활력과 힘을 주시는 까닭에 이 아침기도가 끝날 때쯤이면 우리는 주님께 귀 기울일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놀라우리만큼 참신한 기운을 얻곤 했다.⁵

만일 한나 허나드와 그녀의 동료가 내적 생활에 초심자였다면 우리는 그들 체험의 여러 가지 부면들에서 이것이 미리 있을 감지 가능한 원인이 있는 위안이자 더욱이 전적으로 조작된 위안이 아닌가 의구심을 품을 수도 있다. 정기적으로 갖는 토요일 오전 기도 일정, 주님께 드리는, 문이 활짝 열리고 승리하게(이는 복음적 전승 안에서 고전적인 표현이다.) 해달라는 ‘요청’, 위안을 수반하는 규칙성, ‘가능한 가장 역동적인 협력’에 대한 강조 등이 그 원인이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기술되고 있는 활동은 자기의 전 존재를 주님께 온전히 넘겨드림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무엇이든 행하는 시중인 것이다. 심지어 ‘마음을 비우는’ 행위마저도 부적격한 것으로 배격될 정도여서 한나 허나드는 그런 때의 영혼이 결코 ‘수동적’인 상태에 있지 않다고 설명할 필요를 느끼게 된다. 그가 진술하고 있는 행동은 그녀의 체험을 함께 나누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실로 매우 불가사의한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기도 중에 마른 샘의 체험 전체가 ‘떠

5. 「땅을 걷는 여행자」, 84-86쪽.

다님'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던 말을 강력하게 연상시키기도 한다.⁶ 떠다니는 자는 결코 수동적 상태에 있지 않다. 수동적인 자는 떠다니지 못하고 가라앉고 만다. 그와 동시에 떠다니는 자의 행위는 수영하는 자와 전혀 다르다. 수영하는 자는 제 나름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하는 데 비해서 떠다니는 자는 바람과 물결에 몸을 맡기고 따른다. 떠다니는 자는 역동적으로 수용하는 상태를 유지한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가 떠다니는 바다이다. 또 다른 은유로 표현한다면 하느님은 주연 무용수요, 영혼은 그분의 동작과 가락에 그대로 따르는 조연 무용수다. 그는 선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감자 자루처럼 매달려 흔들거리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나 허나드의 체험 기록을 이러한 시각으로 다시 읽게 되면 그 의미가 선명해진다. “이런 종류의 친교는 마음과 의지의 부분부분 전체를 적극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주님께 넘겨드려 그분이 이용하실 수 있게 하도록 요구한다. 이 일에는 수동적인 자세란 있을 수 없고 가장 역동적인 협력이 가능해진다.” 떠다니는 자 또는 하느님의 춤상대자가 그렇듯이 영혼은 적극성을 띠지만 결코 농간을 부리지 않는다. 하지만 “성령은 변함 없이 오셔서 활력과 힘을 주신다.”는데 미심쩍은 면이 있지 않은가? 한나 허나드가 뜻하고 있는 바나, 그녀의 내적 성숙도로 보아서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하느님의 현존과 부재가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번갈아 나타나는 것을 우리 자신의 상상이 아닌 하느님의 실제적인 역사(役事)의 최고 표지로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상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이 변화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놓아드릴’⁷ 줄 알도

6. 「샘이 마를 때」 6장과 아울러 「장터의 어둠」 맺음말로 참조하라.

7. 「샘이 마를 때」 3장 참조.

록 가르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가 일단 이 교훈을 터득하고 나면 모든 것을 그분께 넘겨드리는 일이 갈수록 더 ‘자연스러워진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이 쉽사리 그리고 자주 임하시지 못하도록 막는 동기도 모두—우리 내부의 온갖 장애물 모두—없어지게 된다.

우리는 현세에서 이처럼 완전한 해방을 결코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한나 허나드도 “처음에는 더없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며 절대적인 친교와 기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될지 모른다.”는 말로 그 점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우리가 살아 있는 한 우리 안에 서 두 ‘범’이 투쟁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영혼 자체가 점점 더 성령의 법 쪽으로 기울어감에 따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우리를 몰아가는 거의 완벽한 자유를 얻게 된다. 한나 허나드의 경우에서처럼 우리의 기도와 주님 추구가 사도적인 성격을 띠 때 특히 그렇다. 그녀와 동료는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둘이 서로를 사랑하고 그로써 주님의 능률적인 도구가 되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태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비우고’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는 까닭에 자기 형제들에게 같은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아 다니고 계신다. 그분은 그런 사람들에게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를 이루어주신다. 그들은 자신의 뜻을 버리고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만을 바라면 바랄수록 그만큼 더 잘 ‘하느님의 표정을 읽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의 구체적인 사도적 요구에 그분이 어떻게 응답하기 바라시는지 제대로 알게 된다. 그러다 보면 필연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골산에 이르게 된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할 경우 우리는

기쁨 또한 맛보게 된다.

■ 실습문제 ■

영신수련의 절정은 성이나시오가 ‘셋째 단계의 겸손(혹은 세 번째 종류의 겸손)’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는 이 셋째 단계에 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내가, 하느님께 대한 존경과 영광을 위하여 양편이 다 같은 경우에 우리 주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또 현실적으로 더욱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부귀보다도 가난한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함을 원하고 선택하며 명예보다도 극도로 업신여김을 받으신 그리스도와 함께 업신여김을 원하며 또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현명한 자로 보이기보다는 앞장서서 천대를 가득히 받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차라리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같이 취급되기를 원하고 또 선택한다면, 그것이 제일 완전한 겸손이다.”(167 항) 피정인들은 흔히 이 점을 놀랍고 두렵게 본다. 가난과 모욕과 경멸을 자청하는 것이 거의 비인간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별력 있는 사랑의 체질화를 고찰함으로써 과연 우리는 이 ‘셋째 단계’의 겸손을 새롭고 혼연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는가?

맺음말

식별하는 공동체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에서 나는 그 책을 짐 매캔(Jim McCann, S.J.) 신부에게 바치면서 그분이 영적 지도자로서 내 자신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분은 다년간 예수회 필리핀 관구 수련장으로 재직해왔으며, 1970년 내가 과학철학 공부를 끝내고 돌아오자 나더러 산 호세 신학교로 와서 교구 신학생들의 영적 지도를 보좌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섭리에 의한 일이었겠지만 나는 한 해 동안만 그분과 함께 살았을 뿐 그분은 인근 예수회 신학생관으로 옮겼다. 하지만 그분은 너그러운 길잡이요 어느 때든 기댈 수 있는 훌륭한 지주로서, 영적 지도 기술을 터득하는 동안 내 문제와 의문점들을 해결해주었다. 나는 그분에게서 무엇보다도 신뢰감의 중요성을 배웠다. 피지도자는 자신의 내적 생활을 함께 나누면서 지도자를 자기 자신의 가장 사적이고 인격적인 내면 속으로 끌어들인다. 이것은 성스러운 신뢰로서, 대단한 존경심과 사리분별을 가지고 대처해야 하지만 ‘고해의 비밀’ 차원에서 접근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짐의 입장은 명백하고 단호했는데, 여러 해에 걸친 내 체험도 전체적으로 그의 충고에 담긴 지혜를 확인시켜주었다.

그러나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문제들도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식별 면에서 짐이 가르치고 있던 수업은 공동 식별에 초점을 두었는데, 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과연 그것이 정확한 초점 이요 강조되어야 할 것인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이다. 공동 식별 또는 공동체적 식별은 특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매력 있는 관심사였다. 종교 구조들의 민주화와 공의회의 영감에 따른 수도 단체들의 카리스마와 사명에 대한 재평가는 공동 결정의 기술을 크게 강조하는 결과를 낳았다. 신앙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곧 문제의 공동체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식별하되 모든 구성원들이 두루 망라되는 대중참여적 방식으로 식별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것은 비단 수도회를 못지않게 은사 공동체들과 본당 사목평의회들도 추구하는 것이었기에, 짐 매켄의 공동 식별 강좌는 잘 먹혀들었고 인기가 높았다.

나는 교회 내의 이러한 움직임이 본질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은 아니다. 사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에 대한 강조가 우리 시대의 가장 건전한 표징의 하나라고 느꼈고 지금도 느끼고 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방향으로 보다 매진해야 한다는 점뿐이다. 우리 신앙이 갖는 전승적이고 교회법적인 근간들 가운데 하나가 'pius sensus fidelium', 즉 '독실한 신도들의 가톨릭적 직감(또는 보편적 감각)' 이지만 이제까지 교회 내부의 합법적 권위에 대한 반개혁주의적(反改革主義的) 흐름이 시대의 구체적인 요구들에 따른 교의 발전과 관련해서 '신도들의 이 경건한 감각'을 실제로 그다지 폭넓게 허용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려는 노력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그 노력은

교회 내부의 권위와 식별 간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따르는 불가피한 (그리고 항구적인)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결실을 맺게 되었다.¹

그렇다면 매켄 신부의 공동 식별 강좌에 관해 내가 의구심을 갖게 된 부분은 어떤 것이었던가? 내가 느꼈던 점은 식별의 진정한 문제는 공동적 차원이 아닌 ‘개인적’ 차원에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식별력 있는 공동체가 존재하려면 식별력 있는 개개인들, 식별력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식별력 있는 개인이 되려면 그는 반드시 기도하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 식별은 우리가 이 책 전반에 걸쳐 내내 역설했듯이 개인과 하느님과의 인격적 상호관계와 연관된 기능이다. 식별은 기도가 행동과 만나는 자리이다. 사람이 주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분의 표정을 읽고’ 그분이 우리가 해드리기 바라시는 바를 감지해내는 일은 그만큼 더 쉬워진다. 그러기에 해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기도하는 식별력 있는 개개인들이 못 되는 마당에 공동 식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 된다.

바로 이것이 1975년의 내 느낌이었고 짐 매켄도 그 느낌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생각되었다. 그는 나보다 훨씬 심오한 체험과 지혜를 지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더러 질문을 계속하도록 격려하면서 내 의구심들을 함께 탐구해나갔다. 그러나 그는 병들어 있었고 1977년 2월에는 급기야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쯤 그는 나에게 최대의 도전거리를 제공했으니, 나는 그 대신 식별 강좌를 떠맡아 가르치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둘이 함께 나누어온 생각들과 의문점

1. 이 미묘한 균형의 기본 원리들은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로」 3장에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책 1장도 참조.

들을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책 전체에 걸쳐 확연히 드러나고 있듯이 식별의 핵심적인 초점에 대한 나의 신념은 그 후 여러 해를 지나면서 확실해졌고 또 보장되었다.—그리고 사실 우리는 이 맺음말에 이르러서 비로소 공동 식별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식별에 관한 근거 있는 불안들을 표명하고 있고 심지어 ‘식별’이라는 말조차 거북하게 느끼기도 한다. 사실 식별은 자칫하면 집단의 대다수가 바라거나 주님이 바라실 것이라고 믿는 어떤 것에도 주님의 이름과 권위를 갖다붙이는, 이른바 ‘다수의 횡포’를 점잖고 그럴싸하게 부르는 칭호가 될 수 있다. 만일 그럴 경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식별’은 하느님을 조종하여 행동과 결정에 관한 우리의 신념(어쩌면 진지한)에 동의하도록 만드는 방편이 되고 만다. 하지만 3장에서 기술한 대로 순수한 식별의 전제조건들과 자질들이 식별하는 공동체의 개개 구성원들 속에 내재한다면—다시 말해서 그 구성원들이 마음을 활짝 열어 하느님의 뜻을 찾고 또 우리가 언급한 바 있는 모든 신앙-식별의 한계를 인식하는 성실하고 투신된 기도자들일 경우—공동 식별의 ‘기술’은 어렵지 않게 터득되고 또 활용될 수 있는 것이다.

공동 식별의 고전적인 사례라면 성이나시오 로올라의 초대 동료들이 자신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숙고하고 그 결과 예수회로 알려지게 된 수도 공동체를 하느님이 그들에게 조직하기 바라신다는 사실을 식별해낸 저 유명한 1539년의 ‘숙의(熟議)’가 있다. 그들이 거친 과정에 대한 최근의 여러 분석들 가운데서 내게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존 캐롤 퓨트럴(John Carroll Futrell, S.J.)의 ‘공동 식별: 체험에 관한 고찰’이다.² 퓨트럴은 이 공동 식별의 귀감적 체험을 분석

하는 과정에서 부각된 단계를 대략 일곱 가지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들 속에서 채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절차들도 기술해두고 있다.

기본적인 접근은 성이나시오가 말하는 훌륭한 선택을 위한 셋째 '시기', 또는 때에 관한 우리의 진술과 유사하다(4장). 필요한 자료들이 일단 수집되고 식별해야 할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면³ 다음 과정에서 기도 기간을 변경하는 일과 문제의 찬반 양론에 대한 통찰력들을 함께 나누는 일이 있게 된다. 그리고 끝으로 공동체 구성원 각자는 물러가서 기도하며 당면 문제에 대한 주님의 뜻을 (5장에서 7장까지에 기술된 위안과 고독 규범들을 토대 삼아) 감지하도록 노력한다. 만일 그들이 개별적인 식별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 다시 모였을 때 주님의 뜻에 대한 의견들이 '만장일치'를 보게 되면 공동체 식별은 풍성한 결실을 맺은 합당한 것이 된다.

공동 식별을 위한 선행요건들

퓨트럴의 논문은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

2. 「예수회 영성 연구」 제4권 5항(1972년 11월). 퓨트럴은 특히 각주 1과 16에서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참고문헌 몇 대목을 제시하고 있다. 줄리스 토너의 「영들의 식별을 위한 성이나시오의 제 규범 해설」(예수회 근원 연구소, 1982), 315-318쪽에 엄선하여 기술한 해제편도 참조하라.
3. 퓨트럴은 질문을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하라는 현명한 제안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질문은 이래야 한다는 것이다. “성비투스 고등학교를 폐쇄할까요?”, “우리(에드와 마리아)가 이혼해야 할까요?” 이처럼 초점이 뚜렷한 질문은 “성비투스 고등학교를 어떻게 할까요?”나 “주님이 우리(에드와 마리아)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처럼 모호한 질문보다 훨씬 식별의 효과를 높여 줄 것이다.

고 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식별의 ‘만장일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한 구성원이 공동체의 나머지와는 다르게 식별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의 상반된 식별로 인해서 그 과정이 무효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그 사람이 제대로 식별하지 못한 표시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예언자 역할을 하도록 부르심받은 표시로 보아야 하는가? 퓨트럴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면밀히 고찰하고 제기된 질문들에 답하는 데 필요한 지혜로운 지침들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그는 문제의 만장일치가 ‘머리 속에’ 있지 않고 ‘마음속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그것은 의견이나 생각의 전원 일치가 아닌, 이것이 역사의 이 시점에서 이 공동체에 내리시는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공통된 ‘느낌의’ 의식이라는 것이다. 우리가 식별하는 것은 느낌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은 개인적인 식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이유는 ‘이해하지’ 못한 채 어떤 것을 하느님의 뜻으로 ‘느낄’ 수가 있다. 우리가 앞서 지적했듯이 우리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한 이 신앙-감수성의 최고 사례가 바로 게썸마니이다.

각별히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으로 퓨트럴이 기술하는 공동 식별의 선행조건들이 있다. 3장에서 우리는 ‘모든’ 식별의 일정한 전제조건들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이것들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그 집단에 대한 주님의 뜻을 식별할 때 갖는 중요성을 퓨트럴은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 특수한 공동체적 상황에 필요한 또 다른 전제조건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공동으로 참다운 영적 식별 과정을 밟으려면, 설령 공동체의 개개 구성원들이 (또는 적어도 그들의 대다수가) 기도하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거짓 없이 식별하고 있다는 필수조건을 이미 갖추었다 하더라도, '공동체' 차원에서 일정한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자체가 이러한 전제조건들을 실제로 어느 정도나 충족시키고 있는지 반드시 솔직하게 확인해야 한다(167쪽).

퓨트럴은 효과적이고 참된 공동 식별에 필요한 선행요건 세 가지를 열거한다. 그러면서 이 선행요건들이 결여되어 있을 경우 그 공동체는 그저 '고통과 불안을 함께 나누는 공동 의식'으로 결합되어 있을 수가 있다고 말한다. 그 경우 공동 식별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공동체는 현재 상태에서 출발하여 고통과 불안이라는 대의 속에 작용하는 긍정적인 원동력과 부정적인 원동력 모두를 확인함으로써 의식적으로 공동의 영적 식별 전제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성장을 시작할 수 있다. 이때는 현대의 집단 역할에 대한 전문기술이 대단한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공동 식별에 필수적인 이 전제조건들이란 도대체 어떤 것들인가? 퓨트럴은 세 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친교', 즉 공통된 카리스마나 '성령께로부터 온 공통된 소명'의 나눔이다. 전체 그리스도인들에 있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네 삶의 귀감이자 주님으로 믿는 공통된 신앙이 된다. 그리고 예수회 회원들의 경우 이것은 그들이 성이나시오 로올라의 '아들들'이라는 공통 의식이 되며, 또 이 아들 직분은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그들의 사명과 생활양식 및 그들의 공동체를 특수한 형태로 규정한다. 마찬가지로 본당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있어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함께 부르시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가시적인 형태의 '교회'가 되

게 하셨다는 믿음 또는 확신이 될 것이다. 모든 경우에 상징은 이 친교 의식을 표현하고 심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로즈메리 호튼이 그의 고전적 작품 「인간의 변형」(London : Geoffrey Chapman, 1967)에서 보여주었듯이 함께 사는 공동체 생활의 상징적, '전례적' 영역은 '형성하는' 틀을 마련해서 그 속에서 변형하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든다. 이 형성적 또는 구조적 영역이 부재할 때 삶과 시각의 순수한 친교는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퓨트럴이 지적한 대로 우리는 친교상의 '공유된 비언어적 상징들'이 많이 무너져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수도 공동체의 생활구조들, 통일된 복장,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생활—이러한 공유된 비언어적 상징들이 많은 수도회의 경우에 순수한 '친교'를 열고 구현하는 힘이 결코 과거만 못하다. 현대의 도시화된 속세 생활도 유동성이 높아져 과거의 안정된 구조들을 깨뜨리는 경향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오늘날 이웃에서 이웃으로, 도시에서 도시로 훨씬 더 빈번하게 이동하고 있다. 설령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해' 있다 하더라도 일하는 장소가 (취미생활 장소까지도) 그들이 살고 있는 데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수가 많다. 보편적으로 변형력 있는 만남에 필요한 형성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일상적인 구조들, 작은 마을 또는 밀착된 공동체의 생활이 갖는 공유된 비언어적 상징들이 이제는 우리 삶 속에서 이전처럼 비중 있는 부분이 못 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퓨트럴이 공동체 식별의 첫째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는 “공통된 소명 안에서 의식적으로 함께 나누는 심원한 일치 체험”—함께 나누는 공통된 카리스마의 핵심적 체험—이 한결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퓨트럴의 둘째 전제조건이 절대적으로 필요

해지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둘째 전제조건은 ‘이 친교를 지금 이곳에서 말로 나타내는 기본적 표현에 관한 공동 합의’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온갖 특정한 식별의 시금석에 해당되는 공통된 카리스마를 함께 나누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거기에 덧붙여 이 카리스마에 대한 ‘기본적인 구두 표현’을 합의해낼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예수회 소속의 한 공동체가 예수회 회원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상호 수궁할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예수회 영성’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회 회원으로서 세세한 부분들까지 모두 의견일치를 보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그들은 사실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상황에다 자기네 카리스마를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적용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실제로 존 콜리는 “예수회 회원은 모든 작은 움직임에 완전한 독자성을 갖는다.”고 말한 것으로 아는데, 이는 내 체험으로 볼 때 진리에 매우 근접한 현명한 말이다. 하지만 우리 예수회 회원들은 각양각색인 상태에서 어떤 기본 원칙들에 합의할 수 있고 또 합의하고 있다. 아마 지극히 근본적인 원칙이라면 예수회 회원이 성이나시오의 「영신수련」으로 형성되고 그리하여 성이나시오 자신의 삶을 지배했던 하느님의 ‘보다 큰’ 영광을 추구하는 이나시오식 ‘마력(魔力)’에 몸 바친 사람이라는 것이다.—그리고 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에서 이나시오 자신이 이상적인 예수회 회원이 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내가 34년을 예수회 회원으로 살고 난 연후에 무엇이 나를 예수회 회원으로 만들고 있는가를 말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나오게 된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예수회 회원으로 만들고 있는가에 대한 이 표현이나 다른 어떤 표현에 의견일치를 보지 못할 경우 나는

내 형제 예수회 회원들과 더불어 오늘날의 우리 예수회 회원의 구체적인 생활 실천에 관해 식별을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퓨트럴의 요지이다. 마찬가지로 평신도 공동체든 수도자 공동체든 간에 모든 공동체는 자기네 카리스마에 대한 이 공유된 구두 표현을 오늘날의 공동 식별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들은 공동체 식별에 필요한 토대나 근거를 전혀 갖지 못하게 된다. 만일 그들이 공동된 근본 투신을 특정한 선택의 규범으로 삼지 않을 경우 그들의 토의는 철저한 혼란으로—그리고 심지어는 신랄한 공박으로—끝나고 만다. 이처럼 자신들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더불어 식별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그들을 애당초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주고 있는 핵심 비전에 합의를 이루는 일이 중요하다. 그들이 공동체를 이룬 까닭은 무엇인가? 그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명백히 규정된 목표와 가치관은 무엇인가?

친교를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구두 표현은 모든 표현이 갖는 의미처럼 역사의 순간순간에 따라 달라진다. 개개인은 자신이 합의된 표현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모두가 그들의 기초적 친교에 대한 원초적 표현을(선정된) 그 말을 통해 인식할 수 있고, 그 결과로 그들은 그것을 모든 공동 식별을 위한 규범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169쪽).

퓨트럴의 말마따나, 그가 열거하는 공동체 식별의 셋째 전제조건도 마찬가지로 필수적인 것이다. 그것은 ‘공동 식별을 통해 도달한 결정들을 실천에 옮기는 공동 투신’이다. 이는 간단하게 들릴지 모

르지만 사실상 세 전제조건 중에서 가장 난해한 대목이다. 이것은 심사숙고에 앞서서 성령께 ‘백지수표’를 드리며, 그분의 원의라고 확실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우리 자신을 거기에 우선 투신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식별의 분위기를 논하면서 지적했듯이 우리들 가운데는 하느님의 뜻에 따를지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하느님의 뜻을 알기부터 바라는 이들이 많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 당신이 좋아하실 일을 말씀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런 다음 우리 쪽 응답을 결정하는 것이다. 특히 성숙도가 낮고 그다지 깊이 투신하지 못한 기도자들을 대하면서 주님은 때때로 이같은 요구들에 일단 응하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응하고 계신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는 신앙이 나약하고 신뢰에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네 삶을 주님께 마음놓고 일임해도 좋은지 여부를 제대로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표이다. 그러다가 주님이 너무 어렵거나 대단히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어떤 것을 명하시면 어찌할 것인가? 설령 주님이 우리의 나약한 신앙을 수용하신다고 해도 그분은 우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재량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결단을 스스로 유보하고—또 통제하고—있는 까닭이다.

그러므로 식별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자면 퓨트럴의 말대로 공동체는,

사전에 진실로 투신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공동 식별을 통해서 도달하도록 감도하신 결심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어떤 대가를 치르거나 관계 없이 그 결심을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필수적인 ‘이나시오식 무심(無心)’⁴이⁴ 결여될 경

우 함께 식별에 들어가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공동체는 지금 여기에 있는 공동체로서 자체에게 내리는 실질적인 하느님 말씀을 식별하려 하는 것이며, 따라서 모든 이들이 성령께 온전히 마음을 열어서 심지어 전혀 예상치 못한 당혹스런 말씀에 대해서도 다 같이 “예,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169쪽).

이 세번째 전제조건이 실현하기 가장 어렵다고 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본다. 사실 이처럼 철저하게 하느님께 마음을 연 개인 영혼을 찾아보기란 대단히 힘들다. 하물며 전체 공동체가 이처럼 마음을 열고 ‘무심(無心)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훨씬 더 어렵다. 우리가 최근 몇 년 동안 진정한 공동 식별이 어렵고 썩 드물다는 사실을 목격하게 된 까닭도 어찌면 여기에 있다. 순수한 공동 식별은 공동체의 구성원 모두가 단일한 마음과 단일한 정신으로 하느님의 뜻을 갈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마음가짐은 매우 드문 것이지만, 그것을 달성하고자 하는 노력—및 우리네 실패 경험—자체만도 대단히 유익할 수가 있다. 하느님을 위해 자유로워지려는 첫걸음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일단 그같은 상태를 경험적으로 인식하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드는

-
4. 퓨트럴의 주석은 모든 순수한 성덕의 본질적이면서도 심히 오해되고 있는 측면인 “무심(無心)”의 정확한 의미를 선명히 밝혀주고 있다. 보통 이야기에서 무심하다는 것은 배려가 없다, 관심과 열성이 부족하다는 의미한다. 하지만 성이나시오(및 여타 많은 성인들)가 말하는 수덕적 무심은 전혀 다르다. 십자가의 성요한의 자유 또는 우리의 (무질서한) 욕망에서의 탈피나 마찬가지로(가르멜의 산길, 제1권) 이것은 뜨거운 배려나 같다.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병들거나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한 여성에 대한 뜨거운 배려에서 다른 모든 여자들한테 무심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수덕적 무심은 하느님의 사랑에 비할 때 다른 모든 가치들이 빛을 잃을 만큼 하느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인식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주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여러 가지 집착으로 인한 예측 상태에서 끌어내서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신다.

“내 백성을 자유롭게 하라”

그리스도교적 생활 속에서의 식별을 고찰하는 작업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이처럼 정신의 온전한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토의 전체에 부합되는 훌륭한 주제로 부상될 수 있다. 자유는 식별력 있는 사랑의 삶에 필요한 선행조건이자 동시에 그 삶에서 맺어지는 가장 풍요로운 결실이다. 그런데 성이나시오의 지적대로 우리가 항상 ‘어느 정도밖에’ 식별하지 못하고, 비록 점차 성숙되면서 더욱더 정확하게 식별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완전히 명확하고 확연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자유로워지고 하느님께 완벽하게 마음을 열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부자유를 그만큼 더 철저하게 깨닫게 된다.

처음에는 밀싹과 가라지싹이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밀이 자라고 가라지 또한 밀과 함께 자라나면서 둘 사이의 차이점이 보다 확연히 드러난다. 그리고 우리가 8장에서 지적했듯이 이 가라지들 중에는 뽑아내기에 역부족인 것들도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마침내 이것들이 가라지라는 것을 알아보고 주님께 풍성한 수확을 바치는 것을 최대의 소망으로 삼지만, 더없이 완강하게 버티는 이 원하지 않는 가라지들을 뽑아낼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진실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

자신이 마지막에 친히 둘을 갈라놓으실 추수때까지 가라지를 자라게 내버려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이처럼 사랑하고 사랑에 응답하는 온전한 자유를 언제까지나 실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영적 자유 면에서의 성장이 곧 식별력 있는 사랑 면에서의 성숙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표지라는 점은 여전히 사실로 남는다. 십자가의 성요한은 「살아 있는 사랑의 불꽃」 셋째 연에서⁵ 내적 성장의 강력한 적수 셋을 훌륭하게 진술하고 있다. 나는 이 대목을 해마다 다시 읽어보곤 한다. 요한이 악마와 자기 자신 이외에 세번째로 규정하고 있는 적은 다름 아닌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이다. 그는 악마와 자기 자신은 각각 몇 절로 서술하는 데 비해서 영적 지도자의 경우는 무려 30개 절을 할애하여 성장의 장애물로 정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말에 따르면 영적 지도자들이 피지도인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실로 해방시켜주지 못하는 까닭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는 피지도인들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곳 어디에나 따를 수 있도록 만들 만한 내적 자유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요한이 느끼기로 대부분의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복사판을 찍어내려고 덤빈다. 자기네가 거룩한 수의(壽衣)에 대한 신심에서 효험을 얻었다면 피지도인들 역시 하나같이 ‘수의 공경자’가 되어야 한다는 식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지도한다는 의미에서) 진짜 지도자이기는 해도 순수한 공동 식별자는 못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의 지도를 받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아주 많은 것 같다. 그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 손에 맹목적으로 내맡김으로써 안정을 찾

5. 성요한의 이 책은 두 가지 판이 있어 절의 숫자가 다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목은 개정판 29-67쪽에 실린 것이다.

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그들은 결코 성장하지 못하며 스스로 식별력 있고 감성을 가진 연인이 되지 못한다는 데 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은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는 성장의 크나큰 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뜻이 선함에도 불구하고 식별력 있는 사랑이 성장할 때 열매 맺는 순수한 내적 자유를 키워주지 못한다. 그들 스스로가 영성의 ‘요리책’에 예속된 노예인 것이며 제자들 또한 같은 요리책이나 진정한 요리책 해설가로서의 영적 지도자에게 매이는 노예가 된다. 그리하여 ‘거룩한 요리사’ 께서는 그들 안에서 당신의 창의력을 발휘하고 또 그들을 지극히 독자적이며 인격적인 사랑의 대화에 끌어들일 여지도 없게 된다.

십자가의 성요한이 쓴 이 대목을 내가 매년마다 읽는 까닭은 그것이 내게 각성제이자 억제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영적 지도자로서의 내 능력을 판단하는 궁극적인 저울은 내게 지도받는 사람들 속에 커져가는 영적 자유 그것이다. 수도회 웃어른이나 부모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고 본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목표는 어떤 의미에서 “장사를 그만두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제힘으로 서는 성숙되고 책임감 있는 사람, 외적 구조들을 이미 내화(內化)하고 내적 사랑의 법에 따라 살 줄 아는 사람을 형성시키는 데 있다. 식별력 있는 사랑의 삶의 진정한 의미도 결국 이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현세에서는 온전하고 완벽하게 성취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이것은 우리 노력의 목표요 이 책이 추구하는 것이다.

성바오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법이 필요치 않다고 말한다. 성아우구스티노는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고, 아벨라의 성녀 데레사는 “그대에게 깊은

감화를 주어 사랑하게 만드는 일이면 무엇이든 행하라.”를 유일한 기도 규범으로 제시하고 있다. 만일 여러분과 내가 지금에 와서 바오로와 아우구스티노와 테레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보다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면 이 책은 저자와 독자 모두에게 풍부한 결실을 맺어준 셈이다.

부록

실습문제

이제까지 각 장 말미에 실습문제를 제공하여 자기 성찰을 하도록 배려했었다. 1장 끝 대목에서 이야기했듯이 이같은 질문들은 내가 실시한 식별 과정에서 주제를 소화해내는 데 도움을 주었다. 식별이 기술이요, 실습을 통해 터득하는 실천적 기술이기 때문에 특히 그러했다. 나는 한 주간의 강의가 끝나면 학생들에게 그 주간을 위한 실습문제를 제시한다. 그러면 학생들은 주말 동안 그 문제를 생각하고 서면으로 답을 제출한다. 다음 주간 첫시간이면 학생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며 토의한다. 나는 그 중 한 그룹에 들어가지만 되도록이면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는 요점이나 학급에 도움이 될 만한 것에 관해 몇 가지 지적해주는 선에서 그친다. 그리고 다음 강의가 시작될 때 제기된 질문에 관한 내 나름의 '답변'을 제시한다.

이러한 형식이 내게 배우는 학생들한테 대단히 유익했던 것으로 생각된 까닭에 나는 이 책의 각 장 말미에 유사한 실습문제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내 나름의 답변을 진술할 것이다. 하지만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제시된 질

문이나 사례에 정확한 답이 하나뿐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내가 학생들이나 독자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의 체험과 사색에서 얻어진 결실이다. 하지만 질문을 보는 시각 또는 문제를 다루는 각도는 다를 수도 있다. 그러기에 나는 강의때 내 의견을 말하기에 앞서 실습문제에 대한 서면(書面) 답들을 수집하여 다음 강의 이전에 하나하나 낭독하고 그에 관해 논평하는 것이다. 과학실험이나 의료진단에 있어서도 다양한 접근법이 있을 수 있듯이 제시된 실습문제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단계의 식별자가 제공된 자료를 훌륭하게 감지하고 어떤 질문이 필요한가를 느낌으로 알며 밝혀진 사실들을 저울질하고 평가하는 꾸준한 인식적 접근 태도를 갖는 데 있다. 실질적으로 훌륭한 식별자는 훌륭한 탐구자와 같아서 사실을 판별하고 본질적인 것에 주의를 집중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살핀 바대로 그것은 결코 수월한 기능이 아니다. 본질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제부터 내 설명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에 시각의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제1장: 참된 예언의 표지들

우리의 첫번째 질문은 구약성서에서 도출해낸 참된 예언의 여섯 가지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우리가 1장에서 다룬 내용이다. 그 대는 이 여섯 가지 기준 가운데서 ‘오늘날’ 참된 예언자를 식별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는가? 맨 먼저 두 가지—행운보다 불운을 예언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표징들’을 예

언하는 것—는 유효하고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들이 가장 유익한 기준들은 못 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오늘날에도 사실 사람들은 ‘파멸의 예언자’보다도 기쁜 소식을 들려주는 자에게 더 쏠린다. 따라서 자신의 ‘선물’을 권력과 인기를 수중에 넣는 데 이용하는 거짓 예언자가 청중의 허영과 이기심에 영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진다. 그렇다고 불길한 소식이 단 하나 참된 예언의 명약관화한 표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청중 속에는 자학을 바라는 변태적 욕구를 가진 자들도 없지 않다. 그런 자들의 경우 부정한 예언자가 그들이 변태적으로 갈망하는 불운을 선포함으로써 권력과 영향력을 수중에 넣을 가능성이 (절대적은 아니라 할지라도) 매우 높게 된다.

우리가 7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악마 자신도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심지어는 신심적인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가 있다. 예수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표징들’을 당신에 대한 믿음의 토대로 제시하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엘리야 시대부터 사도들의 초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거짓 예언자들 역시 표징과 기적을 행하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인정을 받아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 기적은 결코 흔한 현상은 아니다. 내 기억으로는 실습문제에 언급된 인물들(간디, 마틴 루터 킹, 요한 23세)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예언적을 확인하는 기적들을 행한 적이 없었다고 알고 있다.

다섯째 기준과 여섯째 기준—하느님이 예언자로 부르셨다는 예언자 자신의 관념과 그 부르심에 대한 개인적 체험—은 예언자 자신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이 예언자말고는 다른 누구도 직접 목격하거나 체험할 수 없는 ‘내적’인 기준들이라는 데 있다. 우리는 자칭 예언자의 마음과 혼 속으로 파고들어가 볼 수

가 없기 때문에 그같은 기준들은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인물의 진실성을 판단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언자의 성실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주 예수께서 이미 강조하신 대로 이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그리고 그같은 예언자의 부름을 식별력 있게 따르거나 배격하기 위해 마땅히 판단해야 하는 것은—그가 우리를 위해 하느님의 대변자가 되었노라고 하는 주장의 진실 여부요, 우리가 그 부름에 따라 특정한 방법으로 행동하거나 반응해야 하는가 여부이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세번째 기준과 네번째 기준인 ‘이스라엘’의 기본 교의(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확인되고 완성된 계시)에 대한 충실성 및 하느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을 생활로 구현하는 존재로서의 예언자의 신뢰성 확인이다. 내 판단에는 이 두 가지 모두가 현대의 예언자 평가에 대단한 도움이 된다. 식별자로서 그리고 공동 식별자로서 내 자신의 체험을 깊이 숙고해본 바에 의하면 나는 전자의 기준, 즉 ‘이스라엘’의 계시에 대한 예언자의 충실성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에 이것은 생활증거 기준보다 더 객관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마틴 루터 킹 개인의 윤리적 생활에 관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할 수가 없지만 내가 볼 때 그의 메시지에 담긴 본질적이고 한결같은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가 우리 시대에 진정한 예언자 역할을 했음을 강력하게 입증해주고 있다. 그의 윤리 생활에 의문이 전혀 일지 않았다면 나는 더욱 확실하게 그리고 더욱 기쁜 마음으로 그의 편을 들 수 있었을까? 물론 그렇다. 하지만 식별은 결코 절대 확실할 수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확실할 수 있는

것으로, 세번째 기준과 네번째 기준이야말로 마틴 루터 킹이나 여타의 현대 ‘예언자’에 관해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데 가장 도움이 된다.

제2장 : 식별하는 예수와 요한

이 장에서는 실습문제가 두 가지 제시되었다. 첫번째 문제는 예수께서 당신 자신과 그 사명을 판별하시는 ‘그르칠 수 없는’ 식별에 관한 것으로, 예수의 유일무이한 식별이 내 자신의 식별 생활과 어떤 실제적인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관계가 있다고 믿는다. 우리가 ‘그르칠 수 없다.’를 틀림이 없다는 것으로 정의했던 점을 상기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 예수께서 비록 우리처럼 아버지가 당신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알아내야 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에 당신 마음을 온전히 열고 계신 까닭에 아버지의 뜻을 식별함에 있어서 결코 그르칠 수 없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으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예수의 삶 속에서(3장에서 다룬) 흠 없는 식별의 선행조건들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다. 그분은 성령께 ‘백지수표’를 맡겨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곳이면 어디로든 당신을 이끌도록 내 맡기신 것이다.

우리들은 대부분 현세에서 예수께서 하셨듯이 그토록 완벽하게 주님께 자기를 열 수가 없다. 그래도 그분의 표양은 귀감과 격려의 원천 양쪽으로 우리에게 지고한 중요성을 갖는다. 그분은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심으로부터 우리네 인간 처지를 알고 계신다. 그분은 임마누엘, 곧 ‘하느님-우리와-함께 계시다.’ 이시다. 순례하는 인생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서 신앙으로 생활하려고 몸부림치는 우리네 체험을 온전히 맛보기로 작정하신 하느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상으로 힘과 격려가 되는 것은 또 없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식별력 있는 사랑의 삶 역시 우리에게 귀감이자 이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은 진실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까닭에 이것은 ‘성취 가능한’ 이상이다. 악마는 하느님을 구름 속으로 밀어내고,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성스러우셔서 우리의 현실적인 인간 시련이나 연약함과는 도무지 무관하신 분으로 부각시키고자, 할 수 있는 일을 다할 것이다. 사실 이러한 악마적인 생각은 금세기 들어 상당할 정도로 성행하게 되었으니, 하느님은 곧잘 사람이 온전히 인간적이 되려면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압제적이고 전형적인 폭군으로 간주된 것이다. 하지만 우리처럼 살고 사랑하고 배우시는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을 위한 하느님의 구원적 사랑의 ‘성사’ 이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실로 깨닫는다면 하느님을 결코 소원하고 압제적인 분으로 체험하는 일은 없게 된다. 그분은 참으로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예수를 ‘순종하신 까닭에 영광스런 아들로 들어 뉘인’¹⁾ 바로 그 은총의 선물로 그분처럼 되도록 부르심받고 있고 또 그분처럼 될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성아우구스티노의 아름다운 표현대로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느님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여행 중에 만나고 있는 바로 이 희망, 이 본보기보다 더 ‘실제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옥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제때에 도움을 받기 위해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발견하도록 합시다.”(히브 4.16)

두번째 실습문제는 세례자 요한의 식별에 관련된 것으로, 그대가

만일 요한을 만날 수 있다면 요한 자신의 사명이나 예수라는 인물과 그분의 사명과 연관된 요한의 식별에 관해서 그에게 어떤 질문(들)을 할 것인가였다. 나의 경우 요한의 직분에 관련된 성서구절들은 많은 의문점들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일 요한이 루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듯이 정말로 예수의 사촌이었다면, 그리고 특히 마리아의 방문을 받고 그가 엘리사벳의 태중에서 뛰놀았다면 요한복음의 요한은 왜 성령이 예수를 알려주실 때까지 그분을 알지 못했노라고 말한 것일까? (1,31-34) 그리고 그는 어떻게 자신의 세례를 예수의 세례와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었던가? 요한은 정말로 사해 두루마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진 꿈란 공동체의 일원인 에세네파 사람이었던가? 그가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었고 또 그 기대에 입각해서 예수의 직분을 판단한 것은 아닐까?

그러나 내가 세례자 요한에게 묻고 싶은 질문의 하나는—내 자신의 식별체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마태오 11장(2-6)에 나오는 저 유명한 ‘의심’에 관한 것이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 자신은 예수의 메시아 신분을 정말로 의심해본 적이 없으며 그가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질문하게 한 것은 그들의 신앙을 강화시키는 데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태오의 기록을 보면 그러한 암시가 전혀 없다.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 그 기록은 세례자 요한 자신이 짊은 의혹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었음이 아주 선명히 드러난다. 예수는 요한이 당신에게 기대했던 대로 행동하지 않으셨던 것 같고 또 요한은 자신의 사목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실제로 가졌던 것 같다.¹ 그는 감옥에 갇혔고 자신의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할 처지

1. 이 점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간 뒤에 예수께서 군중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암시되고 있다. 예수는 요한의 엄격한 ‘예언자적’ 생활양식을 당신의 그것과 대비시켜

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실수 때문에 죽어야 한다고 어렵풋 이나마 느낀다면 그것은 낙심천만한 일임이 분명할 것이다.

내가 그 당시 요한의 진실한 느낌을 묻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의 체험—및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한 예수의 답변—이 우리에게 아주 중대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네 식별은 거의 언제나 시험적이고 개선 가능한 것이다. 성아우구스티노의 말마따나 우리는 ‘어느 정도’ 식별하는 것이며, 우리네 식별에 대한 최종 검토는 식별로 선택한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만일 요한이 정말로 의심했을 경우 불투명한 신앙의 투신이 그의 생활에서 드러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하신 예수의 답변—치유의 ‘표징들’, 가난한 이들에 대한 배려,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믿음(11,4-6)—또한 식별력 있는 사랑의 삶 속에서 어두운 순간들을 맞고 있는 우리에게 해주신 답변이 되기도 할 것이다. 나는 요한이 진정으로 의심하고 있었다고 믿으며 또 예수께서 당신의 기적들을 강조하신 것이 실제로 당신의 선구자에게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는 데 보탬을 줄 수 있는 최대의 증표였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는 요한 자신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었다면 아주 좋고 또 아주 확실했을 것이다.

제3장 : 내 자신의 삶 속에서의 식별

3장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삶 속에서의 식별의 위상을 다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11,19). “인자가 와서는 먹고 마시니까 ‘보아라,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구나.’ 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의 생활양식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과 상반되었을 공산이 크다.

우리가 거기에서 각별히 지적한 것은 식별의 ‘분위기’ 즉 어떤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서 하느님의 뜻을 순수하고 효과적으로 식별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들과 필수적인 마음 자세들이었다. 실습문제가 그대 자신의 삶 안에서의 어떤 특수한 식별 상황을 묘사하라는 것인만큼 나로서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보편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자신이 진술한 사례가 제대로 초점이 맞은 것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그 사례가 식별을 꼭 필요로 하는 것이었던가? 다시 말해서 식별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중요한 입장에 있었는가? 그리고 진실로 하느님의 뜻이 불투명한 상황 또는 경우였던가? 앞으로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때때로 결정을 내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식별하려고 덤비기도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를 예로 들면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자신에게 수도 성소가 있는지 아니면 사제 성소가 있는지 식별하도록 도와달라고 청하는 때이다. 문제 자체는 분명히 식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지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문제를 함께 나누다보면 나는 하느님의 뜻이 이미 자명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들을 대하게 된다. 부족한 것은 하느님이 요구하시는 바를 실천에 옮길 용기와 믿음 그것이다.

그대 자신의 체험으로 떠올리는 상황이 식별이 꼭 필요할 만큼 대단히 중요했고 또 분명히 불투명했다면 다음에는 식별해야 할 바로 그 문제에 명확히 초점이 맞은 것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식별은 행동을 명하는 것이요, 기도와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이 만나는 교차점이다. 레티는 공동체 안의 ‘행동주의자’ 집단에 가담할 것인지 여부를 묻고 있다. 그리고 조는 신학교에 그대로 머물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신학교를 떠나 곤경에 처한 가족을

도와야 할지, 여부를 알고 싶어한다. 에드와 마리아는 자녀들을 위해서 갈라서야 할지 아니면 함께 계속 살아야 할지 양자택일을 해야 할 입장이다. 그렇다면 그대 자신의 식별 문제도 그와 다름 없이 선명하고 특수한 것인가? 만일 문제가 지나치게 모호하다면,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뒤범벅이 되어 있다면 효과적인 식별은 아주 어렵게 된다. 맺음말 부분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공동 식별과 관련시켜 살펴본 바 있다.

실습문제는 또한 순수한 식별에 필요한 전제조건들과 필수적인 자질들 중에서 그대 자신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세 가지 전제조건 및 세 가지 필수적인 자질을 그대의 개별적인 상황에다 적용하게 되면 효과적인 '양심성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자기 자각은 비단 식별에만 아니고 모든 순수한 내적 생활에도 결정적인 토대가 된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직시하기란 항상 쉽지만은 않은 까닭에 '내면의 그대'를 아는 친구나 영적 지도자에게 그대를 어떻게 보는지 물어봄으로써 자기 평가를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상대방이 그대에게 결여되어 있거나 미흡하다고 느끼는 자질과 선행조건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단히 계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제4장: 레티 수녀에게 충고하는 일

4장은 성이나시오가 제시하는 훌륭한 선택을 위한 세 가지 시기 또는 경우를 논하고 있는 까닭에 이때의 실습문제는 3장에서 마주 대한 레티 수녀한테 그대라면 어떤 충고부터 하겠느냐고 물었다. 그

녀는 이제 막 첫서원을 했고 또 자신이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확신이 서 있지 않은 젊은 수녀이다. 이제 는 명확해져 있기를 바라는 바이지만 그녀가 최초로 자기 문제를 그 대에게 제시하면서 수도회를 떠나야 할지 아니면 그저 웃어른들한테 복종하면서 일체의 질문을 삼가해야 할지 물어왔을 때 그대가 그녀에게 충고하는 것은 대단한 실수가 될 것이다. 그대는 그녀에게 선익한 충고를 주고 있다고—제기된 문제에 관해 ‘그대의’ 사려 깊은 의견을 그녀와 나누고 있다고—생각할지 모르나 그대는 하느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판단하는 공동 식별자요 해석가로서는 분명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하느님의 뜻이 (그녀가 고려하고 있는 양자 가운데 한쪽이 명확히 죄 되는 것일 경우처럼) 확연하고 선명하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그대가 할 일은 그녀가 자신의 느낌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서 그런 느낌을 통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독하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하느님의 뜻에 대한 표지로 판독하는 방법은 5장과 6장 및 7장에서 고찰했지만 4장에서도 우리는 이미 레티 수녀의 감정을 간과한 채 단순히 그녀가 해야 할 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질문의 후반부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셋째 (혹은 사추) 시기’ 결정을 위한 성이나시오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당장’ 그녀한테 제안하는 것 역시 현명하지 못하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셋째시기는 하느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우리 감정이 그분의 뜻을 판별하는 데 아무런 길잡이도 제공하지 않을 듯싶은 ‘정적의 시기’이다. 그런데 레티 수녀의 경우는 식별에 필요한 감정이 전혀 없는 그런 입장과는 처지가 아주 다르다.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오로나 마태오 같

은 사람이 맞본 ‘첫째 (혹은 계시) 시기’의 명확성이 레티 수녀의 체험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녀가 이 문제를 기도에 부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이나시오가 둘째시기를 묘사하면서 언급하는 것과 같은 ‘영들’의 다양한 움직임들이 존재했다면 우리로서는 식별할 문제가 주어진 셈이며 따라서 이후 세 개의 장을 통해 논의되는 규범을 적용할 필요가 있게 된다.

레티 수녀가 그같은 감정을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의 뜻에 관해 결단을 내리기 위한 이나시오의 셋째시기 방법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우선 레티 수녀가 자신의 체험 전체를 함께 나누도록 그냥 놓아두는 일에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연 그녀는 이 문제로 기도를 바쳐왔는가? 만약 바쳤다면 그녀가 주님께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는 답변은 무엇인가? 받은 영감이 때에 따라 서로 상충된다고 할 때 우리에게는 합당한 식별에 필요한 원료를 구한 셈이며(이나시오의 둘째시기), 따라서 뒷장들에서 논의될 규범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아무런 영감이 없고 ‘영들’의 그 어떤 움직임도 없다고 할 때 우리는 레티 수녀한테 성이나시오의 셋째시기를 위한 방법들을 제안해도 된다.

제5장 : 근본적인 선택과 우리의 감정

5장은 성이나시오의 식별 규범들을 우리에게 소개했다. 거기에서 다루어진 부분은 첫째주간 규범들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식별과 관련을 갖는 영혼의 기본 상태들이 다루어졌다. 두 가지 중요한 핵심이 강조되었으니, 그것은 하느님의 전략과 악령의 전략을 결정하는

우리의 ‘근본적 선택’의 중요성 및 모든 식별의 원료가 되는 위안과 고독의 두 가지 감정 상태가 갖는 의미였다. 그리고 실습문제는 이 두 가지 기본 핵심을 그대 자신의 체험에 입각해서 고찰해보도록 당부하였다.

우선 첫째, 그대는 자신의 근본적 선택이 ‘하느님을 택하는’ 것이고 따라서 위안은 당연히 하느님의 음성이 되고 고독은 악령의 음성이 되는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결국 이 질문은 ‘내가 살아 있는 신앙을 지니고 있는가?’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가 은총의 상태, 살아 있는 신앙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성서와 교회의 전승을 통해 알고 있다. 우리는 자신이 은총 안에 있다고 믿고 또 그러길 바란다. 하지만 하늘나라를 예감하게 하는 하느님의 각별한 선물이 방해를 받는 현세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떨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불안의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것은 분명하게 보지 못하고 신앙으로 사는 그 본질적 의미를 이야기할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표징들’이, 우리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감지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그분을 향하는 우리의 욕구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우리의 갈망이 바로 그같은 표징이다. 은총이 우리네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바랄 수도, 그분의 뜻을 행하고자 열망할 수도 없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려고 하는 지속적이고 한결같은 욕구는 곧 우리가 ‘은총 안에’ 있다는 훌륭한 표지이다. 물론 이러한 욕구는 차례 차례 구체적인 형태 —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감지하는 감성, 어려운 시련과 마주쳐서 신뢰를 키워가는 성장, 「샘이 마를 때」 2장에서 기술한 온갖 ‘화초들’ — 로 스스로를 표출하게 된다.

이 실습문제 후반부는 그대가 그대의 감정을 쉽사리 감지하고 ‘이름 붙일’ 수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이런 일은 자신의 실제 감정을 억제하거나 억누르며 성장해온 사람들한테는 특히 어려워진다. 나는 두 가지 문화, 즉 필리핀 문화와 미국 문화 속에서 생활한 적밖에 없으며 이 둘마저 많은 면에서 서로 달랐는데, 내가 곧잘 이야기하는 것은 이 두 문화 속에 저마다 대단한 감정 억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 소년은 울지 않는다. 필리핀 소년 소녀들은 외톨이가 될 소지가 있는 말이나 행동은 일체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체(pakikisama)의 기대에 순응하는데 그 결과 범죄도, 뛰어난 소질도 함께 위축당한다. 서로 다른 여러 문화권 출신 사람들을 상당 기간 지도해오면서 나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자신의 실제 감정을 거짓 없이 대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고 믿게 되었다. 오래 살면 살수록 나 자신도 역시 그렇지만 사람들이나 사건들을 대하는 반응이 더욱더 불가사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 우리가 진실로 성숙해 있으면 보다 깊은 자기 자각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그렇듯이 우리는 보다 훌륭한 식별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건전한 자기 회의 또한 그 성숙에서 얻어지는 중요한 결실이 된다. 그러기에 영적 지도—우리를 ‘외부에서’ 조망할 수 있는 사람의 객관적인 견해—는 언제고 성장에 투신한 영혼들에게 유익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이다.

제6장: 욕의 고독과 우리의 고독

6장 맨 끝에서 우리는 고독에 관한 질문 두 가지를 제기하였다.

첫째 문제는 고독의 세 가지 원인 중에서 욕기의 주인공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확정하는 문제였고 둘째 문제는 그대 자신이 겪은 중요한 고독 체험을 되새기고 그대가 그 체험을 6장에서 제시된 규범에 비추어서 얼마나 훌륭하게 대처했는지 성찰해보라는 것이었다. 후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고독이 모든 확고한 신앙생활에 정상적이고 건전한 일부분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생전 심각한 고독을 체험해본 적이 없노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온실'에서 자랐거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감지하지 못해왔거나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 고독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고독은 우리가 마른 샘에서 또는 어두운 밤에 오랫동안 단련받지 않는 한 통상적으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이 점에 있어서 욕의 체험은 교훈과 위로를 주고 있다. 우리가 이미 보아온 대로 그는 야훼의 탁월한 종이었다. —야훼께서 보시기에 지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사탄이 고독으로 시험하자 그는 일순간이나마 비틀거린다. 다행히 그는 하느님의 혹독한 심판에 덮어놓고 승복하고 자기도 모르는 죄를 고백하라고 다그치는 친구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느님이 자기를 저버렸다는 결론을 내리고, 한때는 주님께 자기를 죽여서 이 처지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욕의 고독은 욕 자신의 태만이나 죄에서 기인된 것이 아니었다. 독자인 우리는 이야기 처음부터 이 사실을 알게 된다. 욕도 그 사실을 믿는다. 그렇다면 그가 고통을 받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욕기의 저자는 1장에서 욕의 사랑과 충실성을 입증하도록 —욕이 율리할 때만의 야훼 친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도록 —하느님이 사탄에

게 욱을 시험하도록 허용하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욱의 영혼의 ‘현재’ 상태에 대한 시험만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한다. 사탄의 의도가 무엇이었던지 간에 그 시련은 정화하는 불꽃이 되어 욱의 사랑을 정제하여 죽음보다 더 강하게 만든다. 그래서 욱기 끝에 가면 욱은 하느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다. “이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을 영문도 모르면서 지냈었습니다. …당신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 말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42,3.5) 이것이 바로 성이 나시오가 하느님께서 고독을 허락하시는 까닭으로 제시한 두번째 이유, 곧 ‘강철을 불로 제련하듯이 우리네 사랑을 정제하는’ 아름다운 표본에 해당된다.

이나시오의 세 번째 이유—모든 것, 모든 위안이 우리의 공로로 취득할 수 없고 조작할 수도 없는 순수한 선물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는 욱의 이야기 속에서는 확실하게 명시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나는 두 번째 이유와 세 번째 이유는 통상적으로 함께 어우러진다고 믿는다. 다시 말해서 투신한 독실한 영혼에게 있어 고독은 그들로 하여금 풀려 떠다니도록 가르치면서 동시에 그들의 사랑을 정화하고 변형한다는 것이다. 우리네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과 본능은 사실상 우리 안의 가장 중대하고 가장 뿌리 깊은 ‘불순물’이다.

이 점에 대한 암시가 욱기 후반부에 나온다. 38장 첫머리에서 하느님은 욱에게 “좋다. 너는 내게 물을 만큼 물었다. 이제 내가 너한테 물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러고 나서 창조계의 경이들—하늘의 별들, 지중해에 사는 거대한 짐승, 새끼를 낳은 산양—을 열거하면

서 “이런 놀라운 것들이 어떻게 하여 생겨났느냐? 그렇게 세상물정을 잘 알거든 말해보아라.” 하고 거듭 다그치신다. 온유하고 애정어린 반어적 표현의 요지는 이런 것이다. ‘옴아, 너는 우주의 신비를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너를 다루는 방식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느냐? 내가 너를 저버리고 배척했다고 어찌 말할 수 있는 것이냐?’ 옴이 당한 고난의 의미조차도 그의 이해능력과 조작능력의 범주를 벗어나 있다. 그러니까 옴을 정화하는 시련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곧 선물인 것이다.

제7장 : 생서적인 위안들

7장에서 우리는 위안을 식별하는 정교한 기술에 관해 고찰하였다. 미리 있을 원인이 없는 위안이 하느님한테서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이다. 그런 위안은 감지할 수 있는 사전 원인이 있는 위안에 비해 발생빈도가 훨씬 낮지만, 일단 나타날 때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로부터 나오게 된다. 실습문제에 언급된 위안들을 볼 때, 눈을 뜨게 된 소경의 기쁨(루가 18,43)과 나무에서 내려 오라는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자캐오의 기쁨(루가 19,6)은 모두 ‘이전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쪽 체험 속에서 뱀꼬리의 흔적은 전혀 없지만—양쪽 모두 시작과 중간과 끝이 좋아 보이지만—각각의 경우 위안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치유적 만남이라는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자캐오와 소경이 맞본 위안은 사전의 감지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순수한 위안이라 할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요한복음 6장(1-15)에 나오는 빵의 기적 이야기에서는 뱀꼬리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여기서도 예수를 ‘예언자’요 메시아로 환호하는 군중의 갈채 속에 위안이 깃들어 있고(6,15), 또 예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빵과 물고기를 많게 하셔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다는 감지할 수 있는 사전 원인도 존재한다. 하지만 결론 부분(6,15)에 가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라는 말 속에 충돌이 암시되고 있다. 기적은 대단히 순수했고 예수께서 행하신 것인 반면에 이 체험의 ‘끝’은 결코 좋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악령은 하느님의 역사(役事) 속에 제 몸을 밀어넣게 마련이다. 이 경우에 그랬다는 사실이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에서 당신을 따라잡은 군중에게 하신 말씀에서 확인되고 있다(6,26-27). 예수는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당신을 찾는 것은 ‘표징’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같은 장 맨 끝에 나오는 베드로의 체험은 감지할 수 있는 원인이 없는 순수한 체험으로 보인다. ‘성체성사 강론’에 해당하는 이 장 전체는 예수의 제자가 될 만한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도전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에 담긴 신앙의 요구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점차 떨어져나가고 마침내 열둘만 남게 된다. 남은 그들에게 예수께서 “여러분도 물러가고 싶습니까?”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물러가겠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고 대답한다. 베드로의 강렬한 신앙이 특히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감지할 수 있는 사건의 원인도 없는 상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감지할 수 있는 원인들—군중과 바리사이파 사람들과의 갈등, 영문 모를 예수의 강경한 말씀, 예

수께 귀 기울이던 이들 모두가 떠나간 일—은 하나같이 베드로에게 고독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더 컸다. 그리고 이 점은 “우리가 누구에게로 물러가겠습니까?”라는 물음 속에 반영되고 있다. 베드로가 결코 예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감지할 수 있는 고독한 온갖 여건들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또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제8장 : 오늘날의 가라지들

8장에서 제시된 실습문제는 우리가 고찰해온 가라지들—세상, 육체, 악마—가운데서 어느 것이 오늘날 주님의 추수밭에 가장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고 보느냐 하는 것이었다. 나는 언제나 그렇듯이 지금도 이 세 종류 모두가 무성하게 살아 있다고 말해야 한다고 본다. ‘세상’, 즉 영혼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세속 문화가 갖는 가치들은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다양하다. 하지만 그것들은 언제나 투신할 그리스도의 제자에게는 문제가 된다. 적어도 제1세계 문화에 귀속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시대는 과학과 성공 및 자수성가한 사람의 열심한 노력을 높이 사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가 선익한 것들이지만 자칫하면 지나치게 과장됨으로써 하느님과 신앙이 들어설 여지조차 없어지고 만다. 이 점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인 제1세계와 마르크스주의인 제2세계가 실로 아주 기묘한 잠자리 친구가 될 수 있다. 사회조직 형태에 관한 한 철저하게 다른 시각을 가지면 서도 양쪽 모두가 우리네 삶의 신적 영역을 개인의 자아완성과 무관하거나 위험스런 장애물로 간주하기까지 한다. 제3세계의 경우 문

제는 다룰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끼고 사는 가난과 좌절을 감안할 때 유토피아적 인류관은 그다지 설득력을 갖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3세계가 참된 신앙에 보다 호의적일 수밖에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미신과 숙명론 및 내 자신의 고충들 일체를 다른 사람(또는 어떤 비인격적인 제도)에게 덮어씌우려는 경향 등은 마찬가지로 주님 정원의 가라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육체, 이기심 그리고 본능적인 욕욕이라는 가라지가 오늘날 무성하게 피어나고 있음은 구태여 입증할 필요조차 없다고 본다. “될 대로 되라.”, “네 일이나 해라.”, “항상 첫째가 되라.” 같은 오늘날의 사회풍조는 거의 모든 사회에 만연되고 있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흐르든 간에 그 감정을 따르는 것은 비단 흥미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존중되고 있다. 자제와 건실한 투신과 충실은 호감을 얻지 못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인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잦다. 내 자신도 육체의 매력이 보다 억압적인 이전 시대에 비해 오늘날 더 비중이 커진 것도 아니라고 느끼며, 관용이 사회적으로 암전을 빼도록 강요되던 과거보다 더 불건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지 않는 상당수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우리네 성(性)의 혁명이 육체라는 가라지를 진정으로 뿌리 뽑지 못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겠다.

악마는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세상과 육체를 통해 활약하면서 목적달성을 꾀한다. 그렇다면 성서상의 세 번째 가라지가 악마라고 할 때 과연 악마는 세상과 육체에다 무엇이 더 추가된 것인가? 우리는 인간들의 영혼에—종교적 현상을 통해서, 내적 기도 속에서 등—작용하는 악마의 활동을 ‘세 번째 세력’, 주님의 추수밭에 기생하는 세 번째 가라지라고 지적했다. 루이스(C.S. Lewis)가 말하고

있듯이 악마는 자신이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신시키는 데 다시 없는 대성공을 거두는 경우들이 있다. 그같은 속임수는 우리가 위에서 진술한 세속화된 자연주의적 문화양식 속에서 각별히 효험을 발휘한다. 그런가 하면 악마는 자신과 자기 능력에 대한 (그리고 또한 하느님과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왜곡된 관념들을 제시하여 두려움과 미신을 유발하고 복음 속의 ‘착한 목자’와 우리의 순수한 만남을 차단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보다 ‘원시적인’ 사회에서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데,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들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의구심을 품게 된다. 과연 그같은 장면 묘사가 관객들에게 초자연과 하느님 또는 사탄에 대한 어떤 관념을 심어주게 되는가? 어떤 관객들은 끔찍이 놀랄 수도 있겠고 어떤 관객들은 이야기 전체를 환상적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해버릴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사탄의 힘에 대한 그같은 묘사는 관객을 참된 식별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도록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세 가지 가라지에 관한 이야기는 훨씬 길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모두가 현재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는 데는 이 정도의 간략한 고찰로도 충분할 수 있다. 그대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성하게 번져 있는 가라지가 그 가운데 어느 것이냐 하는 문제—이것이 실습문제의 둘째 부분이다—는 그대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대가 답변할 수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하다. 아무런 가치도 없으면서 수확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는 가라지는 자기 기만, 곧 하느님 면전에서 우리의 진실한 상황을 대면하여 알고자 하지 않는 자기 기피뿐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식별력 있는 사랑에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추수의 주인께서는 남아 있는 가라지

들을 선익한 것으로 변화시켜주실 것이다.

제9장 : 식별력 있는 사랑과 겸손

마지막 실습문제는 식별력 있는 사랑의 습성과 성이나시오가 말하는 그 유명한 겸손의 셋째 단계(또는 종류)에 관해 묻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후자는 이나시오가 이야기한 봉사의 신비로 전체의 최고봉으로 불리워왔다. 하지만 이것은 가장 성실한 기도자들도 수용하기 아주 어려운 수모와 모욕과 가난을 애써 간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대다수의 피정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피정을 지도하고 또 내 자신의 피정을 통해 이 셋째 단계의 도전에 직면해오면서 나는 이나시오의 실질적인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모욕과 비난을 갈망하는 것은 피학대음란증의 발동에 해당되며, 더군다나 그런 욕구를 영신수련 전체과정의 절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이다.

영신수련은 관대한 영혼을 온갖 왜곡된 집착에서 해방시켜 자기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발견하고 따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본래 의도가 있다. 30일 피정 ‘첫째주간’이 끝나면 영혼은 주님 면전에서 발가벗은 상태가 되어야 한다. 영혼은 자신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철저하게 정직하고 겸손한 상태로 그분 면전에 설 수 있어야 한다. 영신수련의 핵심부분인 ‘둘째주간’은 그리스도로 충만되고 주 예수를 입고 자신을 그분의 모습에 따라 재조형함으로써 그분의 가치관과 자세가 바로 내 가치관이요 자세가 되게 하는 시간이다. 이나시오가 겸손의 세 가지 단계를 철저하게 묵상하도록 당부하는 때가 바로 이 둘째

주간이 끝날 때이다. 그리고 그 중 세 번째 단계가 대단원을 이루게 된다. 이것은 영혼이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 열망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제시하고 있다.

「영신수련」의 역동성에 대한 이 설명에 비추어서 본문을 (실습문제에 인용되고 있듯이) 다시 살피면 중요한 부분은 ‘그리스도처럼…그리스도와 함께…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사실이 분명해진다. 나는 가난과 모욕 그 자체를 갈망하지 않으며 고행의 이상으로도 보지 않는다. 계셰마니 동산의 기도에서도 나타나듯이 예수께서도 그런 원의를 가지신 적이 없었다. 그분이 바라셨던 것은 다만 무슨 대가를 치르고 어디로 끌려가든 간에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이었다. 셋째 단계에서 우리도 동일한 갈망을 갖는다. 즉 예수와 함께 하며 그분이 어디로 가시거나 그분과 하나가 되고자 열망한다. 롯기 1장에 나오는 말씀, “당신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습니다.”야말로 겸손의 셋째 단계를 훌륭하게 표현해주고 있다고 본다. 롯은 낮은 땅에서 영원히 과부로 살고 싶어하지 않았으며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평생을 같이 살고자 하였다.

바로 이것이 영신수련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겸손의 셋째 단계이다. 식별력 있는 사랑의 습성에 대한 우리 이야기와의 관계는 이미 명확해졌을 것이다. 주님에 대한 이같은 습관적 감수성이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고, 그분을 삶의 주축이자 전체 의미로 여기고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가난, 모욕, 성공, 영광 등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전부이다. 그에게 ‘어떻게’는 ‘무엇’보다 훨씬 중요도가 낮은 것이다.

이는 실로 위대한 사랑이며, 이런 사랑을 지닌 사람은 완벽한 사도

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랑을 실현할 능력이 없다. 우리는 식별력 있는 사랑의 습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이나시오도 우리는 '선택받아' 셋째 단계의 겸손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라는 말로 이 점을 확인하고 있다. 이 겸손은 순수한 선물—하느님의 선물—이다. 하지만 내가 항상 피정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듯이 이 선물을 진정으로 갈망하지 않는 한 요구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죽음에 임하고 계시며, 따라서 우리가 진지하게 구할 경우 그분은 당신 선물들 가운데 가장 완벽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것이다.